

국역 승총명록

-2-

구상덕 지음

경상남도 고성군청

한국학중앙연구원

을묘년 1735년(영조11)

1월 대월(大月).

1월 1일(임신) 어제 저녁에 눈이 내리다가 비로소 개더니 곧바로 녹았다. 밤이 되자 별이 빛났다. 인정(人定)¹이 지난 뒤에 많은 눈이 어지럽게 내렸다. 첫 새벽에 북풍이 불더니 아침에 동풍이 불었다. 닭 울음이 13, 14차례 들렸다.

1월 2일(계유) 많은 눈이 어지럽게 내렸다. 산과 들판을 바라보니 은빛 세상이었다.

1월 3일(갑술) 해가 나왔다.

1월 4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5일(병자) 저물녘에 구름이 끼고 동풍이 불었다.

1월 6일(정축) 비가 내렸다.

1월 7일(무인)추웠다. 상사(上使)가 박명수 친족들을 불러 통영(統營)에서 모두 곤장을 쳤다.

1월 8일(기묘) 흐렸으나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월 9일(경진)

1월 10일(신사)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월 11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읍에 들어가 박문수(朴門受)의 친족들을 위문하고 무기정(舞妓亭)²에 묵었다.

1월 12일(계미) 구름이 짙게 끼고 찬바람이 불었다. 밤이 되자 하늘이 맑았다.

1월 13일(갑신) 해가 나왔지만 북풍이 불어 추웠다.

1월 14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 인정(人定) :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는 시간으로 밤 10시경을 말한다. 이 시각에 종을 울려 통행을 금지시켰다.

2 무기정(舞妓亭) : (지명)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이다. 무기산(舞妓山)이라고도 하며 고성현 북쪽 2리에 있다. 전설에 옛날 고주자사(固州刺史)가 기생들을 데리고 가무(歌舞)를 즐겼다고 하여 '무기(舞妓)'라고 이름하였다. 구상덕은 이 곳을 자주 지나거나 유숙하였다. 1757년 1월 23일자 기사내용에 무기정에서 큰 화재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1월 15일(병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대보름달이 조금 아래에서 떴다.

1월 16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는 구름이 끼었다.

1월 17일(무자)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밤에 호랑이가 개를 쫓아 사립문까지 이르렀다.

1월 18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9일(경인) 북풍이 불어 추웠다. 일대(日大)가 태독(胎毒)으로 인한 종기 때문에 침을 맞았다.

1월 20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1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2일(계사) 갑자기 따뜻해졌다.

1월 23일(갑오)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월 24일(을미) 조금 따뜻하였다.

1월 25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6일(정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월 27일(무술)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1월 28일(기해) 오후에 구름이 걷혔다.

1월 29일(경자) 구름이 끼었다가 맑았다가 비가 내리다가 하였다.

1월 30일(신축) 동풍이 불고 해가 나왔다.

2월 소월(小月).

2월 1일(임인)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2월 2일(계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왕세자가 지난달에 탄생하여 통제사(統制使)가 하례 전문(箋文)을 올리게 되었으므로,³ 나는 밤에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3 왕세자가 …… 올렸다 : 왕세자는 장조(莊祖, 1735~1762)를 말한다. 장조는 1735년(英祖11) 1월 21일에 집복헌(集福軒)에서

2월 3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통영에 머물렀다.

2월 4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새벽에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2월 5일(병오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6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삼성(參星)이 달 뒤편으로 떨어졌다.

2월 7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8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9일(경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한밤중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2월 10일(신해) 따뜻하였다.

2월 11일(임자) 저녁이 되자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윤필(潤筆)로 여중 옥단(玉丹)을 샀다.

2월 12일(계축)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늦산(麓山)을 데리고 남해(南海)에 가서 돈빛을 받기 위해 사천(泗川) 삼천(三千) 도청소(都廳所)에 묵었다.

2월 13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진주(晉州) 선창(艚倉)에 이르러 완전하고 튼튼한 배를 구해 늑도진(勒島津)⁵을 건넜다. 조수가 물러나는데 말처럼 빨랐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읊조렸다.

역양의 한 그루 오동나무	嶧陽有孤桐
천 길 언덕에 뿌리내렸나니	托根千丈岡
아득한 옛날부터 싹 틔우고 자라면서	生成自太古
온갖 풍상 이겨내고 혼자 노래하였다오	淅瀝凌風霜

또

찌는 더위에 괴로워한 것이 바로 어제인데 昨日苦炎燠

탄생하였으며, 모친은 영빈 이씨(暎嬪李氏)이다.

4 午 : 원문에 '子'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5 늑도진(勒島津) : 경상남도 사천시 늑도동에 있다. 시청에서 남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주위에는 마도·초양섬·신섬·딱섬·학섬 등이 산재해 있다.

오늘 아침엔 어느새 추위에 떨며 오슬오슬 今朝忽淒溼
 찬 서리 내려 온갖 초목 시드는 계절 霜露衆卉腓
 세월은 망아지가 틈 지나는 것 같아라 歲月如駒隙

진두원(津頭院) 고지기 집에서 아침을 먹고 창선(昌善)⁶을 지나 지족암진(知足岩津)을 건넜다. 저녁에 남해읍(南海邑)에 들어가 남문 밖 이석삼(李石三)의 집에 묵었다.

2월 14일(을묘) 서풍이 불어 땅을 휘감아 도니 날씨가 매우 추웠다. 뱃노래를 듣고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내가 듣건대 왕자 진이라는 사람이 吾聞王子晉
 구지산(緜氏山) 정상에서 소요할 적에 逍遙緜山巔
 피리 부는 소리가 천상에 사무치고 笙聲徹寥廓
 백학을 타고서 경쾌하게 날아다녔다나 白鶴飛翩旋

그대로 남해읍(南海邑)에 유숙하였다.

2월 15일(병진) 온화하였다. 남해(南海) 청해관(淸海館)에 올라 뛰어난 경치를 감상하고 그대로 이석삼(李石三)의 집에 묵었다.

2월 16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기로소(耆老所)의 세금 수취가 매우 각박한 것을 보고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세상 인연 오래전에 이미 떨쳐버렸으니 冥筌久已排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도 상쾌하였으리 冷然無憂患
 아래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어수선하였을까 下視何茫茫
 아침저녁 사이의 하루살이와 같았겠지 蟻蠓朝暮間

그대로 머물렀다.

2월 17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돈 4냥을 받아 돌아왔다. 저녁에 늑도진 두포촌(頭浦村)에서 저녁을 먹었다. 달빛을 맞으며 바다를 건너 진주(晋州) 선창(艚倉)에 묵으니 대장(代將)은 바로 정만장(鄭萬章)이라는 사람이었다.

2월 18일(기미) 삼천(三千)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도청(都廳)은 바로 박동석(朴東碩)이다. 어

6 창선(昌善) : (지명)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이다. 창선은 바로 창선도(昌善島)로, 원래 진주목 소속이며 흥선도(興善島)라고도 한다. 진주목 남쪽 90리의 해중에 있다. 봉우리가 솟아있어 대방산이라고 이르며 둘레가 120리이다.

제 나루를 건널 때 경치를 읊은 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의 생은 고달프게 구속을 받고 있는데	我生苦拘束
그는 과감해서 정말 어려울 것 없었으리라	果哉諒非難
가슴속 생각을 도대체 누구에게 말을 할꼬	寸心竟誰語
거문고 가져와 임금 위해 타고 싶은 이 마음	取琴爲君彈

옛 와룡(臥龍) 옥정암(玉井庵)에서 잠시 휴식하고 새 와룡사(臥龍寺)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만 그루 솔숲 산길을 시내 따라 가노니	萬松山路夏溪行
칼칼 흐르는 시냇물 소리 맑게 귀에 들려라	泱泱流泉入耳清
흐늘대는 촌락의 연기는 비와 섞여 가늘고	冉冉村煙和雨細
쓸쓸한 찬 잎새는 가지에 붙어서 우는구나	蕭蕭寒葉著枝鳴

저녁에 고연리(古延里)의 외가에서 묵었다.

2월 19일(경신) 서풍이 불어 구름이 날렸다. 감치(甘峙)에 이르러 세찬 바람과 비를 만나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관에서 백일장을 열었다. 저물녘에 깎다.

2월 20일(신유)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2월 21일(임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22일(계해) 구름이 끼고 해가 나왔다.

2월 23일(갑자) 비가 밤새 내렸다.

2월 24일(을축) 계속 비가 내렸다. 냇물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흘렀다.

2월 25일(병인) 비가 개고 동풍이 불어 추웠다. 나는 노독(路毒)으로 땀이 났다. 어 좌병사(魚左兵使)가 성묘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

2월 26일(정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27일(무진) 이내 구름이 끼었다.

2월 28일(기사) 여전히 구름이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2월 29일(경오) 청명하고 온화하였다. 나는 지난번 남해(南海)에서 이석삼(李石三)에게 속아 소뻐로 된 갓끈을 얻고 만호영(曼胡纓)⁷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깨닫고 관에 소장을 올렸더니 “교주(蛟珠)는 울지 않고 도리어 모과(木瓜)를 준다.⁸”는 말이 있었다. 밤이 되자 동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3월 대월(大月).

3월 1일(신미)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맑았다. 시가[市直]가 조(租) 18·9말, 쌀[米] 8말이다.

3월 2일(임신) 가끔 비가 내렸다.

3월 3일(계유) 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3월 4일(갑술)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밤에 개었다.

3월 5일(을해) 맑고 따뜻하였다.

3월 6일(병자)

3월 7일(정축) 이상 구름이 끼었다.

3월 8일(무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월 9일(기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0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내일은 바로 정 파총(丁把摠)의 두 번째 기일이다. 아버님이 다음과 같이 제문을 올렸다.

아, 슬프다. 군의 재주로 당세를 빚내지 못하고, 군의 인품으로 장수를 누리지 못했으니, 이른바 천리(天理)는 과연 어디에 있던 말인가? 아, 상세(上世) 이래로 두 집안은 이웃이 되어 칠교처럼 단단하고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 일신에 풍운이 변해도 평생토록 서로간의 구분 없이 지내고 마음을 열어 곡절을 쏟아내면서 그 속에 남겨두는 일이 없었다. 쌀독이 다 비워지면 가난을 나누었고 또 굶주림과 배부름을 함께 했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눈을 감는단

7 만호영(曼胡纓) : 만호영은 무늬가 없는 갓끈을 말한 것으로, 무관들이 착용하는 것이다.

8 교주(蛟珠)는 …… 준다 : 교주(蛟珠) : 교인(蛟人)의 구슬이다. 《박물지(博物志)》 권9에 “남해(南海)의 밖에 교인이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살면서 항상 길쌈을 하다가 물속에서 나와 여러 날 인가(人家)에 머물며 비단을 팔았다. 교인이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그릇 하나를 달라고 하더니 흐르던 눈물이 구슬로 변해 그릇에 가득 차자 주고 떠났다.”라고 하였다. 모과(木瓜)를 준다는 말은 《시경(詩經)》 위풍(衛風) 모과에 “값싼 모과를 내게 주길래, 값진 옥으로 보답했노라.[投我以木瓜 報之以瓊瑤]”에서 나온 말이다. 즉, 은혜를 베풀어야 할 상대에게 도리어 속임수를 쓴 이석삼(李石三)을 나무라는 말이다.

말인가? 두 번째 기일이 갑자기 다가오니 덕음은 들을 수 없고 호걸스런 모습은 이미 썩어 썩이 된 채 영원히 잠들고 말았다. 아직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있지만 뒤의 억겁 세월로 흘러갈 것이니, 음덕이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 능히 사씨(謝氏)의 봄을 돌릴 것이고, 호정(湖庭)의 향기로운 자손들은 모두 순씨(荀氏)의 포부에 부합되리라. 그렇다면 이른바 천리는 여기에 있는 것인가? 군은 눈을 감아 죽은 뒤에는 금심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 가문의 혹독한 재앙은 오히려 어찌 말하겠는가. 군이 죽은 지 열흘만에 큰아이가 나를 버리고 떠났고, 한 달 만에 만형님이 세상을 떠나니 천지는 아득하고 귀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네. 원숭이 창자처럼 마디마디 끊어지고⁹, 가시나무 가지는 이미 말라 죽었으니, 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겠는가. 군이 있는 지하세계는 영령이 어둡지 않을 것이니, 형제와 숙질이 서로 이어가고, 유명에 차이는 없지만 친애함은 더해졌네. 여기에 생각이 미치니 감격스런 눈물이 절로 흐른다네. 아, 우리 집안은 가세가 기울어 다시 전일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니 부디 나를 위해 내 형님과 아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게. 죽은 자가 안다면 장차 지하에서 복을 내릴 것이니, 군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말하고자 해도 마음을 알 수 없으니 무언가를 잃은 양 슬프다네. 삼가 보잘것없는 제물을 올려 마침내 통곡하며 울부짖네.

○ 매형 이여섭(李汝涉)¹⁰을 대신하여 정 과총에게 다음과 같이 제문을 올렸다.

아, 세상에서 말하는 수묘(壽夭)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인간들 보기에 오래 산 것을 세상에서 수(壽)라 하나 하늘의 차원에선 꼭 오래 살았다 할 수가 없고, 인간들 보기에 짧게 산 것을 세상에서 요(夭)라 하나 하늘의 차원에선 꼭 짧게 살았다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늘의 차원에선 오래 살았고 인간들 보기엔 짧게 살았다고 할 때, 인간들은 이를 요(夭)라 해도 나는 수(壽)라고 할 것이다.

말은 할 수 없었어도 의지는 분명했고 숨이 끊어질 그 순간도 정신은 또렷했다지. 그리하여 한가이 즐기듯 것처럼 조용하게 자세를 바로하고 눈을 감았고 보면, 죽음이 그대를 망하게 할 순 있었어도 그대의 뜻을 뺏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질병이 그대를 고달프게 하고 죽음이 그대를 망칠 수 있었던 육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참으로 짧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지럽게 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었던 정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어찌 25년의 시간 속에만 존재하다가 마침내 사라져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 결과 학문에 매진하려는 그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고 크게 펼쳐질 그의 공업(功業)이 중도에 좌절됨으로써, 죽은 뒤에까지 영원히 전해질 그의 정신세계가 끝내 발휘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보면 어찌 그대만을 위해서 애도할 따름이겠는가. 사도(斯道)를 위해서도 길이 통곡해야 할 일이라고 할

9 창자 마디마디 끊어지고 : 원문 '원장촌단(猿腸寸斷)'은 자식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는 것이다. 옛날에 환공(桓公)이 삼협(三峽)을 지날 때 그 부하 중의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 가지고 배에 싣고 오니, 그 어미가 계속 배를 뒤따라오다가 배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는 즉시 죽었다. 그 배를 갈라 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世說新語 黜免》

10 이여섭 : 구상덕의 매형으로, 거주지는 두포(頭浦)이며, 면임(面任)의 직임을 맡았다. 벽방산(碧芳山) 기우제를 치르기 위해 구상덕과 함께 안정사(安靜寺)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이여섭은 좌수 이경석(李慶錫)의 일로 검률(檢律)을 만나러 대구로 갔으며, 잘못된 군포 징발의 피해를 입었다. 이여섭의 막내아들이 갈산(葛山)에 사는 백준건(白俊建)의 사위이다.

것이다. 아, 이런 사실을 아는가. 아, 슬픈 일이다.

○ 벗 박범석(朴範錫)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제문을 지었다.

아, 슬픔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공(公)은 하늘로부터 진실한 덕을 품부받아 세속을 뛰어넘은 고상한 행실을 지니셨습니다. 성품은 소탈하고 평이하며 행동은 곧고 굳세었고,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안과 밖이 모두 바르셨습니다. 외모를 꾸미지 아니하고 자신을 오로지 같고 닮아 사람들이 그 덕을 우리르고 가정은 그의 정사(政事)에 감화하였습니다. 효성과 우애의 지극함이 천성에 근본하여 맹자(孟子)의 가르침대로 아버지를 친애하고 《시경(詩經)》에서 노래한 대로 가슴에 간직하고 잃지 아니함은 과거의 성인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하였는바, 그윽한 빛이 가만히 발함에 향중(鄉中)이 친거하였습니다. 성리(聲利)가 자신을 더럽힐까 두려워하고 담박하여 다툼이 없었으니 서호(西湖)의 모퉁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야에서 야인으로 즐겁게 노닐면서 길이 건초 고상(乾初蠱上)의 이치를 편히 여기니 경박한 사나이는 돈후해지고 게으른 자는 공경을 일으켰습니다. 공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3월 11일(신사) 아침에 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식후에 쾌청하였다.

3월 12일(임오)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3월 13일(계미) 서풍이 불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갈산(葛山)¹¹ 충의(忠義)¹² 유천기(柳天機)에게 가서 조문하고 이어 동문 밖 첨지(僉知) 박이한(朴而漢)의 두 번째 기일에 조문하고 이익삼(李益三)의 집에 묵었다.

3월 14일(갑신)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그대로 계동(契洞)¹³에 가서 유 매형(柳妹兄)의 영전에 통곡하였는데, 내일이 바로 매형의 두 번째 기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소박한 제물과 거친 문장으로 영혼을 부르려고 하였는데¹⁴ 갑자기 유행하는 눈병에 걸려 직접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다. 제문의 초고를 다른 책에 기록하였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다.

3월 15일(을유) 아침에 구름이 끼고 아침 늦게 구름이 걷혔다. 식후에 형제가 자질(子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월식(月食)이 있었다.

11 갈산(葛山)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이다. 본래 고성군 광일면의 지역으로서 같이 많았다고 하여 ‘갈산’ 또는 ‘갈촌(葛村)’이라고도 한다. 갈산은 구상덕의 매형인 윤씨가 살고, 교유하던 최선여(崔善餘), 최석유(崔錫裕), 백준건(白俊建) 등이 거주하던 곳이다. 구상덕이 능화판(菱花板) 인쇄를 위해 그 곳에 가기도 하였다.

12 충의(忠義) : 충의위(忠義衛)로, 조선시대에 양반 특수 병종(兵種)이다. 공신 자손의 군역을 대체하고, 판료 진출상의 특권을 빼돌려주기 위해 마련한 병종이다.

13 계동(契洞) : (지명) 계동(桂洞), 잣골.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基月里)에 있는 마을.

14 영혼을 …… 하였는데 : 원문 ‘대초(大招)’는 《초사(楚辭)》의 편명(篇名)으로,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이 지은 것이라고도 하고 경차(景差)가 지은 것이라고도 한다. 죽은 이를 초혼(招魂)하거나 애도(哀悼)하는 것을 말한다.

3월 16일(병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월 17일(정해) 비가 내렸다.

3월 18일(무자) 쾌청하였다. 경포수(京砲手)의 목면과 관련한 일로 수령을 나추(拿推)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이웃의 김상인(金尙仁)이 사위를 맞았다.

3월 19일(기축) 빗방울이 떨어졌다.

3월 20일(경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월 21일(신묘) 동풍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3월 22일(임진)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그쳤다. 이날은 바로 죽은 형의 두 번째 기일이다. 무속(巫俗)의 기도도 함께 행했다.

3월 23일(계사) 온화하였다. 은정(銀亭)¹⁵의 나무에 나뭇잎이 위로부터 아래로 생기니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하였다.

3월 24일(갑오) 빗방울이 떨어졌다. 조카아이 윤억(尹億)이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도망쳐 돌아왔다.

3월 25일(을미) 구름이 걷혔다.

3월 26일(병신)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27일(정유) 오후에 구름이 걷혔다. 한중채(韓重采)를 가서 만나보고 병문안을 했다.

3월 28일(무술) 따뜻하였다.

3월 29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벼 최선여(崔善餘)¹⁶가 조(租) 종자 5말을 요구했다.

3월 30일(경자)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정 상인(丁喪人)이 상(喪)을 마쳤다.

15 은정(銀亭)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에 있다. 거류산 아래에 위치한 은정에서는 활터가 있어 무인들이 무과시험을 보거나 시합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동제(洞祭)를 치른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은정에서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를 지낼 때 구상덕이 축문을 짓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적 조사(弔事)가 있을 경우 망곡례(望哭禮)를 행하던 장소였다.

16 최선여(崔善餘) : (인물) 구상덕의 벗으로, 갈산(葛山)에 거주하였으며 수시로 서로 방문하며 유숙하였다. 1726년 5월 28일 구상덕은 자신의 여종인 옥비(玉婢)를 보내 최선여 집안의 이양(移秧)을 돕게 하였으며, 그 후 최선여가 곤궁한 지경에 처하자 보리 3두(斗)를 주어 급한 상황을 구제하였다. 그리고 최선여가 종자벼[種租] 5두(斗)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4월 소월(小月).

4월 1일(신축)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2일(임인)

4월 3일(계묘)

4월 4일(갑진) 이상 날씨가 온화하고 해가 나왔다.

4월 5일(을사) 구름이 많이 일어나더니 저물녘에 비가 쏟아졌다.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순상(巡相) 민공 응수(閔公應洙)¹⁷가 관할지역을 순시하다가 읍에 도착하였다.

4월 6일(병오) 아침에 맑더니 곧바로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다가 곧바로 그쳤다. 순상(巡相)이 진해(鎭海)¹⁸로 향하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4월 7일(정미) 남풍이 불고 해가 나와 따듯하였다.

4월 8일(무신) 서풍이 불었다.

4월 9일(기유) 서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조카 성아(聖兒)의 소변이 나오지 않기에 동변(童便)¹⁹을 복용시켰다. 남촌(南村)의 토졸(土卒)²⁰이 진(鎭)을 옮기는 내용으로 순영(巡營)에 정장(呈狀)하고자 하면서 나에게 초고를 작성해달라고 청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일찍이 인사(人事)의 성쇠는 또한 지세(地勢)의 높고 낮음에 관계된다고 들었습니다. ……”

4월 10일(경술) 온화하였다.

4월 11일(신해)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17 민공 응수(閔公應洙) : 1684~1750.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보(聲甫), 호는 오헌(梧軒). 1710년(숙종 36)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715년 주부(主簿)·정랑(正郎)에 올랐고, 신임사화 때 사직하였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다시 정랑이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조 정랑·정언 등을 거쳐, 1726년 헌납(獻納)·사간이 되고, 이듬해 교리(校理)를 지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충청도·전라도 관찰사, 부제학, 대사간, 우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18 진해(鎭海) : (지명) 경상남도 창원군 특수 지역. 본래는 진해현(鎭海縣)이었으나 선조 34년(1601)에 함안으로 편입되고, 광해군 17년(1639)에 복구되어 고종 32년(1895)에 군으로 승격되었으나 순종 2년(1908)에 다시 창원군에 편입되었다.

19 동변(童便) : 열두 살 미만 사내아이의 오줌. 두통(頭痛)·육혈(衄血)·학질(痲疾)·번갈(煩渴)·해수(咳嗽)·골절상(骨折像)·종창 등의 병에 쓴다.

20 토졸(土卒) :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으로 조직된 그 지방의 군사를 이른다.

4월 12일(임자) 약간 흐렸다.

4월 13일(계축) 서풍이 불고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한중채(韓重采)의 집에 가서 의사(醫師) 김태형(金泰衡)을 만났다. 나는 숙병인 눈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기 때문에 손과 발의 크고 작은 뼈와 신문(神門)의 중요한 부분에 침을 맞고 천문(天門) 일곱 군데를 뜸질하였다.

4월 14일(갑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동풍이 불었다.

4월 15일(을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4월 16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또 침을 맞고 한중채의 집에 유숙하였다.

4월 17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또 침을 맞았다.

4월 18일(무오) 비가 축축하게 내리다가 낮에 그쳤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4월 19일(기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의원 김태형(金泰衡)를 만나고 而돌아왔다.

4월 20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1일(신유) 서남풍이 불어 구름을 거뒀다.

4월 22일(임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4월 23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4일(갑자) 아침에 안개가 끼고 이어 구름이 끼더니 밤이 깊어진 뒤에 비가 내렸다.

4월 25일(을축) 비가 이른 아침부터 내리다가 동풍이 불더니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4월 26일(병인) 매우 따뜻하였다.

4월 27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28일(무진)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밤에는 퍼붓듯이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4월 29일(기사) 비가 잠깐 그쳤는데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도사(都事)가 중도에서 유숙하였기 때문에 여러 유생들이 우선 물러나왔다.

윤4월 대월(大月).

윤4월 1일(경오)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윤4월 2일(신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윤4월 3일(임신)

윤4월 4일(계유)

윤4월 5일(갑술) 이상 해가 나왔다.

윤4월 6일(을해) 가랑비가 내리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윤4월 7일(병자) 가랑비가 내렸다. 13섬(石)의 조(租)로 최석권(崔錫權)의 논을 매입하였다.

윤4월 8일(정축)

윤4월 9일(무인) 해가 나왔다.

윤4월 10일(기묘) 축축하게 비가 내리다가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송정(松亭) 이삼첨(李三瞻)의 집에 가서 혼인례(婚禮)를 보고 본리(本里)에 유숙하였다.

윤4월 11일(경진) 청명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윤4월 12일(신사) 남풍이 불고 약간 흐리더니 낮이 되자 비가 내렸다.

윤4월 13일(임오) 차가운 비가 내렸다.

윤4월 14일(계미) 춥고 구름이 끼었다. 산머리를 보니 비올 기색으로 흐릿하였다.

윤4월 15일(갑신)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가랑비가 내렸다.

윤4월 16일(을유) 빗방울이 잠깐 떨어지더니 청명해졌다. 서풍이 불고 서늘하였다.

윤4월 17일(병술) 서북풍이 불었다.

윤4월 18일(정해) 동풍이 불었다.

윤4월 19일(무자) 동풍이 불고 비가 갑자기 내렸다.

윤4월 20일(기축)

윤4월 21일(경인) 해가 나왔다.

윤4월 22일(신묘) 구름이 끼었다.

윤4월 23일(임진)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구름이 걷히고 날이 더웠다. 읍에 들어갔다
가 돌아왔다.

윤4월 24일(계사) 동풍이 불다가 빗방울이 떨어졌다.

윤4월 25일(갑오) 아침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윤4월 26일(을미)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윤4월 27일(병신) 가랑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윤4월 28일(정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윤4월 29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4월 30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소월(小月).

5월 1일(경자) 남풍이 불고 날이 더웠다.

5월 2일(신축) 향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5월 3일(임인) 약간 흐렸다. 근래 오래도록 가물어 간신히 이양한 벼들이 대부분 다 말라
죽었다.

5월 4일(계묘) 비가 땅을 적시니, 물길에 있는 논에서 잠깐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5월 5일(갑진) 가랑비가 내리다가 햇볕이 나오다가 했다.

5월 6일(을사) 비가 내려 고인 물이 흘렀다.

5월 7일(병오) 비가 내리다가 오후가 되자 개었다. 나는 근래 음식이 체하는 증세가 있다.

5월 8일(정미) 가끔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9일(무신)

5월 10일(기유)

5월 11일(경술) 이상 자세하지 않다.

5월 12일(신해)

5월 13일(임자) 이상 가랑비가 내렸다.

5월 14일(계축) 비가 내렸다. 이상 향교에 머물렀다.

5월 15일(갑인) 집으로 돌아왔다.

5월 16일(을묘) 밤에 비가 내렸다.

5월 17일(병진) 비가 걷히지 않고 냇물이 소리 내며 흘렀다. 가끔 해가 나왔다. 성아(聖兒)가 바람을 맞아 생긴 병이 오늘에서야 조금 차도가 있었다.

5월 18일(정사)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에게 근래 나무 심는 버릇이 생겼는데 특히 등유목(燈油木)²¹에 힘을 기울였다.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본래 원량처럼 그윽한 곳 찾으려더니	尋幽本擬追元亮
외려 공명을 닮은 듯 포슬음을 읊조린다	抱膝還如學孔明
홀로 늦가을 만나 마음이 유연하니	獨際衰荒心賞遠
만나는 곳마다 이내 삶 즐겨 본들 어찌리	不妨隨遇樂吾生

5월 19일(무오) 새벽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는데 낮이 되자 쾌청하게 그치더니 날이 더웠다.

5월 20일(기미) 저녁에 비가 내리고 밤에 개었다.

5월 21일(경신) 더웠다.

5월 22일(신유) 가랑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쳤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23일(임술) 비가 내렸다. 향교에 머물렀다.

21 등유목(燈油木) : 쉬나무를 말한다. 쉬나무 등유는 불이 맑고 밝으며 그윽음이 적어서 책 읽는 선비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성호사설(星湖僿說)》 만물문(萬物門)에 “호남 지방에서는 들깨 대신 쉬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다.”는 기록이 나온다.

5월 24일(계해) 쾌청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5일(갑자) 구름이 끼었다. 또 향교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유숙하였다.

5월 26일(을축)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5월 27일(병인)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8일(정묘)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5월 29일(무진) 비가 내렸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기사) 남풍이 불었다.

6월 2일(경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6월 3일(신미) 가끔 구름이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4일(임신)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5일(계유) 더웠다.

6월 6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7일(을해) 매우 더웠다. 박명유(朴命宥) 군, 심익룡(沈翼龍)과 함께 진주(晋州) 도회(都會)²²에 갔다. 저녁에 상리(上里)에 사는 한희보(韓甫希)의 집에 묵었다.

6월 8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진주읍(晋州邑)에 들어가 객사(客舍) 문밖을 하관(下館)²³으로 정했는데, 곽필은(郭弼殷)과 이웃이었다.

6월 9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0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과장(科場)에 들어갔다. 시제(詩題)가 ‘장자익(蔣子翼)을 웃으며 맞아 멀리 강호(江湖)를 건너온 것을 나무라네.[笑迎蔣子翼, 讖遠涉江湖]’²⁴라

22 도회(都會) : 조선시대에 지방유생의 학업장려를 위하여 실시한 시험으로, 입격자에게는 진사시나 생원시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23 하관(下館) : 여관(旅館). 여기서는 특히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일행과 함께 묵을 민박집을 뜻한다.

24 장자익(蔣子翼) …… 나무라네 : 자익(子翼)은 후한(後漢) 말 조조(曹操)의 막빈(幕賓)이었던 장간(蔣幹)의 자이다. 장간은

고 했는데, ‘영(迎)’자로 운(韻)을 맞추었다. 부제(賦題)는 ‘술잔을 들어 감녕(甘寧)²⁵에게 말
킨다.[舉酒屬甘寧]’었는데, 낙방하였다.

6월 11일(기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제는 ‘위수 북쪽은 명사를 바라네.[渭北欲名士]’이
고, 부제는 ‘편지를 주어 임종²⁶을 경계하네[貽書戒林宗]’이었는데, 낙방하였다.

6월 12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축석루(矗石樓)에 올라 부질없이 읊조리고 맘껏 노
래 부르다가 돌아왔다. 저녁에 사천(泗川) 객방리(客方里)에서 묵었다.

6월 13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생원 최규(崔珪)를 만났다. 저녁에 교당(校堂)에서
묵었다.

6월 14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근래 서북쪽 하늘에 비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이날은 날이 맑고 구름이 없으니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시임(時任) 장의
(掌議) 최항대(崔恒大)가 향교에 들어갔다.

6월 15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6월 16일(갑신) 매우 더웠다.

6월 17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18일(병술)

6월 19일(정해)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0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무기정(舞妓亭)에 올랐다.

재변(才辯)으로 강회(江淮)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조조가 오(吳) 나라 주유(周瑜)를 유혹하려고 유세객으로 보냈다. 그가 포의(布衣)를 입고 사적인 여행이라면서 주유를 찾아가자, 주유가 영접하며 “자익이 강호를 멀리 건너오느라 고생이 참 많았다. 그런데 조씨를 위해서 나에게 유세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子翼良苦遠涉江湖，爲曹氏作說客耶?]”라고 하고는, 극진하게 환대한 뒤에 손권(孫權)과 자기와의 뉘 수 없는 의리 관계를 강조하면서 “소진과 장의가 다시 세상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뜻을 바꾸게 할 수 있겠는가? [假使蘇張更生，能移其意乎?]”라고 하여 아무 말도 못 하게 하고 돌려보냈다. 《資治通鑑 卷66 孝獻皇帝》

25 감녕(甘寧) : 오(吳) 나라 손권(孫權)의 장수인데, 처음에는 황조(黃祖)를 섬기다가 뒤에 손권(孫權)을 섬기면서 주유(周瑜)를 도와서 적벽(赤壁)에서 위병(魏兵)을 격파하였는데, 활을 아주 잘 쏘았으며, 강표호신(江表虎臣)이라 불리워졌다. 《三國志 卷五十五》

26 임종(林宗) : 후한(後漢)의 선비 곽태(郭太)의 자이다. 임종이 동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국정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대로 할 말을 다하거나 심각하게 비평하지 않았으므로, 환관들이 정권을 휘두를 적에도 그를 해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後漢書 卷六十八 郭泰列傳》

6월 21일(기축) 매우 덥더니 저녁에 비가 내렸다.

6월 22일(경인) 매우 덥더니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23일(신묘) 남촌포(南村浦)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비를 만나 흠뻑 젖은 채 돌아왔다.

6월 24일(임진) 가랑비가 내리다가 잠시 그쳤다.

6월 25일(계사) 크게 천둥이 치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다가 저물녘에 잤다.

6월 26일(갑오) 청명하였다. 새벽에 임금께서 이곳에 오신 꿈을 꾸고 또 마당 앞의 못 안에서 용을 기르는 꿈을 꾸었다. 이날 향교에서 통문(通文)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의복과 두건은 바로 옛 성현께서 예법에 따라 만든 것으로 선유(先儒)들이 함께 입고 쓰던 것입니다. 사군자(士君子)들은 선유들의 옷을 입고 두건을 썼으면 마땅히 자신을 수양하고 행동을 지조 있게 해서 선현들의 옷과 두건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래 선비들의 풍습이 크게 변해 송감(松監)²⁷이 되기도 하고 면임(面任)을 맡기도 하는데, 천박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향교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유적(儒籍)에 남아 있습니다. 매번 향사(享祀)를 지낼 때에는 태연하게 참여하여 변두(籩豆)의 직임²⁸을 함께 맡고 제사 고기[膳俎]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실로 선유들의 죄인입니다. 부디 여러 군자께서는 함께 소자(小子)의 복을 올려 대성인의 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6월 27일(을미) 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밤에 소낙비가 내렸다.

6월 28일(병신) 가끔 비가 내리다가 해가 나왔다.

6월 29일(정유) 해가 나왔다. 도사(都事)의 행차가 임박했기 때문에 나는 향교를 떠나지 못했다.

7월 소월(小月).

7월 1일(무술) 구름이 끼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다.

7월 2일(기해) 새벽에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3일(경자) 가랑비가 내렸다. 내가 학질(瘧疾)에 걸렸다.

27 송감(松監) : 소나무의 무단 벌채를 금지하는 감독관이다.

28 변두(籩豆)의 직임 : 《논어》 태백(泰伯)에 “변두에 관한 일이라면 전담하는 관원이 별도로 있다. [籩豆之事 則有司存焉]”고 하였는데, 변두는 죽기(竹器)와 목기(木器)로 된 제기를 말하며, 변두의 직임을 바로 이들 제기를 진설하는 등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말한다.

7월 4일(신축) 낮에 비가 그쳤다. 향회(鄉會)가 있었다.

7월 5일(임인) 구름이 끼었다.

7월 6일(계묘) 해가 나왔다.

7월 7일(갑진) 밤에 비가 내렸다. 학질이 없어졌다.

7월 8일(을사) 아침에는 날이 개었지만 구름이 끼어 오히려 습했다.

7월 9일(병오)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0일(정미) 밤에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7월 11일(무신)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7월 12일(기유) 해가 나왔다.

7월 13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도사(都事) 김정언(金廷彦)이 읍에 들어왔다.

7월 14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고강(考講)을 위해 거제(巨濟)의 교생(校生)도 본현에 왔는데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벌만을 시행하였다.

7월 15일(임자) 해가 나왔다.

7월 16일(계축) 낮에 해가 나와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17일(갑인) 비가 내리다가 햇볕이 나오는 듯했다.

7월 18일(을묘) 매우 서늘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19일(병진) 덥지 않았다.

7월 20일(정사) 가끔 가랑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21일(무오) 비가 내렸다. 삼봉포(三峯浦)에 가서 그물질을 하였다.

7월 22일(기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다. 저물녘에 다시 향교로 갔다.

7월 23일(경신) 동풍이 불더니 맑고 온화하였다.

7월 24일(신유)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25일(임술) 아침에 이슬비가 내렸다. 삼가(三嘉)²⁹ 윤종제(尹宗濟)가 와서 대화를 나누었다. 향교에 유숙하였다.

7월 26일(계해) 청명하였다.

7월 27일(갑자)

7월 28일(을축) 이상 날씨가 맑고 온화하였다.

7월 29일(병인)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정묘) 아침에 가랑비가 내렸다.

8월 2일(무진)

8월 3일(기사)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4일(경오) 낮에 가랑비가 내렸다.

8월 5일(신미) 가랑비가 내렸다.

8월 6일(임신) 가끔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7일(계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8월 8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세 향소(鄉所)³⁰가 뿔박을 당했다.

8월 9일(을해)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0일(병자)

29 삼가(三嘉) : (지명)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三嘉面). 본래는 군의 하나였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하여 면으로 강등되었고, 아울러 합천군에 편입되었다.

30 향소(鄉所) : 조선시대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鄉吏)를 감찰하며, 민간에 정령(政令)을 전달하고 민의를 대변하던 수령(守令)의 자문 기관이다.

8월 11일(정축) 비가 내렸다.

8월 12일(무인) 비를 맞으며 향교에 들어갔다.

8월 13일(기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시임(時任) 도유사(都宥司) 이성년(李星年)이 음법(陰法)에 머물고 있었는데 나를 초대하기 소를 타고 갔다. 새 장의로 허관(許寬)을 뽑았는데 망기(望記)를 미처 보내지 않았다. 구만(九萬)의 도유사 최진두(崔震斗)가 마침 교당(校堂)에 유숙하고 있다가 힐책하였다.

8월 14일(경진) 가랑비가 내렸다.

8월 15일(신사) 저물녘에 갓다.

8월 16일(임오) 구름이 짙게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정노(正奴)가 지난 12일에 죄를 짓고는 13일에 달아났다.

8월 17일(계미)

8월 18일(갑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9일(을유)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20일(병술)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개었다.

8월 21일(정해)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8월 22일(무자) 간혹 약간 흐렸다.

8월 23일(기축)

8월 24일(경인)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5일(신묘) 향교에 들어갔다.

8월 26일(임진)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7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8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29일(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30일(병신) 매우 따뜻하였다. 몽아(夢兒)가 들어왔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정유)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다가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몽아(夢兒)가 돌아왔다.

9월 2일(무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3일(기해)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9월 4일(경자) 저녁에 有가랑비가 내렸다.

9월 5일(신축) 비가 먼지를 적셨다. 반성(班城) 장의(掌議) 최석몽(崔錫夢)과 최몽서(崔夢瑞)가 와서 ‘인(人)’자 운(韻)을 가지고 화답을 요구하기에, 나는 즐벌함을 잊고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산 가득 비바람 속 중앙절이 지나니	滿山風雨過重陽
깊은 골에 구름 자욱하고 낙엽 누렁구나	絕壑雲深落葉黃
우리들 다행히 지금 귀찮은 일 없으니	吾輩幸今無外累
옷깃 털고서 만 겹 산 위로 날아오를거나	振衣飛上萬層岡

또

종형 댁에 오늘 성대한 잔치 벌였나니	宗筵今日盛繁華
지난 선달 봄빛이 어화에 움직였던 게지	前臘春光動御花
아우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 참석했건만	群弟盡能陪序位
나만 홀로 어이하여 이 산속에 머무르고	獨吾何事滯岑阿

○ 또 첨사(僉使) 최한전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노중련 ³¹ 은 본래 제나라 사람으로	魯連本齊人
뜻이 크고 기개가 드높은 호걸의 선비	倜儻有奇節
일생을 마치도록 동해 물가에 살면서	歲暮東海濱
세상을 내려다보았으니 뉘라서 붙잡았으리오	輕舉誰能繫
공을 이루었어도 상 따위는 아예 거부한 분	功成不受賞
진을 황제로 삼다니 심기가 좋지 않고말고	帝秦非所屑

31 노중련(魯仲連) :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진(秦)나라를 제국(帝國)으로 만들자는 신원연(新垣衍)의 건의를 받고 노중련이 “나는 동해(東海)를 밟고 죽을지언정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천년토록 넘름한 그 유풍이여
듣는 이들 머리끝이 주뻗해지네

遺風凜千載
聞者髮蕭瑟

○ 몽서(夢瑞) 씨가 지난번 연미도(燕尾島)에서 배 타고 놀 때의 운(韻)을 가지고 화답을 요구하기에,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호드기 소리 구슬퍼 맑은 감상과 어긋나고
물줄기 왈왈 골짜기 울릴 제 목은 병 안았구나
지친 몸을 사립에 기대고 지는 해를 보니
눈 덮인 산에 인적 끊기고 우거진 나무뿐

哀笳急管違清賞
鳴壑飛淙抱素痾
倦倚柴門看日落
雪山人斷樹回柯

9월 6일(임인)

9월 7일(계묘)

9월 8일(갑진)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9월 9일(을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몽서(夢瑞) 씨, 유사 이동만(李東晩)과 걸어서 함께 가서 최 첨사(崔僉使)의 장례를 조문하였다. 이날 밤에 비가 내려 진흥당을 만들었다. 유사(有司) 이동만(李東晩)을 대신하여 첨사 최 첨사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옥형이 남쪽을 가리키는 때
훈풍이 우리 옷에 불어 왔다네
배회하며 높은 언덕에 올라
길고 긴 내 그리움 달래보노라
뜬구름은 조석으로 흘러간다지만
물노라 그대는 어디로 돌아가려는지
대장부 뜻한 바가 물론 있으리니
아녀자처럼 슬픈 기색을 지으리오
인생은 삼성과 상성³²이 아니거니
다시 만날 것을 의심할 것 있으랴
다만 바라건대 어진 덕을 숭상하시고
공명일랑 꽃다운 시절을 아끼시기를

玉衡指南陸
薰風吹我衣
徘徊登高原
悠悠勞我思
浮雲日夕征
問君將安歸
丈夫意有在
不作兒女悲
人生非參商
會合諒無疑
但願崇令德
功名惜芳時

9월 10일(병오) 아침에 비가 내려 진흥당을 만들고는 그쳤다. 돌아오는 길에 운흥사(雲興寺)³³에 들러 유숙하였다.

32 삼성과 상성 :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삼성(參星)은 동쪽 하늘에 있고 상성(商星)은 서쪽 하늘에 있어서, 각각 뜨고 지는 시각이 틀리는 관계로 영원히 서로 만날 수가 없는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春秋左傳 昭公元年》

33 운흥사(雲興寺)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와룡산(臥龍山)에 있는 절.

9월 11일(정미) 무이산(武夷山)³⁴에서 묵었다.

9월 12일(무신) 교당(校堂)에 들어가 묵었다.

9월 13일(기유)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 해가 나왔다.

9월 14일(경술)

9월 15일(신해)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16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17일(계축)

9월 18일(갑인)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얼었다.

9월 19일(을묘) 추웠다. 생원(生員) 이국노(李國老)가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9월 20일(병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객이 떠났다.

9월 21일(정사) 더러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9월 22일(무오) 흐렸다.

9월 23일(기미) 이슬비가 저녁 내내 내렸다.

9월 24일(경신) 북풍이 불어 추웠다.

9월 25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6일(임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27일(계해)

9월 28일(갑자)

9월 29일(을축)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0월 양월(良月) 대월(大月).

34 무이산(武夷山)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의 상리면 무선리에 위치한 산.

10월 1일(병인)

10월 2일(정묘)

10월 3일(무진) 이상 추웠다.

10월 4일(기사) 따뜻하였다.

10월 5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목(事目)에 “군포(軍布)를 쌀[米] 6말로 대납하라.”고 하였다.

10월 6일(신미)

10월 7일(임신) 해가 나왔다.

10월 8일(계유) 추웠다. 호남(湖南) 유배객 나서옥(羅瑞玉)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10월 9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서옥이 계속 머물렀다.

10월 10일(을해)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나서옥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10월 11일(병자)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12일(정축) 낮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10월 13일(무인) 해가 나왔다. 자화리(資火里)에서 타작을 감독했다.

10월 14일(기묘) 당항진(堂項津)을 건너 장기치(場基峙)를 넘을 때 가랑비가 내려 옷을 적셨다. 장좌동(莊佐洞)에서 묵었다.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흐릿한 강 하늘에 어지러이 나는 구름	黯淡江天雲亂飛
저물녘 나그네 옷깃에 눈발이 흩뿌린다	客程斜日雪飄衣
세한에 마음의 맹세 누구에게 의탁할꼬	歲寒心誓吾誰託
산 위의 외로운 솔이 볼수록 기이하여라	山上孤松看更奇

10월 15일(경진) 해가 나왔다. 다시 향교로 갔다.

10월 16일(신사) 구름이 끼었다.

10월 17일(임오)

10월 18일(계미)

10월 19일(갑신)

10월 20일(을유)

10월 21일(병술)

10월 22일(정해)

10월 23일(무자) 이상 해가 나왔다.

10월 24일(기축) 낮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5일(경인) 따뜻하였다.

10월 26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27일(임진)

10월 28일(계사)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김상인(金尙仁)의 집에 불이 나서 다 탔다.

10월 29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30일(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지월(至月) 대월(大月).

11월 1일(병신) 가랑비가 내렸다. 저물녘에 갼다.

11월 2일(정유) 구름이 짙게 끼더니 밤에 비가 내렸다.

11월 3일(무술) 가랑비가 내렸다.

11월 4일(기해) 해가 나왔다.

11월 5일(경자) 추웠다.

11월 6일(신축) 매우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7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8일(계묘) 해가 나왔다.

11월 9일(갑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11월 10일(을사) 오후에 구름이 흩어졌다.

11월 11일(병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1월 12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교당(校堂)에서 곧장 가리동(加里洞)³⁵으로 갔다. 장의(掌議) 이용징(李龍徵) 댁 상이 끝나는 것을 보았다.

11월 13일(무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4일(기유) 매우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15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6일(신해)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1월 17일(임자)

11월 18일(계축)

11월 19일(갑인)

11월 20일(을묘)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1일(병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22일(정사)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사또가 세선(稅艇)이 침몰된 일 때문에 10여 일 전에 붙잡아 오라는 명이 내려와 어제 사사(私舍)를 나갔다.

11월 23일(무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5 가리동(加里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에 위치한다. ‘加里洞’이라고도 표기한다. 가리동은 장의(掌議)인 이용징(李龍徵)과 백봉년(白鳳年), 윤덕휘(尹德輝) 등의 인물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다. 구상덕은 1729년 2월 19일 가리동 윤덕휘의 서당에 가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 구상덕의 둘째아들 구봉관(仇鳳觀)이 가리동 서당에서 독서하기도 하였다.

11월 24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5일(경신) 따뜻하였다. 읍에 들어가 개인집에서 묵었다.

11월 26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7일(임술) 갑자기 추웠다가 따뜻해졌다. 아내가 귀녕(歸寧)³⁶하러 가자 몽아(夢兒)가 따라갔다.

11월 28일(계해) 따뜻하였다. 사또가 심리(審理)를 받으려 할 때 청(淸) 나라 새 황제인 건륭(乾隆)이 연호(年號)를 고쳐 즉위하고 사면령을 내렸다는 경주인(京主人)의 보고가 있었다. 그 때문에 지난 22일에 곧바로 동헌(東軒)으로 들어갔다.

11월 29일(갑자) 온화하였다.

11월 30일(을축) 구름이 짙게 끼더니 밤에 비가 내렸다.

12월 대월(大月).

12월 1일(병인) 비가 내렸다.

12월 2일(정묘) 추위와 더위가 서로 반반 정도였다. 아내가 일아(日兒)의 병 때문에 오늘 본가에서 돌아오면서 새 사내중 사읍진(沙邑進)을 데리고 왔다.

12월 3일(무진)

12월 4일(기사)

12월 5일(경오)

12월 6일(신미) 이상 날씨가 추웠다.

12월 7일(임신)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아이의 병이 조금 차도를 보였기 때문에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8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건륭제(乾隆帝)의 즉위반사문(卽位頒教文)이 왔다.

12월 9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6 귀녕(歸寧)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뵈는 것을 말한다.

12월 10일(을해) 자리만큼 큰 눈꽃이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해가 나오자 눈이 녹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1일(병자)

12월 12일(정축)

12월 13일(무인)

12월 14일(기묘)

12월 15일(경진)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16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7일(임오)

12월 18일(계미) 이상 추웠다.

12월 19일(갑신)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2월 20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새로 과거에 급제한 안동(安東)의 생원 옥형좌(玉衡在)가 향교에 도착했다.

12월 21일(병술) 바람이 불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2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3일(무자) 서풍이 불고 춥지 않았다. 구름과 햇벌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24일(기축) 비가 내렸다.

12월 25일(경인) 동틀 무렵에 신문(神門)이 부서졌다. 아침에 비가 그쳤다.

12월 26일(신묘) 햇벌이 나왔지만 바람이 불고 추웠다.

12월 27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8일(계사) 추웠다.

12월 29일(갑오) 추웠다.

12월 30일(을미)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남풍이 잠깐 불었다. 밤에 구름이 없고 별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올해는 해를 마치도록 돌림병은 없었지만, 4, 5월경에 가뭄이 들고 여름과 가을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재앙이 있어 곡물 소출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쌀을 내면 조(租) 10말에 쌀 5말 남짓을 얻었다. 시가[市直]가 처음에는 전석(全石 20말)³⁷이었는데 한해가 끝날 때까지 14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고, 쌀[米] 4말 반 혹은 6말 반이다.

병진년 1736년(영조12)

1월(경인) 소월(小月). 1일 병신. 8일 우수중, 23일 경칩 이절(二節).

2월 대월(大月). 1일 을축. 9일 춘분중, 24일 청명 삼절(三節).

3월 대월. 1일 을미. 10일 곡우중, 25일 입하 사절(四節).

4월 소월. 11일 소만중, 26일 망종 오절(五節).

5월 대월. 13일 하지중, 29일소서 육절(六節).

6월 소월. 7일 초복, 15일 대서중.

7월 소월. 1일 입추절, 17일 처서중.

8월 대월. 3일 백로절, 19일 추분중.

9월 소월. 4일 한로절, 19일 상강중.

10월 소월. 5일 입동절, 20일 소설중.

11월 대월. 6일 대설절, 20일 동지중.

12월 대월. 5일 소한절, 20일 대한중.

1월 소월(小月).

1월 1일(병신) 자야(子夜 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반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닭이 처음 울적에 동서쪽에 흐릿한 기운이 있어 잠깐 동남풍이 불 기색이 있었으며 날씨가 매우 온화하였다.

1월 2일(정유) 맑고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월 3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4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5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6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37 전석(全石) : 10각을 1홉[合]으로 하고, 10홉을 1승(升)으로 하고, 10승을 1두(斗)로 하고, 15두를 소곡평석(小斛平石)으로 하고, 20두를 대곡전석(大斛全石)으로 한다.

1월 7일(임인) 약간 흐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1월 8일(계묘)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1월 9일(갑진)

1월 10일(을사)

1월 11일(병오)

1월 12일(정미)

1월 13일(무신) 이상 온화하였다.

1월 14일(기유) 바람과 구름이 모두 일어나더니 비가 거세게 내렸다. 잠깐 구름이 흩어졌다. 북풍이 불었다.

1월 15일(경술) 청명하였지만 바람이 불고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달이 너무 낮게 뜨고 색깔이 노란색이었다.

1월 16일(신해) 청명하였다.

1월 17일(임자) 비가 내렸다.

1월 18일(계축) 온화하였다.

1월 19일(갑인)

1월 20일(을묘)

1월 21일(병진) 온화하였다. 밤에 호서(湖西)에서 온 손님 신응연(申應淵), 김봉신(金鳳臣)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문루(西門樓)에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며 어울렸다.

1월 22일(정사) 비가 내렸다.

1월 23일(무오) 식후에 비가 그쳤다.

1월 24일(기미)

1월 25일(경신)

1월 26일(신유) 이상 온화하였다.

1월 27일(임술) 비가 내렸다.

1월 28일(계해) 날이 개었다.

1월 29일(갑자) 맑고 온화하였다.

2월 대월(大月).

2월 1일(을축) 온화하였다.

2월 2일(병인) 밤에 비가 가늘게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2월 3일(정묘) 맑고 온화하였다.

2월 4일(무진) 비가 내렸다.

2월 5일(기사) 날이 개었다.

2월 6일(경오) 청명하였다.

2월 7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영천(永川)에서 온 손님 원장(院長) 손시완(孫是完)이 교당(校堂)에 왔다. 바다를 구경하고 시를 시었는데,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반평생 이 골짜기 명성 들어왔더니	半世曾聞洞裏天
우연히 찾아와 보니 경치가 맑고 고와라	偶來投跡覺清鮮
지팡이 끝매 이미 속세 미련 끊었나니	携筇已斷區中戀
취석에는 꼭 학을 탄 신선이어야 되랴	醉石何須鶴上仙

또

위양 ³⁸ 에서 지금 이별 사 년 만인데	渭陽今別四經秋
머리털 여전하고 원우가 없으셨지	容鬢依常絕怨尤
충신은 오랑캐 땅에도 행한다는 성인의 가르침 ³⁹	忠信可蠻聖有訓

38 위양(渭陽) : 진(秦) 나라 강공(康公)이 어머니가 돌아간 뒤에 그의 외숙(外叔)을 위양(渭陽)에서 송별하였다. 《시경》에 〈위양(渭陽)〉 편이 있다. 후대에 외숙을 위양이라고 한다.

39 충신은……성인의 가르침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말이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며 행실이 독실하고 공경스러우면, 어떤 오랑캐 나라라도 가서 제대로 행할 수가 있다.[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가슴에 새기고 외삼촌 뵈니 나는 근심 없네	服膺見舅吾無憂
바다와 산 머언 천리 길 잘 가시길 축원하고	海山千里祝行李
눈보라 속에 석 잔 술을 따라 올리웁니다	風雪三杯仍獻酬
허물도 없이 죄에 걸려들었다 다들 말하니	累綫爭稱非罪戾
갈림길에서 슬픈 것은 이별의 시름 때문	臨岐酸戚但離愁

원장 손시완의 수염과 눈썹이 희고 또 술도 잘 마시고 시를 잘 짓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 뿐이다.

생원 배순구(裴舜玖)의 배수운(睡齋韻)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듣자니 강가에 경물이 새롭다기에	聞道江臯景物新
서둘러 아우들 불러 함께 구경 나섰다	急邀花樹共探眞
바위 곁 무성한 꽃잎은 시 읊는 흥 바치고	傍巖繁蕊供吟興
옥을 울리는 시냇물은 속진 씻기 알맞아라	漱玉鳴泉合洗塵

2월 8일(임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9일(계유)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2월 10일(갑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2월 11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새로 추천된 도유사(都有司) 노사준(盧士俊 자는 允賢) 씨가 공무를 보았다.

2월 12일(병자) 비가 내렸다.

2월 13일(정축) 가끔 가랑비가 내렸다.

2월 14일(무인) 서북풍이 불어 추웠다.

2월 15일(기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관에서 고강(考講)하였다.

2월 16일(경진)

2월 17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8일(임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이날 밤 재장(齋長), 향원(鄉員) 두세 명, 의성(義城)의 원장(院長) 김정응(金鼎應), 생원 김삼응(金參應), 안동의 생원 중목(重穆) 이자경(李子敬), 호군(護軍) 권겸(權謙), 인동(仁同)의 생원 한수(漢授) 장군천(張君天)과 함께 낙열정(樂悅亭)에서 술 마시고 시를 읊었다. 대기 의성, 안동, 인동의 여러 손님들은 바로 관가의 책방(冊

房)에서 온 사람들다. 한밤중에 비가 내렸다.

2월 19일(계미) 비가 내렸다. 어제 장군천에게 지어준 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태왕이 상을 정벌하려 하니	太王志剪商
태백은 형만으로 도망쳐 갔고	泰伯逃荆蠻
무왕이 맹진 나루를 건너니	武王渡孟津
백이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주려 죽었지	夷齊餓西山
백성 구하는 건 하늘의 뜻이라	拯民亦天意
터럭만큼도 자기와 상관없건만	一毫非己關
필경 이 두 사람의 마음은	畢竟二人心
죽어서야 비로소 편안하였지	死去方得安

장군천이 차운하자, 이자경이 또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한단의 겹겹 포위를 당할 적에	邯鄲却重圍
노중련은 단지 포의의 선비일 뿐	魯連特布衣
그러나 일신의 이익 돌보지 않고	顧非一身計
강개하게 깊은 슬픔을 품었었지	慷慨懷深悲
공이 이루어지자 할 일 무엇이랴	功成何所爲
동해 가로 숨어 명성을 피하였지	逃名東海陬
염치를 아는 건 진실로 천성인데	恥惡固天性
당시 사람들 도리어 주를 잊었지	時人却忘周

내가 또 장군천에게 술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늙어 가매 머리털 성글다 탄식하지 말자	老去休嗟鬢髮短
흥 일면 마음은 외려 젊은 시절 같다오	興來猶覺壯心延
취중에는 무엇보다 시화 듣는 게 즐거워	淸狂最喜聆詩話
봉래 영주로 들어가 신선들을 만난 듯해라	疑入蓬瀛逼衆仙

장군천이 차운하였다.

2월 20일(갑신) 온화하였다. 밤에 이자경과 함께 장군천의 여관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2월 21일(을유) 비가 내렸다. 이자경에게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주었다.

우연히 장쾌한 바람에 가슴 후련한데	偶出開襟萬里風
게다가 동서의 좋은 벗들을 만났음에라	況逢佳友盡西東
송정 아래서 탁주 석 잔을 마시고 나서	三杯濁酒松亭下
눈 뜨고 서로 보매 온갖 상념이 사라지누나	瞪目相看百慮空

이자경이 차운하였다.

2월 22일(병술) 온화하였다. 계동(契洞)에서 사위 맞는데 갔다가 유숙하였다.

2월 23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4일(무자) 향교에 들어갔다.

2월 25일(기축)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26일(경인) 온화하였다.

2월 27일(신묘)

2월 28일(임진) 비가 내렸다.

2월 29일(계사) 구름이 걷혔다.

2월 30일(갑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월 대월(大月).

3월 1일(을미)

3월 2일(병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3일(정유) 밤에 우레가 치고 비가 먼지를 적셨다.

3월 4일(무술)

3월 5일(기해)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3월 6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3월 7일(신축) 더웠다.

3월 8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9일(계묘) 비가 그치지 않아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3월 10일(갑진)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어머님이 어제 부엌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말을 듣고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1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환후가 조금 차도를 보였다.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3월 12일(병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3일(정미)

3월 14일(무신) 향교에 들어갔다.

3월 15일(기유)

3월 16일(경술)

3월 17일(신해)

3월 18일(임자)

3월 19일(계축)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 북풍이 불고 날씨가 매우 시원했다. 지난 15일 밤에 사또 김후 상한(金侯相漢)이 안동의 마전(麻田) 이시항(李時沆)과 함께 죽도(竹島)에서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며 시를 읊고, 나에게 그 운에 화답해 달라고 하기에 다음과 같이 읊었다.

사람 안 다닌 바윗길 지나 펼쳐진 골짜기	無媒巖徑洞天開
유람하는 나그네들 멀리서 짝지어 오누나	遊客尋眞兩兩來
오래로다 천 일 동안 술 속에 들어 있다가	久矣胎蟠千日鼎
홀연히 이 몸이 구층 누대에 뛰어올랐어라	忽然身上九層臺

또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한적한 이 절 다시 오니 벌써 석양이라	蕭寺重來已夕陽
중들이 자리 깔고 맞아 방으로 오르라네	僧徒布席要登房
바위 사립 몇 갈래 술 그림자 엇갈리고	巖扉數徑交杉影
눈 덮인 천 겹 골짜기에는 달빛이 비치누나	雪壑千重印月光
일에 생각이 쏠리면 마음이 종내 뜨겁고	有慕心田終歲熱
일에 생각을 쉬면 가슴이 불시에 시원하니	休營襟韻不時涼
어떻게 하면 이 관문을 뚫고 지나가서	若爲透得雙關盡
눈앞의 어지러운 만사가 유장하게 될꼬	萬事紛前意味長

또

천리 먼 길 와서 경포대에 오르니
 시야 가득한 호수에 주체할 수 없는 상념
 누른 구름 덮인 변방엔 찬 기운이 통하고
 바람 부는 높은 누각은 티끌 멀리 벗어났다
 나는 새 헤엄치는 고기 동물은 자득하건만
 고금이 텅 비었는데 이내 생애 서글퍼라
 백년의 근심과 즐거움 자신 위한 것 아닌데
 부끄럽게도 일엽편주를 무용지물 만들었군

千里登臨鏡浦臺
 江湖極目思難裁
 黃雲塞戍寒通氣
 高閣天風勢絕埃
 飛泳靜閒物自得
 古今寥廓吾生哀
 百年憂樂非身計
 慙愧扁舟作散材

○ 사또가 지난번 심리(審理)하려던 차에 돌아와 곧바로 사면을 입었기 때문에 지은 것이다.

○또 차운하여 이마전에게 다음과 같이 올렸다.

영남의 광객이 맑은 유람 좋아하니
 호해에 구름장 두터워 때는 가을일레
 아스라이 맑은 빛은 죽서로 이어지고
 영롱하게 차가운 해는 송루에 어리누나
 파란 물결에 찍힌 흰 점은 무수한 새들
 푸른 밭에 걸려 온 비린 것은 만 마리 고기
 유랑하는 몸 가는 곳마다 즐겨도 무방하나
 나라의 안위에 임금 근심은 누가 떠맡을꼬

嶺南狂客喜清遊
 湖海層陰接素秋
 迢遞晴光連竹嶼
 玲瓏寒日映松樓
 滄波點白鳥無數
 綠箔抽腥魚萬頭
 浪跡不妨隨處樂
 安危誰任急君憂

이마전은 바로 행촌 선생(杏村先生)⁴⁰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읊은 것이다.

3월 20일(갑인) 온화하였다.

3월 21일(을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3월 22일(병진) 따듯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3월 23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24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면령이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40 행촌 선생(杏村先生) : 이암(李岳, 1297~1364)을 말한다. 본관은 고성(固城). 초명은 군해(君孩). 자는 고운(古雲), 호는 행촌(杏村). 판밀직사사 감찰대부 세자원빈(判密直司事監察大夫世子元賓)인 존비(尊庇)의 손자이며, 철원군 우(鐵原君瑀)의 아들이다. 1313년(충선왕 5)에 문과에 급제했으며, 충선왕이 그의 재주를 아껴 부인(符印)을 맡겨서 비성교감(祕省校勘)에 임명된 뒤 여러 번 자리를 옮겨 도관정랑(都官正郎)이 되었다. 글씨에 뛰어나 동국(東國)의 조자양(趙子昂)으로 불렸으며, 특히 예서와 초서에 능했다. 필법은 조맹부(趙孟頫)와 대적할 만하며, 지금도 문수원장경비(文殊院藏經碑)에 글씨가 남아 있다. 그림으로는 묵죽에 뛰어났다. 우왕 때 충정왕(忠定王)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3월 25일(기미)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3월 26일(경신)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3월 27일(신유) 가랑비가 내렸다. 전패(殿牌)⁴¹를 환안(還安)하였다.

3월 28일(임술) 햇별이 나와 온화하였다. 객사를 중수하여 오늘 낙성연(落成宴)을 열었다. 나는 연석에 참여하여 시를 짓고 사또에게 바쳤다.

장군이 절개 지키다 죽은 지도 이백 년	將軍死節二百年
고을 사람들 입과 귀로만 유전되었지	鄉俗流傳憑口耳
성루의 전공 기둥에 박힌 화살촉에서 알고	樓門戰功識楹鏃
성 아래 떠도는 님은 특이한 새가 되었네	城下遊魂說鳥異
말 뺏어 타고 남으로 치달려 공적 세웠나니	奪馬南馳黑水蹟
지난 일 분명하여 지금도 기억할 수 있어라	往事分明猶可記
외진 시골에 홀로 앉았으며 무료한 터	遐鄉獨坐無好事
차마 아름다운 이름 길이 땅에 떨어뜨리랴	忍使芳名永墜地

○또 50운(韻)을 다음과 같이 지어 올렸다.

춘풍 속에 남도로 떠나는 분 전송하러	春風祖南道
모여든 관원의 복색 눈부시게 번쩍번쩍	冠佩光陸離
훨훨 떠나가는 우리 정 사또님	翩翩子鄭子
부임하면 장차 어떻게 하시려나	行矣將何爲
헤어질 땐 한마디 말 선물로 드리는 법	臨分贈一語
술잔 천천히 드시면서 한번 들어주오	緩觴當聽之
조정에서 그대를 친거한 뜻도 있을 데고	舉子廷有意
임금님이 그대를 보내는 이유도 있으리니	遣子君有辭
아무리 다급하고 위태한 경우라도	造次復顛沛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盍亦念在茲

3월 29일(계해)

3월 30일(갑자) 이상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4월 소월(小月).

41 전패(殿牌) : 각 고을 객사(客舍)에 ‘전(殿)’ 자를 새겨 세운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로, 공무로 지방에 간 관원이나 그 지방 벼슬아치가 초하루, 보름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배례(拜禮)하였다.

4월 1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일(병인) 비가 쏟아져 물이 넘쳤다.

4월 3일(정묘) 쾌청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성남(城南) 세 곳의 동갑 모임을 바라보니 피리와 북 소리 들려오는데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월 4일(무진)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4월 5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세자책봉(世子冊封)의 사문(赦文)이 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6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7일(신미) 비가 내렸다.

4월 8일(임신)

4월 9일(계유) 햇벌이 나와 온화하였다.

4월 10일(갑술)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11일(을해) 비가 내렸다.

4월 12일(병자)

4월 13일(정축) 이상 계속 비가 내렸다.

4월 14일(무인) 비가 내려 시내가 불었다.

4월 15일(기묘) 날이 개었다.

4월 16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7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18일(임오)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19일(계미) 해가 나왔다.

4월 20일(갑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21일(을유)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통제사 유달삼(柳達三)이 어제 왔다가 오늘 갔다.

4월 22일(병술) 쾌청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23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4일(무자) 또 비가 내렸다. 전임 통제사 김공 집(金公濬)이 본현에 나가 목었다.

4월 25일(기축) 쾌청하였다. 신임 통제사 윤공택정(尹公宅鼎)⁴²이 우병사에서 조정에 사은 숙배를 하지 않고 부임하여 본현에 들어와서 교귀(交龜)⁴³하였다.

4월 26일(경인) 해가 나왔다. 나는 조카아이 종호(宗好)의 일로 잠시 관가의 노여움을 샀었는데 곧바로 노여움이 풀렸다.

4월 27일(신묘) 단자(單子)를 올렸다.

4월 28일(임진) 이상 해가 나왔다.

4월 29일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양무당(養武堂)에서 목었다.

5월 대월(大月).

5월 1일(갑오) 큰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잤다.

5월 2일(을미) 쾌청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3일(병신) 더웠다.

42 윤공택정(尹公宅鼎) : 1730년(영조 6)에 충청수사(忠淸水使)에 임명되었고, 이후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충청병사(忠淸兵使) 등을 역임하였다. 1735년(영조 11)에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영남과 호남 지역의 무재(武才)들은 지역상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서북쪽에서 시행되는 도시(都試)를 진주(晉州)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당시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는 윤택정(尹宅鼎)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적극 개진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은 과거시험이 번잡해진다는 명목으로 반대하였다. 임금은 송인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의 건의를 허락하지 않았다. 1736년(영조 12)에 통제사(統制使)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737년(영조 13)에 조세 등의 폐단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죄목으로 삭직 처분이 내려졌다. 1740년(영조 16)에는 평안병사(平安兵使)에 임명되었다. 1743년(영조 19)에 영변부사(寧邊府使)에 임명되었는데,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임지로 갔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43 교귀(交龜) : 감사(監司), 수군통제사, 병마절도사가 바뀔 때에 발병부(發兵符)나 인신(印信) 따위를 넘겨주고 받던 일을 이른다. 즉 직무의 인수인계를 뜻한다.

5월 4일(정유) 구름이 끼었다.

5월 5일(무술) 비가 그치지 않았다. 연전(年前)에 태학생(太學生) 홍봉한(洪鳳漢)⁴⁴ 등이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을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영남(嶺南)의 유생들이 종향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릴 때 본교에서도 상소를 배행하는 유생 이서종(李瑞宗)을 보냈다. 교생(校生) 김세구(金世九)에게 고강(考講) 면제에 대한 원납전(願納錢) 30냥을 노잣돈으로 받았다. 3월 12일에 복합(伏閣)⁴⁵하였으나 윤허를 입지 못했다. 소수(疏首) 이인지(李麟至)가 금산(錦山)에 원배(遠配)되었는데 마침 세자 책봉의 때라 사면을 받고 곧바로 풀려났다.

5월 6일(기해) 습한 구름이 끼더니 가랑비가 내렸다.

5월 7일(경자) 흐리고 비가 내렸다.

5월 8일(신축) 쾌청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9일(임인)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10일(계묘) 비가 내렸다.

5월 11일(갑진) 가끔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12일(을사)

5월 13일(병오)

5월 14일(정미)

5월 15일(무신) 이상 날이 더웠다.

5월 16일(기유) 비가 내리고 우레가 쳤다. 순강(巡講)할 도사(都事) 김공 석일(金公錫一)⁴⁶이

44 홍봉한(洪鳳漢) : 1713~1778.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익여(翼汝), 호는 익익재(翼翼齋).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1735년(영조11)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뽑혔다. 동지경연사, 세손사(世孫師),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어정홍익정공주교(御定洪翼靖公奏藁)》, 《정사회감(正史彙鑑)》, 《익익재만록》 등이 있다. 시호는 익정(翼靖)이다.

45 복합(伏閣) : 신하들이 정하는 것을 왕이 듣지 않을 때에는 합문(閣門) 앞에 엎드려 승낙을 받을 때까지 물러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46 김공 석일(金公錫一) : 1694~1742.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수언(壽彦), 호는 허주와(虛舟窩). 흥진(興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준(峻)이고, 아버지는 승지 두명(斗明)이며, 어머니는 이무(李茂)의 딸이다. 1715년(숙종41) 진사가 되고, 1731년(영조 7)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39년 지평(持平)·정언(正言)을 역임하고, 1741년 동래부사를 거쳐 통정대부에

본현에 들어왔다.

5월 17일(경술) 비가 내렸다.

5월 18일(신해)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가 또 향교에 들어갔다.

5월 19일(임자) 해가 나왔다.

5월 20일(계축) 해가 나왔다. 아침에 도사(都事) 김공 석일(金公錫一)이 성인을 참배하고 봉심(奉審)하였다. 식후에 진해(鎭海)로 출발하였다.

5월 21일(갑인) 햇볕이 나고 동풍이 불었다. 신임 우후(虞候)가 본현에 들어왔다.

5월 22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근래 동풍이 상당히 차니,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3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4일(정사) 온화하였다. 팔진(八鎭) 처갓집에 갔다.

5월 25일(무오) 더웠다. 팔진에 머물렀다. 밤에 비가 내렸다.

5월 26일(기미) 큰비가 내렸다.

5월 27일(경신) 구름이 걷히지 않고 가끔 비가 내렸다. 부산 정군수(鄭君琇)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대산(大山)⁴⁷으로 돌아갔다.

5월 28일(신유) 이슬비가 내렸다.

5월 29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30일(계해) 동풍이 불고 차가운 비가 내렸다. 읍에 들어갔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갑자) 비가 내렸다.

6월 2일(을축) 비가 내려 물이 고였다.

올랐다. 문장을 잘 지었고 경사(經史)에 박통하였다. 저서에 『허주와유고』가 있다.

47 대산(大山) : (지명) 큰내끝. 경상남도 창원군 진전면 임곡리(林谷里)에 있는 마을.

6월 3일(병인) 빗방울이 떨어졌다. 향교에 들어가려다가 진흙탕이라 돌아왔다.

6월 4일(정묘) 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6월 5일(무진) 구름이 걷히고 더웠다. 밤에 또 가랑비가 내려 풀을 적셨다.

6월 6일(기사) 가랑비가 잠깐 내리다가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7일(경오)

6월 8일(신미) 이상 동풍이 불어 매우 날씨가 차니 사람들이 모두 솜옷을 꺼입고 지난 을해년(乙亥年) 추위와 같다고들 하였다.

6월 9일(임신) 덥더니 잠깐 비가 내렸다. 먼지를 적시다가 곧바로 그쳤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10일(계유) 아침에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내렸다.

6월 11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2일(을해)

6월 13일(병자)

6월 14일(정축) 이상 날씨가 매우 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15일(무인)

6월 17일⁴⁸(기묘)

6월 17일(경진) 이상 전과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관의 고과는 상(上)을 받았는데 내용이 없었다. 밤에 소낙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18일(신사) 비가 내렸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가끔 해가 나왔다.

6월 19일(임오)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6월 20일(계미) 비가 내렸다.

48 七 : 원문에는 ‘六’으로 되어 있다. 앞뒤 干支를 살펴 수정하였다.

6월 21일(갑신) 큰비가 내려 물이 들판에 넘쳐흘렀다.

6월 22일(을유) 남풍이 불고 큰비가 내렸다.

6월 23일(병술)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24일(정해) 어떨 때는 찌는 듯이 덥다가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왼쪽은 들판에 넘쳐흘렀고 오른쪽은 도랑에 물이 흘렀다.

6월 25일(무자)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6월 26일(기축)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해가 나와 덥고 남풍이 불었다.

6월 27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8일(신묘) 동풍이 불었다. 해층이 매우 들끓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29일(임진) 동풍이 불었다. 얇은 구름이 끼었지만 해가 나와 더웠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계사) 동풍이 불고 큰비가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7월 2일(갑오) 어제와 비가 내리고 오늘도 비가 내리니 시내와 들판이 한 색깔이었다. 잠깐씩 해가 나기도 했다.

7월 3일(을미)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남풍이 불어오니 좋다.

7월 4일(병신) 더웠다. 어선(漁善) 사람 심형구(沈炯龜)가 방문했다.

7월 5일(정유) 북쪽 하늘에 천둥이 치더니 잠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나는 각기병(脚氣病)을 앓고 있는데 통증이 매우 심해 식은땀이 흘렀다.

7월 6일(무술)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갑자기 없어졌다. 나는 병으로 누워 지냈다.

7월 7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병이 조금 나아졌다.

7월 8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9일(신축) 서남풍이 불어 더웠다.

7월 10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1일(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2일(갑진) 조각구름이 비를 머금고 지나갔는데 날씨가 가장 더웠다.

7월 13일(을사) 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14일(병오)

7월 15일(정미)

7월 16일(무신) 이상 日 더웠다.

7월 17일(기유) 동풍이 불었다. 긴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읍 앞 포구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관에서 막았다. 아버님이 향교에 들어갔다가 저녁이 되어 돌아오셨다. 이날 밤에 바람도 불고 비도 내렸다.

7월 18일(경술) 어제부터 이날 아침까지 바람과 비가 더욱 거셌다. 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불고 남풍이 불다가 서풍이 불었다. 오후에 바람과 비가 그치고 저녁에 구름이 걷혔다.

7월 19일(신해) 해가 나왔다.

7월 20일(임자)

7월 21일(계축)

7월 22일(갑인)

7월 23일(을묘)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4일(병진)

7월 25일(정사) 해가 나와 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26일(무오) 삼봉포(三峯浦)에 가서 유숙하였다.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27일(기미) 아침에 소낙비가 퍼붓듯이 내려 지면을 가득 적신 뒤에 그치고 뜨거운 햇살이 뒤따라 나왔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다. 또 부슬비가 내렸다. 저녁에 향교에서 돌아왔다.

7월 28일(경신)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축축하게 내렸다.

7월 29일(신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고 비가 축축하게 내렸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임술) 낮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쳤다.

8월 2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3일(갑자) 아침에 비가 쏟아졌다.

8월 4일(을축) 비가 내렸다.

8월 5일(병인) 비가 내리다가 개었다.

8월 6일(정묘) 해가 나왔다.

8월 7일(무진) 약간 흐렸다.

8월 8일(기사)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9일(경오)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0일(신미) 햇볕이 나왔지만 서늘하였다.

8월 11일(임신) 흐렸다.

8월 12일(계유) 북풍이 불고 햇살이 얇게 비쳤다.

8월 13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14일(을해) 비가 먼지를 적셨다. 근래 날씨가 매우 서늘하였다. 늦벼의 이삭이 영글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였다.

8월 15일(병자)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벗 박사도(朴師道)에게 가서 조문하였다.

8월 16일(정축)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17일(무인)

8월 18일(기묘)

8월 19일(경진)

8월 20일(신사)

8월 21일(임오)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선달(先達)⁴⁹ 윤빙삼(尹聘三)의 사위 맞는 예를 가서 구경하였다.

8월 22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먹구름이 검게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3일(갑신) 해가 나왔다.

8월 24일(을유)

8월 25일(병술) 향교에 들어갔다.

8월 26일(정해)

8월 27일(무자)

8월 28일(기축)

8월 29일(경오) 이상 해가 나왔다.

8월 30일(신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음법(陰法)의 상주 이봉징(李鵬徵)에게 가서 조문하고 다시 향교로 갔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임진)

9월 2일(계사) 이상 비가 내렸다.

9월 3일(갑오)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나왔다.

9월 4일(을미) 햇벌이 나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사또가 더 머무르기를 바라는 글을 초하였

49 선달(先達) : 원래 문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로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만을 가리켰다.

다.

9월 5일(병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저녁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9월 6일(정유) 가끔 구름이 끼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타작을 감독했다. 將活永登이 중삼(李中三)이라는 거지아이에게 향교에서 저녁을 먹이게 했다.

9월 7일(무술) 비가 내렸다.

9월 8일(기해)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9월 9일(경자)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여종 옥단(玉丹)이 덕비(德婢)와 함께 싸우고는 도망쳤다.

9월 10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구름이 끼었다. 중 명규(明圭)가 화운(和韻)을 청하기에 내가 곧바로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한식이라 화전의 옛 무덤으로 가는 길에	花田古隧寒食路
지전 태워 제사를 지내는 선비 많았지만	白楮上祀紛庶士
오랜 세월이 이끼로 작은 비석이 덮였으니	歲久苔蘚埋短碣
어찌 사적 징험할 수 있는 문자 있었으랴	豈有文字徵一二
옥어가 옛날의 물건인 줄 뉘라서 알리오	誰知玉魚舊時物
완전히 인간 세상에 나와 기이한 일 보였지	宛出人間效奇事
본래 신령한 녀은 묵묵히 감응하는 법이니	由來神鬼默有感
후인에게 보여 주는 것이 우연한 일 아니지	舉似後人非偶爾

또

흐르는 물 가까이하려 냇가에 집을 지으니	結屋臨溪爲近流
줄줄 물소리 속에 그윽한 정취를 보태어라	潺湲聲裏更添幽
분잡을 멀리하여 이미 신도반에 필적했고	謝紛已抗申屠志
번민 떨치려 속절없이 굴자를 생각하누나	撥悶空懷屈子游
천천히 걸으며 맘껏 노래하니 마음 호방하고	緩步放歌心自浩
벼 이삭 훑어 저녁밥 지으매 한가하여라	摘禾晏食意還休
한스러운 건 우리 형제 ⁵⁰ 늘 헤어져 사느라	鵠原只恨長離索
보름 동안 함께 지낼 연분이 없는 것이라오	不借聯襟半月留

9월 11일(임인)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시원하게 개었다. 이날 정재종(丁再從)이 그

50 영원(鵠原) : 《시경》 <상채(常棣)> 에 “척령이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급난을 구한다. [眷舍在原 兄弟急難] ” 한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형제를 뜻한다.

의 선산에 흠을 올렸다.

9월 12일(계묘) 해가 나왔다.

9월 13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가리동(加里洞)에 갔다가 그대로 두포(頭浦)에 도착해서 유숙하였다.

9월 14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옥비(玉婢)를 붙잡아 돌아왔다.

9월 15일(병오)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사또가 월초에 동래(東萊)에 갔다가 오늘 비를 맞으며 관아에 돌아왔다.

9월 16일(정미) 날이 개었다.

9월 17일(무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계동(契洞) 생질녀가 우귀(于歸)⁵¹하기 때문에 가서 만났다.

9월 18일(기유)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19일(경술)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장난삼아 여중들의 이름으로 시를 지었다.

가을비 속에 종일 홀로 집 안에 앉았다	秋雨終朝獨掩門
저물녘 일 없이 한가해 선원을 거닐도다	晚來無事涉仙原
돌에 부딪치는 찬 시내는 옥을 울리는 듯	寒流觸石鏘鳴玉
서리 지난 먼 산은 붉은빛이 해를 쏘누나	遠岫經霜赤射暎

이상은 마음을 읊은 것이다.

고금 세월 텅 빈 하늘에 근심이 모이고	寥廓古今憂集目
변방에는 풍진이 일어 피비린내 적신다	風塵關塞血腥坤
천추에 방형만큼 정직한 이가 없으니	千秋少似邦衡直
통곡하노니 뉘라서 대궐에 가 호소하리오	痛哭誰能叫九閭

이상은 재월(載月)에 대해 읊은 것이다. 당시 아전 김덕중(金德中)이 얻은 종이기 때문이다.

한밤 벌레 소리 문을 뚫고 시원히 들리기에	半夜秋聲徹戶涼
일어나 보니 뜰의 나무들 누런 잎을 달았어라	起看庭樹著衰黃
적요한 신세 이미 스스로 희이와 뒤섞였더니	寂寥已自希夷混

51 우귀(于歸) : 신부(新婦)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만년에 와서는 절서가 빠름을 탄식하노라 遲暮還嗟節序忙

이상에 여절(汝節)에 대해 읊은 것이다. 당시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었다.

양수라 속신을 나는 지극히 분노하였는데 揚水束薪吾極憤
대동의 저축을 너는 몹시 상심하는구나 大東杼軸爾偏傷
외진 집 안에서의 온갖 감회 그저 부질없느니 窮廬百感知徒耳
늘 생학 타고 팔방으로 나가고픈 생각뿐일레 笙鶴常思出八方

이상은 연매(蓮梅)에 대해 읊은 것이다.

취 캐고 메밀 거둬 처연히 홀로 돌아오고 採葛收蕎悵獨歸
길게 노래하며 소 먹이던 시절 추억하노라 長歌却憶飯牛時
벼를 질 적엔 애오라지 도잠의 흥 부치지만 負禾聊託陶潛興
은자를 부를 때는 도리어 송옥의 슬픔 이누나 招隱翻生宋玉悲

이상은 만절(晩節)에 대해 읊은 것이다. 상아(商兒)가 얻은 종이다. 추영(秋英)이 별감(別監) 남이용(南爾容)이 부탁하였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 때문이었다.

떨어지려는 잎새는 바람을 따라서 흔들리고 將墜葉隨風不定
찬 기운 가득한 못은 달빛 비쳐 기이해라 釀寒潭映月添奇
고금에 하고많은 가을을 상심한 그 뜻들을 古今多少傷秋意
저 무정한 조물주가 알도록 말해 주어야지 說與無情造物知

이상은 송매(松梅)에 대해 읊은 것이다. 이 구절은 운월(雲月), 연화(蓮花), 귀매(貴梅) 등에 대해 읊은 것인데 송매는 아전 최원형(崔元亨)이 얻은 종이기 때문이었다.

상족암(床足巖) 유객운(遊客韻)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고 다시 감상할 것을 기약하였다.

수확 마치고 돌아올 제 돌길 가파르는데 竟穫歸來石逕斜
급한 구름에 나는 빗줄기 마구 뿌리누나 急雲飛雨氣交加
때는 가을이라 술이 익는 평범한 마을 時秋酒熟尋常巷
시내 가까이 두어 집 촌락이 이루어졌어라 近水村成一兩家
사립문에 비치는 달빛 밟기 정히 좋나니 正好柴門踏落月
금원에 우는 갈가마귀 벳하는 것 어이 알라 那知禁苑伴啼鴉
누구에게도 마음속 생각 말할 수가 없어 無人解說心中事
곱디고운 서리 맞은 국화를 마주한다 粲粲霜籬對菊華

9월 20일(신해)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9월 21일(임자) 해가 나왔다. 장좌동(莊佐洞)에 가서 타작을 감독했다.

9월 22일(계축) 가랑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대로 향교에 들어갔다.

9월 23일(갑인) 가랑비가 내렸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도유사(都有司) 최경회(崔慶會)가 어제 저녁에 향교에 들어갔다. 오늘 아침에 시를 지어 화답을 요구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광부가 급고하는 줄이 천 길이더니	狂夫汲古綆千尋
대방을 보고부터는 공경할 바 알았대오	自見大方知所欽
팔삭과 희분을 마음껏 두루 뒤져 보고	八索羲墳恣探歷
구의와 우혈에도 일찍이 찾아가 보았지	九疑禹穴曾窺臨

또

추강은 그저 어룡이 숨는 것 허락하건만	秋江謾許魚龍蟄
산목은 뉘라서 세월이 깊다 불쌍해하랴	山木誰憐歲月深
나를 거두어 과분하게 벗으로 대해 주니	收拾猥蒙相唯諾
한마디 말씀 어찌 쌍남금과 같을 뿐이라	片辭奚啻雙南金

9월 24일(을묘) 동풍이 불더니 해가 나와 따듯하였다. 지난 보름에 재임(齎任)인 창의(掌議) 최황상(崔璜相)과 시를 읊은 기억을 더듬어 기록한다.

이난께서 누추한 이곳을 방문해 주시니	二難迂駕荷相尋
풍모를 한 번 봄에 공경이 절로 일어났소	一見風儀便起欽
검외의 문장이라 식철에 놀랐고	劍外文章驚軾轍
관중의 경례라 방림을 보았대오	關中經禮見防臨

또

이별의 술잔 들 제 석양에 구름은 멀고	離樽落日雲堪遠
한 필의 말 타고 갈 때 천산에 눈 깊으리	匹馬千山雪正深
봄날 절에서 만나자는 약속 잘 지키시길	珍重春來蕭寺約
그대의 한 번 승낙이 천금보다 중한 줄 아오	知君一諾重千金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5일(병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9월 26일(정사)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와룡산(臥龍山)의 중 원숙(元淑)이 시 초고를 가지고 나에게 화답을 요구하기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이미 세운 훈업 이려에 짝할 만하니	已將勳業配伊呂
천년토록 우주에 높은 공 독차지했어라	宇宙千年獨擅高
돌무더기는 지금도 협곡에 웅장하건만	石絕如今猶壯峽
역루에서 당시 몇 번이나 붓을 적셨더뇨	驛樓當日幾濡毛

또

치세가 이뤄졌으면 절로 사삼대가 됐으련	治成自足四三代
사세가 결정됨에 십배조는 말할 것 없었지	事定無論十倍曹
우스워라 저 설능은 무슨 식견이런고	可笑薛能底見識
공공연히 당시의 출사를 조롱하다니	公然調戲出師勞

9월 27일(무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8일(기미) 해가 나왔지만 북풍이 불어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29일(경신) 해가 나왔다.

10월 양월(良月) 소월(小月).

10월 1일(신유)

10월 2일(임술) 해가 나왔다.

10월 3일(계해) 처음으로 얼음이 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가 곧바로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4일(갑자)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10월 5일(을축) 우박이 떨어졌다. 구름이 걷힌 뒤에 산머리를 보니 쌓인 눈으로 푸른 숲이 다 덮였다.

10월 6일(병인) 지금 사또가 중수하는 일에 힘을 쏟아 객사를 중수하였는데 또 성첩(城堞)을 수리하고 관도(官道)를 개수하여 남문(南門)을 통하게 하였다.

10월 7일(정묘)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관도 수축의 공사를 끝냈다.

10월 8일(무진) 아침에 비가 내려 가볍게 먼지만 적시고 곧바로 그쳤다.

10월 9일(기사)

10월 10일(경오)

10월 11일(신미)

10월 12일(임신) 이상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용동(龍洞)⁵² 매형이 엇그제 와서 부모님을 뵈었다.

10월 13일(계유)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몽아(夢兒)가 《사략》 첫 권을 끝마쳤다.

10월 14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15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6일(병자) 저녁에 구름이 끼었다.

10월 17일(정축)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남산 아래 나무 한 그루가 우레를 맞으니 괴이하다.

10월 18일(무인)

10월 19일(기묘)

10월 20일(경진)

10월 21일(신사)

10월 22일(임오)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0월 23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순상(巡相) 민공 응수(閔公應洙)가 순찰하기 위해 본현에 도착하였다. 밤에 등불이 환하게 빛났다.

10월 24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순영이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10월 25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순상이 진해(鎭海)로 향했다.

10월 26일(병술) 조금 추웠다.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52 용동(龍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이다. 옛날 이곳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용(龍)이 승천했다고 하여 ‘용(龍)’자를 따서 용마을이라 하였다. 용동에는 구상덕의 매형인 윤영래(尹迎來)의 집이 있었고, 또한 처가가 있었으므로 자주 내왕하던 곳이다.

10월 27일(정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28일(무자)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9일(기축) 해가 나와 매우 따뜻하니 사람들이 모두 갓옷을 벗었다. 저녁이 되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저물녘에 비가 내려 가볍게 먼지를 적셨다.

11월 지월(至月) 대월(大月).

11월 1일(경인) 바람이 불고 눈이 잠깐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2일(신묘)

11월 3일(임진) 이상 조금 추웠다.

11월 4일(계사) 빗방울이 떨어졌다.

11월 5일(갑오) 추웠다.

11월 6일(을미)

11월 7일(병신)

11월 8일(정유)

11월 9일(무술)

11월 10일(기해)

11월 11일(경자)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1월 12일(신축) 아침에 비가 먼지를 적시다가 금방 그쳤다.

11월 13일(임인) 추웠다. 단자(單子)를 올려 고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4일(계묘)

11월 15일(갑진) 이상 춥고 따뜻하기가 서로 반반이었다.

11월 16일(을사) 매우 추웠다.

11월 17일(병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18일(정미)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11월 19일(무신) 햇볕이 나와 온화하였다.

11월 20일(기유) 새벽에 보니 하늘에 구름이 모여 있었다. 아침 해에 빛이 없었다. 식후에 구름이 사라지고 온화하더니 저녁이 되자 다시 흐렸다가 밤에 걷혔다.

11월 21일(경술)

11월 22일(신해) 햇볕이 나와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3일(임자) 가끔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다가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종일 기상이 일정하지 않았다. 지난번 관아의 여러 손님들이 사포의 형 서천(舒川) 김성흠(金聖欽)과 죽도(竹島) 포구에서 배를 타고 놀았다. 지를 지어 화답을 요구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장무의 훌륭한 가정에 난곡의 자태라 ⁵³	莊武家庭鸞鵠姿
태사의 자제분들 병든 늙은이 본보기였지	太師諸子病翁規
선비의 풍모를 갖춘 그 모습에 매양 기뻐고	典刑每喜存儒雅
나라를 위협에서 건진 문벌이라 차탄하였지	世閥仍嗟濟國危
한 군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찾아뵈었던고	同郡幾多床下拜
별들이 모일 때 자주 술 속 미음 그르쳤지	聚星頻誤鼎中糜
지금에 남은 향기를 그 누가 세상에 기릴꼬	祗今遺馥知誰闡
이 몸 헛되이 이습지 ⁵⁴ 가 된 것이 부끄럽구려	慙愧虛爲李習之

또 사포의 부친 수연운(壽宴韻)에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봄날 걸어서 고개촌 숲 속을 지나노라니	春日行穿孤介林
철 따라 우는 새소리가 새로워 홀연 놀랐지	忽驚時鳥變新音
옥을 울리듯 가는 시냇물 소리 익숙하고	細泉鳴玉聞猶慣
그윽한 곳 뚫린 오솔길 너무도 깊어 의아했지	小徑通幽訝許深
고결한 데에 능히 뜻을 세웠다는 것 알았으나	高潔剩看能辦志

53 장무의……자태라 : 장무는 태사북평장무왕(太師北平莊武王)으로, 한유(韓愈)의 〈전중소감마군묘명(殿中少監馬君墓銘)〉에, 당(唐)나라 때 명가(名家)의 후예로서 37세를 일기로 운명한 마계조(馬繼祖) 일가 삼대(三代)와의 인연을 술회하고 있는데, 마계조의 조부가 바로 태사북평장무왕으로 추증된 마수(馬燧)이고, 마계조의 부친인 소부감(少府監) 마창(馬暢)의 인품을 형용하면서 “푸른 대 푸른 오동에 난새나 고니가 우뚝 서 있는 것과 같아 능히 가업을 잘 지킬 분이더라.” 하였다. 난곡(鸞鵠)은 난새와 고니로, 훌륭한 자제를 뜻한다.

54 이습지(李習之) : 당(唐)나라 때 고문(古文)의 대가(大家)로, 한유(韓愈)의 조카사위이다.

간절히 바라노니 심상한 데에 유념하게나	尋常切願更留心
세간의 만사가 평이하고 착실한 게 귀한 법	世間萬事貴平實
터럭만큼 어긋나면 산새가 되는 것 못 면하지	差却毫釐不免禽

11월 24일(계축) 바람이 불고 눈이 어지럽게 날렸다.

11월 25일(갑인) 찬바람이 불었다.

11월 26일(을묘) 해가 나왔지만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27일(병진)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8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9일(무오) 바람이 불었다.

11월 30일(기미) 따뜻하였다. 남촌진(南村鎭)에 갔다가 곧바로 돌아왔다.

12월 대월(大月).

12월 1일(경신) 서북풍이 불었지만 온화하였다.

12월 2일(신유) 북쪽 하늘에 거세가 우레가 치고 소낙비가 바람을 타고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12월 3일(임술) 해가 나오고 바람이 불었다. 매형 이여섭(李汝涉)과 함께 은봉암(隱峯庵)에 올랐다.

12월 4일(계해) 온화하였다. 은봉암에 머물렀다.

12월 5일(갑자) 바람이 불고 추웠다. 산에서 기도하여 액막이[度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6일(을축) 해가 나왔지만 서늘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7일(병인)

12월 8일(정묘)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가동(可洞)⁵⁵에 가서 강도희가 며느리를 맞는

55 가동(可洞) :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에 위치한다. 가동에는 강성주(姜聖周), 강도희(姜道義), 제하백(諸夏伯), 제하봉(諸夏封) 등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구상덕은 뗏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동을 왕래하기도 하였다.

예를 구경하였다.

12월 9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0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1일(경오) 햇벌이 나와 온화하였다. 읍에 들어갔다 곧바로 돌아왔다.

12월 12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임씨(林氏) 성을 가진 지사(地師)와 함께 대동(垓洞)에 올라가 성묘하고 돌아왔다.

12월 13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청주(淸州) 신대기(辛大器) 자는 受而)가 교당(校堂)에 와서 묵었다.

12월 14일(계유)

12월 15일(갑술)

12월 16일(을해)

12월 17일(병자)

12월 18일(정축) 이상 햇벌이 나와 따사로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9일(무인) 저물녘에 하늘에서 몇 차례 천둥이 치더니 비가 몇 방울 떨어졌다.

12월 20일(기묘) 해가 나와 온화하였다. 마을의 김상인(金尙仁) 집에 불이 났다.

12월 21일(경진) 나는 읍에 들어가 장대(場臺) 아래 들어갔다 비를 만나 돌아왔다.

12월 22일(신사) 향교에 들어갔다. 신대기(辛大器)가 무신년(戊申年)에 창의(倡義)한 공이 있는데 낙방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주었다.

추억하노니 옛날 중국 사신이 오던
당시에 접반사가 된 건 좋은 인연이라
이조의 원외랑은 바로 우리 조부이신데
서령에서 시 읊던 중 적선을 만났어라
천리 먼 곳 송추에는 마렵만 남았나니
몇 해나 요해는 낭연으로 막히었던고
지금은 갱장의 사모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주경을 생각하며 하천에 느낌다오

憶昨皇華來自天
當時占擯亦良緣
東銓員外爲吾祖
西嶺吟中遇謫仙
千里松楸空馬鬣
幾年遼海隔狼煙
祗今非但羹牆慕
念彼周京感下泉

12월 23일(임오)

12월 24일(계미)

12월 25일(갑신)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2월 26일(을유) 가랑비가 내렸다.

12월 27일(병술) 또 빗방울이 떨어졌다.

12월 28일(정해) 온화하였다. 청주(淸州) 사람 진사 채이림(蔡以休)이 방문하였다. 내가 다 음과 같이 시를 지어 주었다.

차디찬 절벽 아래 시냇물	冷冷絕磻水
떨어지네 이곳 송풍헌으로	落此松風軒
시냇물은 풍풍 솟아 활기차게 흐르고	磻水源流活
솔바람은 밤낮으로 조용할 때가 없네	松風晝夜喧
처음엔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나 싶었는데	初疑奏天樂
다시 들으니 소호의 음악과 비슷하기도	復似韶濩音
우리 스님께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上人跏趺坐
줄 없는 거문고로 화답을 하신다오	和以沒絃琴

채이림이 여러 고을 사또들과 통영(統營)에서 놀았기 때문이었다.

12월 29일(무자)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30일(기축)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햇벌이 나와 온화하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사또 김후(金侯)가 지난 11월에 과만(瓜滿)⁵⁶이었으니, 임기 전에 과만을 보고해야 했는데 좌우에서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어 아직까지 임기를 보고하지 못했다. 그런데 경사(京司)에서 신임 사또를 보냈으니 무안하다가 하겠다. 신임 사또는 바로 무변(武弁) 출신 안후 상오(安侯相五)이다.

정사년 1737년(영조13)

1월 소월(小月). 1일 임인. 5일 입춘절, 19일 우수중.

2월 대월(大月). 1일 기미. 5일 경칩절, 20일 춘분중.

3월 대월. 6일 청명절, 21일 곡우중.

4월 소월. 6일 입하절, 21일 소만중.

56 과만(瓜滿) : 벼슬의 임기가 참.

5월 대월. 9일 망중절, 24일 하지중.
 6월 소월. 10일 소서절, 24일 초복, 26일 대서중.
 7월 대월. 13일 입추절, 14일 말복, 28일 처서중.
 8월 소월. 14일 백로절, 29일 추분중.
 9월 대월. 15일 한로절, 30일 상강중.
 윤9월 소월. 15일 입동 십절(十節).
 10월 소월. 1일 소설중, 16일 대설 지절(至節).
 11월 대월. 2일 동지중, 16일 소한 12일절.
 12월. 1일 대한중, 16일 입춘 정절(正節).

1월 소월(小月)

1월 1일(경인) 자야(子夜 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반에 서북풍이 부는 기색이 있는 듯하더니 또 동풍이 불었다. 검푸른 구름 한 줄기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질렀는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그대로 사라졌다. 닭이 울 때에 날씨가 청명하였다. 바람이 거의 없고 날이 화창하였다. 종일 햇별이 나와 따사로웠다. 닭 울음이 15차례 들리고, 더러 8, 9차례 들렸다.

1월 2일(신묘)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이날 밤에 동쪽 우물에서 잉어가 뛰어올라 비둘기가 되는 꿈을 꾸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1월 357일(임진) 햇별이 나와 온화하였다.

1월 4일(계사)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서풍이 살짝 불었다. 이날 저녁에 장경성(長庚星)이 상현달 위에 있었는데 잠시 뒤에 달 속으로 들어가 어디 있는지 놓쳐버렸으니, 대기 달 속에 들어가 먼저 빛을 뺏긴 것이다. 잠시 뒤에 달 아래로 나오니 마치 구슬이 매달린 듯 이슬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이었다. 이상하게도 바라보면 뒤에 있다가 불현 듯 앞에 있기도 하였다.

1월 5일(갑오) 북풍이 불었다. 뒤늦게 사또의 부친 수연운(壽宴韻)에 화답하여 다음과 같이 지어 올렸다.

밝은 은하수는 중천에 걸려 있고	明河橫中天
별과 달은 선명한 빛을 흘려보내는 밤	星月流鮮輝
이슬방울은 푸른 풀잎에 알알이 맺혀 있고	溥露滋碧草
가을바람은 선들선들 높은 가지에 일어나네	涼颺動高枝
대청마루가 자못 시원스럽게 툭 터져서	軒墀頗爽埜
오래 앉아 있노라니 마음이 절로 풀어지네	坐久心自怡
굽어보고 쳐다봄에 한없이 펼쳐진 공간이요	俛仰曠無垠

57 三 : 원문에는 ‘二’로 되어 있다. 앞뒤 干支를 살펴 수정하였다.

만고토록 언제나 똑같은 현재의 시간이로세	萬古同一時
감개한 감정이 어느 곳에서 찾아와서	感慨何方來
나로 하여금 시를 애써 읊게 하는고	令我苦吟詩
시가 지어지면 다시 길게 노래하며	詩成復長詠
뜰에서 벌레들의 울음소리 기다리네	庭際俟蟲嘶

또 제야운(除夜韻)에 차운하였다.

비는 산바람 좇아 계곡 건너며 울고	雨逐山風渡壑鳴
작은 오동 가을 잎은 거친 뜰 덮었네	小梧秋葉蔭荒庭
아이 불러 콩 한 그릇에 애기꽃 피우다	呼童一器供談話
웃으며 찬 재 뒤지매 강낭콩은 푸르구나	笑撥寒灰豆莢青

또

시내와 뫼 수려한 정토산 속에	淨土溪山勝
개천사 원우가 청정하게 자리했네	開天院宇清
소식적에 일찍이 머물렀던 곳	少年曾寄迹
오늘날 어디보다 마음이 끌린다오	今日最關情

1월 6일(을미) 해가 나왔다. 또 전운(前韻)에 차운하여 안동 생원 권모 창언(權謨昌言)에게 주었다.

저녁 안개 가을비에 그윽한 약속 지키느라	暮煙秋雨果幽期
푸른 도포 다 젖고 나막신 굽 흠투성일세	濕盡青衫履齒泥
몇 칸의 오두막집은 저자에서 먼 곳이라	矮屋數椽朝市遠
망천거사 ⁵⁸ 는 그냥 앉아 기심을 잊었구려	輞川居士坐忘機

또

이내의 푸름은 일천 봉우리 색깔이요	嵐翠千峯色
솔에 부는 바람은 일만 골짜기 소리로세	松風萬壑聲
향수 찾아 떠나고 싶은 이 마음	擬尋香穗去
이미 삼생에 서원(誓願)을 했소이다	結願已三生

이는 대개 창언 씨가 나에게 안동으로 이사하라고 청했기 때문이었다.

1월 7일(병신) 춥고 눈이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권창언 씨가 나에게 전운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58 망천거사 : 망천은 당나라 왕유(王維)의 별장으로, 망천거사는 왕유를 가리킨다.

저녁 안개 가을비에 그윽한 약속 지키느라
푸른 도포 다 젖고 나막신 굽 흙투성일세
몇 칸의 오두막집은 저자에서 먼 곳이라
망천거사는 그냥 앉아 기심을 잊었구려

暮煙秋雨果幽期
濕盡青衫履齒泥
矮屋數椽朝市遠
輞川居士坐忘機

또

진완은 먼 옛날 신선이 노닐던 곳
고대에 그 자취 아직도 남아 있네
무쇠 깎은 바위에는 학이 등지 틀고
기름 도는 물에는 용이 누워 있다오

眞婉仙遊遠
高臺勝迹留
鶴巢巖削鐵
龍臥水旋油

집으로 돌아왔다.

1월 8일(정유) 해가 나왔지만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월 9일(무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권창언(權昌言)의 하관(下館)을 찾아가 종일 담소를 나누었다. 밤에 또 술을 가지고 가면서 한 묶음 시내 구름을 노자로 삼았다.

1월 10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생원 권창언이 돌아갔다.

1월 11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2일(신유) 잠깐씩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다가 하였다.

1월 13일(임인) 가끔 구름이 끼었다.

1월 14일(계묘) 매우 추웠다.

1월 15일(갑진) 추웠다. 달이 조금 높이 떠올랐다고 하였다.

1월 16일(을사) 사또가 청해당(淸海堂)에서 잔치를 열었다.

1월 17일(병오)

1월 18일(정미)

1월 19일(무신) 이상 추웠다.

1월 20일(기유) 구름이 끼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1월 21일(경술) 빗방울이 떨어졌다. 14일 초저녁에 성안에서 닭들이 일제히 울었다고 하였다.

1월 22일(신해) 쾌청하였다. 산머리에 흰 눈이 쌓였다.

1월 23일(임자) 온화하였다. 성묘(聖廟)를 중수하였다. 향축(香祝)이 내려와 전패(殿牌) 안에 봉안하였다. 유생 한 사람이 받들어 지켰는데 삼문(三門) 내를 밤마다 군인 세 사람이 와서 문에서 숙박하였다. 유생의 직숙방(直宿房)에 쓸 빨감은 현사(縣司)⁵⁹에서 매일 저녁에 한 묶음씩 올리기로 했다.

1월 24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5일(갑인) 잠깐 눈이 내렸다.

1월 26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날 서울 사람이 원승이를 데리고 성중에 왔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시장을 이루었다.

1월 27일(병진) 바람이 불고 추웠다.

1월 28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9일(戊午)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식후에 또 향교에 들어갔다.

2월 대월(大月).

2월 1일(기미) 햇벌이 나왔지만 추웠다. 서재(書齋)를 짓고 훈장으로 생원 박증윤(朴增潤)을 맞이하였다.

2월 2일(경신)

2월 3일(신유) 따뜻함과 추위가 서로 반반이었다.

2월 4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또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부고가 왔다.

2월 5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6일(갑자)

59 현사(縣司) : 현의 호장이 직무를 보는 곳으로, '현사(縣舍)'라고도 한다.

2월 7일(을축)

2월 8일(병인) 이상 날씨가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2월 9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파재(罷齋)한 뒤에 미처 음복을 하지 못했는데 나이 많은 향인들이 집단을 만들어 재임(齋任)을 벌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하였다. 향전(鄕戰)이 시작되자 남향(南鄕) 사람들이 피해 나갔다.

2월 10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새로 선출된 재임 배순문(裴舜文), 허현(許現), 이호징(李虎徵)이 교당(校堂)에 앉아있고, 남향 사람들은 들에서 당회(堂會)를 열어 또 제하봉(諸夏封), 최황(崔璜), 최기준(崔起峻)을 선출하였다. 나는 이평(李平)의 집에서 묵었다.

2월 11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헌관(獻官)이 향교의 소식을 사천(泗川) 청천(靑川)의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신임 사또에게 보고하였다.

2월 12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비가 내렸다. 신임 사또 안후 상호(安侯相五)가 관아에 나왔다.

2월 13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관에서 패(牌)를 보내 이용징(李龍徵), 배순문(裴舜文), 허현(許現), 이호징(李虎徵), 수헌(首獻) 최경전(崔慶全), 아헌(亞獻) 최성(崔晟)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다.

2월 14일(임신) 구름이 질게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관에서 당장(堂長)을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다. 신임 재임으로 이정황(李挺寅), 이형종(李亨宗), 최원대(崔遠大)를 선출했는데 이장익(李掌議)이 사임하였다.

2월 15일(계유) 청명하였다. 밤에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2월 16일(갑술) 비가 그치지 않았다. 향교에 머물렀다.

2월 17일(을해) 동풍이 불고 습한 구름이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전임 재장(齋長) 이창운(李昌運)을 또 가두었다.

2월 18일(병자) 종일 바람이 불고 추웠다. 고합(古蛤)이 많이 났는데 계축년(癸丑年) 봄과 다르지 않았다.

2월 19일(정축) 바람이 불고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2월 20일(무인) 계속 비가 내리고 밤에 우레가 쳤다.

2월 21일(기묘)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아왔다.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2월 22일(경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서재에 들어가 정좌하고 절구 1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강 북쪽 돌산에는 가을 뒤의 나무요	水北石山秋後樹
강 남쪽 주막에는 한낮의 닭 울음이라	水南茅店午時鷄
지친 노새와 옛 잔도엔 비긴 바람 거센데	蹇驢古棧斜風勁
가랑비 부슬부슬 맞으며 월계를 건너가네	細雨疎疎渡月溪

서재를 용암서재(龍岩書齋)라고 하였다. 재장(齋長) 박생(朴生)이 화답하였다.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각자 형벌을 받고 돌아왔다. 한밤중에 비가 내렸다.

2월 23일(신사)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돌담을 쌓았다.

2월 24일(임오) 가끔 구름이 끼었다.

2월 25일(계미) 비가 그치지 않았다.

2월 26일(갑신) 비가 내리다가 개다가 했다.

2월 27일(을유) 맑고 온화하였다.

2월 28일(병술) 낮에 해가 나오고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29일(정해) 어제 향교에 들어갔다. 오늘 돌아왔다.

2월 30일(무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3월 대월(大月).

3월 1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3월 2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3일(신묘) 매우 따뜻하였다. 서재 낙성연(落成宴)에 고유문(告由文)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외로운 작은 섬에 왕래하면서	榻夾孤嶼上
아침저녁 끼니를 남의 집에서	旅食度朝昏
부녀들은 키가 작아 자라걸음새	婦矮行如鼈
백성들은 곤궁하여 원숭이 얼굴	民窮貌似猿

풍속은 비록 괴상하여도
 예법은 제법 어른·애 아네
 해 지자 비린 연기 자욱해지고
 가을 깊어 장기가 훈훈하구나
 올망졸망 비슷한 산봉우리들
 구불구불 뻗어나간 바닷가
 돛은 하늘 그림자 끊어 나누고
 모래 더미에는 물 나간 자리 알겠네
 해경은 옛 것을 맞춰 보리만
 조력은 사공에게 물어볼 밖에
 늙은 나무는 바람 서슬에 위어져 있고
 놀란 물결 돌을 만나 아우성치네
 중과 한 방에 거처를 하고
 세상과는 인연 멀어 시끄러움 몰라라
 낚싯대 들고 때를 기다리고
 때를 타는 흥치도 있네
 긴 노래 그 누구가 화답을 하리
 말 없이 나 혼자 한숨만 쉴 뿐
 연파의 이 즐거움도
 오히려 성주의 은혜인 것을

俗雖乖習尙
 禮或識卑尊
 日落腥煙合
 秋深瘴氣溫
 峯巒同翼翼
 浦溆轉蜿蜿
 帆截分天影
 沙堆認水痕
 海經將古驗
 潮曆問今煩
 老樹嫌風亞
 驚濤得石喧
 將僧同止息
 與世隔囂喧
 把釣時堪待
 乘桴興又存
 長歌誰見和
 大息只無言
 須信煙波樂
 猶爲聖主恩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질서 있는 첫 잔치 거룩도 한데
 웅숭깊다 새 집이 하도나 커서
 오늘이라 종친이 다 모여드니
 백 년인들 변하리 효우의 마음
 정원엔 몽게몽게 화기가 떠돌고
 줄 노래 넘실넘실 모두 옛가락
 가부의 결탁이 내게는 다행
 한데 어울려 읊은 시 들으니 말야

秩秩初筵盛
 潭潭大廈深
 宗親今日會
 孝友百年心
 庭院浮和氣
 絃歌有古音
 葭莩眞我幸
 攀附聽高吟

박생(朴生)이 화답하고 또 율시 1수를 지었다. 내가 또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서울은 변화하다 집이 십만 호
 붉은 난간 푸른 기와 으리으리해
 그 가운데 달팽이 같은 초옥이 있어
 비바람도 막을 수 있네
 스스로 편안해라 자랑도 할 만
 조습을 무어 걱정하리 방비가 있네
 문 닫긴 추운 날엔 작라도 칠 수 있고

京都繁庶十萬家
 朱欄碧瓦競紛奢
 就中草屋小如蝸
 上雨旁風猶得遮
 晨昏自安亦足誇
 燥濕有備夫何嗟
 門掩寒天雀可羅

처마 트인 긴 날엔 오사도 마땅하네 簷虛永日宜烏絲

나에게 경계하는 바가 있어 이렇게 읊은 것이다.

3월 4일(임진) 비가 내렸다. 밀양(密陽)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가 4개에 다리가 8개인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이상한 일이다.

3월 5일(계사) 비가 내렸다.

3월 6일(갑오) 맑고 따뜻하였다.

3월 7일(을미)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8일(병신)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잤다.

3월 9일(정유) 맑고 온화하였다.

3월 10일(무술) 흐리고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11일(기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3월 12일(경자)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돌아왔다.

3월 13일(신축) 조금 서늘하였다. 이날 밤 해시(亥時)에 딸아이가 태어났다. 그때 달빛은 낮처럼 환하고 북두성 자루가 둘러던 참이었다.

3월 14일(임인) 서풍이 불었다. 얇게 구름이 끼었다.

3월 15일(계묘) 서풍이 불었다.

3월 16일(갑진) 아침에 비가 내렸다.

3월 17일(을사) 해가 나왔다.

3월 18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조카아이 유상룡(柳尙龍)이 와서 배웠다.

3월 19일(정미) 구름이 끼고 흠비가 내렸다.

3월 20일(무신) 따뜻하였다.

3월 21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22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23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관에서 재임으로 도유사(都有司) 최경회(崔壽會)를 정했다.

3월 24일(임자) 바람과 날씨가 좋지 않았다.

3월 25일(계축) 북풍이 불었다.

3월 26일(갑인) 이슬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통제사가 순찰하기 위해 월치(月峙)⁶⁰를 넘었다.

3월 27일(을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나는 백성의 고충을 알리는 소장을 지었다.

3월 28일(병진)

3월 29일(정사) 이슬비가 내렸다.

3월 30일(무오)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소월(小月).

4월 1일(기미)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일(경신) 이슬비가 내렸다.

4월 3일(신유)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4일(임술) 해가 나왔다. 시냇가에 모여 술을 마셨다.

4월 5일(계해)

4월 6일(갑자) 이상 추웠다.

4월 7일(을축) 구름이 끼고 추웠다. 밤에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8일(병인)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밤에 서리가 내리가 어린 풀들이 말라죽었다.

60 월치(月峙)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銀月里)에 있다. ‘달(月)’자와 고개를 뜻하는 ‘치(峙)’자를 합하여 ‘월치(月峙)’라고 하였으며 ‘월치고개’ 또는 ‘달티고개’라고도 부른다.

4월 9일(정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10일(무진) 갑자기 추워졌다.

4월 11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12일(경오)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13일(신미)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14일(임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두포(頭浦) 좌수(座首) 이경석(李慶錫)과 외동(外洞) 장의(掌議) 최성(崔晟)이 어제 방문했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오늘 동지(同知) 최섬(崔暹)이 뒤늦게 왔다가 그대로 남촌(南村)으로 향했다. 나는 이 매형, 정재종(丁再從)과 동행하여 본진(本鎭) 비장청(裨將廳)에서 유숙하였다. 이때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4월 15일(계유) 비가 내리다가 낮이 되자 잠깐 개었다. 마침내 배를 띄우고 바다로 나가 가룡포(駕龍浦) 좌수 최원망(崔元望) 댁에 들어갔다. 이 좌수는 길에 있고 배를 타지 말라는 경계가 있다고 하면서 뒤에 쳐져 육지로 가서 도착했다.

4월 16일(갑술) 쾌청하였다. 이날은 바로 좌수 최원망(崔元望)이 사위를 맞는 날이기 때문에 손님이 모였지만 많지 않았다.

4월 17일(을해) 맑고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18일(병자) 서풍이 불었다.

4월 19일(정축) 서풍이 불었다.

4월 20일(무인) 나는 움[疥瘡]으로 고생했다.

4월 21일(기묘)

4월 22일(경진)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4월 23일(신사) 아침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24일(임오) 소낙비가 내렸다.

4월 25일(계미) 해가 나왔다.

4월 26일(갑신) 잠깐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27일(을유) 비가 내렸다. 성만빈(成晩賓), 윤우빙(尹遇暉)과 함께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4월 28일(병술)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9일(정해) 약간 구름이 끼었다가 저녁에 사라졌다.

5월 대월(大月).

5월 1일(무자) 해가 나와 더웠다.

5월 2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3일(경인) 밤에 비가 내렸다.

5월 4일(신묘)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5월 5일(임진)

5월 6일(계사) 청명하였다.

5월 7일(갑오)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8일(을미) 해가 나왔다.

5월 9일(병신) 구름이 끼었다.

5월 10일(정유) 비가 내렸다.

5월 11일(무술)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5월 12일(기해) 해가 나왔다. 황형(黃瑩)이 왔다.

5월 13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황형이 갔다.

5월 14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5일(임인) 약간 흐렸다.

5월 16일(계묘)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5월 17일(갑진) 햇볕과 구름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18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9일(병오)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5월 20일(정미) 해가 나왔다.

5월 21일(무신)

5월 22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3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유근탕(榴根湯)을 복용하여 촌백충(寸白虫)을 쫓아냈다.

5월 24일(신해) 더웠다.

5월 25일(임자) 더웠다.

5월 26일(계축) 안개가 끼고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7일(갑인)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 먼지를 적시더니 구름이 가셨다.

5월 28일(을묘) 흐리고 더웠다.

5월 29일(병진)

5월 30일(정사) 이상 날이 몹시 더웠다. 겨우 이양만 했는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사방 들판에 곡식들이 심하게 말랐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무오) 더웠다.

6월 2일(기미) 동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다.

6월 3일(경신) 비가 충분히 내렸다.

6월 4일(신유) 해가 나와 더웠다.

6월 5일(임술) 더웠다.

6월 6일(계해) 비가 내렸다.

6월 7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8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9일(병인) 가끔 구름이 끼었다. 동래(東萊)에서 돼지가 눈이 세 개인 새끼를 낳고, 합천(陝川)에서는 어떤 사람이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곧바로 죽었다고 하였다.

6월 10일(정묘) 아침에 비가 이슬처럼 내렸다.

6월 11일(무진)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12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서 생원 허서(許序)의 상에 들러 조문하고 돌아왔다.

6월 13일(경오)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14일(신미)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

6월 15일(임신) 비가 내렸다.

6월 16일(계유) 가랑비가 내렸다.

6월 17일(갑술) 잠깐 흐렸다가 개었다가 하였다.

6월 18일(기해) 해가 나왔다.

6월 19일(병자)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20일(정축)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6월 21일(무인) 밤에 비가 내렸다.

6월 22일(기묘) 가랑비가 내렸다.

6월 23일(경진) 잠깐씩 해가 났다가 비가 내리다가 하였다.

6월 24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5일(임오)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해가 나와 더웠다.

6월 26일(계미) 찌는 듯이 더웠다. 시가[市直]가 걸보리[皮牟] 25말이다.

6월 27일(갑신) 몹시 더웠다. 음법(陰法) 이 상주(李喪主)를 만나고 무기정(舞妓亭)에서 묵었다.

6월 28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29일(병술) 동풍이 불었다. 능아(能兒)가 천자문 읽기를 끝마쳤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정해) 동풍이 불고 더웠다.

7월 2일(무자) 가끔 구름이 끼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3일(기축) 집으로 돌아왔다.

7월 4일(경인) 몹시 더웠다.

7월 5일(신묘)

7월 6일(임진)

7월 7일(계사) 이상 가뭄이 매우 심했다.

7월 8일(갑오)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구름이 끼었다.

7월 9일(을미) 매우 더웠다. 관에서 사직기우제(社稷祈雨祭)를 지내기 때문에 나는 읍에 들어갔다.

7월 10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대동사묘(大同社廟) 앞에서 재계를 하였다.

7월 11일(정유) 시직사묘(社稷祠廟)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뒤에 소낙비가 내려 지면을 적셨다.

7월 12일(무술) 비가 또 먼지를 적셨다. 잠깐 햇벌이 나왔다가 흐렸다가 하였다.

7월 13일(기해) 가끔 구름이 끼었다. 관에서 벽방산(碧芳山)에 기우제를 지냈다.

7월 14일(경자) 매우 덥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7월 15일(신축) 매우 덥더니 낮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용수암(龍水岩)에 갔다.

7월 16일(임인) 제사를 지낸 뒤에 곧바로 출발하여 향교에 들어갔다. 이때 토룡(土龍)과 괘불상(掛佛像)을 만들어 기우제를 지내자 먼지를 적셨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7월 17일(계묘) 잠깐씩 구름이 끼다가 해가 났다가 하였다. 황리포(黃里浦)⁶¹에 모여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다. 밤에 멀리에서 우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7월 18일(갑진) 가랑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7월 19일(을사) 매우 더웠다.

7월 20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관에서 각리(各里)에 기우제를 지내도록 분부하였으므로 본리에서도 벽방산에 기우제를 지내게 되었다. 내가 다음과 같이 축문을 지었다.

영령께서는	惟靈
용맹을 떨쳐 자신을 돌보지 않고	勇不謀身
큰 환란을 막아 내셨나니	能捍大患
일심으로 나라 위해 목숨 바쳐	一心殉國
죽을지언정 그 마음 변치 않았습니다	之死不渝
왕께서는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王愍其忠
책서를 내려 아경(亞卿)에 추증하였고	策書追秩
고을 사람들은 사당을 세워서	鄉人立祠
경건한 마음으로 제향을 올렸습니다	報事之虔
뜻밖에 화재가 발생하여	不虞濫焰
불길이 치솟아 사당을 태우자	妄起延爇
서둘러 신주를 옮겨 봉안하여	蒼黃移奉
오래도록 정사(精舍)를 떠났습니다	久離精廬
지금에서야 중수하여	今乃重修
길일을 가려 영령을 봉안하노니	涓吉妥靈
신령께서는 굽어살피시어	神其降監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소서	永奠厥居

밤에 동운(同雲)이 끼었다.

61 황리(黃里) : (지명) 현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이다. 고성군과 경계를 이루는 통영시 동북쪽에 위치하는데, 원래 고성현에 속했다.

7월 21일(정미) 자야(子夜 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새벽에 또 이와 같았다. 올해 이번 가뭄에 근년에 가장 심하다. 승무(僧巫)들이 관문 앞에 모여 기도를 드렸는데 피리와 북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22일(무신) 비가 먼지를 적셨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3일(기유) 비가 지면을 적셨다. 근래 소가 병이 나서 다리를 절고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더니 약을 쓰지 않고도 저절로 나았다.

7월 24일(경술) 잠깐 흐렸다가 햇볕이 나왔다가 하였다.

7월 25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통영(統營)에 들어가 구당침(丘塘沾)에 도착했다. 가랑비가 내렸다. 저녁에 소낙비가 내려 빗물이 길에 흘렀다.

7월 26⁶²일(임자)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나는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항북(項北)에서 숙박하였다.

7월 27⁶³일(계축)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엿그제 저녁에 비가 겨우 먼지만 적셨다는 말을 들었다. 올 여름 팔도가 모두 가뭄 들었는데 호서(湖西)의 18개 읍과 호남(湖南) 13개 읍은 아직 이양하지도 못했다는 조보(朝報)가 있었다고 하였다.

7월 28⁶⁴일(갑인)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나는 석전재회(釋奠齋會)에 참여하였다.

7월 29⁶⁵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30⁶⁶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소월(小月).

8월 1일(정사) 비가 지면을 적셨다.

8월 2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2 六 : 원문에는 ‘五’로 되어 있다. 앞뒤 干支를 살펴 수정하였다.

63 七 : 원문에는 ‘六’으로 되어 있다. 앞뒤 干支를 살펴 수정하였다.

64 八 : 원문에는 ‘七’로 되어 있다. 앞뒤 干支를 살펴 수정하였다.

65 九 : 원문에는 ‘八’로 되어 있다. 앞뒤 干支를 살펴 수정하였다.

66 晦 : 원문에는 ‘九’로 되어 있다. 앞뒤 干支를 살펴 수정하였다.

8월 3일(기미) 구름이 끼었다.

8월 4일(경신) 바람이 서늘하고 날씨가 건조하였다.

8월 5일(신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8월 6일(임술) 매우 더웠다. 시가[市直]가 쌀[米] 3말, 조(租) 9말, 보리[牟] 11말이다.

8월 7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8일(갑자) 매우 더웠다. 저녁에 남쪽 하늘에 크게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퍼붓듯이 내려 길에 빗물이 흘러 땅에 1치 정도 스며들었으니 그 또한 다행이다.

8월 9일(을축)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농사에 관한 일로 12개 면(面)에서 3번씩 나누어 감영에 진정하기 위해 각 면에 복직(卜直) 3명과 소요 경비를 정하였다.

8월 10일(병인) 큰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8월 11일(정묘) 가끔 비가 내렸다.

8월 12일(무진)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이삼삼(李三瞻), 손세필(孫世必)과 함께 순영(巡營)에 가기 위해 출발하여 진해를 지났다. 또 이홍은(李洪恩), 장훈업(張訓業), 최만의(崔萬儀), 강여주(姜汝周)가 추가되어 미산치(彌山峙)를 넘어 함안(咸安) 남문 밖 주점에서 묵었다.

8월 13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대야(大野)에 이르러 또 양태하(梁太河), 최원구(崔元九) 등과 동행하였다. 이때 강물이 불어 넘쳤기 때문에 산길을 굽이굽이 지나 도흥진(道興津)을 무사히 건너 나룻가 영산(靈山)에서 점심을 먹었다. 마이(馬耳) 들을 지나 개정(蓋井)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8월 14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창녕(昌寧) 수포(藪浦) 주점에서 아침을 먹고 서재시(書齋市)에서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현풍읍(玄風邑)에 도착했다. 날이 비록 저물지는 않았지만 도착할 곳과 조금 멀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대로 유숙하였다. 본읍 수철원(水鐵院) 석교(石橋)를 보니 연전 7월 18일 홍수에 의해 무너졌다.

8월 15일(신미) 동풍이 잠깐 불었다. 대구 화원(花院) 주점에서 아침을 먹었다. 오후에 영문(營門)에 들어가 서문(西門) 밖 시장 주변을 하관(下館)으로 정했다. 대구의 새로 축조한 성을 보니 작은 듯한 것이 칠용성 같았다.

8월 16일(임신) 매우 따뜻하였다. 순상(巡相) 유공 척기(兪公拓基)⁶⁷에게 다섯 차례 사직소

67 유공 척기(兪公拓基) : (인물) 유척기(1691~1767)의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전보(展浦), 호는 지수재(知守齋)이다.

를 올렸지만 첩소(牒訴)를 받지 않았다. 마침 밀양의 옛 수령 이광보(李光普)의 호상(護喪)⁶⁸이 있어 순상에게 나아가 조문하였기 때문에 겨우 길을 막고 진소할 수 있었다.

8월 17일(계유) 비가 내렸다. 여관 주점에 그대로 머물렀다.

8월 18일(갑술) 해가 나왔다. 현풍읍(玄風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대초원(大招院)에 묵었다.

8월 19일(을해) 수포(藪浦)에서 아침을 먹고 도흥(道興)에서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함안읍(咸安邑)에서 숙박하였다.

8월 20일(병자) 해가 나왔다. 진해(鎭海)에 도착했다. 나는 뒤에 처져 대산(大山)에 들어갔다.

8월 21일(정축) 동풍이 불어 갑자기 서늘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2일(무인) 따뜻하였다.

8월 23일(기묘) 갑자기 추웠다. 읍에 들어가 수령을 뵈었다.

8월 24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5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6일(임오)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27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성묘(聖廟) 중수 공사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8월 28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9일(을유).

9월 대월(大月).

9월 1일(병술) 동풍이 불고 따뜻했다. 내일 성묘를 이안(移安)한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2일(정해)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김창집(金昌集)의 문인으로, 저서로는 《지수재집》 15권이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68 호상(護喪) : 장례에 참석하여 상여 뒤를 따라감. 또는 그런 사람.

9월 3일(무자) 동풍이 불고 차가운 비가 내렸다.

9월 4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가끔 비가 내렸다.

9월 5일(경인)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9월 6일(신묘) 따뜻하였다. 협실(挾室)을 중수했다.

9월 7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8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협실의 기둥을 세웠다.

9월 9일(갑오) 밤에 비가 내렸다.

9월 10일(을미) 가랑비가 내렸다.

9월 11일(병신) 해가 나왔다.

9월 12일(정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9월 13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합천(陝川) 감시(監試)⁶⁹에 응시하기 위해 오후에 출발하여 녹동(鹿洞) 생원 노윤(盧玆) 댁에서 숙박하였다.

9월 14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구만(九萬)의 당산(堂山)에서 묵었다.

9월 15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진주(晋州) 개천(介川) 전준필(全准必)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의령(宜寧) 잠곡(鬻谷)에서 묵었다. 나는 각기병으로 밤새 신음하였다. 땀이 나자 조금 나왔다.

9월 16일(신축) 빗방울이 떨어졌다. 진주 목사(晉州牧使)가 조홀강(照訖講)을 실시했다.

9월 17일(임인) 어제 단성(丹城) 가곡(可谷)에서 묵었다. 새벽에 출발하여 삼가읍(三嘉邑)에서 아침을 먹고 합천 중간리(宗簡里)의 생원 이유룡(李惟龍) 댁에 숙소를 정하였다. 이때 비가 내렸다.

9월 18일(계묘) 어제부터 내린 비가 아침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69 감시(監試): (제도) 소과(小科).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 성균시(成均試), 사부시(詞賦試)라고도 이른다. 이른바 ‘감시’라는 말은 고려시대에 국자감(國子監)을 통하여 진사(進士)를 뽑던 시험에서 유래한 것이다.

9월 19일(갑진) 습한 구름이 개이지 않았다. 합천읍에 들어가 객사(客舍) 문 밖을 하관(下館)으로 정했다.

9월 20일(을사) 따뜻하였다.

9월 21일(병오) 따뜻하였다. 시제(詩題)가 ‘부채를 던져 바람을 멈추게 하니 강신은 필시 원우리라.[投扇止風歎 江神必元祐]’라고 했는데 ‘탄(歎)’자로 운(韻)을 맞추었다. 대개 송왕영(宋王榮)이 늙은 나이에 강을 구경하다가 바람을 만나 위응물(韋應物)의 시(詩)와 황정건(黃庭堅)의 부채를 던지고 무사히 건넌기 때문에 홍각범(洪覺範)이 그 말을 듣고 말하고자한 것이라고 하였다. 부제(賦題)는 ‘선비들은 번번이 취향을 바꾼다.[士輒應趣好]’이다. 도사(都事)는 바로 상씨(尙氏) 성을 가진 사람이다.

9월 22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3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의맹의(詩義孟疑)를 쳤다. 이날 저물녘에 사내종들이 돌격하였다.

9월 24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돌아오는 길에 의령의 최원리(崔院里)에서 숙박하였다.

9월 25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녹명리(鹿鳴里)에서 묵었다.

9월 26일(신해) 약간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7일(임자) 가랑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허척(許惕)이 방문했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9월 28일(계축) 천둥이 치고 가끔 비가 내렸다. 허척(許惕)이 그대로 머물렀다.

9월 29일(갑인) 서북풍이 갑자기 추웠다.

9월 30일(을묘) 따뜻하였다.

윤9월 소월(小月).

윤9월 1일(병진)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윤9월 2일(정사)

윤9월 3일(무오)

윤9월 4일(기미)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윤9월 5일(경신) 밤에 가랑비가 내렸다.

윤9월 6일(신유)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윤9월 7일(임술) 북풍이 불어 추웠다.

윤9월 8일(계해) 북풍이 불고 비를 뿌렸다.

윤9월 9일(갑자) 북풍이 불어 구름이 날렸다.

윤9월 10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구름이 사라지고 달이 밝았다. 이날 저물녘에 별이 달을 따라 떠올랐다가 점차 달 속으로 들어가더니 둥근 달 위로 뚫고 나왔다. 마치 1월 3일의 기상과 같았으니 괴이하였다.

윤9월 11일(병인) 따뜻하였다.

윤9월 12일(정묘)

윤9월 13일(무진)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몽아(夢兒)가 《사략》 셋째 권을 끝마쳤다.

윤9월 14일(기사) 비가 내렸다.

윤9월 15일(경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몽아(夢兒)가 《사략》 넷째 권을 시작했다.

윤9월 16일(신미) 비가 내렸다.

윤9월 17일(임신)

윤9월 18일(계유)

윤9월 19일(갑술) 따뜻하였다. 안정사(安靜寺)⁷⁰에 올라가 숙박하였다.

윤9월 20일(을해)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윤9월 21일(병자) 가랑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70 안정사(安靜寺) : (건물)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다. 구상덕이 젊은 시절부터 과거공부를 위해 다니던 산사(山寺)로, 인근 양반들과 교유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구상덕 집안은 안정사의 중들과는 수시로 내왕하며 서로 조력(助力)하였다. 『승총명록』에 ‘安靜寺’, ‘安精寺’, ‘安井寺’, ‘安寺’라고 표기되어 있다.

윤9월 22일(정축) 성묘(聖廟)를 환안(還安)하였다.

윤9월 23일(무인) 따뜻하였다.

윤9월 24일(기묘)

윤9월 25일(경진)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사또가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⁷¹의 증직하는 예식에 봉함관(奉函官)으로 진주에 갔다.

윤9월 26일(신사)

윤9월 27일(임오)

윤9월 28일(계미)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윤9월 29일(갑신) 구름이 끼었다.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10월 양월(良月) 소월(小月).

10월 1일(을유)

10월 2일(병술) 해가 나왔다.

10월 3일(정해) 해가 나왔다. 지사승(地師僧) 대인(大仁)이 송정(松亭)의 허 생원 묘지를 정하였다.

10월 4일(무자) 해가 나왔다.

10월 5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와룡동(臥龍洞) 도유사 이성년(李星年)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10월 6일(경인) 신기(新基)⁷² 의 상주(喪主) 김한숙(金漢淑)모친 장례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71 조종도(趙宗道) : 1537~1597.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백유(伯由), 호는 대소헌(大笑軒). 정두(鄭斗)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58년(명종 13) 생원시에 합격한 뒤 천거로 안기도찰방(安奇道察訪)이 되었다. 이 때 이황(李滉)의 문하생들인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 등과 교류하였다. 상서원 직장(尙瑞院直長), 양지 현감(陽智縣監), 금구 현령(金溝縣令)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남으로 돌아와 초유사(招諭使) 김성일과 함께 창의하여 의병모집에 진력하였고, 그 해 가을 단성현감을 지냈다. 이조 판서에 추증되고, 함안의 덕암서원(德巖書院), 안의의 황암서원(黃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대소헌집』이 있다.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72 신기(新基) : (지명) 경상남도 함천군 삼가면 문송리(文松里) 중문동(中文洞) 서남쪽에 있는 마을.

비를 맞았다. 도유사 이성년이 그대로 머물렀다.

10월 7일(신묘) 비가 내렸다. 도유사 이성년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생원 이서종(李瑞宗)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10월 8일(임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생원 이서종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0월 9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허 생원의 산역(山役)에 갔다.

10월 10일(갑오) 종일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10월 11일(을미) 따뜻하였다.

10월 12일(병신) 춥지 않았다.

10월 13일(정유)

10월 14일(무술) 추웠다 따뜻했다가 했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15일(기해) 따뜻하였다. 류상욱(柳尙郁)의 권행(眷行)을 보러 갔다.

10월 16일(경자) 비가 내렸다. 유숙하였다.

10월 17일(신축)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8일(임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10월 19일(계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0월 20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좌수 손명갑(孫命甲)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10월 21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좌수 손명갑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0월 22일(병오) 춥고 구름이 끼더니 밤에 비가 내렸다.

10월 23일(정미)

10월 24일(무신) 이상 춥지도 않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구름이 끼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했다.

10월 25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6일(경술) 따뜻하였다. 돈 한 꿩미로 대구어(大口魚) 35마리 혹은 좀더 살 수 있었다. 능아(能兒)와 종아(宗兒)가 두 아이가 처음으로 《사략》 첫째 권을 배웠다.

10월 27일(신해)

10월 28일(임자) 천둥이 치고 밤에 비가 내렸다.

10월 29일(계축) 비가 개었다. 영장(營將)이 본읍에 순찰을 왔다.

11월 지월(至月) 대월(大月).

11월 1일(갑인) 추웠다.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11월 2일(을묘) 동지(冬至). 구름이 짙게 끼었다.

11월 3일(병진)

11월 4일(정사)

11월 5일(무오)

11월 6일(기미) 밤에 비가 내렸다.

11월 7일(경신) 저물녘에 갠다.

11월 8일(신유)

11월 9일(임술)

11월 10일(계해)

11월 11일(갑자)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1월 12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3일(병인) 밤에 비가 내렸다. 몽아(夢兒)가 《사략》 넷째 권을 끝마쳤다.

11월 14일(정묘) 비가 내렸다.

11월 15일(무진) 쾌청하였다. 이때 지난달부터 새벽에는 동방이 붉고 석양에는 서방이 붉으니 괴이하다.

11월 16일(기사) 흐렸으나 따뜻하였다. 몽아(夢兒)가 《사략》 다섯째 권을 시작했다.

11월 17일(경오) 약간 흐렸다.

11월 18일(신미)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11월 19일(임신) 한밤중이 되려할 즈음에 밤에 교리(校吏)가 사또의 파직 소식을 전했다.

11월 20일(계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11월 21일(갑술) 따뜻하였다.

11월 22일(을해) 구름이 짙게 끼더니 밤에 비가 내렸다.

11월 23일(병자) 비가 저물녘에 갠다.

11월 24일(정축) 구름이 끼었다.

11월 25일(무인) 구름이 끼었다.

11월 26일(기묘) 비가 내리고 산에 눈이 내렸다.

11월 27일(경진) 비가 내리다가 잠깐 추웠다.

11월 28일(신사) 해가 나왔다.

11월 29일(임자) 흐렸으나 춥지 않았다.

11월 30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대월(大月).

12월 1일(갑신) 구름이 끼었다. 두 꿩미 돈으로 붉은 여우 가죽으로 된 귀마개를 샀다.

12월 2일(을유)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2월 3일(병술) 해가 나왔다.

12월 4일(정해) 잠깐 흐렸다가 햇볕이 나왔다가 하였다.

12월 5일(무자) 구름이 끼고 추웠다. 나는 1냥 6전으로 작은 술을 사서 서재에 보냈다.

12월 6일(기축) 추웠다.

12월 7일(경인) 눈이 잠깐 날렸다.

12월 8일(신묘) 추웠다. 올 겨울은 아직 그다지 춥지는 않아 시내와 못이 얼지 않았다. 빙정(氷丁)이 벽방산(碧芳山)에 가서 그늘진 벼랑의 얼음을 췌는데 발 빠른 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었다.

12월 9일(임진)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였다.

12월 10일(계사)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일아(日兒)가 두질(痘疾)에 걸려 흉터가 생겼다. 서재의 학도들이 강과(講課)로 승부를 겨뤘는데 서쪽편이 두 번이나 패했다. 오늘 승부에 나는 서신(西神)이 집에 있기 때문에 가서 참여하지 못했다.

12월 11일(갑오) 잠깐 흐렸다가 햇볕이 나왔다가 하였다. 이날 시장에서 청어(靑魚) 한 마리 값이 5푼이었다.

12월 12일(을미) 따뜻하였다.

12월 13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젓먹이 아이가 두질에 걸려 흉터가 생겼다.

12월 14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5일(무술)

12월 16일(기해)

12월 17일(경자)

12월 18일(신축)

12월 19일(임인)

12월 20일(계묘) 온화하였다.

12월 21일(갑진) 온화하고 약간 흐렸다. 사또가 음창(陰瘡)에 걸려 일을 보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 탄식스럽다.

12월 22일(을사)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12월 23일(병오)

12월 24일(정미)

12월 25일(무신) 이상 온화하였다. 모든 싹들이 봄을 알렸다.

12월 26일(기유) 따뜻하였다. 전염병이 사라졌다.

12월 27일(경술)

12월 28일(신해) 눈보라가 치다가 금방 그쳤다.

12월 29일(임자) 따뜻하였다. 4냥 7전으로 송판(松板)을 샀다.

12월 30일(계축) 따뜻하였다. ○ 올해 한재는 근고에 드문 것이다. 옥토는 손상이 없었으니
혈농(穴農)⁷³이라 하겠다. 본읍은 1500여 결(結)을 마감하였으니 재탈 중에서 특히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진흙을 베풀었다.

73 혈농(穴農) : 곳에 따라 풍작과 흉작이 고르지 못한 농사, 즉 구메농사를 말한다.

승충명록 3권

이 3권은 공이 33세 무오년부터 44세 기사년까지 12년간의 일기이다. 책 장수는 107매이다.

을사 가을 8월

을사 가을 8월 해인사(海印寺)에서 삼가 중국 장수 이도독(李都督)의 시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머리를 땅고부터 이 고갯길 넘어다녀	結髮長從嶺路行
눈에 비는 풍경들 내 맘속에 남아 있네	眼中雲物亦關情
이번 길엔 또다시 부상을 향해 가니	此來又向扶桑去
머리 돌려 어떻게 서울 볼 수 있겠는가	回首那堪望玉京

두곡(杜谷) 파접(罷接) 시에 허생 순룡(許生淳龍)을 원양관(源陽關)에 보내며 지은 율시이다.

왕의 교화 동쪽으로 젓어감이 몇 해던가	威化東漸問幾年
평화 위한 섬나라의 사신들 잇달았네	輸平島客自聯翩
섬 오랑캐 명광전에 어제 포로 바쳤는데	蠻俘昨獻明光殿
우리 사신 오늘 아침 바닷가로 달려가네	漢使朝馳紫渤堧
뗏목 탔던 박망후는 기이한 것만 적고	博望乘槎徒述異
바다 갔던 서불 괜히 신선만 구했다네	徐生入海枉求仙
뉘라 알리 성왕께서 먼 나라를 회유함에	誰知聖主綏懷遠
한 차례 사신 가서 사방 편케 할 줄을	一信能令靜四邊

시를 보니 옛 슬픔이 생각나 지금 감히 차운하였다.(313)

-서기 1738년 영조 14년, 건륭(乾隆) 3년, 무오년, 공의 나이는 33세이다.-

착옹 돈양(着雍 敦牂)⁷⁴ 1738년(영조14)

1월 소월(小月). 1일 갑인. 우수월중(雨水月中), 16일 경칩(驚蟄) 이절(二節).

2월 대월(大月). 1일 계미. 2일 춘분중(春分中), 17일 청명(清明) 삼절(三節).

3월 대월. 1일 계축. 2일 곡우중(穀雨中), 16일 입하(立夏) 사절(四節). 은정(銀亭)의 나뭇잎이 동시에 떨어졌다.

4월 소월. 1일 계미. 3일 소만중, 19일 망종 오절(五節).

5월 대월. 1일 임자. 6일 하지중, 21일 소서 육절(六節).

6월 소월. 1일 임오. 7일 대서중, 23일 입추 칠절(七節).

⁷⁴ 착옹 돈양(着雍 敦牂) : 고갑자(古甲子)로, 착옹은 무(戊)를 가리키고, 돈양은 오(午)를 가리킨다.

7월 대월. 1일 신해. 9일 처서중, 25일 백로 팔절(八節).
8월 소월. 1일 신사. 10일 추분중, 25일 한로 구절(九節).
9월 대월. 1일 임술. 11일 상강중, 26일 입동 십절(十節).
10월 소월. 1일 경진. 11일 소설중, 26일 대설 지절(至節).
11월 대월. 1일 기유. 12일 동지중, 27일 소한 엄절(嚴節).
12월 소월. 1일 기묘. 嚴小 1일 기묘. 11일 대한중, 26일 입춘 정절(正節).

1월 대월(大月).

1월 1일(갑인) 새벽에 얇게 낀 구름이 흰 베처럼 평평하게 퍼져 있고 바람은 불지 않았다. 잠깐 사이에 별빛이 점차 드러나더니 구름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동풍이 불고 갑자기 서풍이 불고 날씨는 매우 온화하였다. 닭 울음이 7, 8차례 들리고, 더러 10차례 들렸다.

1월 2일(을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형님이 지난 달 열흘쯤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다. 나는 통영(統營)에 들어가서 첩지 이만근(李萬根)에게 형님의 어깨 통증에 대해 약 처방을 묻고 항북(項北)에서 묵었다.

1월 3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4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5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6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1월 7일(경신) 가랑비가 먼지를 적셨다. 향교에 머물렀다.

1월 8일(신유)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9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석창(石菖)·진애(眞艾)·비마(蓴麻)·청엽(靑葉)을 삶았다.

1월 10일(계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1월 11일(갑자) 동풍이 불었다.

1월 12일(을축) 바람이 그치자 갑자기 따뜻해졌다. 전임 사또 안상오(安相五)가 떠나고, 신임 사또 무변 이후 석좌(李侯錫佐)가 부임하였다. 전임 사또의 시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석문에 내가 지은 정사 있는데
집 지은 뒤 봄이 몇 번 지나갔던가

石門我精舍
結構經幾春

거기에서 하루도 못 머물러 보고
문득 창해 나루 찾아가게 되었네
未能一日居
卻問滄海津

또

이번 길에 산 밑으로 내 지나옴에
원숭이와 학이 모두 성을 내누나
북산이문 같은 거야 비록 없지만
주언륜⁷⁵과 같게 된 게 내 부끄럽네
今來過山下
猿鶴皆生嗔
雖無北山移
自愧周彥倫

또

나랏일이 중한 것만 생각하노니
내가 어찌 잠시나마 머뭇거리랴
내 마땅히 충신에 의탁을 하여
한 번 가서 양국 우호 이룩하리라
但念王事重
我何小逡巡
會當仗忠信
一成兩國親

1월 13일(병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월 14일(정묘) 구름이 짙게 끼더니 밤에 비가 내렸다.

1월 15일(무진) 저물녘에 갓다. 달이 조금 아래에서 떠올랐다고 하였다.

1월 16일(기사) 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첨지 이만근이 방문했다. 몽아(夢兒)가 《사략》 다섯째 권을 끝마쳤다.

1월 17일(경오) 갑자기 추웠다. 첨지 이만근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18일(신미) 해가 나왔다. 몽아(夢兒)가 《소학》을 배웠다.

1월 19일(임신) 조금 추웠다.

1월 20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1일(갑술)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1월 22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75 주언륜(周彥倫) : 옛날 주언륜이 북산(北山)에 숨어 있다가 천자의 부름을 받고 북산을 나가 해염 현령(海鹽縣令)이 되었는데, 뒤에 그 산을 또 찾으려하자 공치규(孔稚珪)가 북산 신령의 뜻을 빌려 주언륜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 역로에다 공문을 발송한 뜻으로 〈북산이문(北山移文)〉을 썼다.

1월 23일(병자)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1월 24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5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6일(기묘) 갑자기 추웠다.

1월 27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형님의 병환에 차도가 조금 있었다.

1월 28일(신사) 해가 나왔다.

1월 29일(임오) 흠비가 내렸다.

2월 대월(大月).

2월 1일(계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2월 2일(갑신) 갑자기 추워졌다. 향교에 들어갔다.

2월 3일(을유)

2월 4일(병술) 따뜻하였다.

2월 5일(정해) 제사를 지낼 무렵에 하늘이 맑았다.

2월 6일(무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7일(기축) 바람이 불었다.

2월 8일(경인) 바람이 불었다.

2월 9일(신묘) 비가 내렸다.

2월 10일(임진) 날이 개어 해가 나왔다.

2월 11일(계사)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2월 12일(갑오) 바람과 구름이 일고 간혹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13일(을미)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내가 눈병 때문에 정풍초(正風草) 연기를 쬐었다.

2월 14일(병신) 약간 흐렸다. 훈장 박증윤(朴增潤)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 지 벌써 두 달이 넘어 생도들이 흠어지려고 하기에 내가 우선 그를 대신하여 생도들을 가르쳤다.

2월 15일(정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2월 16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여제단(厲祭壇)에 참여했다.

2월 17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침에 돌아왔다.

2월 18일(경자) 가끔 바람이 불었다. 박유봉(朴有鳳)이 배우러 왔다.

2월 19일(신축) 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

2월 20일(임인) 가랑비가 내렸다.

2월 21일(계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22일(갑진) 이슬비가 내렸다.

2월 23일(을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24일(병오) 구름이 끼고 해가 나왔다.

2월 25일(정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김익흥(金益興)과 김창국(金昌國) 등이 배우러 왔다.

2월 26일(무신) 따뜻하였다.

2월 27일(기유)

2월 28일(경술)

2월 29일(신해) 이상 온화하였다. 훈장 박증윤(朴增潤)이 왔다.

2월 30일(임자) 비가 내렸다. 밤에 농기구를 잃어버렸다.

3월 대월(大月).

3월 1일(계축) 들관 시내가 소리 내며 흘렀다. 아침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3월 2일(갑인) 해가 나왔다.

3월 3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4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훈장 박증윤(朴增潤)이 돌아갔다.

3월 5일(정사) 구름이 끼었다. 능아(能兒)가 《춘추전(春秋傳)》을 읽고 해석했다.

3월 6일(무오) 해가 나왔다.

3월 7일(기미) 저녁에 구름이 끼었다.

3월 8일(경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3월 9일(신유) 가끔 비가 내렸다.

3월 10일(임술) 가끔 구름이 끼었다.

3월 11일(계해)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3월 12일(갑자) 바람이 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3일(을축) 습한 구름이 끼더니 가끔 비가 내렸다.

3월 14일(병인) 따뜻하였다.

3월 15일(정묘)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

3월 16일(무진) 동풍이 불었다.

3월 17일(기사) 비가 내렸다.

3월 18일(경오) 해가 나왔다.

3월 19일(신미)

3월 20일(임신) 모두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월 21일(계유) 약간 흐리고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22일(갑술) 빗방울이 떨어졌다.

3월 23일(을해) 해가 나왔다.

3월 24일(병자) 동풍이 불었다.

3월 25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26일(무인)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3월 27일(기묘) 습한 구름이 끼었다.

3월 28일(경진) 따뜻하였다.

3월 29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30일(임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소월(小月).

4월 1일(계미) 비가 내렸다.

4월 2일(갑신) 해가 나왔다.

4월 3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4일(병술)

4월 5일(정해)

4월 6일(무자)

4월 7일(기축) 이상 온화하였다.

4월 8일(경인)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9일(신묘)

4월 10일(임진) 이상 해가 나왔다. 몽아(夢兒)가 《통감》 첫째 권을 끝마쳤다.

4월 11일(계사) 흐렸다.

4월 12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가랑비가 내렸다.

4월 13일(을미) 비가 내렸다. 내가 어제 은봉암(隱峯庵)에 올라갔다가 비에 길이 막혔다. 조카아이 이희서(李喜瑞)와 몽아(夢兒)가 따라갔다.

4월 14일(병신) 쾌청하였다. 내려왔다.

4월 15일(정유) 해가 나왔다. 몽아(夢兒)가 《통감》 둘째 권을 배웠다.

4월 16일(무술)

4월 17일(기해)

4월 18일(경자) 이상 해가 나왔다.

4월 19일(신축)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20일(임인) 비가 내렸다. 읍에 들어갔다.

4월 21일(계묘) 더웠다. 세자를 책봉하는 반사문이 내려오고, 통제사 구성임(具聖任)의 파직 되었다는 보고가 왔다.

4월 22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3일(을사)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4일(병오) 비가 내렸다.

4월 25일(정미)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6일(무신) 해가 나왔다.

4월 27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8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9일(신해) 구름이 끼었다.

5월 대월(大月).

5월 1일(임자)

5월 2일(계축)

5월 3일(갑인) 이상 동풍이 불었다.

5월 4일(을묘) 날씨가 따뜻했다. 올봄에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는데 이앙을 한 뒤에도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비옥한 땅 외에는 다 마르고 있어 농민들이 비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5월 5일(병진) 더웠다. 박유봉(朴有鳳)의 집에서 술과 삼베옷 한 벌을 보내왔다.

5월 6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비를 바라는 마음이 심했다.

5월 7일(무오)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5월 8일(기미) 이슬비가 내렸다.

5월 9일(경신)

5월 10일(신유) 이상 더웠다. 백만흥(白萬興)이 와서 재중(齋中)에 머물렀다.

5월 11일(임술) 비가 내려 마른 곳을 적셨다.

5월 12일(계해) 더웠다.

5월 13일(갑자)

5월 14일(을축)

5월 15일(병인)

5월 16일(정묘) 이상 날씨가 덥고 가끔 구름이 끼었다.

5월 17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8일(기사) 흐렸다.

5월 19일(경오) 몹시 더웠다.

5월 20일(신미)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1일(임신) 비가 충분히 내렸다.

5월 22일(계유) 저녁에 비가 내려 지면을 축축하게 적셨다.

5월 23일(갑술) 구름이 끼었다가 맑아다가 하였다. 가뭄이 심해 기우제를 지내므로 나는 용수암(龍水岩)의 기도드리는 데에 참여했다.

5월 24일(을해) 집으로 돌아왔다.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5일(병자) 벽산(碧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밤에 비가 크게 내렸다.

5월 26일(정축) 계속 비가 내렸다. 몽아(夢兒)가 《통감》 첫째 권을 끝마쳤다.

5월 27일(무인) 이슬비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하였다.

5월 28일(기묘) 이슬비가 내렸다.

5월 29일(경진) 비가 그치지 않았다.

5월 30일(신사) 비가 내렸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임오)

6월 2일(계미) 이상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다.

6월 3일(갑신) 쾌청하였다.

6월 4일(을유) 비가 또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6월 5일(병술) 밤에 또 비가 내렸다.

6월 6일(정해) 가끔 비가 내렸다. 벗 김석조(金錫祚)와 이원간(李元幹) 형제가 방문했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6월 7일(무자) 가끔 비가 내렸다. 김석조와 이원간이 진주의 도회(都會)에 갔다.

6월 8일(기축) 몹시 더웠다.

6월 9일(경인) 아침에 비가 내렸다.

6월 10일(신묘) 몹시 더웠다.

6월 11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2일(계사) 잠깐 비가 내렸다. 경성(京城)에서 이달 20일에 비로소 이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6월 13일(갑오) 몹시 더웠다.

6월 14일(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5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향교의 권강(勸講)에 가서 참관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6월 16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7일(무술)

6월 18일(기해)

6월 19일(경자)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0일(신축) 때때로 뜬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6월 21일(임인)

6월 22일(계묘) 몹시 더웠다.

6월 23일(갑진) 몹시 더웠다. 좌수(座首) 이경석(李慶錫)이 병에 걸려 재중(齋中)에 머물렀다.

6월 24일(을사) 더웠다. 서쪽 하늘에 우레와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렸다.

6월 25일(병오)

6월 26일(정미) 이상 몹시 더웠다.

6월 27일(무신) 뜬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가랑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화포처럼 비가 내렸다.

6월 28일(기유) 매우 덥고 밤에 비가 가끔 뿌렸다.

6월 29일(경술) 몹시 더웠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신해) 더웠다.

7월

2일(임자) 소낙비가 잠깐 내리더니 매우 더웠다.

7월 3일(계축) 몹시 더웠다.

7월 4일(갑인)

7월 5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6일(병진) 아침에 구름 끼더니 저녁에 걷혔다. 동풍이 그치지 않았다.

7월 7일(정사) 동풍이 불고 구름이 없었다. 올벼를 베기 시작했다.

7월 8일(무오) 비가 흡족하게 내렸다.

7월 9일(기미) 종일 큰비가 내려 들판에 물이 넘쳐흘렀다.

7월 10일(경신) 저물녘에 갓다. 좌수(座首) 이경석(李慶錫)⁷⁶去。

7월 11일(신유)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2일(임술) 서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7월 13일(계해) 아침에 비가 잠깐 내리더니 종일 구름이 짙게 끼었다.

7월 14일(갑자) 새벽에 비가 내리더니 종일 구름이 끼었다.

7월 15일(을축)

76 이경석(李慶錫) : 1726년 12월 7일 이경석은 별감에서 좌수로 올랐고, 좌수로서 고성사또 직임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경석이 감옥에 갇히자 구상덕이 면회하고 또한 매형 이여섭과 함께 검률(檢律)을 만나기 위해 대구 감영을 갔기도 하였다. 1747년 9월 3일 구상덕은 이경석의 장례식에 조문하였다.

7월 16일(병인)

7월 17일(정묘) 이상 해가 나왔다.

7월 18일(무진) 비가 내렸다.

7월 19일(기사) 비가 내렸다.

7월 20일(경오) 쾌청하였다.

7월 21일(신미) 가끔 구름이 끼었다.

7월 22일(임신) 해가 나왔다.

7월 23일(계유) 해가 나왔다. 도유사 이성년(李星年)이 통문과 관련된 일로 수금(囚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물으니 어제 저녁에 이미 풀려나 읍내 주점에 머물고 있다고 하였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4일(갑술) 해가 나왔다.

7월 25일(을해) 저녁에 비가 내려 땅에 스며들었다.

7월 26일(병자) 날이 개었다.

7월 27일(정축) 해가 나왔다.

7월 28일(무인) 약간 흐렸다.

7월 29일(기묘)

7월 30일(경진)

8월 소월(小月).

8월 1일(신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8월 2일(임오)

8월 3일(계미)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좌수 조윤창(曹胤昌)이 체직되고 최성전(崔性全)이 임명되었다.

8월 4일(갑신) 온화하였다. 석전재회(釋奠齋會)에 참여하였다.

8월 5일(을유)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8월 6일(병술) 비가 잠깐 내렸다.

8월 7일(정해) 따뜻하였다.

8월 8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9일(기축)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0일(경인) 해가 나왔다.

8월 11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고유제의 향축(香祝)이 내려왔다.

8월 12일(임진)

8월 13일(계사)

8월 14일(갑오) 이상 온화하였다.

8월 15일(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묘소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부축을 받고 돌아왔다.

8월 16일(병신) 종일 바람이 불고 또 구름이 끼었으며 가끔 비가 내렸다.

8월 17일(정유)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18일(무술)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맑아졌다.

8월 19일(기해)

8월 20일(경자)

8월 21일(신축)

8월 22일(임인)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마을 사람 이진태(李進太)가 부친의 장례를 치렀다.

8월 23일(계묘) 잠깐 비가 내렸다.

8월 24일(갑진)

8월 25일(을사) 해가 나왔다.

8월 26일(병오) 잠깐 비가 내렸다. 이이징(李利徵)의 장례에 갔다.

8월 27일(정미) 바람이 불었다.

8월 28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9일(기유)

9월 대월(大月).

9월 1일(경술) 이슬비가 내렸다.

9월 2일(신해)

9월 3일(임자) 나는 가족을 데리고 대산(大山)에 갔다. 밤에 비가 크게 내렸다.

9월 4일(계축) 가끔 비가 내렸다.

9월 5일(갑인) 집으로 돌아왔다. 저물녘에 월복치(月卜峙)에 다녀오니 밤이 벌써 이경(二更 밤 9시부터 11 시 사이)이었다.

9월 6일(을묘) 잠깐 비가 내렸다. 읍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9월 7일(병진) 밤에 비가 크게 내렸다. 아내가 돌아왔다.

9월 8일(정사)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9월 9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관삼(李貫三)이 배우러 왔다.

9월 10일(기미) 구름이 끼었다.

9월 11일(경신) 해가 나왔다.

9월 12일(신유)

9월 13일(임술) 구름이 끼었다.

9월 14일(계해)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처마에서 낙숫물 소리가 났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옛친구 오래도록 만나보지 못했나니	不見故人久
막다른 길 몰린 데다 난리 만났음이라	途窮仍亂離
부질없이 정운시(停雲詩)만 뇌까렸는데	停雲空入咏
홀연히 아침 이슬 만사(輓詞) 지을 줄이야	晞露忽題詞

9월 15일(갑자) 가끔 비가 내렸다.

9월 16일(을축) 해가 나왔다. 도유사(都有司) 이석림(李錫臨)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하늘가의 한 그루 나무는 나의 새 집터	天邊獨樹吾新寓
산 아래 외로운 연기는 그대의 옛 별장	山下孤煙子舊莊
초당에 검은 말 타고 얼마나 찾아 주었던가	草閣幾蒙驪馬枉
사단은 또 흰 눈썹 양인 줄 알고 있었다오	詞壇又識白眉良
고황에 마귀가 들었으니 이 슬픔 어이하라	膏肓鬼入悲無奈
해로의 노래 들려오니 눈물이 절로 흐르누나	薤露歌成涕自滂
네 아들과 손자들이 함께 영구 들었으니	四子衆孫同舉櫬
예순네 해의 광음을 어찌 슬퍼하리오	何哀六十四年光

또

햇불이 궁중 길에 늘어섰을 제	蠟炬連宮陌
상여가 대궐 도랑 건너가누나	龍輜度御溝
산봉우리 멩하게 혼자 서 있고	山巒猶自立
강물은 목이 메어 흐르길 못해	江漢不能流
덕택은 궁한 백성 흠뻑 끼치고	德澤涵窮蔀
신선 생활 능침으로 돌아가셨네	眞游屬寢丘
오호라, 진정으로 영주이시니	嗚呼信英主
계책 업적 천추에 길이 비추리	謨烈照千秋

향인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이다.

9월 17일(병인) 가끔 구름이 끼었다.

9월 18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음법(陰法) 도유사 이석림(李錫臨)의 장례에 갔다가 향교에서 묵었다.

9월 19일(무진)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0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1일(경오) 구름이 끼었다.

9월 22일(신미) 해가 나왔다.

9월 23일(임신) 저녁에 비가 잠깐 내렸다.

9월 24일(계유) 날이 개었다가 밤에 비가 내렸다.

9월 25일(갑술) 흐리고 비가 내렸다.

9월 26일(을해) 해가 나왔다.

9월 27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8일(정축)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29일(무인) 밤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9월 30일(기묘)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다가 이내 그쳤다.

10월 소월(小月).

10월 1일(경진)

10월 2일(신사) 해가 나왔다. 내일은 바로 성묘(聖廟)를 개수한 고유제를 지내기 때문에 향교에 들어갔다 저물녘에 읍에 들어갔다. 제물을 싸서 향축을 모시고 왔다.

10월 3일(임오) 해가 나왔다. 오시(午時)에 제사를 지냈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 3년 무오년 10월 초하루 모일에 조선국왕 이 모는 삼가 신하 아무개와 고성 현령(固城縣令) 이석우(李錫佑)를 보내 선성 대성 지성(先聖大聖至聖)이신 문선왕(文宣王)께 고합니다. 삼가 성전의 처마에 비가 새기에 길일을 잡아 수리하였으니 예로 볼 때 이봉하고[禮宜移奉]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삼가 희생과 술로 음식을 차려 밝게 선사로서 바칩니다. 삼가 흠향하소서.”

그런데 예의이봉(禮宜移奉) 4글자에 대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안하지 못하고 대략 수정하였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4일(계미) 가끔 구름이 끼었다.

10월 5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술시(戌時)에 숙모 강씨(姜氏)가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10월 6일(을유) 추웠다. 관을 만들었다.

10월 7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버님이 이질을 앓아 맥박수가 매우 빨라졌다.

10월 8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버님의 환후가 가볍지 않았다.

10월 9일(무자) 밤에 토지신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기도하였다.

10월 10일(기축) 추웠다. 기도하였다. 밤에 비가 내렸다.

10월 11일(경인) 매우 추웠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숙모님의 장례일이 정해져서 오늘 개토(開土)⁷⁷하였다. 밤에 기도하였다.

10월 12일(신묘) 따뜻하였다. 환후가 조금 차도가 있었다.

10월 13일(임진) 매우 따뜻하였다. 숙모님의 장례는 인시(寅時)에 발인하고 사시(巳時)에 하관하였다.

10월 14일(계사)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아버님의 병이 나았다. 강희문(姜希文)이 근래 대동(垓洞) 청룡(靑龍)⁷⁸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가서 금지하고 그에게 다른 곳으로 묘를 이장하게 하였다.

10월 15일(갑오) 추웠다.

10월 16일(을미) 따뜻하였다.

10월 17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8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9일(무술)

10월 20일(기해) 해가 나왔다.

10월 21일(경자)

77 개토(開土) : 피를 쓰기 위하여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78 청룡(靑龍) : 혈지를 중심으로 좌측에서 혈을 호위하고 있는 산을 말한다.

10월 22일(신축)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0월 23일(임인) 구름이 날리고 비가 내렸다.

10월 24일(계묘) 온화하였다. 정재장(丁再長)이 그의 어머니 산소를 개장(改葬)하였다.

10월 25일(갑진)

10월 26일(을사)

10월 27일(병오)

10월 28일(정미)

10월 29일(무신)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1월 지월(至月) 대월(大月).

11월 1일(기유) 해가 나왔다.

11월 2일(경술) 해가 나왔다. 마을 사람 오태적(吳太迪)이 갈산리(葛山里)에서 한정(閑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자결하자 관가에서 나와 부검하였다. 최두명(崔斗明)이 배우러 왔다.

11월 3일(신해)

11월 4일(임자)

11월 5일(계축)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오태적의 일을 사화(私和)하였다.

11월 6일(갑인) 따뜻하였다.

11월 7일(을묘) 저녁에 찬비가 잠깐 내렸다.

11월 8일(병진) 가랑비가 잠깐 내렸다.

11월 9일(정사) 서늘하였다.

11월 10일(무오)

11월 11일(기미) 이상 온화하였다.

11월 12일(경신) 청명하였다.

11월 13일(신유)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이날 밤에 남쪽 하늘에서 크게 천둥이 치더니 해안에는 비가 내렸으며 들판에는 눈이 1치 썸 쌓였다.

11월 14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속 통영에 머물렀다.

11월 15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6일(갑자) 몹시 추웠다.

11월 17일(을축)

11월 18일(병인)

11월 19일(정묘)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다.

11월 20일(무진) 몹시 추웠다.

11월 21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2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생원 박증윤(朴增潤)이 방문했다.

11월 23일(신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11월 24일(임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박증윤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1월 25일(계유)

11월 26일(갑술) 이상 추웠다.

11월 27일(을해)

11월 28일(병자)

11월 29일(정축) 이상 매우 추웠다.

11월 30일(무인) 추위가 잠깐 누그러졌다.

12월 소월(小月).

12월 1일(기묘) 따뜻하였다.

12월 2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3일(신사) 비가 내려 샘이 용솟음쳤다.

12월 4일(임오) 흐렸다.

12월 5일(계미) 가끔 비가 내렸다.

12월 6일(갑신) 해가 나왔다.

12월 7일(을유) 따뜻하였다. 이연삼(李連三)이 배우러 왔다.

12월 8일(병술) 저녁에 흐렸다.

12월 9일(정해) 새벽에 보니 눈이 쌓였다.

12월 10일(무자)

12월 11일(기축) 이상 매우 추웠다.

12월 12일(경인)

12월 13일(신묘) 해가 나왔다.

12월 14일(임진)

12월 15일(계사) 해가 나왔다.

12월 16일(갑오)

12월 17일(을미)

12월 18일(병신) 따뜻하였다.

12월 19일(정유) 가끔 눈이 오다가 비가 내리다가 하였다.

12월 20일(무술)

12월 21일(기해)

12월 22일(경자)

12월 23일(신축)

12월 24일(임인)

12월 25일(계묘) 따뜻하였다.

12월 26일(갑진) 동풍이 불어 조금 추웠다.

12월 27일(을사) 따뜻하였다.

12월 28일(병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김덕일(金德一)을 만나러 갔다가 가족을 데리고 무기정(舞妓亭)에서 묵었다.

12월 29일(정미) 따뜻하였다.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 올해 연해의 시가[市直]가 조(租) 14말, 쌀[米] 5말 반이니 흉년은 면했다고 할 만하지만 상도(上道)⁷⁹는 시가가 7,8말에 불과하다고 하니 흉년이라고 할 만하다. 목화(木花)는 상도가 품질이 가장 좋아 1냥 당 20여 근이나 되었는데 이 시장에서도 한 필 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미년 1739년(영조15)

1월 대월(大月). 1일 무신. 12일 우수월중. 27일 경칩 이절(二節).

2월 소월(小月). 1일 무인. 12일 춘분중, 27일 청명 삼절(三節).

3월 대월. 1일 정미. 13일 곡우중, 29일 입하 사절(四節).

4월 소월. 1일 정축. 14일 소만중.

5월 대월. 1일 병오 망종절, 17일 하지중.

6월 소월. 1일 병자. 3일소서절, 18일 대서중, 15일 초복.

7월 대월. 1일 을사. 5일 입추절, 6일 말복, 21일 처서중.

8월 대월. 1일 기해. 6일 백로절, 21일 추분중.

9월 소월. 1일 을사. 7일 한로절, 22일 상강중.

10월 대월. 1일 갑술. 8일 입동절, 23일 소설중.

11월 소월. 1일 갑진. 7일 대설절, 22일 동지중.

12월 대월. 1일 계축. 8일 소한절, 22일 대한중.

1월 대월(大月).

79 상도(上道) : 안동을 중심으로 한 현재 경북 지방을 가리킨다.

1월 1일(무신) 자시(子時) 이후에 동풍이 잠깐 불고 사방의 검푸른 구름이 잠깐 달빛을 가렸다. 식후에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불었다. 가끔 눈이 오다가 비가 내리다가 햇볕이 나오다가 하였다. 닭 울음이 더러 20여 차례 들렸다.

1월 2일(기유) 식후에 구름이 걷혔다.

1월 3일(경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월 4일(신해) 약간 흐렸으나 따뜻하였다. 밤에 사락눈이 내렸다.

1월 5일(임자) 바람이 불고 날씨가 고르지 못했다.

1월 6일(계축)

1월 7일(甲寅) 인일(人日)⁸⁰ 온화하였다.

1월 8일(을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1월 9일(병진)

1월 10일(정사) 눈이 어지럽게 내려 산과 들이 하얗게 변했다.

1월 11일(무오) 약간 흐렸다.

1월 12일(기미) 따뜻하였다. 재실(齋室)의 기둥을 세웠다.

1월 13일(경신) 눈보라가 쳤다.

1월 14일(신유) 추웠다.

1월 15일(임술) 바람이 불고 추웠다. 달이 요사암(妖蛇岩) 아래에서 떠올랐다.

1월 16일(계해) 추웠다.

1월 17일(갑자) 조금 추웠다.

80 인일(人日) : 음력 1월 7일의 별칭이다. 동방삭(東方朔)의 점서(占書)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6일까지 각각 차례로 닭·개·돼지·양·소·말을 점치고 나서 7일에 사람을 점치고 8일에 곡식을 점치는데, 기후가 청명하고 온화하면 번식과 안태(安泰)를 미리 알 수 있고, 기후가 음한(陰寒)하고 참렬(慘烈)하면 질병과 쇠퇴(衰耗)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였다. 《事物紀原 天生地植 人日》

1월 18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9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0일(정묘) 온화하였다. 낮이 되자 우레 소리가 한참 동안 끊이지 않았는데 천둥이 쳤다고도 하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기도 했다.

1월 21일(무진)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월 22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3일(경오) 구름이 짙게 끼더니 비가 축축하게 내렸다.

1월 24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어머니가 머리에 부종을 앓았는데 굴을 부치니 효과가 있었다.

1월 25일(임신) 잠깐씩 해가 났다가 흐리다가 하였다. 재당(齋堂) 팔영시(八詠詩)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관동(冠洞)의 아침 구름

일찍이 만나자는 편지 보내왔건만	曾辱相邀札
시름에 끌려 아직 가지를 못하였네	牽愁尙未行
바람을 읊고자 먼 들로 나아가고	吟風臨遠野
달을 기다리느라 외로운 정자에 기대었네	待月倚孤亭

방산(芳山)의 저녁 눈

옛날을 사모하는 마음 언제나 간직하고	慕古心長在
당시를 걱정하는 계책 이루질 못했네	憂時計不迎
어느 때나 관건을 두드려서	何當叩關鍵
마침내 몰오녕에 합치될 건고	終契沒吾寧

사립문의 푸른 대

학술은 슬프게도 소득이 없고	學術嗟無得
흰머리로 지난 세월을 탄식하네	秋毛歎逝年
서로 생각하면서도 보지 못하니	相思渾不見
심회가 다시 아득해지네	心地更茫然

시냇가의 밝은 달

덕을 연모하매 억제하기 어려워
풍성을 인하여 소식을 좋아한다
술잔을 들며 공연히 생각하노니
누가 이때의 심정을 기억하라

戀德惟難抑
因風喜氣聲
深尊空想象
誰記此時情

새벽하늘의 돌아가는 기리기

강남땅에 매화가 몇 그루였던가
나무마다 이끼를 벗었네
감싸 돌며 향기로운 바람이 지나가고
배회하며 달빛이 비추네

江南梅幾樹
萬樹剝莓苔
繚繞香風度
徘徊月色擡

서교(西校)의 피리부는 목동

물가에 많이 꽃봉오리 맺혀 있고
산 아래 이리저리 재배하였네
꿈속인들 무슨 수로 볼거나
지금쯤 만발하였을 건데

水邊多點綴
山下任栽培
夢想何由見
而今滿意開

서재 창에 비친 밤 등불

진흙탕 길에 여윈 말을 몰아
철 새 없이 호숫가로 향하였네
언덕을 지나느라 오래도록 머뭇거렸고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두루 거쳤네

衝泥驅瘦馬
搢搢向湖邊
度坂遲回久
緣山曲折偏

돌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

양지 바른 언덕엔 소나무 무성하고
응달 진 시내엔 물이 졸졸 흐르네
머리를 드니 갠 하늘 드넓어
깊은 걱정이 반쯤은 사라지네

陽坡松曖曖
陰澗水涓涓
矯首晴天曠
沈憂半已蠲

1월 26일(계유) 구름이 끼었다.

1월 27일(갑술)

1월 28일(을해) 해가 나왔다.

1월 29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30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소월(小月).

2월 1일(무인) 해가 나왔다.

2월 2일(기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3일(경진)

2월 4일(신사)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2월 5일(임오) 해가 나왔다.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2월 6일(계미) 저녁에 흐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삼성(參星)이 달 앞으로 들어왔다.

2월 7일(갑신) 비가 내렸다.

2월 8일(을유)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다.

2월 9일(병술)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2월 10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때 순영(巡營)에서 《서경언해(書經諺解)》를 나누어 간행하였는데 본현에서도 간행하기 때문에 나는 간본(刊本)을 교정하고 돌아왔다.

2월 11일(무자)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2월 12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3일(경인)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14일(신묘)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른 아침까지 내리더니 냇물이 소리 내며 흘렀다.

2월 15일(임진)

2월 16일(계사) 따뜻하였다.

2월 17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읍에 들어갔다.

2월 18일(을미) 나는 통영(統營)에 가서 각소(各所)의 제영(題詠)을 베껴 썼는데, 이는 순상

(巡相)의 명령이었다. 이날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더니 밤에 비가 내려 새벽까지 왔다.

2월 19일(병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돌아오는 길에 호암(虎岩) 아래의 작은 다리를 건너다 말에서 떨어져 다칠 뻔하였다. 옛사람이 “다리에서는 말에서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

2월 20일(정유) 또 비가 내렸다. 순상 이공 기진(李公箕鎭)⁸¹이 본현에 순찰하러 왔다.

2월 21일(무술) 해가 나왔다. 순상이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2월 22일(기해) 순상이 본현으로 돌아왔다.

2월 23일(경자)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순상이 사천(泗川)으로 갔다.

2월 24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25일(임인)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가리(加里) 장의(掌議) 이용징(李龍徵)이 해택(海澤)에 제방을 쌓는 부역을 보러 갔다가 저녁에 중풍을 맞아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하였다.

2월 26일(계묘) 따뜻하였다. 새벽에 장의 이용징이 사망했다고 하였다.

2월 27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장의 이용징의 상에 가서 조문하였다.

2월 28일(을사)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2월 29일(병오) 구름이 끼었다.

3월 대월(大月).

3월 1일(정미) 아침에 비가 내렸다.

3월 2일(무신) 바람 불고 서늘하였다.

3월 3일(기유) 따뜻하였다.

3월 4일(경술) 매우 따뜻하였다.

81 이공 기진(李公箕鎭) : 1687~1755.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군범(君範). 호는 목곡(牧谷).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다. 1717년(숙종43)에 진사가 되었다. 같은 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홍문관에서 재직하였다. 홍문관 교리, 이조 참의, 부제학, 대사간, 판돈녕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저서로는 『목곡집』이 있다.

3월 5일(신해) 해가 나왔다.

3월 6일(임자)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았다.

3월 7일(계축) 약간 흐렸다.

3월 8일(갑인) 흠비가 내렸다.

3월 9일(을묘) 구름이 끼었다. 아몽(阿夢)과 조카 윤첨(尹瞻)을 은봉암(隱峯庵)에 보내어 복을 빌게 하였다.

3월 10일(병진) 구름이 끼었다. 몽아와 조카 윤첨 등이 돌아왔다.

3월 11일(정사) 해가 나와 온화하였다.

3월 12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3일(기미) 비가 내렸다.

3월 14일(경신) 비가 내렸다.

3월 15일(신유) 가끔 비가 내렸다.

3월 16일(임술) 쾌청하였다.

3월 17일(계해) 따듯하였다.

3월 18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9일(을축)

3월 20일(병인)

3월 21일(정묘) 아침에 비가 내렸다.

3월 22일(무진)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3월 23일(기사)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3월 24일(경오) 쾌청하였다.

3월 25일(신미) 저물녘에 흐렸다.■■■■■(26일壬申)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3월 26일(임신) 저물녘에 흐렸다.

3월 27일(계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다.

3월 28일(갑술) 쾌청하였다.

3월 29일(을해) 따뜻하였다.

3월 30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중의 별감 허참(許黶)이 31세의 나이로 향좌수(鄉座首)에 차출되었으니 이른 나이라고 하겠다.

4월 소월(小月).

4월 1일(정축) 해가 나왔다.

4월 2일(무인)

4월 3일(기묘)

4월 4일(경진)

4월 5일(신사)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4월 6일(임오)

4월 7일(계미)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8일(갑신)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쳤다.

4월 9일(을유) 해가 나왔다.

4월 10일(병술) 비가 내렸다.

4월 11일(정해) 날이 개었다.

4월 12일(무자) 해가 나왔다.

4월 13일(기축)

4월 14일(경인)

4월 15일(신묘)

4월 16일(임진)

4월 17일(계사) 이상 해가 나와 따사로웠다.

4월 18일(갑오)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았다.

4월 19일(을미) 쾌청하였다. 올벼를 이앙하기 시작했다.

4월 20일(병신)

4월 21일(정유)

4월 22일(무술) 해가 나왔다.

4월 23일(기해) 해가 나왔다.

4월 24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5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6일(임인)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27일(계묘) 쾌청하였다.

4월 28일(갑진) 해가 나와 따듯하였다.

4월 29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대월(大月).

5월 1일(병오)

5월 2일(정미)

5월 3일(무신) 이상 해가 나왔다.

5월 4일(기유) 이슬비가 내리다가 해가 나왔다.

5월 5일(경술)

5월 6일(신해)

5월 7일(임자) 이상 해가 나왔다.

5월 8일(계축) 약간 흐렸다.

5월 9일(갑인) 동운(同雲)⁸²이 끼고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이때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철을 놓쳤다.

5월 10일(을묘) 비가 내렸다.

5월 11일(병진)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났다.

5월 12일(정사) 가랑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5월 13일(무오) 비가 내렸다.

5월 14일(기미)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5월 15일(경신) 구름이 끼었다.

5월 16일(신유) 구름이 끼고 추웠다.

5월 17일(임술) 해가 나왔다. 근래 감기가 유행하여 노약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5월 18일(계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학도(學徒) 박유봉(朴有鳳)도 유감 감기로 며칠 동안 땀이 나지 않기에 마침내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5월 19일(갑자)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0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21일(병인) 비가 내렸다.

82 동운(同雲) : 눈이 내리기 전 온 하늘에 가득히 낀 먹구름을 뜻한다. 《시경》 〈소아(小雅) 신남산(信南山)〉에 “상천(上天)이 일색(一色)으로 먹구름이 낀지라 함박눈이 펄펄 내리네. [上天同雲 雨雪雰雰]”라고 하였다.

5월 22일(정묘) 해가 나왔다. 박유봉을 문병하였는데 증세가 낫지 않고 정신은 마치 사악한 것에 미친 것과 같으니 매우 이상하다.

5월 23일(무진) 가끔 비가 내렸다. 또 박유봉을 문병하고 돌아왔다.

5월 24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생도를 보내 박유봉을 문병했다.

5월 25일(경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조금 추웠다. 또 아이들을 보내 박유봉을 문병했다.

5월 26일(신미) 가랑비가 내렸다. 재승(齋僧)을 보내 박유봉을 문병했다.

5월 27일(임신) 가끔 비가 내렸다. 박유봉의 집에서 일부러 사람을 보내 차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왔다.

5월 28일(계유) 가랑비가 내리다가 개었다. 홍우평(洪禹平)이 돌아갔다.

5월 29일(갑술) 해가 나와 더웠다. 학도를 보내 박유봉을 문병했다.

5월 30일(을해) 또 비가 내렸다. 홍우평이 또 왔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병자)

6월 2일(정축)

6월 3일(무인) 이상 비가 내렸다.

6월 4일(기묘)

6월 5일(경진)

6월 6일(신사) 몹시 더웠다. 진주 도회에 가기 위해 읍내에서 유숙하였다. 다.

6월 7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천(泗川)에서 점심을 먹고 저물녘에 진주에 들어갔다.

6월 8일(계미)

6월 9일(갑신) 이상 날씨가 매우 더웠다.

6월 10일(을유) 매우 더웠다.

6월 11일(병술) 비가 내렸다.

6월 12일(정해) 가랑비가 내렸다.

6월 13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4일(기축) 비가 개었다. 출발하여 사천에서 점심을 먹고 상리(上里)에서 숙박하였다.

6월 15일(경인) 집으로 돌아왔다. 박유봉이 엇그제 이미 와서 재중(齋中)에 머물렀다.

6월 16일(신묘) 매우 더웠다.

6월 17일(임진) 밤에 비가 내려 냇물이 넘쳐흘렀다.

6월 18일(계사) 저물녘에 갓다.

6월 19일(갑오)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20일(을미)

6월 21일(병신)

6월 22일(정유) 덥고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23일(무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6월 24일(기해) 비가 내렸다.

6월 25일(경자) 날이 개었다.

6월 26일(신축) 더웠다.

6월 27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8일(계묘) 매우 더웠다.

6월 29일(갑진) 여름이 온 뒤로 가장 더웠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을사) 매우 덥고 서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7월 2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3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4일(무신) 매우 더웠지만 다른 곳은 비가 내렸다.

7월 5일(기유) 비가 덥고 동남쪽에는 비 올 기미가 있었다. 미룡포(彌龍浦)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7월 6일(경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7월 7일(신해) 매우 덥고 구름이 끼더니 잠깐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8일(임자) 걷히던 구름이 비를 뿌려 갑자기 가벼운 먼지를 적셨다.

7월 9일(계축) 구름이 숨 같았다.

7월 10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지만 매우 더웠다.

7월 11일(을묘)

7월 12일(병진)

7월 13일(정사) 모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4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북쪽 하늘에 크게 천둥이 쳤다.

7월 15일(기미) 가뭄이 심하여 해충이 들끓었다.

7월 16일(경신) 더웠다.

7월 17일(신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8일(임술) 가끔 구름이 끼었다.

7월 19일(계해) 구름이 날리고 날이 더웠다.

7월 20일(갑자) 가끔 비가 내렸다. 통제사 구공 성임(具公聖任)⁸³이 거제(巨濟)의 수령을 붙잡아오라는 명을 거역한 일로 탄핵을 당하고, 금부도사와 선전관이 본현에 도착하였으므로 향교에 가서 유숙하였다.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7월 21일(을축)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7월 22일(병인) 비가 내렸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23일(정묘) 구름이 끼고 더웠다.

7월 24일(무진) 낮에 소낙비가 내렸다.

7월 25일(기사) 아침에 비가 내려 지면에 1치 쯤 스며들었다.

7월 26일(경오) 가끔 구름이 끼었다.

7월 27일(신미)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28일(임신) 가끔 구름이 끼었다.

7월 29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30일(갑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더니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강창언(姜昌彦)이 지난번부터 와서 공부했는데 오늘 돌아갔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을해) 바람이 불었다.

8월 2일(병자) 바람이 그치고 구름이 떠다녔다.

8월 3일(정축)

8월 4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5일(기묘) 밤에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광풍이 불더니 간혹 빗방울이 떨어졌다.

83 구공 성임(具公聖任) : 1693~1757.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백형(伯衡). 고조부는 인조반정의 공신 굉(宏)이다. 무과에 급제하고, 경기도수군병마절도사, 병조 판서, 판의금부사를 역임하였으며, 판돈녕부사에 이르렀다. 1749년(영조 25)에 왕명으로 조관빈(趙觀彬)·박문수(朴文秀)·김성응(金聖應)·김상로(金尙魯) 등과 함께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을 편찬하였다.

8월 6일(경진) 바람이 불자 구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으니, 농가에서 비를 바라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배가 되었다. 이 때 쌀 4말 반의 값은 돈 한 켤미였다.

8월 7일(신사)

8월 8일(임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었다.

8월 9일(계미)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었다.

8월 10일(갑신)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었다.

8월 11일(을유) 가끔 구름이 끼었다.

8월 12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13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14일(무자) 밤에 비가 내려 땅을 적셨다.

8월 15일(기축) 가랑비가 내렸다.

8월 16일(경인) 구름이 끼었다.

8월 17일(신묘)

8월 18일(임진)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8월 19일(계사)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8월 20일(갑오) 잠깐 비가 내렸다.

8월 21일(을미)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시가가 쌀 4말 반이고, 조(租) 16말이다.

8월 22일(병신)

8월 23일(정유)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4일(무술) 밤에 가랑비가 내렸다.

8월 25일(기해) 맑게 개었다.

8월 26일(경자)

8월 27일(신축)

8월 28일(임인) 통영(統營)의 누님이 왔다.

8월 29일(계묘) 온화하였다.

8월 30일(갑진) 누님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을사) 온화하였다.

9월 2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3일(정미) 구름이 끼었다. 박대형(朴大衡)이 배우러 왔다.

9월 4일(무신) 북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9월 5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6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박지형(朴志衡)이 배우러 왔다.

9월 7일(신해) 동풍이 불었다.

9월 8일(임자) 바람이 불고 해가 나왔다.

9월 9일(계축) 가끔 해가 나오다가 가랑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9월 10일(갑인) 해가 나왔다.

9월 11일(을묘) 추웠다.

9월 12일(병진) 바람이 불고 추웠다.

9월 13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14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15일(기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9월 16일(경신) 구름이 끼었다.

9월 17일(신유) 해가 나왔다.

9월 18일(임술)

9월 19일(계해)

9월 20일(갑자)

9월 21일(을축)

9월 22일(병인)

9월 23일(정묘) 밤에 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24일(무진)

9월 25일(기사) 해가 나왔다. 박응준(朴膺俊)이 배우러 왔다.

9월 26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때 호랑이의 횡포가 많이 발생하였다.

9월 27일(신미) 따뜻하였다.

9월 28일(임신)

9월 29일(계유)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0월 대월(大月).

10월 1일(갑술) 빗방울이 떨어졌다.

10월 2일(을해)

10월 3일(병자)

10월 4일(정축) 밤에 추워서 얼음이 얼었다.

10월 5일(무인)

10월 6일(기묘) 이상 추웠다.

10월 7일(경진) 따뜻하였다.

10월 8일(신사)

10월 9일(임오)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10월 10일(계미)

10월 11일(갑신)

10월 12일(을유)

10월 13일(병술)

10월 14일(정해)

10월 15일(무자)

10월 16일(기축) 이상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10월 17일(경인)

10월 18일(신묘)

10월 19일(임진)

10월 20일(계사)

10월 21일(갑오) 비가 내렸다.

10월 22일(을미) 추웠다.

10월 23일(병신) 이슬비가 내렸다.

10월 24일(정유) 눈이 조금 내렸다.

10월 25일(무술) 추웠다.

10월 26일(기해)

10월 27일(경자)

10월 28일(신축)

10월 29일(임인)

10월 30일(계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11월 소월(小月).

11월 1일(갑진)

11월 2일(을사) 온화하였다.

11월 3일(병오)

11월 4일(정미) 유시(酉時)에 딸을 낳았다.

11월 5일(무신) 온화하였다.

11월 6일(기유)

11월 7일(경술) 이상 온화하였다.

11월 8일(신해) 비가 내렸다.

11월 9일(임자) 어제 오늘 내린 비로 냇물이 용솟음쳤다.

11월 10일(계축) 비가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다.

11월 11일(갑인) 비가 개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11월 12일(을묘) 찬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자주 떨어졌다.

11월 13일(병진) 따뜻하였다. 나는 성묘(聖廟)의 환안제(還安祭) 모임에 갔다.

11월 14일(정사) 이슬비가 먼지를 적셨다. 북풍이 불어 구름이 걷혔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

왔다.

11월 15일(무오)

11월 16일(기미)

11월 17일(경신)

11월 18일(신유)

11월 19일(임술)

11월 20일(계해)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1월 21일(갑자) 비가 내려 흔적을 남겼다.

11월 22일(을축) 또 비가 내렸다.

11월 23일(병인)

11월 24일(정묘)

11월 25일(무진)

11월 26일(기사) 이상 잠깐씩 비가 내렸다.

11월 27일(경오) 날씨가 따뜻하였다.

11월 28일(신미)

11월 29일(임신) 이상 온화하였다.

12월 대월(大月).

12월 1일(계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읍에 들어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쌀 [米] 6말, 조(租) 17말이다.

12월 2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3일(을해)

12월 4일(병자)

12월 5일(정축)

12월 6일(무인)

12월 7일(기묘) 이상 온화하였다.

12월 8일(경진) 비가 내렸다.

12월 9일(신사)

12월 10일(임오) 이상 온화하였다.

12월 11일(계미) 밤에 우박이 떨어졌다.

12월 12일(갑신) 구름이 끼었다.

12월 13일(을유) 해가 나왔다.

12월 14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5일(정해) 따뜻하였다. 월식(月食)이 있었다.

12월 16일(무자) 비가 내렸다.

12월 17일(기축) 따뜻하였다.

12월 18일(경인)

12월 19일(신묘)

12월 20일(임진)

12월 21일(계사)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2월 22일(갑오) 밤에 눈이 내려 땅이 하얗게 변해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었다.

12월 23일(을미) 춥고 바람이 매서웠다.

12월 24일(병신) 바람이 불고 추웠다.

12월 25일(정유) 구름이 끼고 추웠다. 내가 술객(術客) 김영세(金永世)를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때 초경(初更)에 동정(洞亭) 형수 박씨(朴氏)가 15일 동안 병으로 누워있다가 별세하였다.

12월 26일(무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2월 27일(기해) 온화하였다.

12월 28일(경자) 구름이 끼고 추웠다.

12월 29일(신축) 비가 내렸다.

12월 30일(임인) 가끔 비가 내렸다. 올해 겨울은 춥지 않았다. 시가[市直]가 쌀[米] 6말 반, 조(租) 16말이다. 겨울달빛 무지개가 서쪽에 나타났다.

경신년 1740년(영조16)

1월 소월(小月). 1일 계묘. 7일 입춘절, 22일 우수중.

2월 대월(大月). 1일 임신. 八 경칩절, 23일 춘분중.

3월 소월. 1일 임인. 8일 청명절, 24일 곡우중.

4월 소월. 1일 신미. 10일 입하절, 26일 소만중.

5월 대월. 1일 경자. 12일 망종절, 28일 하지중.

6월 대월. 1일 경오. 14일소서절, 22일 초복, 30일 대서중.

윤6월 소월. 1일 경자. 15일 입추 칠절(七節).

7월 대월. 1일 기사. 2일 처서중, 17일 백로 팔절(八節).

8월 대월. 1일 기해.

9월 소월. 1일 기사. 3일 상강중, 18일 입동 십절(十節).

10월 대월. 1일 무술. 4일 소설중, 19일 대설 지절(至節).

11월 소월. 1일 무진. 3일 동지중, 18일 소한. 12일절.

12월 대월. 1일 정유. 4일 대한중, 19일 입춘 정절(正節).

1월 소월(小月).

1월 1일(계묘) 닭 울음이 더러 3~5차례 들리다가 7, 8차례까지 들렸다. 한밤에는 청명하고 바람이 불지 않았다 새벽이 될 즈음에 검은 구름이 점점이 일고 흰 안개 한 가닥이 산 아래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금새 사라졌다. 아침이 되자 서북풍이 불어 숲의 나무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잠깐 햇볕이 나왔다가 흐렸다가 하였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

1월 2일(갑진)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날씨가 추웠다.

1월 3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각기병으로 땀이 났다.

1월 4일(병오) 추웠다.

1월 5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세전에 얼지 않아 빙정(氷丁)이 얼음을 바치지 않았는데 오늘 얼음을 바칠 날짜가 정해졌다.

1월 6일(무신) 갑자기 따뜻해졌다.

1월 7일 인일(人日)(己酉) 청명하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더니 한낮이 되자 서풍이 소리를 내며 불고 높이 구름이 모여 있었다. 저녁이 되자 구름이 개고 날씨가 추웠다.

1월 8일(경술) 잠깐 흐렸다가 햇볕이 나왔다가 하였다. 날씨가 매우 추웠다. 올봄에는 전염병이 곳곳에서 치성한다고 하였다.

1월 9일(신해) 저물녘에 구름이 끼고 추웠다.

1월 10일(임자) 닭이 처음 울 때 눈이 한 자 정도 쌓였으나, 아침을 먹은 뒤에는 해가 나왔다.

1월 11일(계축) 매우 추웠다.

1월 12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읍에 들어가 남원(南原)의 점쟁이 추내적(秋乃積)을 만나 점을 치고 돌아왔다.

1월 13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종과 말을 보내 점쟁이 백익채(白益采)를 불러 점을 쳤다.

1월 14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5일(정사) 흐렸지만 춥지 않았다. 달이 떠올랐다.

1월 16일(무오) 새벽부터 눈이 내려 거의 한 치 정도 쌓였으나 날씨는 춥지 않고 눈도 많이 쌓이지 않았다.

1월 17일(기미) 매우 추웠다.

1월 18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때 마음에 염병이 발생했으니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1월 19일(신유)

1월 20일(임술)

1월 21일(계해) 이상 추웠다.

1월 22일(갑자) 조금 따뜻하였다.

1월 23일(을축) 조금 따뜻하였다.

1월 24일(병인) 매우 따뜻하였다. 조카 정몽호(丁夢虎)가 신행(新行)⁸⁴을 갔다.

1월 25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6일(무진) 추웠다.

1월 27일(기사)

1월 28일(경오)

1월 29일(신미) 이상 추웠다.

2월 대월(大月).

2월 1일(임신)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2월 2일(계유)

2월 3일(갑술)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2월 4일(을해) 온화하였다. 이관삼(李貫三)이 병이 나서 누웠다.

2월 5일(병자)

2월 6일(정축)

2월 7일(무인)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2월 8일(기묘)

84 신행(新行) :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2월 9일(경진)

2월 10일(신사) 이상 모두 온화하였다. 두포(頭浦) 이 매형(李妹兄)의 염병이 매우 위중했다.

2월 11일(임오)

2월 12일(계미)

2월 13일(갑신)⁸⁵ 구름이 끼고 밤에 눈이 내렸다. 몽아(夢阿)가 병으로 누워 고통스러워 하니 걱정스럽다.

2월 14일(을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이날 재중(齋中)에서 기도하고 이어 축귀문(逐鬼文)을 지었다.

이날 저녁에 이슬비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하고, 해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였다.

2월 15일(병술) 해가 나왔지만 바람이 어지럽게 불었다.

2월 16일(정해) 해가 나왔다. 부모님이 피접(避接)하였다.

2월 17일(무자) 해가 나왔다. 울대교(栗代橋)의 돌을 우리 마을 뒷산 아래로 운반하였다. 아몽(阿夢)의 재실에 있었는데 병에 차도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데려왔다. 일아(日阿)가 며칠 전부터 병으로 누워 고통스러워 하였다.

2월 18일(기축) 해가 나왔다.

2월 19일(경인) 비가 내렸다.

2월 20일(신묘)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이 매형의 병은 차도가 있으나 이연삼(李連三)이 또 병이 나서 누웠다.

2월 21일(임진) 해가 나왔다.

2월 22일(계사)

2월 23일(갑오)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85 갑신 : 원문에는 ‘癸未’로 되어 있다. 앞뒤 干支를 살펴 수정하였다.

2월 24일(을미) 비가 내렸다.

2월 25일(병신) 비가 내렸다.

2월 26일(정유) 비가 그쳤다. 아몽(阿夢)과 일아(日阿) 등의 병에 차도가 있었다.

2월 27일(무술) 해가 나왔다. 나는 읍에 들어가 박응준(朴膺俊)의 집에 묵었다.

2월 28일(기해)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동지(同知) 최섬(崔暹)이 소나무를 벤 일과 두 곳의 소나무가 불에 탄 일로 인해 통제사 조정(趙倬)이 계달(啓達)하였기 때문에 좌수 허참(許黶)이 백주대낮에 감옥에서 도망쳤다.

2월 29일(경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30일(신축) 닭이 울기 전에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3월 소월(小月).

3월 1일(임인) 우박이 떨어치고 천둥이 쳤는데, 큰 것은 새알만 하여 닭과 개가 피하여 숨었다.

3월 2일(계묘)

3월 3일(갑진)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박유봉(朴有鳳)이 호남 곡성(谷城)으로 이사하기에 가서 만나고 유숙하였다.

3월 4일(을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증행시(贈行詩)를 지어 주었다.

표표히 사절 쥐고 동한에 이르러서	飄飄使節到東韓
사귀는 기쁨 얻자마자 다시 이별일세	才得交歡又別顏
전별연 열고 마음 가득 건네는 술잔이요	滿意酒杯開祖帳
말안장 위에 싣고 가는 타포의 시문이라	打袍詩葉載征鞍

박유봉(朴有鳳)의 부친에게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주었다.

압강엔 바람 가늘어서 물결이 잔잔할 것이요	鴨江風細波瀾靜
학야엔 가을이 깊어서 초목이 얼룩덜룩하리	鶴野秋深草樹斑
만약 정후를 보시거든 한 말씀 전해 주오	若見程侯煩寄語
그대 생각하며 새벽 봄추위에 노래하네	憶君長詠曉春寒

시에 멀리 가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부러워하는 뜻이 들어있다. 박유봉과 헤어진 후 박원숙

(朴元叔), 정내서(丁來瑞), 이관삼(李貫三), 이연삼(李連三)과 함께 서면(西面)으로 가서 외삼촌을 문안하고 이광징(李光徵) 집에서 묵었다.

3월 5일(병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월아치(月牙峙)에 이르러 전기룡(田起龍)을 만나 함께 상족함(床足岩)에 도착해 놀며 감상하고 이관삼(李貫三)의 집에서 묵었다. 계속 머물렀다.

3월 6일(정미)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매를 놓아 꿩을 잡았다.

3월 7일(무신) 비가 내렸다.

3월 8일(기유) 눈이 내렸다. 박원숙, 정래서, 이관삼과 동행하여 운흥사(雲興寺)에서 점심을 먹고, 취운사(翠雲寺)에 이르러 비를 만나 그대로 절에서 유숙하였다.

3월 9일(경술) 비가 그치지 않았다. 계속 머물렀다.

3월 10일(신해) 비가 그쳤다. 출발하여 돌아오다가 산양(山陽)의 이문채(李文粹)를 방문하고 박원숙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다. 갈산(葛山)의 임시거처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1일(임자) 해가 나왔다.

3월 12일(계축) 비가 내렸다.

3월 13일(갑인) 날이 개고 서늘하였다.

3월 14일(을묘) 눈이 흩날리고 바람이 매서웠다.

3월 15일(병진) 바람이 불고 추웠다.

3월 16일(정사) 가끔 바람이 불었다.

3월 17일(무오) 온화하고 바람이 불었다. 임시거처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돌아왔다.

3월 18일(기미) 바람이 불고 추웠다.

3월 19일(경신)

3월 20일(신유)

3월 21일(임술) 해가 나왔다. 산에 올라가 복을 빌었다.

3월 22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3월 23일(갑자) 비가 그치지 않았다.

3월 24일(을축) 쾌청하였다. 계동(桂洞)에 가서 조카 윤만첨(尹萬瞻)의 신행을 보았다.

3월 25일(병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26일(정묘) 구름이 끼었다.

3월 27일(무진)

3월 28일(기사)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월 29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소월(小月).

4월 1일(신미)

4월 2일(임신)

4월 3일(계유)

4월 4일(갑술)

4월 5일(을해)

4월 6일(병자)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어머니가 임시 처소에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셨다.

4월 7일(정축) 햇볕이 나와 온화하였다. 아버님이 또 임시 처소에서 짐을 챙겨 돌아오셨다.

4월 8일(무인) 새벽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9일(기묘) 밤이 깊어지자 이슬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10일(경진) 날씨가 매우 온화했다.

4월 11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연삼이 조금 아팠다.

4월 12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3일(계미)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4월 14일(갑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박원숙(朴元叔)을 대신하여 그 이웃사람인 선갑(先甲)이라는 자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선학이 인간 속에 내려왔던가	仙鶴下人間
고고한 그 풍채가 절로 드러나	軒然見風神
날개 털 새하얗기 눈과 같아서	羽翻皎如雪
닭이며 따오기들 시기하였네	鷄鶩生嫌嘖
울음소리 하늘 끝 울려 퍼졌고	鳴聲動九霄
맑고 고와 풍진을 벗어났더니	嘹亮出風塵
갈바람 타고 문득 날아가 버려	乘秋忽飛去
남은 사람 마음만 슬프게 하네	悵悵空勞人

이날 저녁에 비가 더 쏟아지니 보리에 꼭 맞는 단비이다.

4월 15일(을유)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더웠다.

4월 16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7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8일(무자) 더러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19일(기축) 구름이 끼었다. 아내가 감기에 걸렸다.

4월 20일(경인) 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21일(신묘) 가끔 구름이 끼었다.

4월 22일(임진) 매우 더웠다. 아내의 병에 끝내 차도가 없기에 점쟁이 김영세(金永世)에게 점을 치고 함께 돌아왔다.

4월 23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4일(갑오) 오후부터 내린 비가 밤까지 이어졌다.

4월 25일(을미) 비가 그쳤다.

4월 26일(병신) 해가 나왔다. 아내의 병에 여전히 차도가 없어 무가산(無價散)⁸⁶을 복용시켰

다.

4월 27일(정유) 해가 나왔다. 아내의 병세가 오늘 저녁부터 점차 위중해져 탕약을 복용시켰으나 끝내 차도가 없었다.

4월 28일(무술)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말에 기운이 없고 약을 써 봐도 전혀 효험이 없었다.

4월 29일(기해) 닭이 처음 울 때 종을 약국에 보내 황연해독탕(黃連解毒湯) 3첩을 지어 먼저 무가산(無價散) 한 그릇을 쓰고 다음으로 냉약(冷藥) 한 그릇을 복용시켰다. 낮에 해독탕 1첩을 복용시켰다. 약을 쓸 때에는 아내가 조금도 토해내는 증상이 없었다. 날이 저물기 전에 2첩을 쓰고 초경에 3첩을 썼지만 끝내 효과를 보이지 않더니 해시 초에 사망하였다.

아아, 슬프다. 너는 넉넉하고 영민한 재주를 지니고도 진창에 날개를 드리운 채 이름이 과방(科榜)에도 한 번 오르지 못하였고, 선량하고 화락한 행실을 지니고도 중년에 병이 들어 마흔의 나이도 채우지 못했구나. 어찌 하늘은 좋은 자품을 많이 주어 태어나게 해 놓고 그에 대해 보답하는 일은 어그러지게 하는 것인가.

너는 우리 중씨(仲氏)의 후사(後嗣)가 되었고 중씨는 또 우리 계부(季父)의 후사가 되었는데, 계부는 덕성이 청렴하고 공정하였으며 중씨는 학문을 좋아하고 행실이 독실하였으니, 의당 음덕으로 보답받는 경사가 있어야 하겠거늘, 결국엔 그 후사가 요절하고 그 대(代)가 끊어지고 말다니, 선행(善行)을 쌓은 집안에 경사가 있어야 하는 이치가 또한 어찌 이리도 전도되었단 말이나. 천명인가? 운수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음인가? 아니면 나의 행실이 신명(神明)을 저버려서 너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요절하게 한 것인가?

형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내가 이어서 이루어 주리라 기대했으며, 내가 찬술(續述)하고자 뜻했던 바를 네 힘을 빌려 완결 짓고자 했었다. 이제 모두가 끝났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랴.

아아, 슬프다. 남은 너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밤낮으로 통곡을 하는구나. 더없이 애통해하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세상일이 허망하다. 문호는 누가 지킨단 말이나. 나는 허연 머리로 슬피 운다. 정신은 흐릿하고 눈은 침침하다. 긴긴 여름날과 긴긴 겨울밤을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롭게 보냈다. 낭랑한 목소리와 흰한 네 모습이 귀에 쟁쟁하고 눈에 선하였다. 그러나 놀라 일어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였다. 조용히 말없이 가슴만 아파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다.

돌아보건대, 나도 이제 그럭저럭 늙은 몸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지낼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슬프지 않을 날이 무궁하리라는 것을 아니, 애통함을 참고 슬픔을 억누른다. 이제 네가 저세상으로 영영 떠나는 날이라 술을 뿌려 너에게 영결을 고한다. 너의 영령이 모르지 아니 하거든 와서 흠향하기 바란다.

한밤이 되기 전에 서늘한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찬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5월 대월(大月).

86 무가산(無價散) : 진사(辰砂) 2전 5푼, 경분(輕粉) 5전 감수(甘遂 면(麵)에 써서 삶아 배건(焙乾)한 것) 1전 5푼을 연(研)하여 세말(細末)해서 매번 1자(字 1푼 반)씩 먹는다. 《證治準繩方》

5월 1일(경자) 잠깐 햇볕이 나왔다가 흐렸다가 하였다. 대산(大山) 인제(姻弟)가 왔다.

5월 2일(신축) 해가 나와 더웠다. 상(喪)을 꺼리는 때라 제사를 지내는 데 예를 갖추지 못하니, 비통함을 더욱 이길 길이 없었다.

5월 3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4일(계묘)

5월 5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6일(을사) 비가 내렸다.

5월 7일(병오)

5월 8일(정미) 찌는 듯이 더웠다.

5월 9일(무신)

5월 10일(기유) 위와 같다.

5월 11일(경술) 비가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흘렀다.

5월 12일(신해) 쾌청하였다.

5월 13일(임자)

5월 14일(계축)

5월 15일(갑인)

5월 16일(을묘) 흐렸다.

5월 17일(병진)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5월 18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9일(무오)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

5월 20일(기미) 약간 흐렸다.

5월 21일(경신) 이슬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5월 22일(신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5월 23일(임술) 따뜻하였다.

5월 24일(계해)

5월 25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5월 26일(을축) 아침에 구름이 끼었다.

5월 27일(병인)

5월 28일(정묘)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5월 29일(무진) 비가 내리다가 잠깐 개었다.

5월 30일(기사) 큰비가 내려 물이 불었다.

6월 대월(大月).

6월 1일(경오) 큰비가 내렸다. 시장에 돌아가는 자들이 길이 막혀 다니지 못했다.

6월 2일(신미) 비가 내렸다.

6월 3일(임신) 아침에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더니 점차 구름이 흩어졌다.

6월 4일(계유) 쾌청하였다. 계동(契洞)의 큰누님이 왔다.

6월 5일(갑술)

6월 6일(을해) 또 비가 내렸다.

6월 7일(병자)

6월 8일(정축) 저녁에 가랑비가 자욱하게 내렸다.

6월 9일(무인)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날씨가 더웠다. 향교에 들어가 당회(堂會)에 가서 유숙하였다.

6월 10일(기묘)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쳤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11일(경진) 날씨가 조금 추웠다. 저고리와 바지를 벗지 않았다.

6월 12일(신사)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날씨가 조금 서늘하여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벗지 않으니 이상한 노릇이다.

6월 13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4일(계미)

6월 15일(갑신)

6월 16일(을유) 해가 나왔다. 진해에 갔다.

6월 17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8일(정해) 비가 그치지 않았다.

6월 19일(무자) 가끔 가랑비가 내렸으나 해가 오랫동안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20일(기축) 해가 나왔다.

6월 21일(경인)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대치(大峙)에 이르자 큰비가 내렸다. 동해(東海)에서 올라오니 옷이 다 젖었다.

6월 22일(신묘) 비가 개었다. 통영에 머물렀다.

6월 23일(임진) 더웠다. 윤만첨(尹萬瞻)과 함께 돌아왔다.

6월 24일(계사) 동풍이 불었다. 사문(赦文)을 낭독하는 일로 통영에 가기 위해 저물녘에 구허택(丘墟驛)에 이르렀으나 통제사가 병이 나서 사문을 영접하지 못하였다.

6월 25일(갑오) 동풍이 세차게 불어 비올 기미가 상당히 많았다. 아침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6월 26일(을미) 비가 내렸다.

6월 27일(병신) 운무(雲霧)가 흐렸다가 갠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6월 28일(정유)

6월 29일(무술) 위와 같다.

6월 30일(기해) 매우 더웠다.

윤6월 소월(小月).

윤6월 1일(경자)

윤6월 2일(신축)

윤6월 3일(임인) 이상 더웠다.

윤6월 4일(계묘) 비가 내렸다.

윤6월 5일(갑진) 새벽에 비가 내려 진흙탕을 만들었다. 식후에 구름이 얇게 끼었다.

윤6월 6일(을사) 더웠다.

윤6월 7일(병오) 농가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랬다.

윤6월 8일(정미)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윤6월 9일(무신) 비가 그쳤다.

윤6월 10일(기유) 가끔 구름이 끼었다.

윤6월 11일(경술) 동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윤6월 12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6월 13일(임자) 해가 나왔다.

윤6월 14일(계축) 밤에 비가 내렸다.

윤6월 15일(갑인) 밤에 큰비가 내렸다.

윤6월 16일(을묘) 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윤6월 17일(병진)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어 날씨가 매우 서늘하였다.

윤6월 18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6월 19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6월 20일(기미)

윤6월 21일(경신)

윤6월 22일(신유) 이상은 모두 위와 같다.

윤6월 23일(임술) 구름이 걷혀 날이 더웠다.

윤6월 24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6월 25일(갑자) 서쪽 산이 비올 기색으로 흐릿하였다.

윤6월 26일(을축) 가끔 구름이 끼었다.

윤6월 27일(병인) 비가 먼지를 적셨다.

윤6월 28일(정묘)

윤6월 29일(무진) 이상 바람이 불고 추워 마치 8월 날씨 같으니 괴이하였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기사)

7월 2일(경오)

7월 3일(신미) 이상 날씨가 늦가을처럼 춥고 서늘하니 괴이하였다. 세동(細洞)⁸⁷의 서이운(徐以運)이 방문했다가 금방 돌아 돌아갔다.

7월 4일(임신)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7월 5일(계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7월 6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7 세동(細洞) :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이다.

7월 7일(을해) 새벽에 쟁반 위에 구슬이 구르듯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금방 시냇물이 불어났다. 지사(地師) 양정휘(梁廷輝)가 왔다.

7월 8일(병자) 비가 내렸다.

7월 9일(정축) 해가 나왔다. 팔천(八泉) 묘좌산(卯坐山)에 뒹자리를 구했다.

7월 10일(무인) 더웠다. 또 거류산(巨流山)⁸⁸에 올라 산성(山城) 고개를 돌아서 조산(鳥山)에 이르러 한 곳을 점지하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7월 11일(기묘) 해가 나왔다. 지사 양정휘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벗 이금숙(李肯叔)이 방문했다.

7월 12일(경진)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7월 13일(신사) 가랑비가 내렸다.

7월 14일(임오) 날씨가 쾌청하지 않았다.

7월 15일(계미)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16일(갑신)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17일(을유) 가끔 구름이 끼었다.

7월 18일(병술)

7월 19일(정해) 이상 구름이 짙게 끼었다.

7월 20일(무자) 비가 내리다가 해가 났다.

7월 21일(기축) 아침에 비가 내려 땅에 스며들었다.

7월 22일(경인)

7월 23일(신묘)

88 거류산(巨流山) : (산명)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에 있다. 거류산은 고성의 진산(鎭山)이며, 높이는 약 570m이다. 동쪽은 당동만, 서쪽은 고성읍, 동북쪽은 동해면, 남쪽은 통영시 광도면에 접해있다. 거류산 아래 구상덕과 그 일가가 살던 마을이 있다. 기후계를 올리기 위해 축문을 지어 거류산에 자주 올랐다.

7월 24일(임진)

7월 25일(계사) 관에서 실시한 백일장에서 재중(齋中) 생도(生徒) 5인이 합격하였다.

7월 26일(갑오)

7월 27일(을미)

7월 28일(병신)

7월 29일(정유)

7월 30일(무술)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기해) 해가 나왔다. 지사 양정휘가 또 왔다.

8월 2일(경자) 또 밋자리를 구했다.

8월 3일(신축) 산에 비가 내렸다. 또 밋자리를 구해 생수동(生水洞) 서쪽 유좌(西坐)를 점지했다.

8월 4일(임인) 강창언(姜昌彦)과 통영에 가다가 대치(大峙)에서 비를 만나 옷이 젖었다. 충렬사(忠烈祠)에서 묵었다.

8월 5일(계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묘자리를 일관과 논의했지만 대부분 맞지 않아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8월 6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7일(을사)

8월 8일(병오) 빗방울이 간혹 떨어졌다.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8월 9일(정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갈산(葛山)에서 묵었다.

8월 10일(무신)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1일(기유) 해가 나왔다.

8월 12일(경술) 낮에는 흐리고 밤에는 맑았다.

8월 13일(신해) 해가 나왔다. 읍에 들어가 아내의 상을 당한 박중욱(朴重郁)을 조문하였다.

8월 14일(임자) 갈산에서 묵었다.

8월 15일(계축) 아침에 돌아왔다. 재종(再從) 정창래(丁昌來)⁸⁹가 갈산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터를 닦았다.

8월 16일(갑인) 옅게 구름이 끼었다. 또 갈산에서 묵었다.

8월 17일(을묘) 해가 나왔다. 아침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8일(병진)

8월 19일(정사) 해가 나왔다. 와소감임(瓦所監任) 시달(時達)을 만나 일꾼을 청하고 돌아왔다.

8월 20일(무오)

8월 21일(기미)

8월 22일(경신)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갈산 사람과 산송(訟山)이 헤어졌다.

8월 23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4일(임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25일(계해) 청명하고 온화하였다. 장인(匠人)을 불러 관을 만들었다.

8월 26일(갑자)

8월 27일(을축)

8월 28일(병인)

89 정창래(丁昌來) : (인물) 정창래의 본관은 창원(昌原)으로, 저자 구상덕과는 6촌이며, 함께 공부하고 유람했던 절친한 벗이었다. 고성 향교의 중수(重修) 및 액외교생(額外校生)의 일로 통영관을 수시로 출입하였다. 특히 구상덕은 정창래가 죽은 후 그의 효행을 포양하기 위해 1750년 11월 13일 문장(文狀)을 작성해서 관아에 올렸다. 이후 그의 효행사실이 1759년(영조 35)에 입계(入啓)되어 1762년에는 복호(復戶)를 받았다.

8월 29일(정묘) 산역(山役)을 시작했지만 비가 내려 진척이 없었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기사) 청명하였다.

9월 2일(경오) 자시에 죽은 형수와 아내의 상례를 나란히 발인하고 인시에 하관하였다.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9월 3일(신미) 청명하였다.

9월 4일(임신)

9월 5일(계유)

9월 6일(갑술)

9월 7일(을해)

9월 8일(병자)

9월 9일(정축) 이상 날씨가 온화하고 맑았다. 혼처를 정하는 일로 연길서(涓吉書)에 답장을 하여 남면(南面)에 보냈다.

9월 10일(무인)

9월 11일(기묘)

9월 12일(경진)

9월 13일(신사) 이상 날씨가 춥지 않았다.

9월 14일(임오) 해시(亥時) 끝 무렵에 하늘에서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9월 15일(계미) 비가 내리다가 낮이 되자 그쳤다.

9월 16일(갑신) 온화하였다.

9월 17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18일(병술) 또 비가 내렸다.

9월 19일(정해) 눈보라가 쳤다.

9월 20일(무자) 날이 개어 온화하였다.

9월 21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2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3일(신묘)

9월 24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25일(계사)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26일(갑오) 온화하였다.

9월 27일(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8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순상(巡相) 정공 익하(鄭公益夏)가 순찰하기 위해 본현에 왔다. 문밖에서 지영(祗迎)하고 계단에서 재배(再拜)하는 등의 예를 행했다.

9월 29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침 전에 나는 향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순상이 거제(巨濟)로 향했다.

10월 대월(大月).

10월 1일(무술)

10월 2일(기해)

10월 3일(경자)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0월 4일(신축)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김씨 덕에 예장(禮狀)과 비단을 보내고 밖에 나가 묵었다.

10월 5일(임인) 매우 따뜻하였다. 숙모님의 첫 기일이다. 오후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개었다. 오남(五南)을 시켜 김씨 덕에 혼수를 들여보냈다.

10월 6일(계묘) 따뜻하였다. 신행하는 사람이 남면에서 김씨를 아내로 맞았다.

10월 7일(갑진) 추웠다.

10월 8일(을사) 추웠다.

10월 9일(병오)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0일(정미) 따뜻하였다.

10월 11일(무신) 밤에 비가 내렸다.

10월 12일(기유) 쾌청하였다.

10월 13일(경술) 조금 따뜻하였다.

10월 14일(신해)

10월 15일(임자)

10월 16일(계축)

10월 17일(갑인)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다시 ■■을 행했다.

10월 18일(을묘) 따뜻하였다.

10월 19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0일(정사) 바람이 불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1일(무오) 추웠다.

10월 22일(기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갈산촌(葛山村)에 가서 신행할 때 사용할 정반(停飯)과 식상(食床)을 빌렸다.

10월 23일(경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0월 24일(신유)

10월 25일(임술) 이상은 위와 같다.

10월 26일(계해)

10월 27일(갑자)

10월 28일(을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마장(馬場)에 가서 말을 타다가 떨어져 주변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했다.

10월 29일(병인) 바람도 없이 날씨가 매우 추웠다. 계실 김씨가 신행(新行)을 하고 우귀(于歸)를 하였다. 갈산 정재종(丁再從) 댁에서 정반(停飯)하고 저물녘에 집에 들어와 곧바로 시부모님 뵙는 예식을 행하였다.

10월 30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소월(小月).

11월 1일(무진)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1월 2일(기사) 서늘하였다.

11월 3일(경오) 동운(同雲)이 끼었다.

11월 4일(신미) 조금 따뜻하였다.

11월 5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6일(계유) 눈이 훑날려 온 산과 들이 하얗게 변했다.

11월 7일(갑술) 바람이 불고 추웠다.

11월 8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9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삼봉포(三峯浦)에 가서 유숙하였다.

11월 10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속 머물렀다.

11월 11일(무인) ■■ ■■■■■(12일己卯)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2일(기묘)

11월 13일(경진)

11월 14일(신사)

11월 15일(임오) 이상 날씨가 추웠다.

11월 16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7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8일(을유)

11월 19일(병술) 이상 날씨가 조금 따뜻하였다.

11월 20일(정해) 추웠다.

11월 21일(무자)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11월 22일(기축) 구름이 끼고 추웠다. 송정계회(松亭契會)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11월 23일(경인)

11월 24일(신묘)

11월 25일(임진) 이상 날씨가 추웠다.

11월 26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7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8일(을미) 추웠다.

11월 29일(병신)

12월 대월(大月)

12월 1일(정유) 눈이 내렸다.

12월 2일(무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12월 3일(기해)

12월 4일(경자) 매우 추웠다.

12월 5일(신축) 추웠다.

12월 6일(임인) 조금 따뜻하였다.

12월 7일(계묘) 매우 추웠다.

12월 8일(갑진) 추웠다.

12월 9일(을사) 복을 빌었다.

12월 10일(병오)

12월 11일(정미)

12월 12일(무신)

12월 13일(기유) 이상 날씨가 매우 추웠다. 아몽(阿夢)이 팔진(八鎭)에 갔다.

12월 14일(경술) 바람이 불더니 곧 눈이 내렸다.

12월 15일(신해) 닭이 울 때 나가 보니 달빛이 낮처럼 밝고 눈꽃이 대지를 덮었는데, 어제와 오늘이 바뀔 때 내린 것임 이 날은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2월 16일(임자) 온화하고 저녁에 흐렸다. 아몽이 팔진에서 돌아왔다.

12월 17일(계축) 온화하였다. 정재장(丁再長)의 부친이 돌아가셨다.

12월 18일(갑인)

12월 19일(을묘)

12월 20일(병진) 이상 온화하였다. 학도 안후동(安厚洞)의 집에서 술과 음식을 보내왔다.

12월 21일(정사) 온화하였다. 저녁 즈음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12월 22일(무오) 맑고 따뜻하였다.

12월 23일(기미)

12월 24일(경신) 이상 온화하였다.

12월 25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6일(임술)

12월 27일(계해) 비가 내렸다.

12월 28일(갑자)

12월 29일(을축)

12월 30일(병인) 이상 날씨가 추웠다. 올해는 흉년을 면했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12말, 쌀[米] 5말, 목화(木花) 8근, 필목(匹木) 20자이다. 청어(靑魚)가 너무 흔해서 한 마리당 3,4푼(分)이고, 대구(大口)는 조금 귀해서 1냥에 10마리를 살 수 있었지만 15,16마리 팔리다가 하루 만에 끝이 났다.

신유년 1741년(영조17)

1월 소월(小月). 1일 정묘. 3일 우수중(雨水中), 18일 경칩(驚蟄) 이월절(二月節).

2월 대월(大月). 1일 병신. 4일 춘분중(春分中), 20일 청명(淸明) 삼절(三節).

3월 소월. 1일 병인. 5일 곡우(穀雨), 20일 입하(立夏) 사절(四節).

4월 대월. 1일 을미. 7일 소만(小滿), 23일 망종(芒種) 오절(五節).

5월 대월. 1일 갑자. 9일 하지중(夏至中), 25일 소서(小暑) 육절(六節).

6월 소월. 1일 갑오. 7일 초복(初伏), 11일 대서중(大暑中), 26일 입추(立秋) 칠절(七節).

7월 대월. 1일 계해. 13일 처서(處暑), 29일 백로(白露) 팔절(八節).

8월 대월. 1일 계사.

9월 소월. 1일 계해. 14일 상강중(霜降中), 29일 입동(立冬) 십절(十節).

10월 대월. 1일 임진. 15일 소설중(小雪中), 30일 대설(大雪) 지절(至節).

11월 대월. 1일 임술. 15일 동지중(冬至中), 29일 소한(小寒). 12일절.

12월 소월. 1일 임진. 14일 대한중(大寒中), 29일 입춘(立春) 정절(正節).

1월 소월(小月).

1월 1일(정묘) 닭 울음이 더러 9차례 들리고, 더러 11, 12차례 들렸다. 날씨가 매우 청명하여 바람이 조금도 없었다. 잠깐 구름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북풍이 불 줄 알았으나 종일 온화하였다. 계동(契洞) 자형에게 문후를 드리러 갔다.

1월 2일(무진)

1월 3일(기사) 온화하였다.

1월 4일(경오) 남면 처가에 가려했으나 진치(晋峙)에 이르러 이슬비를 만났다. 갈산 정재중

택으로 돌아가 머물렀다.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1월 5일(신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남면에 들어갔다.

1월 6일(임신) 서풍이 불어 파도를 일으켰다. 이날 밤에 장인어른이 어조소(魚條所)에서 배를 타고 돌아왔다.

1월 7일 인일(人日)(계유)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8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9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0일(병자) 얽게 구름이 끼었다. 아내가 두풍(頭風)으로 인해 갑자기 구안와사(口眼喎斜)에 걸렸다.

1월 11일(정축) 바람이 모래 먼지를 날렸다. 이날 밤에 무더위로 괴로웠으나 밤이 깊어서는 구름이 많이 일어났다.

1월 12일(무인) 동풍이 크게 불고 뜬구름에 하늘에 가득하였다. 밤에 비가 내렸다.

1월 13일(기묘) 습한 구름이 개이지 않았다. 사내종과 말을 보내어 수대(水大)의 점쟁이 이만삼(李萬三)을 청했다.

1월 14일(경진) 가끔 구름이 끼었다. 점쟁이 이만삼이 왔다.

1월 15일(신사) 달이 매우 높게 떠올랐다. 독경(讀經)하여 액막이[度厄]를 하였다.

1월 16일(임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아내가 땀을 뺐다. 청회(聽會) 5장(壯), 험거(頰車) 3장, 간사(間使) 37장, 승의 7장이다.

1월 17일(계미) 햇별이 나와 따뜻하고 동풍이 불었다. 읍저에 가서 중군(中軍) 이만근(李萬根)을 만나 치료 방법을 물었다.

1월 18일(갑신) 따뜻하였다. 가리동에 가서 의사 박범석(朴範錫)과 함께 와서 아내에게 침을 놓고 땀을 뺐다.

1월 19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0일(병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1월 21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2일(무자) 구름이 많았다.

1월 23일(기축)

1월 24일(경인) 온화하였다. 아내가 침을 계속 맞아 조금씩 차도가 있었다.

1월 25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우동(牛洞)에 가서 전라도 남원 사람 김복성(金聖復)·김성태(金聖泰)와 추춘발(秋春發)의 처 시월(十月)을 사는 값을 의논하였다. 우동에 머물렀다.

1월 26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27일(계사) 비가 넉넉히 내렸다. 계집종의 남편 이토금(李土金)이 분가하였다.

1월 28일(갑오) 이슬비가 내렸다.

1월 29일(을미) 맑고 따뜻하였다.

2월 대월(大月).

2월 1일(병신) 온화하였다.

2월 2일(정유) 아침에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2월 3일(무술)

2월 4일(기해) 이상 비가 내렸다.

2월 5일(경자)

2월 6일(신축)

2월 7일(임인) 이상 온화하였다. 우동에 가서 김성태를 만나 50냥을 주고 시월(十月)과 첫째 소생 사내종 계산(戒山, 丙午生), 둘째 소생 사내종 북실(北實, 己酉生), 넷째 소생 여종 계분(癸分, 甲寅生), 다섯째 소생 여종 분금(分今, 戊午生) 등 4구(口)를 사서 명문을 작성하고 추춘발(秋春發)로 하여금 나중에 속신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2월 8일(계묘) 온화하였다. 우동에서 읍에 들어갔다. 시월 등의 매매문서를 관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점쟁이 박준채(白浚采)가 방문했다가 그대로 재중(齋中)에 머물렀다.

2월 9일(갑진) 온화하고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10일(을사) 비가 저물녘에 갠다.

2월 11일(병오) 비가 내렸다.

2월 12일(정미) 비가 그쳤다.

2월 13일(무신)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2월 14일(기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15일(경술) 햇볕이 나고 동풍이 불었다.

2월 16일(신해) 동풍이 불고 밤에 비가 내렸다. 점쟁이 백준채가 읍에 들어갔다.

2월 17일(임자) 비가 그치지 않았다.

2월 18일(계축)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2월 19일(갑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저녁에 구름이 끼었다. 점쟁이 백준채가 또 왔다.

2월 20일(을묘) 또 비가 내렸다.

2월 21일(병진) 또 비가 내렸다. 어머니가 월초부터 병환이 있었는데 아직 회복하지 않았다.

2월 22일(정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어머니 병환은 약간 차도가 있으나 아버님이 복통이 있었다.

2월 23일(무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점을 쳐서 항지사(恒之師)를 얻었다.

2월 24일(기미)

2월 25일(경신) 이상 구름이 햇볕이 반반이었다.

2월 26일(신유) 바람이 차가웠다. 부모님 병환이 점차 차도를 보였다.

2월 27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28일(계해) 비가 그치지 않았다.

2월 29일(갑자) 청명하고 온화하였다.

2월 30일(을축)

3월 소월(小月).

3월 1일(병인) 온화하였다.

3월 2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몽과 의상산(義湘山)에 올라 복을 빌 계획을 세웠다.

3월 3일(무진) 새벽에 하늘이 맑았다. 산에서 복을 빌었다. 낮에는 따뜻하고 구름이 조금 끼었다.

3월 4일(기사)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밤에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3월 5일(경오) 가끔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3월 6일(신미) 해가 나왔지만 바람이 불어 서늘하였다.

3월 7일(임신) 온화하였다.

3월 8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팔진(八鎭)의 장인어른이 5일 별세했다는 부고는 오늘 이르렀다.

3월 9일(갑진) 비가 내렸다.

3월 10일(을해) 청명하였다.

3월 11일(병자)

3월 12일(정축) 온화하였다. 우의정 조 공(趙公)이 계사를 들여 각 인원을 정한 뒤에 태하(汰下)의 명령이 삼남(三南)에 내렸기 때문에 교생도 모두 고태(考汰)에 들어 내일 시강(試講)하기로 정했다. 우리 재중(齋中) 학도(學徒)도 교생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향교에 들어갔다.

3월 13일(무인) 온화하였다. 재중(齋中)의 교생(校生)이 모두 태거(汰去)되는 번고를 면하여 달빛을 맞으며 돌아왔다. 정재종(丁再從) 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였다.

3월 14일(기묘) 온화하였다. 이연삼(李連三) 집에서 술을 실어 왔다.

3월 15일(경진) 매우 따뜻하였다.

3월 16일(신사)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3월 17일(임오) 약간 흐렸다. 점쟁이 백준채가 돌아갔다.

3월 18일(계미) 온화하였다.

3월 19일(갑신) 흐렸다.

3월 20일(을유) 온화하였다.

3월 21일(병술)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3월 22일(정해) 구름이 걷히더니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용동(龍洞) 빙숙(聘叔)이 어제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3월 23일(무자) 해가 나왔다.

3월 24일(기축)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되었다.

3월 25일(경인) 온화하였다.

3월 26일(신묘) 가랑비가 내렸다. 통제사 송징래(宋徵來)가 본현에 들어왔다.

3월 27일(임진) 온화하였다. 재승(齋僧) 사민(士敏)이 왔다.

3월 28일(계사)

3월 29일(갑오) 이상 온화하였다.

4월 대월(大月).

4월 1일(을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남면 장인어른이 왔다.

4월 2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장인어른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4월 3일(정유) 매우 온화하였다.

4월 4일(무술) 비가 넉넉히 내려 시내가 소리 내며 흘렀다.

4월 5일(기해) 저물녘에 갓다.

4월 6일(경자) 이슬비가 내리고 우레 소리가 간혹 들렸다.

4월 7일(신축) 이슬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4월 8일(임인)

4월 9일(계묘) 햇볕이 매우 더웠다.

4월 10일(갑진) 약간 흐렸다.

4월 11일(을사) 비가 내렸다.

4월 12일(병오) 가끔 비가 내렸다.

4월 13일(정미) 비가 걷히지 않았다.

4월 14일(무신) 비가 왔는데 흐렸다가 갓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4월 15일(기유)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4월 16일(경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밤에 달이 떴는데 흐렸다가 갓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4월 17일(신해) 조금 흐리고 가랑비가 내렸다. 식후에 희미하게 해가 났다.

4월 18일(임자) 쾌청하였다.

4월 19일(계축) 동풍이 불었다.

4월 20일(갑인) 해가 나왔다. 올벼를 이앙하고 쌀보리를 베었다.

4월 21일(을묘) 비가 잠깐 내렸다.

4월 22일(병진) 비가 내렸다.

4월 23일(정사) 해가 나왔다.

4월 24일(무오) 해가 나왔다. 안명륜(安命崙)을 병문안 갔다가 그 집에서 숙박하였다. 이날 저녁에 한편에는 비가 내리고 한편에는 해가 났다.

4월 25일(기미)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6일(경신)

4월 27일(신유)

4월 28일(임술) 이상 구름이 햇볕이 반반이었다.

4월 29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날은 바로 죽은 아내 박씨의 첫 기일이다. 제사를 지낼 때 흰 노을에 산에 나타났다.

5월 대월(大月).

5월 1일(갑자) 가끔 구름이 끼었다.

5월 2일(을축) 바람이 차가웠다.

5월 3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4일(정묘)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5일(무진)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6일(기사) 구름이 끼었다.

5월 7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8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9일(임신) 가끔 가랑비가 이슬처럼 내렸다.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5월 10일(계유) 비가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5월 11일(갑술) 비가 개이지 않았다.

5월 12일(을해)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5월 13일(병자)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5월 14일(정축) 아침에 구름이 끼고 낮에 해가 나왔다.

5월 15일(무인) 가끔 비가 내렸다.

5월 16일(기묘) 비가 쏟아져 물이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5월 17일(경진) 가끔 비가 내렸다.

5월 18일(신사) 밤에 비가 내렸다.

5월 19일(임오) 해가 나왔지만 밤에 또 비가 내렸다.

5월 20일(계미)

5월 21일(갑신)

5월 22일(을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5월 23일(병술) 햇살이 많았다.

5월 24일(정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대산(大山) 장인어른의 상에 가서 조문하였다.

5월 25일(무자)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날씨가 매우 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6일(기축) 구름이 끼었다.

5월 27일(경인) 비가 내렸다.

5월 28일(신묘) 구름이 끼었다.

5월 29일(임진) 햇살이 많고 더웠다.

5월 30일(계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갑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올해는 봄부터 지금까지 구름이 끼지 않는 날이 없었다.

6월 2일(을미)

6월 3일(병신) 구름이 끼고 추웠다.

6월 4일(정유) 큰비가 내려 물이 불어났다.

6월 5일(무술) 이슬비가 내렸다.

6월 6일(기해)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생도가 도회(都會)에 갔다.

6월 7일(경자) 더웠다.

6월 8일(신축) 매우 더웠다.

6월 9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0일(계묘) 구름이 끼었다.

6월 11일(갑진) 큰비가 내려 길이 막혔다.

6월 12일(을사) 더웠다.

6월 13일(병오) 매우 더웠다.

6월 14일(정미) 더웠다.

6월 15일(무신) 매우 더웠다.

6월 16일(기유)

6월 17일(경술) 더웠다.

6월 18일(신해)

6월 19일(임자) 이상 비가 내렸다.

6월 20일(계축)

6월 21일(갑인) 이상 날씨가 더웠다.

6월 22일(을묘) 매우 더웠다. 삼봉포(三峯浦)에 갔다.

6월 23일(병진) 더웠다. 계속 머물렀다.

6월 24일(정사) 가끔 구름이 끼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왔다. 중류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행장이 다 젖었다.

6월 25일(무오) 큰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6월 26일(기미)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날씨가 갑자기 서늘하였다.

6월 27일(경신)

6월 28일(신유)

6월 29일(임술) 매우 더웠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계해) 매우 더웠다.

7월 2일(갑자)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3일(을축) 비가 크게 내렸다

7월 4일(병인) 계속 비가 내렸다.

7월 5일(정묘) 쾌청하였다.

7월 6일(무진)

7월 7일(기사)

7월 8일(경오)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9일(신미) 비가 그치지 않았다.

7월 10일(임신) 비가 내렸다.

7월 11일(계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7월 12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3일(을해) 저녁에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나무를 부러뜨리고 지붕을 날려버렸다.

7월 14일(병자) 비가 걷히고 바람이 그쳤다.

7월 15일(정축) 해가 나와 더웠다.

7월 16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7일(기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8일(경진)

7월 19일(신사) 이상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7월 20일(임오) 더러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21일(계미)

7월 22일(갑신) 사방에 바람이 이리저리 불고 햇빛이 많았다. 바람으로 벼의 피해가 심했다.

7월 23일(을유)

7월 24일(병술)

7월 25일(정해)

7월 26일(무자) 이상 날씨가 추웠다. 날씨가 서늘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7월 27일(기축) 매우 따뜻하고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7월 28일(경인) 아침에 비가 잠깐 내리다가 개었다.

7월 29일(신묘)

7월 30일(임진) 이상 온화하였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계사) 온화하였다.

8월 2일(갑오) 읍에 들어가 안돌동(安厓洞)의 집에서 묵었다.

8월 3일(을미)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4일(병신)

8월 5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6일(무술) 비가 내렸다.

8월 7일(기해)

8월 8일(경자)

8월 9일(신축) 온화하였다. 지사 문우일(文遇日)이 와서 새 집터를 살폈다. 계속 머물렀다.

8월 10일(임인) 문우일이 갔다.

8월 11일(계묘)

8월 12일(갑진) 읍에 들어가 머물렀다.

8월 13일(을사)

8월 14일(병오) 비가 그쳤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5일(정미) 온화하였다. 과거 길에 올라 안돌동(安世軒으로 개명함)의 집에서 숙박하였다.

8월 16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생도들과 함께 진해읍에서 묵었다.

8월 17일(기유) 온화하였다. 파산(巴山)⁹⁰ 시험장에 들어갔다

8월 18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품질이 좋은 시지(試紙)⁹¹를 1냥 4, 7전에 샀다.

90 파산(巴山)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이다. 파산에는 봉수대가 있는데 함안의 진산인 여항산(餘航山, 餘航山) 동쪽에 마주한 파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경상도 관찰사나 도사(都事)가 주관하는 시회(試會)가 파산에서 자주 열렸다. 구상덕은 생도들과 진해읍에서 유숙하였다가 파산의 시소(試所)에 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파산에는 구상덕의 지인 윤상신(尹商臣)의 집이 있었다.

91 시지(試紙) : 과거(科擧) 시험지. 부정을 막기 위하여 관인(官印)을 찍었다.

8월 19일(신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광정촌(廣井村)⁹²에 갔다가 돌아왔다.

8월 20일(임자) 매우 따뜻하였다. 과장이 열렸다. 시제(詩題)는 ‘제후를 거느리고 문왕에게 제사드리고 청묘시를 노래하네.[率諸侯祀文王歌清廟詩]’이다. 저녁이 되자 서북쪽 하늘에 천둥이 치더니 비가 뒤따라 내리려다가 말았다. 다른 곳에는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8월 21일(계축)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8월 22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과장(科場)에 들어갔다. 맹의(孟疑)·서의(書義)·경재가(廣哉歌)이다.

8월 23일(을묘) 가랑비가 내렸다. 출발하여 상령역(常令驛)⁹³에 도착했는데 비가 크게 쏟아져 그대로 유숙하였다.

8월 24일(병진) 청명하였다. 아침에 출발하여 배둔역(背屯驛)⁹⁴에서 아침을 먹고 읍내 안세진(安世軫)의 집에서 묵었다.

8월 25일(정사)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 19일에 새 집터를 열고 23일 집을 부설했다. 오늘 객실에 기둥을 세웠다.

8월 26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7일(기미) 매우 따뜻하고 밤에 구름이 끼었다.

8월 28일(경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동네 일꾼이 부역에 갔다.

8월 29일(신유) 비가 내렸다. 이웃 사람 생원 안수(安秀)가 가족을 데리고 가다가 비에 막혀 돌아오지 못했다.

8월 30일(임술) 비가 개이지 않았다. 안 생원 집의 신행이 오늘에서야 비를 맞으며 들어왔다.

92 광정촌(廣井村) : (지명)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伽倻邑) 광정리(廣井里). 본래는 함안군에 속했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하여 가야읍에 편입되었다.

93 상령역(常令驛) : 진해현에서 서쪽 5리 지점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 경상도(慶尙道) 진해현(鎭海縣)》

94 배둔역(背屯驛)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설치된 역. 본래 고성군 화양면(華陽面)의 한 지역으로, 배둔이라는 지명은 지형이 배가 멈춘 형국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각지의 보부상들이 모여들어 정착한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구상덕 당시에는 배둔에 역(驛)이 설치되어 있어 자주 그곳을 경유하면서 말(馬)을 먹이고 식사를 하였던 장소이다. 그리고 구상덕과 교유한 성이전(成爾燦)과 최엽(崔曄)이 배둔에서 거주하였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계해) 아침에 비가 내렸다.

9월 2일(갑자)

9월 3일(을축) 비가 내렸다.

9월 4일(병인) 낮이 되자 비가 그쳤다. 신시(申時)에 정침(正寢)에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렸다.

9월 5일(정묘)

9월 6일(무진)

9월 7일(기사)

9월 8일(경오)

9월 9일(신미) 구만(九萬)에 가서 생원 노해관(盧海觀)을 만나 지난번 파산 시험장에서 있었던 서로의 실수에 대하여 화해하였다. 도유사 노윤현(盧允賢) 집에서 유숙하였다.

9월 10일(임신)

9월 11일(계유) 읍에 들어갔다가 취해서 돌아왔다.

9월 12일(갑술)

9월 13일(을해) 비가 그치지 않았다. 새 집에 들어갔다.

9월 14일(병자) 비가 내렸다.

9월 15일(정축)

9월 16일(무인) 해가 나왔다.

9월 17일(기묘) 동풍이 불었다.

9월 18일(경진) 비가 내렸다.

9월 19일(신사) 해가 나왔다.

9월 20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1일(계미) 따뜻하였다. 남편 장인어른을 방문했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9월 22일(갑신) 동풍이 불었다. 통제사가 안정사(安靜寺)에 있었는데 재생들이 정소하여 소나무 5그루를 얻었다.

9월 23일(을유) 비가 내렸다.

9월 24일(병술) 동풍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장인이 읍에 들어갔다.

9월 25일(정해) 동풍이 불었다. 이날 저녁에 동남풍이 크게 불고 빗방울과 총알만 했다. 장인이 또 왔다.

9월 26일(무자) 날이 개었다.

9월 27일(기축) 해가 나왔다. 장인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9월 28일(경인) 동풍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29일(신묘) 비가 쏟아졌다.

10월 대월(大月).

10월 1일(임진) 비가 개었다.

10월 2일(계사) 온화하였다.

10월 3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4일(을미)

10월 5일(병신) 구름이 끼었다.

10월 6일(정유) 비가 내렸다. 객실 앞에 담장을 세웠다.

10월 7일(무술) 해가 나왔다. 등유목(燈油木)을 16그루를 심었다.

10월 8일(기해) 찬비가 갑자기 내렸다. 밤에 구름이 흩어지고 북풍이 불었다.

10월 9일(경자)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심했다.

10월 10일(신축) 북풍이 불어 추위가 심했다. 갑오년 이후 새로 세운 서원을 철폐하게 하였는데 서원 철폐 반대에 앞장 선 유생은 5년간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停擧]⁹⁵고 하였다.

10월 11일(임인)

10월 12일(계묘) 해가 나왔다.

10월 13일(갑진)

10월 14일(을사)

10월 15일(병오) 해가 나왔다.

10월 16일(정미) 해가 나와 저녁에 구름이 끼었다.

10월 17일(무신)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10월 18일(기유)

10월 19일(경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0월 20일(신해) 북풍이 불어 추웠다. 구름이 끼었다.

10월 21일(임자)

10월 22일(계축)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0월 23일(갑인)

10월 24일(을묘)

10월 25일(병진)

10월 26일(정사)

10월 27일(무오) 모두 위와 같다.

95 정거(停擧) : (제도) 과거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유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과거를 못 보게 하던 벌. 여기서는 공인된 시험지를 빼앗긴 탓에 무자격자로 입장한 셈이 되어 벌칙에 저촉되었음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10월 28일(기미) 이슬비가 내렸다. 장인(匠人)을 불러 교자(轎子)를 만들었다.

10월 29일(경신)

10월 30일(신유)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1월 대월(大月).

11월 1일(임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1월 2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생원 박사문(朴思文)과 함께 남호(南湖)에 동행하였다.

11월 3일(갑자) 남호에 머물렀다.

11월 4일(을축) 온화하였다. 돌아왔다.

11월 5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6일(정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7일(무진) 빗방울이 떨어졌다.

11월 8일(기사)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1월 9일(경오) 창원(昌原) 사람 박징구(朴徵龜)가 향교의 일로 통영에 갔다가 방문하였다.

11월 10일(신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중 선옥(禪玉)이 방문했다.

11월 11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중 선옥이 돌아갔다.

11월 12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3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4일(을해) 가끔 구름이 끼었다.

11월 15일(병자) 구름이 끼고 간혹 빗방울이 떨어졌다.

11월 16일(정축)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이날 시장에 입이 크고 푸른빛 비늘이 있는 물고기

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근래 없던 일이다.

11월 17일(무인) 얇게 구름이 끼었다. 지사(地師) 신만흥(辛萬興)을 문병하고 이어 김창국(金昌國)을 문병한 뒤에 돌아왔다.

11월 18일(기묘)

11월 19일(경진) 비가 먼지를 적셨다.

11월 20일(신사) 구름이 끼었다.

11월 21일(임오) 구름이 끼었다.

11월 22일(계미)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11월 23일(갑신) 조금 추웠다.

11월 24일(을유) 추웠다.

11월 25일(병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26일(정해) 추웠다.

11월 27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8일(기축) 매우 추웠다.

11월 29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창국(金昌國)이 지난 23일에 요절하고 오늘 장례를 지냈다. 나는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풍속에 구애되어 가서 곡하지 못했으니 매우 탄식스럽다.

11월 30일(신묘) 매우 추웠다.

12월 소월(小月).

12월 1일(임진)

12월 2일(계사) 해가 나왔지만 매우 추웠다.

12월 3일(갑오)

12월 4일(을미)

12월 5일(병신) 따뜻하였다.

12월 6일(정유)

12월 7일(무술)

12월 8일(기해)

12월 9일(경자)

12월 10일(신축)

12월 11일(임인)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2월 12일(계묘) 매우 따뜻하였다.

12월 13일(갑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지사 호서(湖西) 옥천(沃泉) 사람 이경래(李慶來)가 왔다.

12월 14일(을사) 매우 추웠다. 지사 이경래가 갔다.

12월 15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6일(정미) 추웠다.

12월 17일(무신) 온화하였다.

12월 18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9일(경술) 빗방울이 떨어졌다. 밤에 맑았다.

12월 20일(신해) 추웠다.

12월 21일(임자) 따뜻하였다.

12월 22일(계축) 비가 먼지를 적셨다. 지사 신만홍이 상을 당했다.

12월 23일(갑인)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12월 24일(을묘) 바람이 불고 추웠다. 지사 신만홍이 죽었기 때문에 다녀왔다.

12월 25일(병진) 추웠다.

12월 26일(정사)

12월 27일(무오)

12월 28일(기미)

12월 29일(경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올해 시가[市直]가 조(租) 11,12말, 쌀[米] 5말, 콩[太] 11말이다.

임술년 1742년(영조18)

1월 대월(大月). 1일 신유. 15일 우수중(雨水中), 30일 경칩(驚蟄) 이절(二節).

2월 소월(小月). 1일 신묘. 15일 춘분중(春分中).

3월 대월. 1일 경신 청명(淸明) 삼절(三節), 16일 곡우중(穀雨中).

4월 소월. 1일 경인. 2일 입하절(立夏節), 17일 소만중(小滿中).

5월 소월. 1일 기미. 4일 망종절(芒種節), 20일 하지중(夏至中).

6월 대월. 1일 무자. 6일소서절(小暑節), 13일 초복(初伏), 22일 대서중(大暑中).

7월 소월. 1일 무오. 8일 입추절(立秋節), 23일 처서중(處暑中).

8월 대월. 1일 정해. 10일 백로절(白露節), 25일 추분중(秋分中).

9월 소월. 1일 정사. 10일 한로절(寒露節), 25일 상강중(霜降中).

10월 대월. 1일 병술. 11일 입동절(立冬節), 26일 소설중(小雪中).

11월 대월. 1일 병진. 11일 대설절(大雪節), 26일 동지중(冬至中).

12월 대월. 1일 병술. 10일 소한절(小寒節), 25일 대한중(大寒中).

1월 대월(大月).

1월 1일(신유) 어제 저녁부터 청명하고 구름이 없었는데 아침이 되자 얇게 구름이 끼었다가 잠깐 하늘이 드러났다. 동풍이 잠깐 불고 가볍게 안개가 끼었다. 닭이 울 때에 날씨가 작년과 같았다. 밤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1월 2일(임술) 구름이 흩어지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서북풍이 불었다.

1월 3일(계해) 춥고 눈이 내리다가 저물녘에 갼다.

1월 4일(갑자)

1월 5일(을축)

1월 6일(병인) 이상 온화하였다.

1월 7일(정묘) 서풍이 잠깐 불었다. 두포(頭浦)의 이 상인(李喪人)을 위로하고 돌아왔다.

1월 8일(무진) 따뜻하였다. 이웃사람인 대장 우홍징(禹洪徵)이 6일부터 갑자기 괴질을 앓았는데 오늘 병으로 사망하니 슬프다.

1월 9일(기사) 약간 흐렸다.

1월 10일(경오)

1월 11일(신미)

1월 12일(임신)

1월 13일(계유) 온화하였다.

1월 14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지사 이경래와 밧자리를 구했다.

1월 15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달이 조금 높게 떠올랐다.

1월 16일(병자) 바람이 갑자기 추웠다. 이 상인 집에 가서 안정산(安靜山)에 묘소를 마련해 땅을 팠다.

1월 17일(정축) 온화하였다. 고노(雇奴) 홍석재(洪石才)가 진주 동산(東山)에서 왔다. 이날 저물녘에 형님이 도선(道善)의 선재예하소(船材曳下所)에서 색리 김여칠(金汝七)에게 능욕을 당하였다고 하므로 밤에 지법리(池法里)에 갔다.

1월 18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침에 읍에 들어가 관에 고하고 형차(刑差)를 보내 여칠(汝七)을 붙잡아 칼을 썬 뒤 가둔 뒤에 저물녘에 백서구(白瑞龜)와 함께 돌아왔다. 이날 밤에 북풍이 노한 듯이 세차게 불었다.

1월 19일(기묘) 매우 추웠다.

1월 20일(경진) 온화하였다.

1월 21일(신사)

1월 22일(임오)

1월 23일(계미) 조정에서 바람에 부러진 소나무를 팔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베어서 쌓아 두게 하였다.

1월 24일(갑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1월 25일(을유) 해가 나왔다. 두포(頭浦) 이상인(李喪人)의 상여를 산소로 옮기는 데에 가보았다.

1월 26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지사 이경래와 함께 밧자리를 구했다. 갈마포(渴馬浦)에 가서 신좌축득간득사과(辛坐丑得良得已破)의 묘터를 점지하였다. 안세진(安世軫)의 집에서 묵었다.

1월 27일(정해) 구름이 끼었다. 아침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1월 28일(무자) 구름이 끼고 추웠다.

1월 29일(기축) 동풍이 불었다. 산을 답사하고 면화잠(綿花岑)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1월 30일(경인) 비가 내렸다.

2월 소월(小月).

2월 1일(신묘) 비가 내렸다.

2월 2일(임진)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2월 3일(계사) 비가 내렸다.

2월 4일(갑오) 잠깐 개었다. 다시 갈마포(渴馬浦)에 갔다.

2월 5일(을미)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아내에게 소변이 막히는 증세가 있었다.

2월 6일(병신) 매우 추웠다.

2월 7일(정유) 조금 따뜻하였다. 이날 해시(亥時)에 딸이 태어났다.

2월 8일(무술) 추위와 따뜻함이 서로 반반이었고 약간 흐렸다. 지사가 두포(頭浦)에 갔다. 재직(齋直)인 거제(巨濟) 아이가 구걸하러 왔다.

2월 9일(기해)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벽방산(碧芳山) 손귀하리양행오좌원(巽龜下離兩行午坐原)에 묘터를 표시하였다.

2월 10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1일(신축) 낮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12일(임인) 따뜻하였다.

2월 13일(계묘)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14일(갑진) 청명하였다.

2월 15일(을사) 온화하였다. 영문(營門)을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군(吳郡)에서 물을 마시는 맑은 덕이 얼마나 다행인가? 촉도(蜀都)에서 흥학(興學)하는 아름다운 정사를 먼저 거행한다.”

2월 16일(병오) 동풍이 가지를 흔들고 가랑비가 때때로 지나감

2월 17일(정미)

2월 18일(무신)

2월 19일(기유)

2월 20일(경술)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2월 21일(신해) 가랑비가 내렸다.

2월 22일(임자)

2월 23일. 癸{丑}。

2월 24일(갑인) 해가 나왔다.

2월 25일(을묘) 비가 내려 축축하고 온화하였다.

2월 26일(병진) 낮에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밤에 바람도 불고 비도 내렸다.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 조(租) 1섬이 떠내려갔다.

2월 27일(정사) 구름이 흩어지고 따뜻하였다. 서재 낙성식을하였다.

2월 28일(무오) 온화하였다.

2월 29일(기미) 동풍이 갑자기 불어 구름을 몰아 북쪽으로 달려갔다.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3월 대월(大月).

3월 1일(경신)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성중(城中)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오랫동안 동루(東樓)에 기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마침내 시장에서 파는 도롱이를 사서 입고 비바람을 맞으며 나왔다. 밤에 비가 그치지 않아 냇물이 크게 나왔다.

3월 2일(신유) 가랑비가 내렸다.

3월 3일(임술) 온화하였다.

3월 4일(계해) 따뜻하였다. 팔진(八鎭)에 갔다.

3월 5일(갑자) 온화하였다. 이날은 바로 장인어른의 소상(小祥)이다. 파산(巴山) 윤상신(尹商臣)이 와서 나를 만나고 작별하고 돌아갔다.

3월 6일(을축)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종일 그치지 않았다.

3월 7일(병인) 비가 그치지 않았다. 산에 눈이 내렸다.

3월 8일(정묘) 잠깐 개었다.

3월 9일(무진) 동풍이 불어 춥고 구름이 끼었다.

3월 10일(기사)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1일(경오)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3월 12일(신미) 찬 구름이 흩어지려 하니 하늘이 잠깐 드러났다.

3월 13일(임신) 온화하였다.

3월 14일(계유) 이날 저물녘에 호랑이가 덩에 걸려 잡혔다.

3월 15일(갑술) 온화하였다.

3월 16일(을해)

3월 17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8일(정축) 동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3월 19일(무인) 또 비가 내렸다.

3월 20일(기묘)

3월 21일(경진)

3월 22일(신사) 가끔 비가 내렸다.

3월 23일(임오) 천둥이 쳤다.

3월 24일(계미) 저녁에 흐렸다.

3월 25일(갑신)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26일(을유) 동풍이 소리를 내며 불고 빗방울이 때로 올렸지만 가끔 구름 사이로 햇별이 새어나왔다.

3월 27일(병술) 종일 비가 내렸다.

3월 28일(정해) 계속 비가 내리다가 식후에 구름이 흩어지더니 해가 나왔다.

3월 29일(무자) 동풍이 불어 조금 서늘하였다.

3월 30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서리가 내려 흔적을 남겼다.

4월 소월(小月).

4월 1일(경인) 새벽에 날씨가 추웠다.

4월 2일(신묘) 따뜻하였다. 근래 호랑이가 들에 설치한 빈소의 시체를 먹는 일이 발생하니 괴이한 노릇이다.

4월 3일(임진)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4일(계사) 매우 따뜻하였다.

4월 5일(갑오) 가랑비가 내리고 밤에 크게 우레와 번개가 쳤다.

4월 6일(을미) 저녁이 되자 쾌청해졌다.

4월 7일(병신) 잠깐씩 해가 나더니 밤에 큰비가 내렸다. 지사 이경래(李慶來)가 와서 유숙하였다.

4월 8일(정유) 비가 내렸다.

4월 9일(무술)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그쳤다.

4월 10일(기해)

4월 11일(경자)

4월 12일(신축)

4월 13일(임인)

4월 14일(계묘)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4월 15일(갑진)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밤에 월식(月食)이 있었다.

4월 16일(을사)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17일(병오) 큰비가 내려 땅에 물이 넘쳤다.

4월 18일(정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4월 19일(무신)

4월 20일(기유)

4월 21일(경술)

4월 22일(신해) 이상 온화하였다.

4월 23일(임자)

4월 24일(계축)

4월 25일(갑인)

4월 26일(을묘)

4월 27일(병진) 해가 나와 더웠다.

4월 28일(정사) 약간 흐렸다.

4월 29일(무오) 약간 흐리고 바람이 불다가 저녁에 자주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소월(小月).

5월 1일(기미) 얇게 구름이 끼었다. 해가 막 떠오르는데 일식이 일어났다.

5월 2일(경신) 따뜻하였다.

5월 3일(신유) 이슬비가 내렸다.

5월 4일(임술) 동풍이 불었다.

5월 5일(계해) 동풍이 불어 조금 서늘하였다. 얇은 구름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였다.

5월 6일(갑자)

5월 7일(을축)

5월 8일(병인)

5월 9일(정묘) 이상은 날씨가 모두 위와 같다.

5월 10일(무진) 저녁에 비가 내렸다.

5월 11일(기사)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었다.

5월 12일(경오) 또 비가 내렸다.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인해 진흙탕이 되었다.

5월 13일(신미) 개었다.

5월 14일(임신)

5월 15일(계유) 따뜻하였다.

5월 16일(갑술) 조각 구름이 동서로 교차하며 떠다녔다.

5월 17일(을해)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18일(병자) 부슬부슬 내렸다. 우레가 쳤다.

5월 19일(정축) 새벽에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냇물이 넘쳐 흘렀다. 종일 부슬부슬 내렸다. 우리집은 오늘 비로소 이앙을 끝냈다.

5월 20일(무인)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21일(기묘) 잠깐 비가 내렸다.

5월 22일(경진)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23일(신사)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었다.

5월 24일(임오)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5월 25일(계미) 또 비가 내렸다. 밤에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니 계곡에서 우레가 치면서 또 시끄럽게 내렸다.

5월 26일(갑신) 또 비가 내렸다.

5월 27일(을유) 날이 개었다.

5월 28일(병술) 해가 나왔다.

5월 29일(정해) 해가 나왔다.

6월 대월(大月).

6월 1일(무자) 동풍이 불었다.

6월 2일(기축)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3일(경인)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4일(신묘)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도회에 먼저 거접(居接)한 사람들이 출발하였다. 벗 김석조(金錫祚)가 방문했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6월 5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6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벗 김석조가 읍에 들어갔다. 안세진(安世軫) 집에서 묵었다. 저물녘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7일(갑오) 동풍이 불었다.

6월 8일(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9일(병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빗방울이 떨어졌다. 잇그제 조보(朝報)에 평안도에서 지난달 12일에 눈이 내렸다고 하였다. 지난번 조보에는 죽은 백성들이 48,000명이나 되는데 도성에서 하루에 죽은 자가 1,600명이라고 하였다. 함경도 지역은 더욱 심하다고 하니 괴롭다. 이 무슨 변고인가?

6월 10일(정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11일(무술)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12일(기해) 동풍이 불었다.

6월 13일(경자) 북풍이 불고 잠깐 비가 내렸다.

6월 14일(신축)

6월 15일(임인) 이상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16일(계묘) 비가 내렸다.

6월 17일(갑진) 큰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6월 18일(을사) 어제부터 내린 비가 새벽까지 내렸다. 물이 크게 넘쳐 냇가의 전토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6월 19일(병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20일(정미)

6월 21일(무신)

6월 22일(기유) 매우 더웠다.

6월 23일(경술)

6월 24일(신해)

6월 25일(임자) 이상은 모두 위와 같다.

6월 26일(계축) 가끔 구름이 끼었다.

6월 27일(갑인)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28일(을묘)

6월 29일(병진) 더웠다.

6월 30일(정사) 저녁에 동풍이 불었다. 아버님이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오늘 짐을 뒀다. 한밤중이 될 즈음에 비가 내렸다.

7월 소월(小月).

7월 1일(무오) 동풍이 불고 매우 더웠다.

7월 2일(기미) 매우 더웠다.

7월 3일(경신) 가랑비가 내렸다.

7월 4일(신유) 더웠다.

7월 5일(임술)

7월 6일(계해) 이상 구름과 햇별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7월 7일(갑자) 오후에 북쪽 하늘에 구름이 일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저물녘에 잠깐 빗방울이 떨어졌다. 벼 김석조(金錫祚)가 왔다.

7월 8일(을축) 동풍이 불고 구름이 많았다.

7월 9일(병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벼 김석조와 함께 삼봉포(三峯浦)에 갔다.

7월 10일(정묘) 간혹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안세진(安世軫) 집의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다.

7월 11일(무진)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계속 안세진 집에 머물렀다.

7월 12일(기사) 매우 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13일(경오) 동풍이 불고 매우 덥고 구름이 끼었다.

7월 14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15일(임신) 비가 내렸다.

7월 16일(계유)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7월 17일(갑술)

7월 18일(을해)

7월 19일(병자) 해가 나왔다.

7월 20일(정축) 가랑비가 내렸다.

7월 21일(무인)

7월 22일(기묘)

7월 23일(경진) 비가 내렸다.

7월 24일(신사) 비가 퍼붓듯이 내리고 그치지 않았다. 신시쫘에 거류산(巨流山) 한쪽이 무너져 계곡을 막으며 흘러내리다가 재당(齋堂)을 덮을 뻔하고 담장 아래에서 멈췄으니 너무도 위태하였다. 비가 저녁이 되자 갑자기 그쳤다.

7월 25일(임오)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26일(계미)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27일(갑신) 다시 비가 내렸다.

7월 28일(을유)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29일(병술) 해가 나왔다. 올해 홍수가 나서 강변에서 압사하거나 익사하여 떠내려 온 자들이 그 수를 모를 정도라고 하였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정해) 해가 나왔다.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일(무자)

8월 3일(기축) 해가 나왔다.

8월 4일(경인) 또 비가 내렸다. 벗 김석조(金錫祚)가 그 모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떠났다.

8월 5일(신묘)

8월 6일(임진) 상인 최석권(崔錫權)이 여막살이하는 곳을 찾아갔다.

8월 7일(계사) 이상 비가 내리고 해가 나지 않는 날이 없었다.

8월 8일(갑오) 저물녘에 소낙비가 퍼부었다.

8월 9일(을미) 비가 그치지 않았다.

8월 10일(병신) 가끔 비가 내렸다.

8월 11일(정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12일(무술) 쾌청하였다.

8월 13일(기해) 해가 나왔다.

8월 14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15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산에 올라 시제(時祭)를 지냈다.

8월 16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남촌의 진장(鎭將) 조태항(趙泰恒)을 만나고 돌아왔다.

8월 17일(계묘)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항북(項北) 김씨 아이가 와서 머물렀다.

8월 18일(갑진) 비가 내렸다.

8월 19일(을사)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20일(병오)

8월 21일(정미)

8월 22일(무신)

8월 23일(기유) 이상 해가 나왔다.

8월 24일(경술) 해가 나왔다. 어제 오시(午時)에 용동(龍洞) 장인이 별세했다고 부고가 오늘 왔기에 읍에 들어가 말을 구했다.

8월 25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아내가 상에 달려가고 나도 함께 갔다.

8월 26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성복(成服)하였다.

8월 27일(계축)

8월 28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29일(을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삼봉산(三峯山) 아래 산모퉁이 구미곡(九味谷) 경구건좌(庚龜乾坐) 언덕에 묘 구덩이를 팠다.

8월 30일(병진) 해가 나와 더웠다. 상여가 산소에 이르렀다. 이날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정사) 축시에 하관(下棺)을 하였다.

9월 2일(무오) 비가 내렸다.

9월 3일(기미) 비가 내렸다.

9월 4일(경신) 빗방울이 떨어졌다. 사내종과 말이 들어왔다.

9월 5일(신유) 일찍 출발하여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9월 6일(임술) 삼봉포(三峯浦)에 갔다.

9월 7일(계해) 계속 머물렀다.

9월 8일(갑자) 읍에 가서 머물렀다.

9월 9일(을축) 우박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10일(병인)

9월 11일(정묘)

9월 12일(무진) 이상 날씨가 따뜻하지 않았다.

9월 13일(기사) 북풍이 불어 추웠다.

9월 14일(경오)

9월 15일(신미) 추웠다.

9월 16일(임신) 따뜻하였다.

9월 17일(계유) 동풍이 불었다.

9월 18일(갑술)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9월 19일(을해) 해가 나왔다.

9월 20일(병자) 비가 먼지를 적셨다.

9월 21일(정축)

9월 22일(무인)

9월 23일(기묘) 이상 日。

9월 24일(경진) 진주(晋州) 노장(老丈) 최후대(崔垵大)가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이날 밤에 비가 내렸다.

9월 25일(신사) 비가 개었다. 최후대가 갔다.

9월 26일(임오)

9월 27일(계미)

9월 28일(갑신) 최 생원이 또 와서 유숙하였다.

9월 29일(을유) 오후에 비가 그쳤다. 최 노장이 계속 머무르며 풍월을 이야기했다.

10월 양월(良月) 대월(大月).

10월 1일(병술) 해가 나왔다. 노장 최후대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나는 읍에 들어가 머물렀다.

10월 2일(정해) 해가 나왔다. 관가의 요청으로 금학당(琴鶴堂) 현판을 썼는데 벗 김석조(金錫祚)가 마침 찾아왔기에 청심헌(淸心軒) 현판을 쓰게 하였다.

10월 3일(무자) 해가 나왔다. 김석조와 함께 벗 박사도(朴師道)의 집에서 묵었다.

10월 4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석조와 함께 재실로 돌아왔다.

10월 5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6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석조가 떠났다.

10월 7일(임진) 가끔 구름이 끼었다.

10월 8일(계사) 청명하였다.

10월 9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대장 우홍징(禹洪徵)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안연은 단명했고 ⁹⁶ 등유는 자식 없었으니 ⁹⁷	顏而無壽鄧無兒
예부터 모두 그러하니 어찌하리오	自古皆然可奈爲
제일 오늘 밤에 창자 끊어질 듯 아픈 건	最是今宵腸斷處
외로운 기러기 제 무리 잃고 울어대는 때이지	嘶酸孤鴈失行時

10월 10일(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1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6 안연(顏淵)은 단명했고 : 안연은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는데 32세에 요절하였다.

97 등유(鄧攸)는 자식 없었으니 : 진(晉)나라 하동 태수(河東太守) 등유가 석능(石勒)의 병란 때에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피난하다가 둘을 모두 보호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는, 자기 아들은 버려두어 죽게 하고 먼저 죽은 동생의 아들을 대신 살렸다. 그 뒤에 끝내 후사를 얻지 못하자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하늘이 무지해서 백도에게 아들이 없게 했다. [皇天無知使伯道無兒]”라고 탄식했다는 고사가 《진서(晉書)》 권90 등유전에 나온다. 백도(伯道)는 등유의 자이다.

10월 12일(정유) 저녁에 有빛방울이 떨어졌다.

10월 13일(무술) 조금 추웠다. 아몽(阿夢)이 조카 성(聖)과 동행하여 사천(泗川)으로 갔다.

10월 14일(기해) 조금 따뜻하였다.

10월 15일(경자) 온화하였다.

10월 16일(신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10월 17일(임인) 서풍이 불고 흐렸다.

10월 18일(계묘)

10월 19일(갑진)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0월 20일(을사) 온화하였다. 재승(齋僧)이 병이 나서 절로 돌아갔다.

10월 21일(병오) 매우 따뜻하였다.

10월 22일(정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를 위해 소장의 초고를 대략 다음과 같이 썼다. “춘추 향회(享會)가 열리는 날 함께 진소하지 못했고, 영읍 집사의 행차에도 대비가 없었다.”

10월 23일(무신)

10월 24일(기유)

10월 25일(경술)

10월 26일(신해)

10월 27일(임자)

10월 28일(계축)

10월 29일(갑인) 이상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0월 30일(을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1월 지월(至月) 대월(大月).

11월 1일(병진) 온화하였다.

11월 2일(정사) 온화하였다. 이날 저물녘에 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다가 곧바로 그쳤다.

11월 3일(무오) 매우 따뜻하였다. 두포(頭浦) 이 상인(李喪人) 집의 첫 기일에 갔다.

11월 4일(기미) 가끔 구름이 끼고 따뜻하였다.

11월 5일(경신)

11월 6일(신유)

11월 7일(임술) 위와 같다.

11월 8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장의 허후(許垆)가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11월 9일(갑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11월 10일(을축) 흠비로 인해 어두워 산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았으나 날씨는 온화하여 3월 봄바람 부는 풍경과 같았으니 괴이하다. 오늘은 역병이 성행하여 온천지를 일망타진하여 죽은 사람이 임자년(壬子年) 겨울과 같았다고 하니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우리 고을만은 역병이 돌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11월 11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2일(정묘) 비가 먼지를 적셨다. 순상(巡相) 김공 상성(金公尙星)이 순찰하다가 본현에 도착했기에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13일(무진) 온화하였다. 순상이 통영(統營)에 가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14일(기사) 밤에 비가 잠깐 내렸다. 거제(巨濟) 옥찬헌(玉瓚獻)의 아들이 와서 묵었다.

11월 15일(경오) 비가 와서 땅이 질퍽하였다. 옥찬헌의 아들이 창원(昌原)으로 간다고 하였다.

11월 16일(신미) 온화하였다.

11월 17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8일(계유) 가장 추웠다.

11월 19일(갑술) 온화하였다.

11월 20일(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올해 역병이 겨울이 되자 다시 유행하였는데 삼남이 특히 심했다. 장령(掌令) 이정덕(李延德)이 상소하여 명산에 제사를 지내 역병을 쫓을 방도를 삼았다. 영남(嶺南)은 중앙읍 선산(善山)에 제단을 만들어 행하기로 했다. 통제사 송공징래(宋公徵來)가 또 “삼남은 도통제사가 있는 진영이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 22일에 북포방(北鋪枋)에 제단을 설치하여 세병관(洗兵館) 종약(宗岳)의 신령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 본읍에 관문(關文)을 보내 예를 아는 유생 9명을 올려 보내라.” 하였다. 그 때문에 나는 정재종(丁再從) 형제, 백서구(白瑞龜), 아무개 사람들과 시임 이국하(李國廈)와 동행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밤에 통영에 들어가 현사(縣司)에서 묵었다.

11월 21일(병자) 매우 온화하였다. 현사에서 제계하였다. 나는 집례(執禮)로 통제사를 만나 뵈고 제사 의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11월 22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초헌관(初獻官)은 순상, 아헌관(亞獻官)은 우후(虞侯), 종헌관(終獻官)은 남촌 진장 염덕겸(廉德謙)이다. 전사관(典祀官) 영등 만호(永登萬戶)가 집례로, 내가 대축(大祝)을 담당했다. 윤 진사(尹進士)가 저물녘에 돌아갔다. 나는 술병이 나서 조동(槽洞) 김만국(金萬國)의 집에서 묵었다.

11월 23일(무인)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잠깐 비가 내렸다. 밤에 비에 눈이 섞여 내렸다.

11월 24일(기묘) 매우 추웠다.

11월 25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6일(신사) 추웠다.

11월 27일(임오) 조금 따뜻하였다.

11월 28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9일(갑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30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대월(大月).

12월 1일(병술)

12월 2일(정해) 추웠다.

12월 3일(무자)

12월 4일(기축)

12월 5일(경인) 이상 매우 추웠다.

12월 6일(신묘) 온화하였다. 형님댁에서 강씨(姜氏) 사위를 맞았다.

12월 7일(임진)

12월 8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술자리를 열어 생일잔치를 하였다.

12월 9일(갑오) 구름이 끼었다.

12월 10일(을미)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12월 11일(병신) 따뜻하였다.

12월 12일(정유) 더러 구름이 끼다가 해가 나오기도 하고 따뜻하였다. 지난 8일 밤에 도둑이 관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사또가 입는 학 그림 천익(千翼), 호랑이 가죽 배자(背子), 순은으로 된 등자(燈子) 등의 물건을 훔쳐갔다. 9일 밤에 관가의 마구간에 불이 났으니, 이는 필시 소장(蕭牆)⁹⁸의 변고이다. 10일에 구관(舊官)이 출발하여 상리참(上里站)에 이르러 말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하였다.

12월 13일(무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신임 사또인 문관 청주(淸州) 이진길(李晉吉)이 부임하였는데 나이 42세였다. 향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12월 14일(기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머물렀다.

12월 15일(경자)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6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천에서 온 학도 김필명(金必鳴)이 어제부터 병이 나서 통증으로 괴로워했다.

12월 17일(임인) 추웠다. 재승(齋僧)을 김필명의 집으로 보내어 소식을 전했다.

98 우리집 담장 안에서 : 원문의 ‘소장(蕭牆)’은 자기 담장 안에서 일어나는 변을 이른다. 《논어(論語)》 계씨편(季氏篇)에 “계씨의 화가 전유(顛輿)에 있지 않고 소장(蕭牆)의 안에 있다.” 하였다.

12월 18일(계묘) 추웠다.

12월 19일(갑진) 매우 추웠다.

12월 20일(을사) 추웠다.

12월 21일(병오) 갑자기 따뜻해졌다.

12월 22일(정미) 매우 추웠다.

12월 23일(무신)

12월 24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관에서 지내는 여역제(癘疫祭)에 대축(大祝)으로 참여하기 위해 울천(栗川)으로 나갔다. 밤에 바람이 없었다. 사또가 단헌(單獻)으로 제사를 지냈다. 김필명이 어제 병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12월 25일(경술) 자야(子夜 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반에 제사를 지냈다. 이날 날씨가 추워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6일(신해)

12월 27일(임자)

12월 28일(계축)

12월 29일(갑인) 이상 더러 해가 나오다가 구름이 끼기도 하고 온화하지 않았다.

12월 30일(을묘) 온화하였다. 학도 이노미(李老味)가 집으로 돌아갔다. 올해는 풍년이라고 하겠다. 시가[市直]가 쌀[米] 6,7말, 조(租) 16,17말이다. 세모가 지난 뒤에는 쌀 6말 혹은 5말 8,9되, 조 14두이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쌀통이 비었다는 탄식이 있고 전염병이 사방에 가득 돌아 죽은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를 알 수 없다.

계해년 1743년(영조19)

1월 소월. 1일 병진. 10일 입춘절(立春節), 25일 우수중(雨水中).

2월 대월. 1일 을유. 11일 경칩절(驚蟄節), 26일 춘분중(春分中).

3월 소월. 1일 을묘. 11일 청명절(清明節), 26일 곡우중(穀雨中).

4월 대월. 1일 갑신. 13일 입하절(立夏節), 28일 우수중(雨水中).

윤4월 소월. 1일 갑인. 14일 망종(芒種) 오절(五節).

5월 소월. 1일 계미 하지중(夏至中), 17일소서(小暑) 육절(六節), 28일 초복(初伏).

6월 소월. 1일 입자. 3일 대서중(大暑中), 19일 말복(末伏), 입추(立秋) 칠절(七節).
7월 대월. 1일 신사. 6일 처서중(處暑中), 21일 백로(白露) 팔절(八節).
8월 소월. 1일 신해. 6일 추분중(秋分中), 22일 한로(寒露) 구절(九節).
9월 대월. 1일 경인. 8일 상강중(霜降中), 23일 입추(立冬) 십절(十節).
10월 대월. 1일 경술. 8일 소설중(小雪中), 22일 대설(大雪) 지절(至節).
11월 대월. 1일 경진. 7일 동지중(冬至中), 22일 소한(小寒) 12일절.
12월 소월. 1일 경술. 6일 대한중(大寒中), 21일 입동(立冬) 정절(正節).

1월 대월(大月).

1월 1일(병진) 닭 울음이 7, 8차례 들리고, 더러 12차례 들렸다. 북풍이 잠깐 불고 날씨가 청명하였다 서쪽에 검은 구름이 잠깐 보였다.

1월 2일(정사)

1월 3일(무오) 온화하였다.

1월 4일(기미) 얽게 구름이 끼고 온화하였다.

1월 5일(경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월 6일(신유) 얽게 구름이 끼고 동풍이 불어 잠깐 서늘하였다. 한밤중에 비가 내렸다.

1월 7일(임술) 인일(人日) 동풍이 불었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1월 8일(계해)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경기 안성(安城) 사람 노성린(盧成麟)이 목고 갔다.

1월 9일(갑자) 동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노성린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월 10일(을축)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그쳤다.

1월 11일(병인) 얼음이 얼지 않았다.

1월 12일(정묘)

1월 13일(무진) 이상 구름이 끼고 춥고 바람이 불어 서늘했다.

1월 14일(기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1월 15일(경오) 북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밤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 날씨를 예측할

수 없었다. 달이 떠올랐다.

1월 16일(신미) 비에 눈이 섞여 내렸다.

1월 17일(임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밤에 걷혔다.

1월 18일(계유) 오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대포와 같았다.

1월 19일(갑술)

1월 20일(을해) 이상 추웠다. 인제(姻弟) 김호일(金好日)이 왔다.

1월 21일(병자) 바람이 불고 추웠다.

1월 22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냥으로 눈을 샀다.

1월 23일(무인) 저물녘에 산에 눈이 내렸다. 김호일(金好日)이 집에 왔다.

1월 24일(기묘) 약간 흐렸다가 점점 따뜻해졌다.

1월 25일(경진)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1월 26일(신사) 동풍이 불고 찬비가 내렸다.

1월 27일(임오)

1월 28일(계미) 추웠다.

1월 29일(갑신) 비가 내렸다.

2월 대월(大月).

2월 1일(을유)

2월 2일(병술) 추웠다. 향교에 들어가 재계에 참여하였다. 사또가 식당에 들어가 의식을 익혔다. 이날 밤에 많이 술에 취해 체모를 잃었다.

2월 3일(정해) 추웠다.

2월 4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또에게 인사하고 나와 그대로 읍저에 머물렀다.

2월 5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읍저에 머물렀다.

2월 6일(경인) 바람이 불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7일(신묘)

2월 8일(임진)

2월 9일(계사)

2월 10일(갑오)

2월 11일(을미)

2월 12일(병신) 이상 日。

2월 13일(정유) 별감 이명래(李命來)가 통문과 관련된 일로 수감되었다.

2월 14일(무술) 바람이 불고 추웠다. 별감 이수종(李秀宗)도 통문과 관련된 일로 수감되어 내가 향교에 가서 유숙하였다.

2월 15일(기해) 날씨가 추웠다. 향교에 머물렀다. 통영 우후 정찬(鄭纘)이 읍에 들어갔다.

2월 16일(경자) 바람이 불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관에서 영(營)에 향전(鄉戰)을 보고 하였다.

2월 17일(신축)

2월 18일(임인)

2월 19일(계묘)

2월 20일(갑진) 온화하였다. 풍수지리와 의학을 조금 아는 광주(廣州) 사람 최지형(崔志亨)이 와서 재당에 머물렀다.

2월 21일(을사)

2월 22일(병오)

2월 23일(정미)

2월 24일(무신) 온화하였다. 최지형이 작별하고 갔다.

2월 25일(기유) 이슬비가 내렸다.

2월 26일(경술) 구름이 걷혔다. 노성린(盧聖麟)이 엇그제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내가 오늘 그와 동행하여 함께 안정사(安井寺)에 올라갔다가 가암(迦庵)에 묵었다.

2월 27일(신해)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의상암(義湘庵)에 올라갔다가 고개를 넘어 내려왔다.

2월 28일(임자)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노성린이 관아에 들어갔다.

2월 29일(계축) 동풍이 불고 흐렸다.

2월 30일(갑인)

3월 소월(小月).

3월 1일(을묘) 이슬비가 내렸다.

3월 2일(병진)

3월 3일(정사) 바람이 불고 추웠다.

3월 4일(무오) 추웠다. 밤에 도적이 재실에 돌을 던졌다.

3월 5일(기미)

3월 6일(경신) 온화하였다.

3월 7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8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몽아(夢阿), 능아(能兒)와 함께 통영에 들어갔다.

3월 9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0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통제사 송공 징래(宋公徵來)가 와서 진주와 함안(咸安), 우리 고을 사또에게 청해 연변의 여러 읍 유생들을 위해 세병관(洗兵館) 뜰에서 백일장을 치루자고 청하였다. 시제와 부제는 모두 “붉은 깃발 도독의 관인 고풍으로 망북루에서 시를 짓네[寓感紅旗都督印, 古風題望北樓]”이다.

3월 11일(을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장원(壯元)은 삼가(三嘉) 정국태(鄭國泰)인데 낙방한 자들이 꽤 많았다. 통제사가 세병관에 나와 의자 위에 앉았다. 여러 유생들에게 의자 아래에서 인사하게 하였는데 다투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으니 매우 우습다. 이날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3월 12일(병인)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와 저물녘에 집으로 들어왔다.

3월 13일(정묘) 따뜻하였다.

3월 14일(무진) 온화하였다. 밤에 재당에 불이 났으나 크게 번지기 전에 진압하였다.

3월 15일(기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6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상인 최성대(崔成大)가 세동(細洞)에 묘를 파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3월 17일(신미) 약간 흐렸다. 김만국(金萬國) 조부 묘의 표석(表石)을 쓰고 돌아왔다.

3월 18일(임신) 구름이 끼고 추웠다.

3월 19일(계유) 이슬비가 내렸다.

3월 20일(갑술) 온화하였다. 생도 강창언(姜昌彦)이 며칠동안 병으로 누워있기에 오늘 그 집으로 태워 보냈다.

3월 21일(을해)

3월 22일(병자)

3월 23일(정축) 온화하였다.

3월 24일(무인)

3월 25일(기묘)

3월 26일(경진) 비올 기미가 없었다.

3월 27일(신사) 저물녘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3월 28일(임오) 구름이 걷혔다. 도유사(都有司) 최수희(崔壽會)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

다.

난수에 서린 슬픔 얼마였던가
주구에다 새로이 음택 정했네
성심엔 길지인지 미심쩍지만
신통한 눈 옛사람 벌써 보았네
푸른 바다 자라며 거북 모이고
청산엔 호랑이며 표범 깔렸네
도성 백성 또다시 눈물 뿌리며
너그럽고 인자함 길이 그리네

灑水纏哀久
珠丘卜宅新
聖心疑厚地
神眼屬前人
碧海龜鼉集
蒼山虎豹陳
都民重拭涕
千載憶寬仁

3월 29일(계미) 온화하였다. 장의(掌議) 이시백(李時白)의 장례식에 가서 조문하고,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지난날 임오년의 오월달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서연 열었지
아침에는 올린 글 답을 내렸고
밤에는 베갯머리 슬픔 머금어
하해 도량 뉘라서 헤아릴 건고
천둥 같은 노여움 참지 못했네
서글퍼라 구학의 떠난 그림자
스물여덟 해 만에 돌아왔다네

壬午端陽月
書筵日日開
朝章都賜答
夜枕獨銜哀
河海渾誰測
風霆鬱不裁
傷心緱鶴影
二十八年回

4월 대월(大月).

4월 1일(갑신)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일(을유)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4월 3일(병술) 해가 나왔다.

4월 4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5일(무자)

4월 6일(기축) 날씨가 고르지 않았다.

4월 7일(경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마을 사람 최금철(崔今哲)이 죽어 매장되는 것을 보러 갔다.

4월 8일(신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각기병으로 땀이 났다. 계집종의 남편 이토금(李土金)이 염병으로 죽으니 딱하다. 근래 괴수가 사람의 시체를 먹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 무슨 징조인가?

4월 9일(임진) 밤에 비가 쏟아지다가 곧바로 그쳤다. 김필명(金必鳴)이 문안을 왔다.

4월 10일(계사) 빗방울이 햇볕을 업신여기며 떨어졌다.

4월 11일(갑오) 매우 따뜻하였다. 김필명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4월 12일(을미) 서풍이 불고 해가 나왔다.

4월 13일(병신) 청명하였다.

4월 14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5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의상암(義湘庵)에 올라가 산에 기도하였다. 최선여(崔善餘)가 마침 왔기에 함께 숙박하였다.

4월 16일(기해) 식후에 내려왔다.

4월 17일(경자) 더웠다. 삼봉포(三峯浦)에 갔다. 밤에 비가 조금 내렸다.

4월 18일(신축) 구름이 걷혔다. 이날 좌수 허참(許黶)이 또 수감되었다고 하였다.

4월 19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삼봉포(三峯浦)에서 돌아와 향교에 도착해서 공무를 보고 계속 머물렀다.

4월 20일(계묘) 더웠다.

4월 21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2일(을사) 밤에 비가 내렸다.

4월 23일(병오) 가랑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마을 사람 최치대(崔致大)의 산역에 다녀오다가 용점(瓮店)에서 송전(松田)을 적간(摘奸)하러 가는 시임 좌수 남두휘(南斗輝)를 만나 별감 최윤회(崔胤會)와 허참(許黶)이 모두 형을 받고 수감되었으며 이명래(李命來)와 이수종(李秀宗)은 풀려났다고 하였다.

4월 24일(정미) 동풍이 불었다.

4월 25일(무신) 동풍이 불었다.

4월 26일(기유)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4월 27일(경술) 하늘은 맑고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4월 28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29일(임자) 가랑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30일(계축) 비가 개이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윤4월 소월(小月).

윤4월 1일(갑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윤4월 2일(을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윤4월 3일(병진) 더웠다.

윤4월 4일(정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통영에 들어갔다.

윤4월 5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속 머물렀다.

윤4월 6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계속 머물렀다. 爲향교를 위해 영채전(營債錢) 20냥을 빌렸다.

윤4월 7일(경신) 가랑비가 내렸다. 계속 머물렀다.

윤4월 8일(신유) 가랑비가 내렸다. 계속 머물렀다.

윤4월 9일(임술) 더웠다. 계속 머물렀다.

윤4월 10일(계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윤4월 11일(갑자) 비가 상류를 적셨다.

윤4월 12일(을축)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다.

윤4월 13일(병인) 비가 어제에 비해 더 내렸다.

윤4월 14일(정묘) 구름이 흩어졌다.

윤4월 15일(무진)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이날 용수암(龍水岩)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시임 좌수 최익해(崔益海)가 사또를 대신해 지냈다.

윤4월 16일(기사) 비가 내려 진흙탕을 만들었다.

윤4월 17일(경오) 구름이 끼었다.

윤4월 18일(신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4월 19일(임신) 사직단(社稷壇) 기우제를 사또가 직접 지냈다. 나는 집례로 제사를 지낸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근래 험곡과 샘물 주변에는 더러 이양한 곳이 있었지만 큰 들판에는 종묘할 기약이 전혀 없으니 농사가 염려된다.

윤4월 20일(계유)

윤4월 21일(갑술) 향교에 들어갔다.

윤4월 22일(을해) 집으로 돌아왔다.

윤4월 23일(병자)

윤4월 24일(정축) 향교에 들어갔다.

윤4월 25일(무인) 이상 가끔 구름이 끼기도 하였다. 서북풍이 그치지 않고 비올 기미가 전혀 없었다.

윤4월 26일(기묘) 집으로 돌아왔다. 불토룡소고(佛土龍蕭鼓)를 관문에 어지럽게 걸어놓고 기우제를 지냈다.

윤4월 27일(경진) 좌수를 보내 벽방산(碧芳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우리 고을에 역병이 재발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이 몇 사람 되니 염려되었다. 얽은 구름이 해를 가렸으나 더위가 땅을 삶은 듯하였다.

윤4월 28일(신사) 구름과 햇벌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윤4월 29일(임오) 비가 상류를 적셨다.

5월 소월(小月).

5월 1일(계미) 해가 나왔다.

5월 2일(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3일(을유) 비가 계곡물을 조금 불어나게 하였다.

5월 4일(병술) 날이 개고 해가 나왔다. 기우제가 아직 끝나지 않아 또 향교에 들어갔다.

5월 5일(정해) 더웠다.

5월 6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관가(官家)를 따라 거류산(巨流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벗 김백삼(金伯三)이 왔다.

5월 7일(기축) 관가가 남촌으로 가기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5월 8일(경인) 비가 먼지를 적셨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9일(신묘)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나는 또 관가를 따라 제물을 싸 상족암(床足岩)에 갔다. 덕면리(德面里)에 들어가니 운무(雲霧)가 끼어 어둡고 비올 기미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날 밤에 구름이 얹어지고 비가 오지 않았다. 암자 앞에서 묵었다.

5월 10일(임진) 관가의 행차를 따라 운흥사(雲興寺)와 취운사(翠雲寺)에 갔다가 향교로 돌아왔다.

5월 11일(계사) 더웠다. 나는 발병으로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5월 12일(갑오) 가끔 가랑비가 내렸다.

5월 13일(을미) 밤에 비가 내렸다.

5월 14일(병신)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아 시냇물이 바위를 쳤다. 작년 홍수가 난 뒤로 이번이 처음이다.

5월 15일(정유) 비가 내렸다.

5월 16일(무술)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5월 17일(기해)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지만 가끔 구름 사이로 햇볕이 새어나왔다.

5월 18일(경자) 가끔 비가 내렸다. 이날 우리집 이앙을 끝냈다.

5월 19일(신축) 비가 내렸다.

5월 20일(임인)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5월 21일(계묘)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잤다.

5월 22일(갑진)

5월 23일(을사)

5월 24일(병오) 벗 박사도(朴師道)가 육독(肉毒)으로 사망하니 슬프다.

5월 25일(정미) 이상 비 내리고 개이지 않는 날이 없었다.

5월 26일(무신) 해가 났지만 북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5월 27일(기유) 가끔 구름이 끼고 매우 더웠다.

5월 28일(경술) 아침에 가랑비가 내렸다. 식후에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김백삼이 집으로 돌아갔다.

5월 29일(신해) 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임자) 매우 덥더니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2일(계축) 소낙비가 내렸다.

6월 3일(갑인)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4일(을묘) 구름이 끼었다.

6월 5일(병진) 해가 나왔다.

6월 6일(정사) 매우 더웠다. 김백삼이 왔다. 이날 저녁에 큰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갔는데 마치 화살과 같은 모양이고 소리도 그와 같았다. 보는 자들이 모두들 놀라 이상하게 여겼다.

6월 7일(무오) 더웠다. 진주 도회에 갔다가 사천 장천(獐川) 전인태(全仁泰)의 집에서 묵었다. 밤기운이 매우 서늘하였다.

6월 8일(기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내북문(內北門) 밖의 선달(先達) 김광국(金光國)의 집을 하관(下館)으로 정했다.

6월 9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0일(신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시제는 ‘조물주를 대신해 낭옹시화설에 답한다.[代化翁答浪翁時化說]’인데 ‘옹(翁)’자로 운(韻)을 맞추었다. 부제는 성경(誠敬) 두 글자를 편 머리에 올렸다. 내가 차상(次上)을 받았다.

6월 11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과장(科場)에 들어갔다. ■■■■■■(13일 癸亥 소낙비가 내렸다.) 시제는 ‘계찰을 대신해 서진의 음악을 듣는다.[代季札聽西秦之樂憂能夏]’인데 삼상(三上)을 받았다. 밤에 동풍이 불어 서늘하였다.

6월 12일(계해) 바람이 차가웠다.

6월 13일(갑자) 소낙비가 내렸다. 시를 지었다.

6월 14일(을축) 소낙비가 크게 내렸다. 한낮에 진영의 급창노(及唱奴)가 천벌을 받아 죽었다. 이날 천지가 어둑어둑해지고 번갯불이 어지럽게 내려져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6월 15일(병인) 출발하여 협곡을 돌아 박산(朴山)을 지나다가 큰 우레와 비를 만나 작은 집에서 쉬었다. 날이 개기를 기다려 곧바로 출발했다. 사천 서명익(徐命益)의 집에서 묵었다.

6월 16일(정묘) 매우 더웠다. 향교에서 묵었다.

6월 17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가 진주읍(晉州邑)으로 향했다. 큰비가 내렸는데 이곳은 겨우 먼지를 적실 정도만 내렸을 뿐이다. 관의 고과를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직임을 맡아 다스리는 것은 비록 상세했지만 강호(強豪)를 누르는 데에 있어서는 엄격하지 못했다.[莅任雖詳 戢豪未嚴]”

6월 18일(기사) 매우 더웠다.

6월 19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가끔 흐렸다.

6월 20일(신미)

6월 21일(임신)

6월 22일(계유)

6월 23일(갑술) 이상 날이 매우 더워 들판이 푸른빛을 잃으니 농사가 염려되었다. 서북쪽 하늘에서 늘 번개소리가 들렸다.

6월 24일(을해) 구름이 끼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다.

6월 25일(병자) 서북쪽에서 우레 소리가 들렸다. 이날 내고삭(內高朔) 들에 가서 직접 작은 호미를 들고 물을 댔다. 아내와 하늘이 불쌍하게 여길 것이라는 말을 하며 한바탕 웃었다. 이날 저녁에 비가 크게 쏟아져 물이 충분했다.

6월 26일(정축) 비가 내렸다.

6월 27일(무인) 가끔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28일(기묘)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6월 29일(경진) 이명래(李命來), 이수종(李秀宗) 두 향원(鄉員)이 순영에서 형벌을 받았는데 이명래는 순영에서 죽고 이수종은 집으로 돌아와 죽었다. 이씨 가문의 재앙이 참혹하다고 하겠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신사)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이때 서울에서 온 야산대(野山臺) 놀이가 객사의 뜰에 자리를 펴므로 시장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면서 곳곳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7월 2일(임오)

7월 3일(계미)

7월 4일(갑신) 집으로 돌아왔다.

7월 5일(을유) 통영의 김재담(金再淡)이 와서 재중(齋中)에 머물렀다.

7월 6일(병술) 향교에 들어갔다.

7월 7일(정해)

7월 8일(무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 날씨가 매우 더웠다.

7월 9일(기축) 저물녘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0일(경인) 해가 나와 매우 더웠다. 13일에 열리는 백일장에 참여하기 위해 김백삼·백

봉래(白鳳來)와 동행하여 함안 판교(板橋) 주점에서 묵었다.

7월 11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창녕 대초원(大招院)에서 묵었다.

7월 12일(임진) 설아역(舌牙驛)에 이르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화현주점(花縣酒店)에서 말뽕을 먹이고, 저물녘에 서문(西門) 안을 하관(下館)으로 정했다.

7월 13일(계사)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과장 안이 어수선했다. 시제는 '달빛 아래 탁영담에 배를 띄우네.[泛月濯纓潭]'이다.

7월 14일(갑오) 매우 더웠다. 식후에 낙방하고 나왔다. 전군이 낙방했으니 매우 통탄스럽다. 현풍읍(玄風邑)으로 돌아와 묵었다.

7월 15일(을미) 운무(雲霧)가 자욱하였다. 영산(靈山) 마이(馬耳) 들관에 이르러 비를 만나 모자를 쓰고 갔다. 함안 평림주점(平林酒窟)에 이르자 비바람이 크게 불었다. 말이 이미 저물었기에 급히 작은 집으로 들어가니 주모는 병으로 누워 밥 지어 줄 사람이 없었다. 저녁을 먹지 못하고 빈속에 술을 마셨다. 또 나무짐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다.

7월 16일(병신) 새벽에 하늘이 맑게 개었다. 군진(軍陣) 최도유사(崔都有司) 댁에서 묵었다.

7월 17일(정유) 매우 더웠다. 읍내에서 아침을 먹고 김백삼(金伯三)과 박영년(朴永年) 집에서 묵었다.

7월 18일(무술) 약간 흐렸다. 김백삼이 돌아갔다.

7월 19일(기해) 해가 나왔다. 삼봉포(三峯浦)에 갔다.

7월 20일(경자) 가랑비가 내렸다.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다가 비를 만나 포촌(浦村)에서 유숙하였다.

7월 21일(신축) 쾌청하였다. 다시 향교로 갔다.

7월 22일(임인)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3일(계묘) 서쪽 하늘에 비가 내렸다.

7월 24일(갑진)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25일(을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엿그제 아몽과 김재담(金再淡)이 진주에서 백일장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갔는데 진주가 아니라 덕천서원(德川書院)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하였

다. 그 때문에 멀어 가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왔다. 저녁에 소낙비가 내렸다.

7월 26일(병오) 저녁에 또 비가 내렸다.

7월 27일(정미) 낮에 소낙비가 내리고 석양에 쾌청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8일(무신) 매우 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29일(기유) 서남풍이 불었다.

7월 30일(경술) 청명하였다.

8월 소월(小月).

8월 1일(신해)

8월 2일(임자)

8월 3일(계축)

8월 4일(갑인)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8월 5일(을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6일(병진) 온화하였다.

8월 7일(정사) 큰비가 내렸다. 재회(齋會)의 당원(堂員)이 파직하여 돌아가지 못했다. 새로 천거했는데 도유사 최경복(崔慶復), 장의 이시종(李時宗), 최제회(崔際會)이다.

8월 8일(무오) 청명하였다. 아몽이 통영에 가서 수조(水操)를 구경하였다.

8월 9일(기미) 구름이 끼었다.

8월 10일(경신)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1일(신유) 해가 나왔다.

8월 12일(임술) 구름이 끼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조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별퇴 장관의 보고에 옥전(玉田) 이동은 올해 흉년이 근래 없던 일이고, 관내는 우박이 떨어진 뒤에 흑한까지 이어져 들에 푸른 곡식이 없으니 백성들은 전적으로 관만을 바라고 있고 관가에서는 조도를 절약하니 백성들이 서로 사또를 쳐 죽인 곳이 네 곳이나 된다. 6월 2일부터

5일까지 매우 더웠는데 전에 없던 일이다. 닳새 동안 더위 먹어 죽은 자들이 17,000여 명이나 되니 황제가 내탕고를 열어 은 15,000냥을 지급하고 또 빙막(氷幕)과 더위를 구제하는 것을 설치하여 길가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다. 뇌자관이 머무는 숙소에도 사람들이 다 혼절하여 죽어갈 즈음에 갑자기 광풍이 크게 일고 붉은 빛이 하늘에 가득하더니 이내 비가 쏟아져 다행히 죽음을 면했다.” 또 서울 선비 이수봉(李壽鳳)이 꿈에 화수전 상량문(花水殿上樑文)을 지어 길에 뿌렸다는 말을 들었다. 이날 저녁에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는데 밤새 그치지 않았다.

8월 13일(계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부러뜨렸다.

8월 14일(갑자) 쾌청하였다. 날씨가 조금 추웠다.

8월 15일(을축) 아침에 보니 서리가 내린 듯하고 밤기운도 또 찼다.

8월 16일(병인) 새벽에 하늘이 맑고 차서 서리가 하얗게 얼어 있었다. 보리와 늦콩은 이미 수확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농사가 염려된다. 관가에서 성묘(聖廟)의 물이 새는 곳을 살피러 나왔다. 갈천(葛川)⁹⁹의 원향(院享)에 참여하였다.

8월 17일(정묘) 온화하였다. 향교로 돌아갔다.

8월 18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9일(기사)

8월 20일(경오) 온화하였다.

8월 21일(신미) 구름이 끼고 흐렸으나 따뜻하였다. 아몽과 관에 들어가 사또를 문후하였다. 이어 계동(契洞)에서 실시한 백일장을 구경하고 향교에서 숙박하였다.

8월 22일(임신) 구름이 걷혔다. 통영에 들어갔다.

8월 23일(계유) 해가 나왔다. 통영에 머물렀다.

8월 24일(갑술) 다시 향교로 갔다.

8월 25일(을해) 고연리(古延里)의 외종 사촌누이 장례에 갔다. 저물녘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99 갈천(葛川) :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이다. 갈천리는 본래 고성군 대둔면의 지역으로서 갈라진 내(川)가 있으므로 갈내 또는 갈천이라고 하였다. 구상덕은 제향에 참여하기 위해 대가면 갈천리에 있는 갈천서원에 자주 내왕하였다.

8월 26일(병자) 인시에 발인하고 진시에 하관하였다. 해가 나왔다.

8월 27일(정축)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다시 향교로 갔다.

8월 28일(무인)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9일(기묘) 해가 나왔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대월(大月).

9월 1일(경진)

9월 2일(신사)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3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4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백삼(金伯三)이 왔다.

9월 5일(갑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약재방(藥材坊) 김백겸(金伯兼)의 아버지 장례에 갔다. 밤에 비가 내려 지면을 적셨다.

9월 6일(을유) 새벽에 비가 내려 옷을 적셨다. 향교에 들어갔다. 밤에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9월 7일(병술) 비가 쏟아져 냇물이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9월 8일(정해)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9월 9일(무자) 바람이 많이 불었다. 무기정(舞妓亭)에 올라가 여러 벗들과 술을 마시고 김백삼과 향교에서 숙박하였다.

9월 10일(기축) 바람이 불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11일(경인) 해가 나왔다. 이도성(李道成)의 모친상에 가서 조문하였다.

9월 12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백삼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호남의 과객 김정덕(金鼎德)이 어제 와서 재중(齋中)에 유숙하였다. 저녁에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첨지 김중추(金重秋)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움집에서 한번 나와 금궁에서 임 모실 제
아침에 붓 던지고 저녁에 활 잡으셨네

茅廬一出侍金宮
朝擲毛錐暮角弓

두예처럼 유자 사업 잊지 않으셨고	杜預未忘儒者業
공명처럼 열후의 공 바라지 않으셨네	孔明非望列侯功
육선이라 누각에 승선 직무 면밀하고	六仙樓閣承宣密
사도라 깃발 아래 절도 위풍 당당했네	四道旌麾節度雄
몇몇의 비단치마 홍루에 젖었는고	幾箇羅裙紅淚濕
황주 고을 성 밖에서 서풍에 곡한다네	黃州城外哭西風

첨지(僉知) 박홍도(朴弘道) 형제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왕실 계과 맨 처음 광평군에서 갈라져	璿潢初發廣平君
내려오며 경사 쌓아 대대로 이름나더니	慶積綿流世共聞
끝내 뛰어난 두 형제 명성 크게 떨치고	終使二難聲大振
동시에 벼슬하니 하나같이 큰 문장가	一時通籍盡高文

탐라도라 목사는 상고 적의 제후거니	毛羅星主古諸侯
자나깨나 백성 위한 임금 걱정 나눠가져	宵旰遙分亦子憂
동한 시대 이천석에 부끄럽지 않으니	不愧東京二千石
조서가 어지러이 영주로 내려갔네	璽書旁午下瀛州

또

중년에는 느린 걸음 벼슬길을 사양타가	中年緩步讓雲衢
늘그막에 가서야 사모관대 찬란했네	燁燁金貂正晚途
가선대부 한성부윤 품계 벼슬 쓰여진	嘉善大夫京兆尹
붉은 명정 나부끼며 동호로 향해가네	丹旌飄拂向東湖

동지(同知) 김처석(金處錫)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파리한 얼굴에 수염은 구레나룻	髭鬚須髮繞癯顏
신선이 구름 타고 세상에 내려왔었네	羽客雲車落世間
창해에 달 밝으면 맴도는 짝 잃은 학	寡鶴盤迴滄海月
백두산을 뒤흔든 성난 용이었지	怒龍掀動白頭山
풍진 세상과 어울려도 가슴은 확 트였으며	塵埃合沓襟懷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필력은 여유로웠다	風雨交爭筆力閒
큰 늪의 구름 파도도 이제는 잠잠하고	大澤雲濤收浩淼
광릉금도 끊겼으니 소리 없이 눈물나네	廣陵琴絕涕漣漣

또

적막한 이 인간 세상에	寂寞人間世
가신 분이 다시 일어나 왔다네	斯人復起來

오늘날 사기를 볼 양이면	試看今士氣
공을 그리 슬프겐 안 만들 거야	能不使公哀
깨진 술단지가 보물로 되고	康瓠眞成寶
알찬 난초는 늘 꺾인다네	崇蘭屢見摧
보기 싫은 게 아직도 많아서	覽觀多可厭
서글픈 마음으로 또 구천 향해 가는구려	惆悵返泉臺

9월 13일(임진) 온화하고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14일(계사) 구름이 끼었다.

9월 15일(갑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9월 16일(을미)

9월 17일(병신)

9월 18일(정유) 이상 온화하였다. 상주 이응징(李應徵)에게 가서 조문하고 다시 향교로 갔다.

9월 19일(무술) 구름이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0일(기해) 약간 흐렸다. 생원 이주징(李柱徵)을 만나고 가족을 데리고 향교에 들어갔다.

9월 21일(경자) 해가 나왔다. 우산(牛山)의 생원 이운징(李雲徵)을 만나고, 가족을 데리고 밤에 향교로 돌아갔다.

9월 22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3일(임인)

9월 24일(계묘)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9월 25일(갑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26일(을사) 비가 내렸다. 아침에 성묘(聖廟)를 보니 북쪽 벽에 구멍이 나서 다섯 위(位)의 유촉대(楡燭臺) 5쌍과 향합(香合) 5좌(坐), 서무(西廡) 여덟 현위(賢位)의 유촉대 8쌍을 잃어버렸다.

9월 27일(병오) 쾌청하였다. 도사 이홍길(李弘吉)이 본현에 들어왔다.

9월 28일(정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성묘의 기물을 다시 정비할 비용으로 38냥을 분정하였다. 번유(番儒)¹⁰⁰ 허몽수(許夢秀) 8냥 2전, 번전직(番殿直) 승선(承先) 8냥 2전, 하번전직(下番殿直) 인달(仁達) 1냥, 담사리(淡沙里) 1냥, 번서원(番書員) 독동(禿同) 5전, 식모 여중이진(以進) 5전, 상직군(上直軍) 4명 각 2냥 8전, 수노(首奴) 오좌미(五佐味) 2냥 2전, 본동 열 아홉 가구 7냥 2전이다. 남은 2냥으로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장수(匠手)에게 먹일 계획이다. 어제 저물녘에 관에 들어가 고했더니, 관에서는 “향교에서 관에 보고하지 않고 관에서도 영문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사로이 서로 상의한다.”고 하였다.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9월 29일(무신) 쾌청하였다. 짐을 쳐서 승지중부(升之中孚)를 얻었다.

9월 30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옥에 갇힌 최윤회(崔胤會)와 허참(許黻)이 각각 장(杖) 30대를 맞았다.

10월 대월(大月).

10월 1일(경술)

10월 2일(신해) 이상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3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4일(계축)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따뜻하였다.

10월 5일(갑인)

10월 6일(을묘)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선산(善山) 황석기(黃石琪)와 개령(開寧) 강치운(姜致雲)이 왔다.

10월 7일(병진) 바람이 차가웠다. 강 생원은 나와 생년월일이 같은데 태어난 시가 해시(亥時)이니, 만나기 어려운 벗이다. 오늘 今日작별하고 돌아갔다. 나는 통영(統營)에 들어가 김대흥(金大興)¹⁰¹의 집에서 묵었다.

10월 8일(정사) 통영에 머물렀다.

10월 9일(무오) 이슬비가 내렸다. 다시 향교로 갔다.

100 번유(番儒) : 입번 유생(入番儒生)으로, 순번으로 당직을 맡은 유생을 가리킨다.

101 김대흥(金大興) : 거주지는 통영으로, 원래 산사(山寺)의 승려에게 공부를 배우다가 구상덕에게 배운 생도이다. 1728년 11월 18일 정창세(丁昌世)와 김대흥 등에게 학문에 매진할 것을 권면하는 글을 써서 준 적이 있으며, 1728년 12월 1일 파접(罷接)할 때 김대흥에게 시를 써서 이별의 아쉬운 정리(情理)를 토로하였다.

10월 10일(기미) 바람이 불고 추웠다.

10월 11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2일(신유)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13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4일(계해) 매우 추웠다.

10월 15일(갑자) 매우 추웠다.

10월 16일(을축)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0월 17일(병인)

10월 18일(정묘) 이상 추위와 따뜻함이 서로 반반이었다.

10월 19일(무진)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0월 20일(기사)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박사도(朴師道)의 장례에 갔다.

10월 21일(경오)

10월 22일(신미)

10월 23일(임신)

10월 24일(계유)

10월 25일(갑술) 이상 날씨가 추웠다.

10월 26일(을해)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7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28일(정축) 온화하였다. 강갑년(姜甲年), 치운(致雲), 용연(龍淵), 황석기(黃石琪), 서백(瑞伯)이 통영에서 술을 가지고 방문했다가 그대로 작별하고 돌아갔다. 우후(虞候) 정찬(鄭纘)과 기생을 데리고 상족암(床足岩)에 놀러갔다.

10월 29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30일(기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통제사 이간(李玦)이 모직 갓을 쓰고 상족암에 가려다가 본현에 들어왔다.

11월

11월 1일(경진) 통제사가 상족암에 갔다.

11월 2일(신사) 온화하였다. 통제사와 사또가 관아에 돌아와 묵었다. 길에서 모직 갓을 쓰고 다니니 마치 사냥꾼의 차림 같아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11월 3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두포(頭浦) 이 상주(李喪主) 집의 두 번째 기일에 다녀왔다.

11월 4일(계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다시 향교로 갔다.

11월 5일(갑신)

11월 6일(을유)

11월 7일(병술) 이상 온화하였다.

11월 8일(정해) 흠비가 내렸지만 따뜻하였다. 윤상사(尹上舍)에게 글을 보내 정시(庭試)에 떨어진 것을 “부용은 때를 기다리고 보옥은 팔지 않는다.”는 말로 위로하였다.

11월 9일(무자) 새벽에 비가 잠깐 지나갔다. 구름이 끼고 흠비가 내려 춥지 않았다.

11월 10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1일(경인) 매우 따뜻하였다.

11월 12일(신묘) 추웠다. 개령의 원장 박재우(朴載祐)의 백부가 읍내에 오랫동안 머무니 정이 더욱 돈독해졌다.

11월 13일(임진)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4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15일(갑오) 서풍이 불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16일(을미) 온화하였다.

11월 17일(병신)

11월 18일(정유)

11월 19일(무술)

11월 20일(기해)

11월 21일(경자)

11월 22일(신축) 이상 날씨가 추웠다.

11월 23일(임인) 밤 이경 우레가 치고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11월 24일(계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5일(갑진) 해가 나왔다.

11월 26일(을사)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당산(堂山)의 생원 최복회(崔復會)가 매사냥 왔다가 며칠 머무르고 오늘 읍저에 들어갔다. 나도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27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죽은 향원(鄉員) 생원 이태빈(李泰彬)씨의 효행 사실에 대해 청원서를 올리기 위해 감영으로 출발하였다. 원장 이담년(李聃年) 씨가 한시를 써서 주었다.

가을바람에 흥이 일어 명산을 찾아가니	秋風起興訪名山
바위틈 나무와 벼랑의 등라 빛깔도 좋을씨고	石樹崖藤正好顏
몸이 속세 떠나지 않아 마음 이미 후련하니	身未離寰心已豁
내일 아침엔 틀림없이 흰 구름 속 들어가리	明朝知入白雲間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바람을 타고 훌쩍 나는 듯 상쾌한 등산길	御風登覽迅如飛
등성이 오르고 바위에 쉬며 나아갔다	陟岫休巖進退時
구름 밖 깎아 세운 봉우리는 천고에 뻗쳤고	雲外削峯千古勢
눈에 드는 아롱진 잎새는 일시에 아름다워라	望中斑葉一朝奇

함안읍의 유장(鑰匠) 남손정(南孫正)의 집에서 숙박함에서 묵었다. 이는 향교 종들이 제기를

새로 만드는 일로 현재 유점에 있기 때문이었다.

11월 28일(정미) 매우 따뜻하였다. 도흥진(道興津)을 건너 저녁에 개정(蓋井) 주점에서 묵었다.

11월 29일(무신) 순흥(順興) 상인과 함께 출발하여 대구 기사치(旗斜峙)에 이르렀는데 날이 벌써 저물었기에 밤에 화현(花縣) 주점에서 숙박하였다.

11월 30일(기유) 구름이 짙게 끼었지만 날이 춥지는 않았다. 일찍 통영에 들어가 사령(使令)¹⁰² 오계선(吳戒先)의 집을 하관(下館)으로 정했다. 식후에 의복을 갖춰 입고 청원서를 올리니 다음과 같이 제음을 내렸다. “이 청원서를 보니 참으로 가상하다. 청원서의 사체가 매우 중대하니 열읍 효행에 대한 청원서는 철저히 사실을 조사한 뒤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증빙하여 살피고자 원래의 청원서를 이곳에 둘 일이다.” 곧바로 원래의 청원서를 내었더니 나에게 제음을 보고 베끼고 한 뒤에 도로 두었다. 전임 사또가 있을 때의 순영 중군(中軍) 동지(同知) 홍이원(洪以源)을 운주당(運籌堂)에서 만났다. 말을 갖추어 청원서를 써서 냈다. 근래 날씨가 매우 춥다. 연변에는 눈이 내리는 일이 없어 도흥진 위로는 산 위에 쌓인 잔설을 처음으로 보았다. 현풍을 지나니 길옆에 눈이 녹지 않았고 기사치 고개를 넘자 눈이 얼어 있었다. 봉산(封山)에 나뭇꾼이 빨갛은 한 줌을 가지고 5, 6 엽전의 동전에 팔려고 했다. 1전(一錢) 값이 쌀은 1되 4말 반이고, 빨갛은 작은 묶음으로 3묶음, 돈 1문(文)이었다. 여행객이 돈 쓰는 것이 가을 바람이 떨어지는 나뭇잎 같았다. 이날 저녁에 가끔 해가 나오다가 계속 흐렸지만 춥지는 않았다. 성중에 머물러 술과 안주, 고기를 사서 객지에서의 회포를 풀었다.

12월

12월 1일(경술) 새벽에 출발하여 30리 가서 화현주점(花縣酒廝)에서 아침을 먹었다. 이날 운무(雲霧)가 사방에 자욱하고 이슬이 내렸다. 기사치에 이르자 눈이 걷히고 햇살이 따뜻하여 마치 춘삼월 같았다. 30리 가서 현풍읍 수철원교(水鐵院橋) 옆 주점에 이르러 말에게 먹이를 주었다. 인동(仁洞)에 사는 원장 장석봉(張碩鳳)을 만나 함께 갔다. 15리 가서 창녕 대초원(大招院) 주점에서 묵었다.

12월 2일(신해) 구름이 하늘에 짙 차 있었다. 동틀 무렵에 출발하며 옛날 여행객들의 시를 읊었다.

비탈로 가서 천 산기슭 넘었나니	阪邁踰千嶺
물가로 걸어 몇 굽이를 건넜던고	洲行渡幾灣
길이 단사의 경계로 들어서니	路入丹砂境
마음은 혼탁한 세간을 버렸도다	心遺濁世間

102 사령(使令) : (용어) 조선시대에,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범칭. 사령의 임무를 맡던 조례(阜隸)를 ‘사령’이라고 별칭하기도 하였다.

좋은 선계에 눈길을 돌려보고 散眸仙界好
 가파른 돌길에서 다리를 잊노라 忘脚石途艱
 비로소 가슴속이 후련해지니 始覺襟田裕
 이내 몸이 절로 한가롭구나 吾身自有閒

또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여행길에 날이 개어 하늘에 구름 걷히니 客路新晴雲捲天
 휘도는 산 꺾인 물이 멀리 서로 이어졌어라 山回水折遠相連
 여윈 말 몰아 홀로 아득한 저편으로 나서니 驅羸獨出微茫外
 봉래산 눈에 뵈자 흥이 일어 신선이 될 듯 眼入蓬壺興欲仙

20리 갔을 때 비를 만나 수포(簑浦) 주점에서 아침을 먹었다. 비가 계속 퍼붓듯이 내리기에 유숙하였다.

12월 3일(임자) 해가 나와 매우 따뜻하였다. 진흙탕이라 말발굽이 빠졌다. 함안 판교(咸安板橋)에서 묵었다.

12월 4일(계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새벽에 출발하여 진해 대산(大山)에 도착했다. 눈이 날리다가 이내 비가 내려 옷을 다 적셨다. 배둔역(背屯驛)에서 말에게 먹이를 먹였다. 이어 비를 맞으며 향교에 들어가니, 어둠이 생기려 할 때였다.

12월 5일(갑인) 비가 내렸다.

12월 6일(을묘) 비가 내렸다.

12월 7일(병진) 비가 내렸다.

12월 8일(정사) 시원하게 개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재중(齋中)의 생도(生徒)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내 생일을 위로하였다.

12월 9일(무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12월 10일(기미) 비에 눈이 섞여 내렸다.

12월 11일(경신)

12월 12일(신유)

12월 13일(임술) 이상 구름이 끼고 추웠다.

12월 14일(계해) 바람이 불고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15일(갑자) 조금 따뜻하였다.

12월 16일(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7일(병인) 서쪽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는데 베를 펼쳐 놓은 것처럼 빛이 났다. 사람들은 이미 10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따뜻하였다.

12월 18일(정묘) 따뜻하였다.

12월 19일(무진) 추웠다.

12월 20일(기사) 추웠다. 혜성의 요상한 기운이 10부터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이미 조보에 나왔다고 하였다.

12월 21일(경오) 따뜻하였다. 읍에 들어가 향교에 머물렀다.

12월 22일(신미)

12월 23일(임신)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통영(統營)에 들어갔다.

12월 24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5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가 우산(牛山)에 가서 이 생원 등 여러 집의 말을 빌려 다시 향교로 갔다.

12월 26일(을해) 집으로 돌아왔다. 식후에 혼수를 싸 가지고 아몽의 신행을 꾸리려 하였다. 이날 저물녘에 동운(同雲)이 끼어 비올 징조가 매우 많았는데 한밤중이 될 즈음에 구름이 흩어져 하늘이 맑아졌다.

12월 27일(병자)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아몽의 관명을 봉임(鳳臨), 자를 대응(大應)으로 지었다. 식후에 출발하여 진주 가치(加時) 촌가에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날이 저물기 전에 갈곡(葛谷)에 들어가 신행의 예식을 행하였다. 이날 한낮에 가는 구름이 점차 멎고 햇살이 희미해지더니 한밤중이 되기 전에 눈이 어지럽게 내려 산과 들이 모두 하얗게 변했다.

12월 28일(정축) 아침에 눈에 비가 섞여 내리더니 식후에 눈비가 다 개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9일(무인) 날씨가 조금 서늘하였다. 임아(臨阿)가 돌아왔다.

갑자년 1744년(영조20)

1월 대월. 1일 기묘. 7일 우수중(雨水中), 22일 경칩(驚蟄) 이월절(二月節).
2월 대월. 1일 기유. 7일 춘분중(春分中), 22일 청명(淸明) 삼절(三節).
3월 소월. 1일 기묘. 8일 곡우중(穀雨中), 23일 입하(立夏) 사절(四節).
4월 대월. 1일 무신. 10일 소만중(小滿中), 25일 망종(芒種) 오절(五節).
5월 소월. 1일 무인. 11일 하지중(夏至中), 27일 소서(小暑) 육절(六節).
6월 소월. 1일 정미. 4일 초복(初伏), 14일 중복(中伏), 대서(大暑中), 29일 입추(立秋) 칠절(七節).
7월 소월. 1일 병자. 16일 처서중(處暑中).
8월 대월. 1일 을사. 2일 백로절(白露節), 18일 추분중(秋分中).
9월 소월. 1일 을해. 3일 한로절(寒露節), 18일 상강중(霜降中).
10월 대월. 1일 갑진. 4일 입동절(立冬節), 19일 소설중(小雪中).
11월 대월. 1일 갑술. 4일 대설절(大雪節). 18일 동지중(冬至中).
12월 소월. 1일 갑진. 3일 소한절(小寒節), 18일 대한중(大寒中).

1월 대월(大月).

1월 1일(기묘) 자야(子夜 子時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에 북풍이 잠깐 불었다. 새벽에 검은 구름을 보니 띠처럼 이랑처럼 남북을 가로지르더니 아침이 되자 동서를 가로지르니 이는 대개 서남풍이 불 기미가 있는 것이다. 날씨가 춥지 않았다. 혜성이 세전 저물녘부터 서쪽에 보였는데 길이가 은하수처럼 길고 곧장 동쪽을 쏘고 빗자루처럼 생겼다. 지난달에 처음으로 보았다는데 사람들은 6, 7월경에 처음 생긴다고들 하고 이미 조보에 소식이 실렸다고 하였다.

1월 2일(경진) 온화하였다.

1월 3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4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1월 5일(계미)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고 날씨는 그다지 춥지 않았다. 사또에게 가서 문안하고 향교에 머물렀다.

1월 6일(갑신) 새벽에 약간 눈이 내리다가 이내 비가 내렸다.

1월 7일(을유) 가랑비가 내렸다.

1월 8일(병술) 잠깐 햇볕이 나왔다가 흐렸다가 하였다.

1월 9일(정해)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월 10일(무자)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1월 11일(기축) 비가 내렸다.

1월 12일(경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월 13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연전에 정언(正言) 조중후(趙重厚)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개는 다음과 같다. “진하께서 사묘(私廟)는 빈번하게 찾으면서 태묘(太廟)는 소홀하게 여기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사묘는 임금님 생모[淑嬪 崔氏]의 사당이다. 임금님께서 존호(尊號)를 올리고 싶어했는데 조중후가 기미를 알고 막고자 한 것이다. 그 때문에 임금님께서 진노하시어 삼정승이 조중후의 죄를 청하지 않는 것을 꾸짖었다. 조중후를 죽이려 하자 삼정승이 사직하고 조중후는 옥에 갇혔다고 하였다. 시달리(時達里)의 문생 박몽대(朴夢大)를 만나보고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 향교에서 묵었다.

1월 14일(임진) 구름이 끼었다. 임아(臨阿)가 어제 시달리에 갔다가 향교에서 묵고 오늘에 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5일(계사)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1월 16일(갑오)

1월 17일(을미) 이상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8일(병신) 비가 그치지 않고 냇물이 소리 내며 흘렀다.

1월 19일(정유) 가끔 비가 내리다가 해가 나오다가 하였다.

1월 20일(무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읍에 들어갔다.

1월 21일(기해)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월 22일(경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3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24일(임인) 비가 저물녘에 개었다.

1월 25일(계묘) 비가 내렸다.

1월 26일(갑진) 비가 개었다. 관에서 백일장을 열었다. 시제(詩題)는 ‘바람이 남창연을 보내네.[風送南昌宴]’이고, 부제(賦題)는 ‘격양가를 부르니 무위의 다스림을 보겠네.[擊壤歌可見無爲之治]’이다. 임아가 시에서 삼상(三上)으로 2등을 하고, 능아(能阿)는 고풍(古風)에서 삼상으로 2등을 하였다.

1월 27일(을사) 온화하였다. 저물녘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1월 28일(병오) 바람이 불고 추웠다.

1월 29일(정미) 춥지 않았다.

1월 30일(무신)

2월 대월(大月).

2월 1일(기유)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저물녘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향교에 들어갔다.

2월 3일(신해) 바람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2월 4일(임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5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6일(갑인)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저물녘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더니 곧바로 개었다.

2월 7일(을묘)

2월 8일(병진)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2월 9일(정사) 석채관(釋菜官)¹⁰³으로 제향에 참여했다. 날이 저물 즈음에 동풍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날 저녁에 세자대군가례(世子大君嘉禮)를 축하하기 위한 사문(赦文)이 본현에 도착했다.

2월 10일(무오) 비가 흥건하게 내려 길이 진흙탕이 되었다.

2월 11일(기미)

103 석채(釋菜) : 석전제(釋奠祭)로,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문묘(文廟)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상정일(上丁日)은 12간지(干支)로 표시되는 날 가운데서 그달의 첫 번째 정(丁) 자가 든 날을 가리킨다.

2월 12일(경신)

2월 13일(신유)

2월 14일(임술) 이상 날씨가 매우 따뜻하였다.

2월 15일(계해) 날씨가 찌는 듯했다. 빗방울이 간혹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강일규(姜一奎)가 와서 재중(齋中)에 머물렀다.

2월 16일(갑자) 새벽에 비가 퍼붓듯이 내려 시냇물이 어지럽게 흘렀다. 저녁이 되자 비가 그치더니 구름이 흩어졌다.

2월 17일(을축)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2월 18일(병인) 산안개가 어지럽게 날리니, 비올 기미가 상당히 많았다.

2월 19일(정묘) 비가 내렸다.

2월 20일(무진) 가랑비가 내렸다.

2월 21일(기사) 가랑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그쳤다.

2월 22일(경오) 이날 후가(幬街)의 소나무 숲에서 향산(香山)의 모임을 갖고 저물녘에 파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23일(신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윤상봉(尹商封)이 어제 저녁부터 와서 머무르며 배웠다.

2월 24일(임신) 가끔 약간 흐렸다.

2월 25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2월 26일(갑술)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2월 27일(을해)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2월 28일(병자) 구름이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9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30일(무인) 약간 흐리고 바람이 서늘하였다.

3월 소월(小月).

3월 1일(기묘) 따뜻했는데 밤에는 서리가 내렸다.

3월 2일(경진) 밤에 서리가 내렸다.

3월 3일(신사) 바람이 불었다.

3월 4일(임오) 비가 쏟아져 냇물이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3월 5일(계미) 쾌청하였다. 이날 밤에 어소(漁所)에서 묵었다.

3월 6일(갑신) 매우 따뜻하였다. 매형 이여섭(李汝涉)과 시냇가에서 놀다가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다.

3월 7일(을유) 잠깐 바람이 불었다. 벗 윤담국(尹聃國)과 시냇가에서 회와 술을 먹고 돌아왔다.

3월 8일(병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월 9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저녁에 비올 기미가 있었다. 파종이 겨우 끝났다.

3월 10일(무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3월 11일(기축)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월 12일(경인) 매우 더웠다.

3월 13일(신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4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5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재직(齎直)에 관한 일로 관에 청원서를 올렸다.

3월 16일(갑오) 가랑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3월 17일(을미) 온화하였다.

3월 18일(병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19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20일(무술)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3월 21일(기해)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하였다.

3월 22일(경자) 조금 더웠다.

3월 23일(신축) 온화하였다. 이날은 바로 어머니의 생신이다. 내가 새벽에 성중에 들어가서 생선을 구해 돌아와 술자리를 열었다.

3월 24일(임인)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3월 25일(계묘) 비가 내렸다.

3월 26일(갑진) 해가 나왔다.

3월 27일(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3월 28일(병오) 낮이 되자 비가 내려 저녁 내내 오더니 밤새 내렸다.

3월 29일(정미) 비가 그치더니 더러 해가 나오다가 구름이 끼다가 하였다.

4월 대월(大月).

4월 1일(무신) 향교에 들어가 채장(齋長) 도유사 최성(崔晟)을 만나고 이어 향교에 머물렀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4월 2일(기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3일(경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연화암(蓮花岑)에서 뽕잎을 따다.

4월 4일(신해) 비가 내렸다.

4월 5일(임자) 비가 그쳤다.

4월 6일(계축)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4월 7일(갑인) 갈산(葛山) 사람이 나와 이여섭을 부르기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종일 산속에서 술 마시며 놀았다. 저녁이 되자 비가 잠깐 내리기에 아버님은 갈산에 머물고 나와 이

여섯은 집으로 돌아왔다.

4월 8일(을묘) 새벽에 비가 잠깐 내리다가 식후에 구름이 걷혔다. 갈산 류 매형(柳妹兄)이 아버님을 모시고 왔다.

4월 9일(병진) 따뜻하였다.

4월 10일(정사) 비가 잠깐 내렸다.

4월 11일(무오) 아침에 가랑비가 내렸다.

4월 12일(기미) 해가 나왔다.

4월 13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4일(신유)

4월 15일(임술)

4월 16일(계해)

4월 17일(갑자)

4월 18일(을축) 이상 날이 더웠다.

4월 19일(병인) 동풍이 구름을 불어와 가랑비가 자욱하게 내리다가 그쳤다.

4월 20일(정묘)

4월 21일(무진) 더웠다. 취해서 성서(城西)에 누웠다가 밤이 깊어진 뒤에 놀라 깨어 돌아왔다.

4월 22일(기사)

4월 23일(경오)

4월 24일(신미)

4월 25일(임신) 이상 가끔 해가 나오다가 구름이 끼다가 하였지만 비올 기미가 상당히 많았다.

4월 26일(계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7일(갑술) 천둥이 치고 비가 질펀하게 내려TEk.

4월 28일(을해) 자주 빗방울이 떨어졌으나 밤에는 청명하였다.

4월 29일(병자) 해가 나와 더웠다.

4월 30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의 식비(食婢) 맹단(孟丹)의 아버지 신만(信萬)이 부부싸움으로 자살하므로 교당(校堂)에 가서 이유를 물었다.

5월 소월(小月).

5월 1일(무인) 해가 나와 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시가[市直]가 조(租) 12,3말, 쌀[米] 5말에 가승(加升)¹⁰⁴이다.

5월 2일(기묘)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3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김백삼(金伯三)이 왔다.

5월 4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5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6일(계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7일(갑신)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8일(을유) 해가 나왔다. 5일 향교에 들어갔다가 만류를 받고 지금에서야 돌아왔다.

5월 9일(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0일(정해) 밤에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5월 11일(무자) 가끔 비가 내리다가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5월 12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3일(경인)

104 가승(加升) : 가승이란 원래 세곡을 징수할 때에 측날 것을 예상하여 한 섬에 3되씩 더 받는 것이다.

5월 14일(신묘) 이상 가끔 비가 내리다가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5월 15일(임진) 바람이 불어 날씨가 좋지 않았다.

5월 16일(계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5월 17일(갑오) 바람이 불어 구름이 이리저리 떠다녔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18일(을미)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5월 19일(병신) 비가 오다가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0일(정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전임 통제사 이간(李玼)과 신임 통제사 이의풍(李義豐)이 본읍에서 자고 교귀(交龜)¹⁰⁵하였다.

5월 21일(무술) 비가 그치지 않아 길이 막혔는데 통제사가 통영에 나왔다.

5월 22일(기해)

5월 23일(경자)

5월 24일(신축) 이상 흐리지 않는 날이 없고 날씨가 조금 서늘하였다. 나이 어린 사람들조차 솜옷을 벗지 않으니 매우 괴이한 일이다.

5월 25일(임인) 동풍이 불어 서늘하였다.

5월 26일(계묘)

5월 27일(갑진)

5월 28일(을사) 이상 가끔 비가 내렸다.

5월 29일(병오)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정미) 큰비가 내려 길이 막혔다.

105 교귀(交龜) : 지방관이 바뀔 때에 전임과 후임이 부신(符信)을 주고받는 일을 교귀라고 한다.

6월 2일(무신) 큰비가 내려 들판에 물이 넘쳐흘렀다.

6월 3일(기유)

6월 4일(경술)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6월 5일(신해)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겨우 길을 다닐 수 있었다.

6월 6일(임자) 또 소낙비가 내렸다.

6월 7일(계축) 햇살이 많았다. 김백삼(金伯三)과 함께 읍에 들어갔다. 군기(軍器) 김성렬의 처소에서 묵었다. 밤에 비가 내렸다.

6월 8일(갑인) 또 비가 내려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대로 군기에 머물렀다.

6월 9일(을묘) 비가 쏟아졌다. 잠깐씩 해가 나더니 밤에 또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그대로 머물렀다.

6월 10일(병진) 어제부터 내린 비가 밤새도록 내리더니 이른 아침에 시냇물이 들판으로 넘쳐 길이 막혔다. 향교에 갔다.

6월 11일(정사) 큰비가 새벽부터 낮까지 내렸는데 소와 말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독이 무너져 터지고 벼 이삭이 손상을 당한 것은 이루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날 밤에 한쪽에서는 달이 밝고 한쪽에서는 비가 내렸다.

6월 12일(무오) 가끔 비가 퍼붓듯이 내리다가 가끔 하늘이 보이기도 하니 괴이하다. 지난달 10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되어 겹수(劫水)¹⁰⁶가 계속 내리니 이 무슨 징조란 말인가? 임금님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기 위한 사문이 도착하였다.

6월 13일(기미)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나는 사문을 읽는 일로 통영에 들어갔다.

6월 14일(경신)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15일(신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더니 비가 내렸다.

6월 16일(임술) 또 비가 내렸다.

106 겹수(劫水) : 불가(佛家)의 말로, 세계가 괴멸(壞滅)할 때에 일어난다는 큰 수재(水災)를 말한다.

6월 17일(계해) 서쪽 하늘에 비가 내렸다.

6월 18일(갑자)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밤에 하늘이 맑게 개었다.

6월 19일(을축) 또 흐렸다.

6월 20일(병인) 해가 나왔다.

6월 21일(정묘) 매우 더웠다.

6월 22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3일(기사) 서쪽 하늘에 잠깐 비가 내렸다. 날씨가 매우 더웠다.

6월 24일(경오) 날이 더웠다.

6월 25일(신미) 매형 이여섭(李汝涉), 김백삼(金伯三)과 함께 소소포(召所浦)에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다. 서북쪽 하늘에 크게 천둥이 쳤다.

6월 26일(임신) 동풍이 불고 비가 또 질펀하게 내렸다.

6월 27일(계유) 어제 비바람이 밤새 불더니 점점 심해져 아침이 되자 더욱 거세져 초가지붕이 다 말리고 산에는 나무가 꺾여 베어놓은 듯하였으며, 후가(幘街) 소나무 숲은 태반이 쓰러졌으니, 이는 거의 일어난 일이 없는 변고이다. 식후에 바람이 그치고 잠깐씩 해가 나더니 다시 비가 내렸다.

6월 28일(갑술) 해가 나와 더웠다.

6월 29일(을해) 큰비가 밤새도록 내렸다.

7월 소월(小月).

7월 1일(병자)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7월 2일(정축) 오후에 비가 그쳤다.

7월 3일(무인) 구름이 걷혔다.

7월 4일(기묘) 종일 구름이 끼고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5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6일(신사)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7일(임자)

7월 8일(계미)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9일(갑신) 임아(臨阿)가 갈곡(葛谷)에 갔다. ■■■■(동쪽 하늘에 소낙비가 내렸다.) 읍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돌아왔다. 과거 시험장에 이르자 길에 비가 내린 흔적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이유를 물으니 오늘 낮에 소낙비가 내려 갑자기 처마에서 낙숫물이 어지럽게 떨어져 한 치 깊이 땅으로 흘렀다고 하였다. 괴이하다. 한쪽 들판에서는 가끔 찌는 듯이 덥기도 하였다가 퍼붓듯이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7월 10일(을유) 덥고 낮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1일(병술)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비올 기색이 점점 퍼져갔다.

7월 12일(정해)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13일(무자) 해가 나왔다.

7월 14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7월 15일(경인) 더웠다. 올벼를 수확하였다.

7월 16일(신묘)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미룡포(彌龍浦)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7월 17일(임진)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병이 나서 땀이 났다.

7월 18일(계사) 아침에 또 비가 내렸다. 옛날에 앓던 병이 지금 나왔다.

7월 19일(갑오)

7월 20일(을미) 아침에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강일규(姜一奎)와 이이춘(李利春)이 부모님을 뵈러 갔다.

7월 21일(병신) 더웠다.

7월 22일(정유) 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밤에 달이 밝았다. 관의 고과는 하(下)를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였다. “아전과 향임들이 춤추고 노니 백성들이 어찌 의지하겠는가?[吏鄉

舞學 生民奚辜]”이다.

7월 23일(무술) 김백삼(金伯三)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에 소낙비가 내리고 갑자기 바람이 몰아쳤으며 집집마다 물이 새어 침상에 빗물이 떨어졌다.

7월 24일(기해) 비가 또 퍼붓듯이 내려 시내물이 넘쳐흘렀다.

7월 25일(경자) 또 비가 내렸다.

7월 26일(신축) 날이 개었다가 다시 흐렸다.

7월 27일(임인) 새벽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7월 28일(계묘) 비가 또 퍼붓듯이 내렸다. 식후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큰비가 내려 나무를 부러뜨리고 지붕을 날려버렸다. 마을의 집집마다 겨를 없이 분주하니, 마치 난리통인 듯하였다. 어찌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람의 변고가 있던 말인가? 저물녘이 되자 바람이 멈추고 비가 그쳤다.

7월 29일(갑진) 쾌청하였다. 향교에 들어가 치재하였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을사) 더웠다. 갈곡(葛谷) 사돈어른이 왔다고 하기에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돈어른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나는 또 향교에 들어갔다.

8월 3일(정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성묘(聖廟)를 중수하라는 향축(香祝)이 내려왔다. 통영의 수조(水操)가 6일 예정이었는데 김해의 전선이 거센 바람에 의해 옮겨졌다가 안골포(安骨浦)에서 침몰되었다. 물에 익숙한 격군(格軍) 몇 명이 겨우 살고 나머지는 다 몰살당했다고 하니 참변이라고 하겠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4일(무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저물녘에 잠깐 비가 내렸다. 생원 노해관(盧海觀)과 생원 이창배(李昌培)가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8월 5일(기유) 쾌청하였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곳에 이르자 어떤 노인이 초가집 평상에 앉아 운자(韻字)를 부르고 나는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음과 같이 응대하였다.

된서리로 초목들이 누렇게 시들어 갈 제
혼자서 동쪽 울 밑에 때늦은 국화 따노라

霜嚴無物不腓黃
獨向東籬擷晚芳

일찍 그윽한 자태 품고 농염함을 사양했고
늦게 기이한 절조 이뤄 늦가을 빼어났군

夙蘊幽姿辭艷藹
暮完奇操擢衰荒

꿈에서 깬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다.

8월 6일(경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갈산천(葛山川)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8월 7일(신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8일(임자)

8월 9일(계축) 위와 같다.

8월 10일(갑인) 위와 같다. 당회가 열렸다.

8월 11일(을묘) 비가 내렸다.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8월 12일(병진) 쾌청하였다.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8월 13일(정사)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4일(무오)

8월 15일(기미) 모두 위와 같다.

8월 16일(경신) 위와 같다. 의령의 생원 허반(許攀)은 바로 내가 어린 시절 삼가(三嘉)에서 공부할 때의 친구이고 진주(晋州) 진성(晋城)¹⁰⁷에 거점(居接)할 때 아주 친했던 자이다. 지금 일이 있어 읍내에 와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러 가서 옛 회포를 풀고 돌아왔다. 정하중(丁夏中)이 모친상을 당했다.

8월 17일(신유) 위와 같다. 정하중(丁夏中)의 상(喪) 때문에 남촌진(南村鎭)에 갔다가 마포(麻布)를 빌려와 대신 능아(能阿)를 보냈다. 술을 가지고 생원 허반을 만나러갔다.

8월 18일(임술)

8월 19일(계해) 따뜻하였다.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8월 20일(갑자) 위와 같다.

107 진성(晋城): (지명) 경상남도 진양군 진성면. 본래는 진주목에 속한 현(縣)의 하나였으나,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내진성면(內晋城面)이 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하여 다시 진성면이 되었다.

8월 21일(을축) 온화하였다. 아내를 데리고 남면동(南面洞)에 들어갔다.

8월 22일(병인) 위와 같다.

8월 23일(정묘) 위와 같다. 이날은 바로 장인의 두 번째 기일이다.

8월 24일(무진)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새벽에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임아와 능아가 진주 백일장에 갔다.

8월 25일(기사)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금방 그치고 청명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26일(경오) 온화하였다. 성묘중수도감(聖廟重修都監) 도유사 이성년(李星年), 도유사 최규시(崔珪時), 재장(齋長) 이기징(李猗徵), 유사 이동만(李東晩), 재종 정창래(丁昌來)와 함께 통영에 갔다.

8월 27일(신미) 위와 같다. 빗을 내기 위해 청원서를 올렸지만 통제사가 답을 주지 않았다.

8월 28일(임신) 위와 같다. 일찍 향교로 돌아갔다. 순상 김상노(金尙老)가 진주에서 사천을 거쳐 본현에 들어왔다. 유생들이 문밖에서 지영(祗迎)하고 계단 위에서 재배(再拜)하였다.

8월 29일(계유) 위와 같다. 순상이 거제(巨濟)에 들어갔다.

8월 30일(갑술) 위와 같다.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을해) 온화하였다. 순상이 통영에서 본읍으로 왔다가 진해로 갔다.

9월 2일(병자) 위와 같다. 진양(晉陽)의 백일장에서 낙방하고 돌아왔다. 향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9월 3일(정축) 온화하였다. 김백삼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9월 4일(무인)

9월 5일(기묘)

9월 6일(경진) 따뜻하였다.

9월 7일(신사)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상주 허영(許瑛)이 방문했다.

9월 8일(임오) 구름이 끼었다. 상주 허영이 돌아갔다.

9월 9일(계미) 위와 같다.

9월 10일(갑신)

9월 11일(을유)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전임 사또와 신임 사또가 함께 교촌(校村)에 숙소를 정했다.

9월 12일(병술) 위와 같다. 문관 제주 사람 정창선(鄭敞選)이 신임 사또로 부임하였다.

9월 13일(정해)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9월 14일(무자) 밤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는데 고작 가벼운 먼지만 적시고 그쳤다.

9월 15일(기축) 온화하였다.

9월 16일(경인) 위와 같다. 향교에서 안세진(安世軫)과 함께 삼봉포(三峯浦)에 갔다가 안세진의 집에서 묵었다. 이는 호단(戶單)의 편지로 사들인 일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

9월 17일(신묘) 위와 같다. 포촌(浦村)에 묵었다.

9월 18일(임진) 비가 먼지를 적셨다. 계속 포촌에 머물렀다.

9월 19일(계사) 온화하였다. 계속 머물렀다.

9월 20일(갑오) 위와 같다. 화리치(禾里峙)에 갔다가 끝내 이씨 집 아이 계송(繼松)을 만나 어룡포(漁麗浦)로 방향을 돌려 유숙하였다.

9월 21일(을미) 이어 이계송과 함께 읍에 들어가서 윤진사와 임광택(林光宅)의 상경 행차를 만나 송도역관(松道驛館)¹⁰⁸에서 함께 숙박하였다.

9월 22일(병신) 바람이 많이 불었다. 밤에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증산(甞山)에서 길을 멈추고 갈산(葛山)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9월 23일(정유) 아침에 돌아왔다.

108 송도(松道)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이다. 구상덕의 문생인 심도행(沈道行)의 집이 있어 종종 유숙하였다.

9월 24일(무술) 온화하였다. 가섭암(迦葉庵)에 올라갔다가 돌아왔다.

9월 25일(기해) 위와 같다.

9월 26일(경자) 위와 같다.

9월 27일(신축)

9월 28일(임인) 모두 위와 같다.

9월 29일(계묘) 비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10월 대월(大月).

10월 1일(갑진) 쾌청하고 따뜻하였다.

10월 2일(을사)

10월 3일(병오) 위와 같다.

10월 4일(정미) 구름이 끼었다.

10월 5일(무신) 비가 그치지 않았다.

10월 6일(기유) 쾌청하고 따뜻하였다. 도림산인(道林山人)을 불러 《옥추경(玉樞經)》을 낭독하게 하여 액막이[度厄]를 하였다.

10월 7일(경술)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10월 8일(신해) 밤에 비가 잠깐 내렸다.

10월 9일(임자) 온화하였다.

10월 10일(계축) 위와 같다.

10월 11일(갑인)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12일(을묘) 춥기도 하다가 온화하기도 하였다.

10월 13일(병진) 바람이 많이 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4일(정사) 온화하였다. 도보로 신천(新川) 이 생원 등 여러 사람을 방문하고 주천치(酒泉峙)를 넘어 원당(元堂) 노 생원(盧生員) 여러 사람을 만나 저물녘에 당산(堂山)에 들어가 생원 최원대(崔遠大) 집에서 묵었다.

10월 15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식후에 작동(鵲洞), 사태동(沙汰洞)을 지나 와룡동(臥龍洞)¹⁰⁹ 이 생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저녁을 먹은 뒤에 돌아왔다. 당산 최 생원을 만나고 성수(聖秀) 집에서 묵었다.

10월 16일(기미) 위와 같다. 소대(所代)의 군진(軍陣)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7일(경신) 위와 같다. 정하중(丁夏中) 집에서 묘를 파는 것을 보러갔다.

10월 18일(신유)

10월 19일(임술)

10월 20일(계해)

10월 21일(갑자) 모두 위와 같다. 정하중이 그의 모친 장례를 치루었다.

10월 22일(을축) 위와 같다. 빛을 받기 위해 신천(新川)에 갔다.

10월 23일(병인) 위와 같다. 신천에서 돌아와 읍에 들어갔다.

10월 24일(정묘) 위와 같다.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5일(무진) 낮에는 춥고 밤에는 바람이 불었다.

10월 26일(기사) 온화하였다. 읍에 들어갔다.

10월 27일(경오)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8일(신미) 위와 같다. 마을 사람 최우영(崔右永)이 황리(黃里)에 조모의 묘를 파는 데 다녀왔다. 저녁에 병비(兵裨)¹¹⁰ 첨지 박중경(朴重卿)을 만났는데 가덕(加德) 어소(漁所)에서 와서 청어 한 마리를 주었다. 이때 청어가 처음 잡혔기 때문이다.

10월 29일(임신) 흠비가 내리고 구름이 산을 가렸다.

109 와룡동(臥龍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에 있다. 와룡산(臥龍山)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남면에도 와룡산이 있다. 고성과 사천의 와룡산 모두 고려 현종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110 병비(兵裨) : (관직) 병사(兵事)를 맡은 비장(裨將)을 가리킨다.

10월 30일(계유)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대월(大月)

11월 1일(갑술)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가다가 방향을 돌려 계동(契洞)에 가서 유숙하였다.

11월 2일(을해)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3일(병자) 구름이 끼었다.

11월 4일(정축) 새벽에 비가 퍼붓듯이 내리더니 아침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구름은 걷히지 않았다. 감동(甘洞)¹¹¹의 질녀가 신행을 갔다.

11월 5일(무인)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그쳤지만 구름은 여전히 씻기지 않았다.

11월 6일(기묘)

11월 7일(경진) 이상 잠깐 추웠다.

11월 8일(신사)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9일(임오) 새벽에 눈이 어지럽게 내려 1치 정도 쌓였으나 식후에는 눈이 개고 구름이 끼어 추웠다.

11월 10일(계미) 해가 나고 바람이 쌀쌀했다.

11월 11일(갑신) 매우 추웠다. 읍에 들어가 향교에 묵었다. 13폐미의 돈으로 죽은 김연(金璉)의 처인 신씨(申氏) 과부에게서 논 3두락을 샀는데 본문기 1장만을 받았을 뿐이다. 그대로 두고 남편 집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매매명문을 작성한 뒤에 본문기를 돌려줄 계획이다.

11월 12일(을유) 매우 추웠다. 능가가 일찍 향교에 들어갔다. 아내가 어제 저녁부터 산후통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딸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곧바로 나왔다. 두 번 불수산(佛手散)을 끓여 복용시켰다. 또 아침통(兒枕痛)이 있기에 홍화를 달여 술과 함께 마시게 했다.

11월 13일(병술) 위와 같다. 산모의 병이 나왔다.

111 감동(甘洞)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이다. 마을에 감나무가 많아 시동(柿洞)이라고도 하였다. 감동에는 족장(族丈)인 이국기(李國杞)가 거주하였다. 구상덕은 황치흥(黃致興)과 첨지 황계창(黃繼昌)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감동에 내방하기도 하였다.

11월 14일(정해) 매우 추웠다.

11월 15일(무자) 위와 같다. 또 신천(新川)에 갔다.

11월 16일(기축) 식후에 갑자기 구름이 끼고 큰 들에 이르러 눈을 만나 성중에서 잠시 쉬었다가 눈을 맞으며 향교에 들어갔다. 눈이 한 자 정도 쌓였다. 병사(兵使)가 김해의 수조소(水操所)에서 본읍에 왔다. 이날 밤에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왔다.

11월 17일(경인) 雪風매우 추웠다. 재장(齋長)인 도유사 이가운(李嘉運)이 공무를 보았다. 이날 밤에 바람이 매우 온화하여 지붕 위의 눈이 녹고 처마에 낙숫물이 비 오 듯했다.

11월 18일(신묘) 갑자기 따뜻해졌다.

11월 19일(임진) 위와 같다. 처음으로 신천에서 빗 15관을 받았다. 향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0일(계사)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직접 구만(九萬)에 가서 생원 이창배(李昌培)에게 암말을 사고 도유사 노윤현(盧允賢) 댁에서 묵었다.

11월 21일(갑오) 추위가 잠깐 누그러졌다. 돌아오는 길에 감동(甘洞)에 들러 집으로 왔다. 1관으로 대구어 14마리를 샀다.

11월 22일(을미) 조금 추웠다. 임아(臨阿)가 갈곡(葛谷)에 갔다.

11월 23일(병신) 위와 같다.

11월 24일(정유) 매우 추웠다. 임아가 왔다.

11월 25일(무술) 추위가 잠깐 누그러졌다. 마을 사람 김수천(金壽天)이 배우러 왔다.

11월 26일(기해) 온화하였다.

11월 27일(경자) 갑자기 추워지고 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났다. 마을 사람 김수해(金壽海)가 배우러 왔다.

11월 28일(신축) 비가 개었다.

11월 29일(임인) 추웠다.

11월 30일(계묘) 바람이 불고 추웠다. 읍에 들어가 군기(軍器)에 묵었다.

12월 소월(小月)

12월 1일(갑진)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일(을사) 위와 같다. 읍에 들어갔다가 김백삼과 함께 김태옥(金兌郁) 군의 집에서 묵었다.

12월 3일(병오) 비가 부슬부슬 내려 길에 흙탕물이 흘렀다. 김백삼은 들어가고 나는 그대로 김태옥의 집에 머물렀다.

12월 4일(정미) 빗방울이 간혹 떨어졌지만 날씨는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5일(무신) 춥고 구름이 끼더니 눈이 많이 내리다가 밤이 깊어진 뒤에 그쳤다.

12월 6일(기유) 무릎이 빠질 만큼 눈이 내렸으나 날씨는 매우 온화하여 양지의 눈이 완전히 녹고 처마에는 낙숫물이 비 오 듯했다.

12월 7일(경술) 조금 추웠다. 밤 삼경에 호랑이가 두포(頭浦) 이형(李兄) 집의 황송아지를 물고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2월 8일(신해) 길이 진흙탕이 되어 행차가 매우 괴로웠다. 윤상봉(尹商封)의 집에서 술과 반찬을 갖추어 보내 내 생일을 위로하였다.

12월 9일(임자) 추웠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0일(계축) 조금 추웠다.

12월 11일(갑인) 매우 추웠다. 가리(加里) 박윤성(朴允成)의 모친 장례에 갔다가 돌아왔다.

12월(을묘) 온화하였다. 당동(堂洞)의 선달 배한장(裴漢章)이 사위를 맞이하는 데 갔다가 돌아왔다. 생도 박사문(朴思文)이 문안왔다가 유숙하였다.

12월 13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박사문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12월 14일(정사) 추웠다.

12월 15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6일(기미) 위와 같다. 4관 2전으로 수소 한 마리를 샀다. 관의 고과는 하(下)를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술로 정사를 해치니 원망을 듣는다.[麴糵害政 海捧歛怨]”

12월 17일(경신) 위와 같다.

12월 18일(신유) 위와 같다. 와룡동(臥龍洞) 원장(院長) 이담년(李聃年) 대로(大老) 씨를 문안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12월 19일(임술) 온화하였다. 밤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와룡동에 머물렀다.

12월 20일(계해) 새벽에 눈이 한 치 정도 쌓였다. 식후에 비가 개었다. 도유사 이형종(李亨宗) 자하(子夏) 댁에서 묵었다.

12월 21일(병자) 바람이 불고 추웠다. 감동에 묵었다.

12월 22일(을축) 매우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3일(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4일(정묘)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2월 25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6일(기사) 조금 따뜻하였다.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이날 시장에 청어 한 마리 값이 4푼이었다.

12월 27일(경오) 구름이 끼고 춥다가 식후부터 비가 종일 내렸다.

12월 28일(신미) 식후에 비가 그쳤다.

12월 29일(임신)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통영의 비장(裨將) 한경조(韓敬祖)가 진해에서 순찰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이날 밤에 구름이 많이 끼어 비올 기미가 있었는데 말렸다가 퍼졌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진 뒤에 쾌청해졌다. 올해 거센 바람과 홍수는 전에 없던 것으로 밭 작물은 익지 않았지만 논 작물은 흉년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가가 크게 오르니 오늘 조(租) 14말, 쌀 5말 반이다. 목화는 처음에는 매우 귀했지만 나중에는 값이 떨어져 1냥 값이 12,13근에 이르렀으니 1필 베를 만들 수 있었다. 1자 되는 1필 목면은 고작 1냥 3전이었는데 1전의 베는 간혹 3자 남짓하였으니, 이 또한 전에 없던 일이다. 대구어는 1냥으로 많아야 15,16마리 정도를 살 수 있을 뿐이었다. 청어는 오늘 시장에서 1마리값이 4푼이었는데 연해 어부들은 1동(同) 값이 혹 3냥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근래 없던 일이다. 더러 송충이가 큰 나뭇잎을 먹으면 청어 값이 매우 싸다고 하였는데, 올 여름 끝무렵에 큰 나뭇잎들이 송충이에게 먹혀 가지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으니 이것이 그 징험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서쪽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더니 올해 거센 바람과 홍수가 대궐에서 일어난 회록(回祿)의 재앙¹¹²과 혹 그 징험을 보인 것인

가? 또 올겨울에 세 차례 큰 눈이 내린 것도 근래 없던 일이다. 앞으로 어떤 징험이 있을 것인가? 대개 올겨울에 내린 눈은 연변이 특히 많이 내렸는데 상도(上道)과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우리집에서 술을 빚었는데 익기도 전에 향아리가 저절로 깨졌다. 곧바로 그 음식을 건져내 다시 시냇물을 섞어 술을 빚어 사용했다.

을축년 1745년(영조21)

1월 대월(大月). 1일 계유. 3일 입춘절(立春節), 18일 우수중(雨水中).
2월 대월. 1일 계묘. 3일 경칩절(驚蟄節), 18일 춘분중(春分中).
3월 대월. 1일 계유. 4일 청명절(清明節), 19일 곡우중(穀雨中).
4월 소월(小月). 1일 계묘. 4일 입하절(立夏節), 20일 소만중(小滿中).
5월 대월. 1일 임신. 7일 망종절(芒種節), 22일 하지중(夏至中).
6월 소월. 1일 임인. 8일 소서절(小暑節), 24일 대서중(大暑中), 19일 초복(初伏).
7월 소월. 1일 신미. 10일 말복(末伏), 입추절(立秋節), 26일 처서중(處暑中).
8월 대월. 1일 경자. 13일 백로절(白露節), 28일 추분중(秋分中).
9월 소월. 1일 경오. 13일 한로절(寒露節), 28일 상강중(霜降中).
10월 소월. 1일 기해. 14일 입동절(立冬節), 29일 소설중(小雪中).
11월 대월. 1일 무진. 15일 대설절(大雪節), 30일 동중.
12월 대월. 1일 무술. 14일 소한절(小寒節), 29일 대한중(大寒中).

1월 대월(大月).

1월 1일(계유) 닭 울음이 더러 10차례 들리기도 하고, 더러 12, 13차례 들리기도 했다. 일찍 일어나 하늘을 보니 검은 구름이 수레바퀴처럼 둥글게 끼어 있고 동풍이 불었으며, 아침이 되자 서북풍이 소리를 내며 부니, 날씨가 고르다고 할 수 없었다. 한경조(韓敬祖)가 어제 왔다가 오늘 읍에 들어갔다. 오후에 성중에 갔다가 김태옥(金兌郁)의 집에서 숙박하였다. 이때는 온화하였다.

1월 2일(갑술)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길이 진흙탕이 되었다. 선달 박형(朴炯)의 집에서 묵었다.

1월 3일(을해) 오후에 눈이 조금 내려 산머리를 사방으로 에워쌌다. 저녁이 되자 잠깐 햇볕이 나왔다가 흐렸다가 하였다. 또 박 선달의 집에서 묵었다. 이날 무기정(舞妓亭)에서 계동(契洞)을 오갈 때 진흙탕에 발이 빠지는 괴로움을 면치 못했다.

1월 4일(병자) 日候매우 추웠다. 또 계동애가 갔다. 조카 류상용(柳尙龍)의 신행을 전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문 밖에서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사또를 보았는데, 구경하는 자들이 다들 포복절도하였다.

112 회록(回祿)의 재앙 : 화재가 발생했다는 말이다. 회록은 불귀신의 이름이다.

1월 5일(정축) 날씨가 차고 바람이 거셴다.

1월 6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7일(기묘) 인일(人日)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1월 8일(경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1월 9일(신사) 온화하였다.

1월 10일(임오) 위와 같다.

1월 11일(계미) 위와 같다.

1월 12일(갑신) 위와 같다.

1월 13일(을유) 위와 같다.

1월 14일(병술) 매우 추웠다.

1월 15일(정해) 위와 같다. 읍내로 소를 보내어 도살하게 하고 왔다.

1월 16일(무자) 어제에 비해 추위가 조금 덜했다. 갈곡 며느리의 신행 때 송정리(松亭里)에서 정반(停飯)하였다.

1월 17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돈어른이 계속 머물렀다.

1월 18일(경인) 손님이 돌아갔다.

1월 19일(신묘) 조카 이항용(李恒龍)이 신행하였다.

1월 20일(임진) 서풍이 불어 먼지를 날리고 검은 구름이 해를 가렸으나 추위가 심하지는 않았다.

1월 21일(계사) 북풍이 불었다. 새벽에 임금님을 뵈는 꿈을 꾸었다.

1월 22일(갑오)

1월 23일(을미)

1월 24일(병신)

1월 25일(정유)

1월 26일(무술)

1월 27일(기해) 이상 날이 매우 추웠다.

1월 28일(경자) 구름이 모여 있고 매우 추웠다. 세후의 추위가 겨울철보다 심하고 하루도 온화한 기후가 없으니 괴이하다.

1월 29일(신축) 조금 추웠다.

1월 30일(임인)

2월 대월(大月).

2월 1일(계묘)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2월 2일(갑진) 위와 같다. 석전제에 참석했다.

2월 3일(을사) 추웠다. 백성들을 동원하여 도선산(道善山)의 바람에 꺾인 나무를 작별할 때 사또도 갔다.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사또가 많이 취해 허허거리며 손을 들어 백성들을 감독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입을 막고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아, 이 고을의 불행한 기운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2월 4일(병오) 위와 같다.

2월 5일(정미) 매우 추웠다.

2월 6일(무신)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7일(기유) 서풍이 불었다.■■■비가 잠깐 내렸다.

2월 8일(경술) 밤에 잠깐 비가 내렸다.

2월 9일(신해) 가끔 해가 나오다가 눈이 오다가 하였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고르지 않았다. 도로에 인적이 끊어질 판이었다. 갈곡 사돈어른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어제 저녁에 통영 수문(水門) 내 민가에 불이 나서 동문루(東門樓)와 와동(瓦洞)의 수십 호가 불에 탔다고 하였다.

2월 10일(임자) 바람이 불고 날씨가 또 절기에 맞지 않았다. 사돈어른이 작별하고 돌아갔

다. 저녁에 서산에 희미하게 눈이 잠깐 날렸다.

2월 11일(계축) 바람에 구름이 날렸다. 올봄에는 바람이 불고 날씨가 고르지 않으니 근래에 없던 일로 이상하다. 이 무슨 징조인가?

2월 12일(갑인) 갑자기 따뜻해졌다.

2월 13일(을묘) 추웠다. 석노(石奴)가 3일부터 병으로 누워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

2월 14일(병진) 추웠다.

2월 15일(정사) 위와 같다.

2월 16일(무오) 이이춘(李利春), 강일규(姜一奎), 김필명(金必鳴)이 문안차 방문했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2월 17일(기미) 날씨가 온화하지 못했다. 강일규가 돌아갔다.

2월 18일(경신) 위와 같다.

2월 19일(신유) 위와 같다. 병사(兵使)을 읍을 순찰하였다.

2월 20일(임술)

2월 21일(계해)

2월 22일(갑자)

2월 23일(을축) 이상 춥고 하다가 따뜻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2월 24일(병인)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25일(정묘) 비가 자욱하게 내렸다. 통제사가 바람에 꺾인 소나무를 팔게 할 것을 계청하였는데 사기를 원하는 자를 많이 구하기 어려웠다. 그 때문에 통제사가 백성들을 조발하여 해안의 염정(鹽井) 옆으로 베어 운반하게 하였다. 본읍은 이달 3일에 벌목꾼을 조발하여 도선산(道善山)에 보내 부역하게 했는데 한 고을의 군정은(軍丁)은 대부분 산에 들어갔으니 한 무리 군대라고 할 만하였다. 사또 정후 창선(鄭侯敞選)이 직접 벌목을 감독하였는데 정사또는 평소 술꾼이라 이번 행차에서도 술에 취해 실성하여 노래 부르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더니 직접 벌목꾼들이 벤 나무를 져서 나르기도 하고 직접 도끼를 내려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아, 우리 고을의 불행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인가? 그리고 벌목꾼을

이렇게 조발한 것도 바로 백성들을 겁주기 위한 계책이다. 비록 온 고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역소에서 여름을 나게 하더라도 일이 끝날 기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백성들을 몰아 부역에 들인 것이니, 부역을 종일토록 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사고자 하니 처음에 값을 논하여 한 그루에 7푼으로 논하니, 한 가구당 감당하는 것이 4전 9푼에 이르렀다. 송전(松田) 아래에 사는 사람들과 부자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 곤궁한 백성들과 먼 고을의 백성들이 불쌍하니 이 어찌 국가에서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정사란 말인가? 그 속에 살면서 눈을 가리는 자들의 죄 아님이 없다. 구중궁궐에 홀로 계신 임금께서 홀로 백성들이 임금님을 책망하는 비방을 듣지 못하니 더욱 통탄스러움을 이길 길 없다. 누가 임금님께 사실을 아뢰어 죄 있는 자를 처벌하여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겠는가? 이때 통제사는 바로 이공 의풍(李公義豐)이다. 우리 마을은 아궁이의 숫자를 계산하여 돈을 거두었는데 아궁이 하나 당 2전 5푼이었다. 우리집은 아궁이가 4개라 1냥을 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의논하여 정한 일이고 다른 고을에서도 대부분 이와 같았다. 더러는 조정에서 값을 법으로 정해 한 그루당 1푼이고, 7푼이 되면 중간에 억지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하니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월 26일(무진)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연일 바람이 소리 내며 불었다.

2월 27일(기사)

2월 28일(경오) 모두 위와 같다.

2월 29일(신미) 서풍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30일(임신) 위와 같다. 함안 출신 김달성(金遠聲)이 다녀갔다.

3월 대월(大月).

3월 1일(계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3월 2일(갑술)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만 그루 솔숲 산길을 시내 따라 가노니	萬松山路夏溪行
활활 흐르는 시냇물 소리 맑게 귀에 들려라	泱泱流泉入耳清
흐늘대는 촌락의 연기는 비와 섞여 가늘고	冉冉村煙和雨細
쓸쓸한 찬 잎새는 가지에 붙어서 우는구나	蕭蕭寒葉著枝鳴

3월 3일(을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종일 그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본래 원량 ¹¹³ 처럼 그윽한 곳 찾으려더니	尋幽本擬追元亮
-------------------------------------	---------

113 원량(元亮) : 원량은 진(晉)나라 때의 은사(隱士)인 도연명(陶淵明)의 자이다. 팽택 현령(彭澤縣令)이 되었다가 석 달

외려 제갈공명처럼 포슬음 ¹¹⁴ 을 읊조린다	抱膝還如學孔明
홀로 늦가을 만나 마음이 유연하니	獨際衰荒心賞遠
만나는 곳마다 이내 삶 즐겨 본들 어떠리	不妨隨遇樂吾生

3월 4일(병자) 식후에 비가 잠깐 내리다가 쾌청해졌다.

3월 5일(정축)

3월 6일(무인)

3월 7일(기묘) 이상 온화하였다. 감동(甘洞)의 생원 강학(姜濬)이 방문했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3월 8일(경진) 바람이 불고 비가 뿌렸다.

3월 9일(신사) 쾌청하고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3월 10일(임오)

3월 11일(계미)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3월 12일(갑신) 온화하였다.

3월 13일(을유) 위와 같다.

3월 14일(병술) 종일 비가 내려 시내에 잠깐 소리가 들렸다.

3월 15일(정해) 쾌청하다가 흠비가 연기처럼 자욱하게 내리고 바람이 소리 내며 불었다.

3월 16일(무자) 계속 흠비가 내렸다.

3월 17일(기축)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3월 18일(경인) 위와 같다. 심리사(審理使) 김상적(金尙績)이 본읍을 순방하러 왔다가 병이나 문을 닫고 몸조리를 하였다.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만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면서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었다.

114 포슬음(抱膝吟) : 촉한(蜀漢)의 제갈량(諸葛亮)이 출사(出仕)하기 전 남양(南陽)에서 몸소 농사를 지을 때 <양보음(梁甫吟)>이란 노래를 지어 매일 새벽과 저녁이면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길게 불렀다 한다. 이를 포슬음(抱膝吟)이라 하여 지사(志士)의 우울한 심회를 읊은 시를 뜻한다.

3월 19일(신묘) 비가 내렸다.

3월 20일(임진) 쾌청하였다. 광이(光二)에 위치한 서재(書齋) 낙성연에 초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녀왔다.

3월 21일(계사)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22일(갑오)

3월 23일(을미)

3월 24일(병신)

3월 25일(정유)

3월 26일(무술) 따뜻하였다.

3월 27일(기해) 위와 같다. 내가 정재종(丁再從)과 함께 안정사(安精寺)에 갔다가 돌아왔다. 좌수 최익해(崔益海)와 지사 김종하(金重夏)가 어제 들렀는데 오늘 또 왔다.

3월 28일(경자) 위와 같다. 신임 사또로 무변 신사민(申思民)이 부임하였다. 심리사가 지난 19일에 비를 맞으며 통영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병으로 누웠다. 김종하 등과 함께 산소를 보기 위해 우동(牛洞)에 갔다가 돌아왔다. 소나무 값을 걷는 일로 순찰사가 진주 진영에 관문을 보내 본읍의 향색(鄕色)을 잡아들였다.

3월 29일(신축) 매우 더웠다.

3월 30일(임인) 위와 같다.

4월 소월(小月).

4월 1일(계묘) 해가 나와 더웠다.

4월 2일(갑진) 안개가 걷히고 날이 더웠다. 통영 우후가 본읍에서 남촌진(南村鎭)으로 갔다.

4월 3일(을사)

4월 4일(병오)

4월 5일(정미)

4월 6일(무신) 이상 바람이 차고 날씨는 건조하여 묘판이 말라갔다.

4월 7일(기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8일(경술)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4월 9일(신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10일(임자)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11일(계축) 이슬비가 내렸다.

4월 12일(갑인)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났다.

4월 13일(을묘) 가끔 비가 내렸다.

4월 14일(병진) 가랑비가 내렸다.

4월 15일(정사) 구름이 짙게 끼고 조금 서늘하였다. 우후(虞候)가 전에 본읍에 이르렀을 때 배행한 장교들이 전임 사또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전임 사또가 분노를 표해 패를 내어 그 정처(正妻)를 붙잡아 들였다. 집안사람이 우후에게 통보하자 우후도 성을 내며 돌아가는 길에 본현을 들러 향색 등에게 곤장을 쳤는데 그때 김한일(金汗逸)이 교대 유리(留吏)로 곤장을 받고 그로 인해 죽었다. 심리사(審理使)가 통영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중영(中營)에 들어가 병비(兵裨)에게 곤장을 치고 한편으로는 통영에 보고하니 집사 기패관(旗牌官)이 우후를 붙잡아 들였는데 우후는 바로 윤경일(尹敬一)이다. 칼을 뽑아 큰 소리로 “똑같은 선비로 어찌 능욕을 받겠는가? 만약 나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는 칼이 있다.” 하니, 심리사가 “이 자는 술 취한 미치광이이니 다시 붙잡아 들이지 말라.” 하였다. 장문을 아뢰었는데 저녁이 되자 심리사가 본현에 나가 목었다.

4월 16일(무오) 비가 내렸다.

4월 17일(기미)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4월 18일(경신) 위와 같다. 외동(外洞)의 동지(同知) 최섬(崔暹) 여휘(汝輝) 씨가 방문했다.

4월 19일(신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0일(임술) 이슬비가 내렸다.

4월 21일(계해) 쾌청하였다.

4월 22일(갑자) 구름과 햇벌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4월 23일(을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직접 영암(永岩)에 올라가 산에 들어가 뽕을 따다.

4월 24일(병인) 비가 내렸다.

4월 25일(정묘) 천둥이 치더니 비가 쏟아지고 시냇물이 소리 내며 흘렀다.

4월 26일(무진) 구름이 짙게 끼었다. 풍락송 값을 강제로 징수한 일로 본현을 향색이 진주에 간했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며칠 전에 진영에서 또 각 면의 송감색(松監色)을 붙잡아 곡절을 물었는데 간혹 간히는 경우도 있었다.

4월 27일(기사) 아침에 안개가 온 산을 휘감았다.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8일(경오)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9일(신미) 이날은 죽은 아내의 기일이다.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체처럼 내리고 처마 낙숫물에서 빗방울이 구슬 떨어지듯 내렸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5월 대월(大月).

5월 1일(임신) 소낙비가 새벽 내렸다. 여전히 구름이 끼고 간혹 해가 나왔다. 낮이 되자 동이로 붓듯 우박이 떨어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쳤다.

5월 2일(계유) 쾌청하였다.

5월 3일(갑술) 구름이 많았다.

5월 4일(을해) 온화하였다.

5월 5일(병자) 비가 질펀하게 내렸다.

5월 6일(정축) 계속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5월 7일(무인)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벌이 나오기도 하였다.

5월 8일(기묘) 새벽에 우레가 치더니 아침에 비가 내렸다. 낮에는 해가 나왔다가 밤에는 흐렸다.

5월 9일(경진) 아침에 천둥이 치고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5월 10일(신사) 가끔 비가 내렸다.

5월 11일(임오)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5월 12일(계미)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13일(갑신) 쾌청하고 더웠다.

5월 14일(을유) 낮에 햇볕이 나고 밤에 구름이 끼었다.

5월 15일(병술) 아침에 안개가 끼고 밤에 구름이 끼었다.

5월 16일(정해) 동풍이 불고 종일 비가 내렸다.

5월 17일(무자) 쾌청하고 더웠다.

5월 18일(기축) 해가 나왔다. 낮에 푸른 기러기 한 쌍이 울면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5월 19일(경인) 해가 나왔다.

5월 20일(신묘)

5월 21일(임진) 위와 같다.

5월 22일(계사) 더웠다. 서쪽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5월 23일(갑오) 더웠다.

5월 24일(을미) 위와 같다.

5월 25일(병신) 계동(契洞) 물가에서 향교 모임을 가졌다. 저녁에 비가 내리기에 향교에 들어갔다. 밤에 비가 쏟아졌다.

5월 26일(정유) 계속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그쳤다.

5월 27일(무술) 쾌청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8일(기해)

5월 29일(경자) 오후에 비가 내렸다.

5월 30일(신축) 비가 그치지 않았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임인) 새벽에 우레가 치고 낮에 흐리더니 더러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6월 2일(계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3일(갑진) 낮에는 구름이 끼고 밤에는 비가 내렸다.

6월 4일(을사) 계속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6월 5일(병오) 바람이 차고 비가 내렸다.

6월 6일(정미) 춥고 구름이 끼더니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7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8일(기유) 비가 내렸다.

6월 9일(경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들판에 물이 넘쳤다. 저녁에 천둥이 쳤다.

6월 10일(신해) 계속 비가 쏟아졌다.

6월 11일(임자) 오후에 쾌청하였다.

6월 12일(계축)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더니 비가 많이 내렸다.

6월 13일(갑인) 다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김재담(金再淡)이 어제 와서 그대로 머물렀다.

6월 14일(을묘) 가랑비가 내렸다. 김재담이 돌아갔다.

6월 15일(병진) 비가 내렸다.

6월 16일(정사) 비가 쏟아지다가 저녁에 그쳤다.

6월 17일(무오) 낮에는 덥고 밤에 다시 흐렸다.

6월 18일(기미) 소낙비가 퍼붓듯이 내리고 우레가 크게 치니 농꾼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6월 19일(경신) 매우 더웠다.

6월 20일(신유) 남풍이 계속 불고 흑구름이 어지럽게 날렸으며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21일(임술) 새벽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으나 낮에는 해가 나왔다.

6월 22일(계해) 더웠다.

6월 23일(갑자) 빗방울이 떨어지고 매우 더웠다.

6월 24일(을축) 식후에 비가 쏟아지는데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6월 25일(병인) 잠깐 개더니 또 비가 내렸다. 읍에 들어갔다.

6월 26일(정묘) 낮에는 개고 밤에 비가 내렸다.

6월 27일(무진) 새벽에 비가 그쳤다.

6월 28일(기사) 쾌청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29일(경오) 더웠다.

7월 소월(小月).

7월 1일(신미) 아침에 잠깐 비가 내리다가 이내 쾌청해졌다. 갈산(葛山) 백준채(白俊采)의 상에 가서 조문하였다.

7월 2일(임신) 또 비가 내렸다.

7월 3일(계유) 가끔 비가 내리더니 밤에 그쳤다.

7월 4일(갑술)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7월 5일(을해) 저물녘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7월 6일(병자) 구름이 짙게 끼더니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7일(정축) 때때로 비가 쏟아졌다.

7월 8일(무인) 쾌청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9일(기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10일(경진) 가끔 구름이 끼었다.

7월 11일(신사) 가끔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7월 12일(임오) 쾌청하였다.

7월 13일(계미) 쾌청하고 날이 더웠다. 가끔 구름이 끼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고 저물녘에는 갑자기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마을 사람 정창옥(丁昌玉)이 사망하였다.

7월 14일(갑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시냇물이 불어났다.

7월 15일(을유) 덥고 해가 나왔다. 아견해(阿見海)에서 목욕을 하였다.

7월 16일(병술) 찌는 듯이 덥고 구름이 끼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17일(정해) 동풍이 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18일(무자) 새벽에 잠깐 비가 내렸다.

7월 19일(기축)

7월 20일(경인) 이상 동풍이 불었다. 가끔 해가 나오다가 흐리기도 하였다.

7월 21일(신묘) 가끔 구름이 끼고 더웠다. 연변의 논 작물이 대부분 말라 손상되었다고 하였다.

7월 22일(임진) 낮에 흐리더니 밤에 비가 내렸다.

7월 23일(계사) 비가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7월 24일(갑오)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7월 25일(을미) 가끔 가랑비가 내렸지만 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26일(병신) 해가 나와 더웠다.

7월 27일(정유) 매우 더웠다. 교임(校任)의 요청으로 유사 이동만(李東晩)과 함께 삼봉포(三峯浦)에 갔다.

7월 28일(무술) 위와 같다. 시임 별감 최징회(崔徵會), 이유사(李有司)와 함께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술을 마셨다. 저녁이 되어 어러포(魚麗浦)에서 돌아왔다. 밤에 향교에 들어갔다.

7월 29일(기해) 위와 같다.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밤에 서남풍이 불었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경자) 가끔 우레가 치고 쏟아지듯 비가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일(신축)

8월 3일(임인)

8월 4일(계묘) 이상 동풍이 불어 서늘하고 구름이 끼었다.

8월 5일(갑진) 향교에 들어가 재계에 참여했다.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8월 6일(을사) 계속 비가 내렸다. 동남풍이 크게 불어 간혹 나무를 부러트렸다.

8월 7일(병오) 잠깐 개었다가 저물녘에 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묘정(廟庭)에 임시 가옥을 지었다.

8월 8일(정미) 쾌청하였다. 명륜당(明倫堂)에 묵었다. 이날 밤에 도적이 향교에 들어 나는 창의(擘衣)¹¹⁵ 한 벌과 요대(腰帶), 낭자(囊子) 등 물건을 잃어버렸고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의관을 잃어버렸는데, 감옥에서 도망친 도둑이었다.

8월 9일(무신) 가랑비가 잠깐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0일(기유)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8월 11일(경술)午가랑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가 공무를 보았다.

8월 12일(신해) 계속 비가 내리다가 낮에 그치더니 밤에 또 비가 내렸다.

8월 13일(임자) 새벽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아침까지 내려 시냇물이 요란하게 흘렀다.

8월 14일(계축) 어제 삼경(三更)부터 서남풍이 크게 불어 벼를 넘어뜨렸다. 이날 아침에 비가 걷히고 바람이 불었다.새로 임명된 도유사 배순문(裴舜文)을 만나고 서문 밖 촌사에서

115 창의(擘衣) : 빛이 희고 소매가 넓으며 가는 흑색으로 꾸민 옷이다.

묵었다.

8월 15일(갑인)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남풍이 소리 내며 불었다. 배 도유사가 아침 전에 공무를 보았다.

8월 16일(을묘) 위와 같다. 관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배둔역(背屯驛)에 이르러 도적을 잡았으나 국문하여 실정을 캐기도 전에 사망하였다. 지난번 도둑맞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수진본 운고(韻考)와 호패(戶牌)를 되찾았다.

8월 17일(병진) 햇볕이 나오더니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18일(정사) 비가 내렸다.

8월 19일(무오) 비가 내려 길이 막혔다.

8월 20일(기미) 청명하였다.

8월 21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근래 이질을 앓아 약을 복용하였다.

8월 22일(신유) 낮에는 흐리고 밤에는 맑았다.

8월 23일(임술) 따뜻하였다.

8월 24일(계해) 맑고 온화하였다.

8월 25일(갑자)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8월 26일(을축)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8월 27일(병인) 비가 잠깐 그쳤다.

8월 28일(정묘) 가끔 구름이 끼었다.

8월 29일(무진) 온화하였다.

8월 30일(기사) 위와 같다. 지사 류경화(柳慶華)가 와서 향교에 머물렀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경오)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9월 2일(신미)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3일(임신) 구름이 끼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4일(계유) 온화하였다. 류경화와 함께 경치를 두루 구경하였다. 사또 신후(申侯)가 수조호궤(水操犒饋)에 참석하지 않자 통제사가 국왕에게 계문을 올려 파직을 요청하였다.

9월 5일(갑술) 위와 같다.

9월 6일(을해) 위와 같다. 류경화가 떠났다.

9월 7일(병자) 위와 같다. 성묘의 중수를 위한 향축을 순상이 있는 경주에서 와서 객사에 봉안하였다.

9월 8일(정축) 새벽에 이슬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맑아졌다. 현임 사또의 유임을 바라는 일을 청원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가경(可洞)에 이르러 관아의 만류로 향교로 되돌아왔다.

9월 9일(무인) 맑고 따뜻하였다.

9월 10일(기묘)

9월 11일(경진) 위와 같다.

9월 12일(신사) 위와 같다. 이날 당원 10여 명이 모였는데 사또를 모시고 무기정에 이르러 성묘를 옮기는 일을 확정하고, 선달 박형(朴炯)으로 하여금 집터를 속히 옮기도록 하였다.

9월 13일(임오) 위와 같다.

9월 14일(계미)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9월 15일(갑신) 위와 같다. 향축을 성묘로 옮겨 봉안하였다.

9월 16일(을유) 온화하였다.

9월 17일(병술) 위와 같다. 이안제(移安祭)¹¹⁶에 쓸 제물을 싸가지고 왔다.

9월 18일(정해) 동재(東齋)에 이안하였다. 축사에 “성전과 행각에 비가 새 마땅히 수리해야 하기에 임시로 신위를 옮겨 봉안하고 삼가 그 이유를 고합니다.” 하였다.

116 이안제(移安祭) : 사당의 신주(神主)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지내는 제사이다.

9월 19일(무자)

9월 20일(기축)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1일(경인)

9월 22일(신묘) 이상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사또를 붙잡아오라는 조정의 명이 내려왔다.

9월 23일(임진) 위와 같다.

9월 24일(계사) 위와 같다. 신임 사또로 무변 한덕승(韓德升)을 차정한다는 비답을 적은 고목(告目)¹¹⁷이 어제 내려왔다.

9월 25일(갑오) 위와 같다.

9월 26일(을미)

9월 27일(병신)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9월 28일(정유) 청량하였다.

9월 29일(무술) 근래 사흘 동안의 향당회(鄉堂會)가 열려 차구(借寇)¹¹⁸의 희망을 가지고 강력하게 나를 올려보내려 하였다. 내가 좌수 최석오(崔錫五)와 함께 대구로 떠나 두포(頭浦)에 나가 묵었다.

10월 소월(小月).

10월 1일(기해) 약간 흐렸다. 최 좌수를 배둔역(背屯驛)에서 만나 함안 대안(大安) 주점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저녁에 괴항(槐項) 주점에서 묵었다.

10월 2일(경자) 청명하고 온화하였다. 대초원(大招院)에서 묵었다.

117 고목(告目) : 서리가 수령 등에게 올리는 편지 형식의 문서임.

118 차구(借寇) : 구순(寇恂)을 빌린다는 뜻으로, 선정을 베푼 수령을 다시 그 고을에 임명해 달라고 청하는 것을 말한다.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 구순이 하내(河內)·영천(潁川)·여남(汝南)의 태수(太守)를 연임하며 선정을 베푼다가 여남 태수를 그만두고 조정에 들어와서 집금오(執金吾)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광무제를 따라 영천에 가서 도적의 항복을 받을 적에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구순을 1년 동안 빌려 달라. [借寇君一年]”라고 간청하자 그곳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게 한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16 寇恂列傳》

10월 3일(신축) 낮에 대구 화현(花縣) 시장에서 잠시 쉬었다. 이때 감토(甘土) 1립(立)이 4전이었다. 성 안의 관노(官奴) 최계손(崔季孫)의 집을 하관(下館)으로 정했다. 곧바로 징청각(澄淸閣)에 청원서를 올렸는데 임금님에게 계달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10월 4일(임인) 찌는 듯이 더웠다. 또 청원서를 올렸다. 저녁이 되어 돌아와 화현(花縣) 주점에 묵었다.

10월 5일(계묘) 새벽에 비가 잠깐 내리더니 식후에 구름이 걷히고 날이 따뜻하였다. 솔례(率禮) 시장에서 잠깐 쉬면서 목면과 띠를 사고 의령(宜寧) 부무(扶撫) 주점에서 묵었다. 화현에서 현풍읍까지는 30리이고, 현풍읍에서 부무까지는 60리로 총 90리이다. 이날 솔례 시장에서 시간을 다 소비했다.

10월 6일(갑진) 구름과 햇벌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5리쯤 떨어진 경산의 생원 이광연(李光淵) 집에서 아침을 먹고, 25리 떨어진 불산진(豊山津)에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저녁에 40리 떨어진 정수(丁樹)의 생원 최석몽(崔錫夢) 집에서 묵었다.

10월 7일(을사) 위와 같다. 새벽에 죽을 먹었다. 동틀 무렵에 출발하여 30리를 가서 작동(鵲洞)에서 아침을 먹고 그대로 읍에 들어갔다. 집에 말을 보내고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8일(병오) 맑고 따뜻하였다.

10월 9일(정미) 위와 같다. 환안제(還安祭)의 축문(祝文)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이미 새는 곳을 보수하고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길일을 잡아 감히 환안을 청합니다.”
세 헌관(獻官)과 두 명의 유사, 성조도감(成造都監)에 포를 나누어주었다.

10월 10일(무신)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1일(기유)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12일(경술) 매우 따뜻하였다.

10월 13일(신해) 위와 같다.

10월 14일(임자)

10월 15일(계축)

10월 16일(갑인) 이상 위와 같다.

10월 17일(을묘) 비가 내려 길에 흘렀으나 밤에 맑았다.

10월 18일(병진) 쾌청하고 온화하였다.

10월 19일(정사)

10월 20일(무오)

10월 21일(기미) 이상 위와 같다.

10월 22일(경신) 가랑비가 내렸다.

10월 23일(신유)

10월 24일(임술) 가랑비가 내렸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25일(계해)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10월 26일(갑자) 햇볕이 나와 온화하였다. 순찰사 권석순(權奭巡)이 사천에서 본현에 들어왔다.

10월 27일(을축) 위와 같다. 순상이 거제(巨濟)로 떠났다. 이날 저녁에 울산(蔚山), 김해(金海), 흥해(興海), 청하(淸河)의 성묘에 쓸 향축이 순찰사의 행차를 따라 도착했다. 통영으로 떠나려 했기 때문에 향축을 가져간 유생 4명을 정해 통영으로 들여보냈다.

10월 28일(병인) 새벽에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지더니 번쩍번쩍 번개가 쳤다. 식후에도 비가 계속 그치지 않았다.

10월 29일(정묘) 밤에 춥고 얼음이 얼었다.

11월

11월 1일(무진) 온화하였다. 4개 읍의 향축이 통영에서 돌아와 객사에 봉안되었으므로 유생이 지켰다.

11월 2일(기사) 위와 같다. 닭이 처음 울 때 겸관(兼官) 진해 사또가 통영에 있었는데 사통(私通)이 이르렀다. 그 내용은 “안동(安東), 경주(慶州), 문경(聞慶), 양산(梁山), 울산(蔚山), 성주(星州), 진주(晉州) 7개 읍에서 연례적으로 쓰는 향축이 또 도착했으니 유생 7명과 집사 4명을 정해 보내라.”는 것이다.

11월 3일(경오) 저녁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신임 사또 한후(韓侯)가 무기정(舞妓亭)에서 묵었다. 밤하늘이 청명하였다.

11월 4일(신미) 청명하였다. 신임 사또가 부임하였다.

11월 5일(임신) 위와 같다. 신임 사또가 성묘를 배알하였다.

11월 6일(계유)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 잠깐씩 비가 내렸다.

11월 7일(갑술) 위와 같다.

11월 8일(을해) 매우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9일(병자) 가끔 구름이 끼었다.

11월 10일(정축)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이날 밤에 어떤 사람이 불암(佛岩) 위에서 향소(鄉所)를 불렀다.

11월 11일(무인) 비가 내렸다. 일전에 침지 허영원(許榮遠)의 노직연(老職宴)에서 당장(堂丈) 최기전(崔起全) 중초(仲初) 씨가 시를 짓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종형 댁에 오늘 성대한 잔치 벌였나니	宗筵今日盛繁華
지난 설달 봄빛이 어화에 움직였던 게지	前臘春光動御花
아우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 참석했건만	群弟盡能陪序位
나만 홀로 어이하여 이 산속에 머무는고	獨吾何事滯岑阿
호드기 소리 구슬퍼 맑은 감상과 어긋나고	哀笳急管違清賞
물줄기 활활 골짜기 울릴 제 목은 병있네	鳴壑飛淙抱素痾
지친 몸을 사립에 기대고 지는 해를 보니	倦倚柴門看日落
눈 덮인 산에 인적 끊기고 우거진 나무뿐	雪山人斷樹回柯

이봉징(李鳳徵)의 시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반평생 이 골짜기 명성 들어왔더니	半世曾聞洞裏天
우연히 찾아와 보니 경치가 맑고 고와라	偶來投跡覺清鮮
지팡이 끝매 이미 속세 미련 끊었나니	携筇已斷區中戀
취석에는 꼭 학을 탄 신선이어야 되라	醉石何須鶴上仙
눈 온 뒤에 얼어붙은 강은 원래 좋고	雪後氷江元自好
눈 앞의 푸른 벼랑은 더욱더 어여빠라	眼前蒼壁更堪憐
인간 세상 돌아보니 어지러운 티끌뿐	人寰回首紛塵累
아무래도 신선의 고장 여기 살아야겠군	祗合終棲絕巖煙

또 절구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위양 ¹¹⁹ 에서 지금 이별 사 년 만인데	渭陽今別四經秋
머리털 여전하고 원우가 없으셨지	容鬢依常絕怨尤
충신은 오랑캐 땅에도 통하는 성인의 가르침 ¹²⁰	忠信可蠻聖有訓
가슴에 새기고 외삼촌 뵈니 근심이 없어라	服膺見舅吾無憂

11월 12일(기묘) 어제부터 내린 비가 새벽에 그쳤다. 낮에 우박이 떨어지더니 저물녘에 해가 나왔다.

11월 13일(경진) 청명하였다.

11월 14일(신사) 위와 같다.

11월 15일(임오)

11월 16일(계미) 온화하였다.

11월 17일(갑신) 조금 따뜻하였다. 와룡동의 첨지 이송년(李松年) 직경(直卿) 씨의 노직경연(老職慶宴)에 참석하였다. 재종 정창윤(丁昌胤)과 함께 다녀왔다.

11월 18일(을유) 잠깐씩 비가 내리다가 개다가 하였다. 석잔령(石棧嶺)을 넘어 두포 이덕수(李德秀)의 집에서 묵었다.

11월 19일(병술)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20일(정해) 북풍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최 당장(崔堂長)의 시에 차운하여 이 첨지의 경연(慶宴)을 축하하였다.

듣자니 강가에 경물이 새롭다기에	聞道江臯景物新
서둘러 아우들 불러 함께 구경 나섰다	急邀花樹共探眞
바위 곁 무성한 꽃잎은 시 읊는 흥 바치고	傍巖繁蕊供吟興
옥을 울리는 듯한 시냇물은 속진 알맞아라	漱玉鳴泉合洗塵
묵묵히 동식물을 보니 모두 오묘한 이치라	動植默觀皆妙理
고요히 마음 보존함에 인이 온전하겠어라	靜存無害可全仁
동동은 천덕이 아닌 줄 비로소 알겠노니	憧憧始信非天德
가는 가지 하난들 봄기운 아님을 뉘 보랴	誰見纖枝不入春

119 위양(渭陽) : 진(秦) 나라 강공(康公)이 어머니가 돌아간 뒤에 그의 외숙(外叔)을 위양(渭陽)에서 송별하였다. 《시경》에 〈위양(渭陽)〉 편이 있다. 후대에 외숙을 위양이라고 한다.

120 충신은……가르침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말이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며 행실이 독실하고 공경스러우면, 어떤 오랑캐 나라라도 가서 제대로 행할 수가 있다.[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11월 21일(무자) 온화하였다. 단자를 올리고 물러나 사사(私舍)에서 묵었다.

11월 22일(기축) 바람이 나뭇가지에 소리 내며 불었다. 능아(能阿)가 집안의 병환을 알려왔으므로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3일(경인) 눈이 점점이 떨어졌다. 향교에서 단자를 돌려보내고 억지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부득이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24일(신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1월 25일(임진) 위와 같다. 집에서 아내의 병환으로 다시 알려왔으므로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 저녁에 아내의 기가 막혔다가 소생했다는 말을 들었다.

11월 26일(계사) 약간 흐렸다. 점을 쳐서 명이지건(明夷之蹇)을 얻었는데 태기가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11월 27일(갑오) 위와 같다.

11월 28일(을미) 새벽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아내의 병이 점차 나았다.

11월 29일(병신) 구름이 끼고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이날은 바로 첨지 최진호(崔震嵩)의 노직경연(老職慶宴)이었으나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므로 임아(臨阿)를 보냈다.

11월 30일(정유) 새벽에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 개었다.

12월

12월 1일(무술) 온화하였다. 신임 통제사 이연상(李彦祥)과 전임 통제사 이의풍(李義豊)이 모두 본현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비변사의 인부(印符)를 전달하는 관문이 이르지 않아 전임 통제사가 가볍게 주지 못하고 신임 통제사도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했다. 오늘 저녁에 사유를 갖추어 임금님께 아뢰고 머물러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전임 통제사는 통영에 돌아가려 했고, 신임 통제사는 그대로 본현에 머물렀다. 밤에 구름이 뻑뻑하게 끼었다.

12월 2일(기해) 아침에 눈이 점점이 날렸다. 전임 통제사가 통영으로 돌아가고 신임 통제사는 본현에 머물렀는데 수령과 변장(邊將)이 연명(延命)¹²¹하기 위해 날마다 찾아왔다. 그 때문에 유생 4명 등이 객사에서 대기하였으니 이 또한 문제이다.

12월 3일(경자) 온화하였다. 이날 청어를 진상하기 위해 짐말에 실어 보냈다.

121 연명(延命) : 새로 부임한 고을 원이 소속 감사(監司)를 찾아가 인사하는 의식.

12월 4일(신축) 위와 같다. 이날 청어 한 묶음 값이 5,6푼에 불과했다.

12월 5일(임인) 위와 같다.

12월 6일(계묘) 위와 같다. 청어값이 4푼이었다.

12월 7일(갑진) 밤에 비가 내렸다.

12월 8일(을사) 비가 그치지 않았다.

12월 9일(병오) 또 비가 내렸다.

12월 10일(정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12월 11일(무신) 위와 같다. 갈곡(葛谷)의 사돈어른이 어제 왔다고 하기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곧바로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12일(기유) 매우 추웠다.

12월 13일(경술) 위와 같다. 송도(松道)의 상주 윤담삼(尹聃三)에게 가서 조문하였다.

12월 14일(신해)

12월 15일(임자) 이상 온화하였다.

12월 16일(계축)

12월 17일(갑인) 이상 위와 같다.

12월 18일(을묘) 아침에 잠깐 비가 내리더니 곧바로 해가 났다. 신량 우하운(禹夏運)을 맞았다.

12월 19일(병진) 또 비가 내렸다. 손님이 머물렀다.

12월 20일(정사) 아침에 눈비가 잠깐 내렸다.

12월 21일(무오) 춥지 않았다.

12월 22일(기미) 바람이 불어 산에 나무가 소리를 냈다. 통영에 들어가 창동(倉洞)에서 묵었다.

12월 23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4일(신유) 바람이 잠깐 약해졌다.

12월 25일(임술) 온화하였다. 돌아왔다.

12월 26일(계해)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27일(갑자) 위와 같다.

12월 28일(을축) 위와 같다. 밤에 구름이 끼었다.

12월 29일(병인) 이슬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잦다.

12월 30일(정묘) 쾌청하였다. 날씨가 2, 3월 같았다. 길은 진흙탕으로 얼지 않았다. 사내종과 말이 와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병인년 1746년(영조22)

1월 소월. 1일 무진. 14일 입춘절(立春節), 29일우수중(雨水中).

2월 대월. 1일 정유. 15일 경칩절(驚蟄節), 30일 춘분중(春分中).

3월 대월. 1일 정묘. 15일 청명절(淸明節), 30일 곡우중(穀雨中).

윤3월 소월. 1일 정유. 16일 입하(立夏) 사월절(四月節).

4월 대월. 1일 병인. 2일소만중(小滿中), 18일 망종(芒種) 오절(五節).

5월 소월. 1일 병신. 4일 하지중(夏至中), 19일 소서(小暑) 육절(六節), 25일 초복(初伏).

6월 대월. 1일 을축. 6일 대서중(大暑中), 22일 입추(立秋) 칠절(七節).

7월 소월. 1일 을미. 7일 처서중(處暑中), 23일 백로(白露) 팔절(八節).

8월 대월. 1일 갑자. 9일 추분중(秋分中), 24일 한로(寒露) 구절(九節).

9월 소월. 1일 갑오. 9일 상강중(霜降中), 24일 입동(立冬) 십절(十節).

10월 소월. 1일 계해. 10일 소설중(小雪中), 25일 대설(大雪) 지절(至節).

11월 대월. 1일 임진. 11일 동지중(冬至中), 25일 소한(小寒) 12일節.

12월 소월. 1일 임술. 10일 대한중(大寒中), 25일 입춘(立春) 정절(正節).

1월 소월(小月).

1월 1일(무진) 하늘은 맑고 온화하였다. 새벽에 잠깐 북풍이 불었다. 닭 울음이 더러 12, 13차례 들리기도 하고, 더러 8, 9차례 들리기도 했는데 무슨 징조인지 알 수가 없다. 종일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도 없어 날씨가 온화하였다. 저녁이 되자 동풍이 잠깐 일어나더니 저물녘에 산의 나무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1월 2일(기사) 해가 나고 바람이 나뭇가지에 소리를 냈다. 향교에 들어갔다.

1월 3일(경오) 온화하였다.

1월 4일(신미) 비가 내렸다.

1월 5일(임신) 비가 그쳤다.

1월 6일(계유) 온화하였다. 돌아왔다.

1월 7일(갑술) 위와 같다. 16일을 양친의 중퇴연(重牢宴, 회혼연)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마을에서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 식후에 도보로 출발했다. 두포(頭浦), 전포(田浦), 과동(瓜洞), 군진(軍陣)을 들르고 녹명리(鹿鳴里)에서 묵었다. 임아(臨阿)와 태질(泰侄)을 보내 서남쪽 향원(鄉員)을 초청하였다.

1월 8일(을해) 온화하였다. 신천(新川), 소대(所代), 주천(酒泉), 원당(元堂)을 지나 작동(鵲洞)에서 묵었다.

1월 9일(병자) 위와 같다. 당산(堂山), 저동(苧洞), 와룡동을 지나 감동(甘洞)에서 묵었다.

1월 10일(정축) 위와 같다. 성전(聖田), 장산(獐山)¹²², 화곡(禾谷)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1일(무인)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1월 12일(기묘) 온화하였다. 송정(松亭), 우산(牛山), 유월치(柳月峙)를 지나 향교에 들어갔다.

1월 13일(경진)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4일(신사) 위와 같다. 밀가루, 과일, 채화(綵花)가 왔다.

15일(임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날씨가 추웠다.

1월 16일(계미)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었으며 날씨가 추웠다. 이날 양친의 중퇴연을 행하니, 옛사람들이 모두 1월에 날을 잡아 행하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나도 예를 아는 집안에 물어 길일을 골라 잔치를 여니, 온 마을에서 다 모이고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니 원근의 남녀노소가 길을 가득 메웠다. 또한 집에 온 친척과 외손으로 젊은이들은 머리에 채

122 장산(獐山) :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이다. 마을 뒤쪽 산의 형상이 노루가 누워있는 형태와 같다고 하여 '장산(獐山)'이라고 이름하였다.

화를 쫓고 차례로 축수하였다. 손님과 주인은 노래하고 춤추었으며 원근 고을의 풍류객들중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들 또한 많았다. 한 면의 각 동에서 음식을 제공한 것이 1백여 상을 넘었고 집안에서 제공한 것도 50여 상을 넘었다. 이날 저녁에 눈과 비가 교대로 내려 손님들이 파하고 돌아가지 못해 하처를 뿔뿔이 정하고 잔치음악을 다투어 연주하니 참으로 천백년 동안 보기 어려운 성대한 일이다. 내가 읊시 1수를 지었다.

인량리라 고당의 사월 어느 날	仁里高堂四月天
비로소 삼경 열고 덧없는 인생 달랜다	始開三徑慰流年
칠언의 근체시는 신교를 다두고	七言近體爭新巧
석 잔 술 가슴 씻으니 자연에 합치된다	三爵澆胸合自然
늙어 가매 머리털 성글다 탄식하지 말자	老去休嗟鬢髮短
흥 일면 마음은 외려 젊은 시절 같다오	興來猶覺壯心延
취중에는 무엇보다 시화 듣는 게 즐거워	淸狂最喜聆詩話
봉래 영주로 들어가 신선들을 만난 듯해라	疑入蓬瀛逼衆仙

차운한 시편과 참석한 손님들의 성명을 별도로 한 책을 만들어 집안에 대대로 전하는 가보로 삼았다.

1월 17일(갑신) 비가 잠깐 개었다. 길이 진흙탕이 되어 걸어온 손님들이 다 돌아가지 못하였다. 집에서 음식을 제공했는데 또 50여 상이 넘었다. 이번에 내린 눈이 갈산(葛山) 위쪽과 월치(月峙) 아래는 눈이 쌓였지만 그 외에는 비가 내렸다.

1월 18일(을유) 가끔 눈이 내렸다. 각기병으로 고통스러웠다.

1월 19일(병술) 구름이 끼었다.

1월 20일(정해) 비가 내렸다.

1월 21일(무자) 또 비가 내렸다.

1월 22일(기축) 눈이 잠깐 날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1월 23일(경인) 흐렸다가 갠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1월 24일(신묘) 맑고 따뜻하였다. 임아(臨阿)와 태질(泰侄)을 중퇴연에 참석한 향원(鄉員) 각 댁에 인사하러 서북면으로 보냈다.

1월 25일(임진)

1월 26일(계사) 이상 온화하였다.

1월 27일(갑오) 위와 같다. 향교에서 재회(齋會)하였다.

1월 28일(을미) 매우 추웠다. 팔진(八鎭) 장모상을 당했다.

1월 29일(병신) 조금 따뜻하였다.

2월

2월 1일(정유) 온화하였다.

2월 2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3일(기해) 위와 같다. 고을 향교의 주맥과 사직단 근처에 쓴 무덤을 이굴(移掘)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고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많은 선비들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 사또 앞에 고하니, 사또가 직접 가서 적간(摘奸)하고 무덤을 쓴 자들을 붙잡아 다짐을 받았다. 그러러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다. 아침에 각읍으로 하여금 인원을 정해 태정(汰定)하게 한다고 하였다.

2월 4일(경자)

2월 5일(신축) 위와 같다. 밤에 서북풍이 불었다.

2월 6일(임인)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2월 7일(계묘) 춥고 눈이 잠깐 날렸다. 신임 재장(齋長) 도유사 최규명(崔珪明)이 공무를 보았다.

2월 8일(갑진) 날씨가 추웠다.

2월 9일(을사) 추위가 조금 풀렸다. 영집사(營執事)와 유생 등을 추열(推闕)하였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다.

2월 10일(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1일(정미) 날씨가 조금 풀렸다. 사임하고 돌아왔다.

2월 12일(무신) 바람이 불고 추웠다. 가리서재(佳里書齋)에 가서 놀다가 그대로 유숙하였다.

2월 13일(기유)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4일(경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2월 15일(신해) 회오리바람이 불고 해가 구름에 가렸다. 월식(月食)이 있었다.

2월 16일(임자) 매우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2월 17일(계축) 눈이 1치쯤 쌓였다.

2월 18일(갑인) 쾌청하고 온화하였다. 눈이 쌓였던 흔적이 없었다.

2월 19일(을묘)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0일(병진) 위와 같다.

2월 21일(정사) 조금 추웠다. 이날 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한 사우(祠宇)에서 제사지내려 하는데 부자묘(夫子廟)였다. 동문에서 사당 안으로 들어가니 대성위판(大聖位板)이 부서져 서쪽에 넘어져 있었다. 내가 마침내 일으켜 정칸에 바로 세워 남쪽을 보게 하였다.

2월 22일(무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2월 23일(기미) 비에 눈이 섞여 내렸다.

2월 24일(경신) 온화하였다. 정내서(丁來瑞)와 함께 통영에 들어갔다.

2월 25일(신유) 위와 같다.

2월 26일(임술)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인제(姻弟)인 상주 박시화(朴始華)가 방문했다.

2월 27일(계해)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불었다. 박 상인이 돌아왔기에 1관을 부조하였다.

2월 28일(갑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2월 29일(을축) 아침에 벽방산(碧芳山) 위에 눈이 내렸는데 마치 배꽃이 핀 듯 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2월 30일(병인) 날씨가 고르지 못했다.

3월

3월 1일(정묘)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세자가 마진(麻疹, 홍역)에서 회복함을 경축하기 위한 사문이 내려왔다. 이날 사시(巳時) 초에 일식이 있었다.

3월 2일(무진) 낮에는 온화하고 저녁에 흐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물녘에 빗방울이 떨어
져 들판의 샘에서 소리가 났다.

3월 3일(기사)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3월 4일(경오) 흐렸다.

3월 5일(신미)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3월 6일(임신) 위와 같다. ■(晝)

3월 7일(계유) 낮에 흐리더니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8일(갑술) 가랑비가 내리다가 밤에 걷혔다.

3월 9일(을해) 새벽에 안개가 끼고 낮에 구름이 끼었으며 밤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3월 10일(병자) 저물녘에 구름이 흩어졌다.

3월 11일(정축) 온화하였다.

3월 12일(무인) 바람이 불고 추웠다. 도유사 최경복(崔慶復)과 노운겸(盧允謙)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3월 13일(기묘) 위와 같다. 최경복과 노운겸 두 어른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3월 14일(경진)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어머니가 편치 못하여 마음 졸이고 걱정이 되
었다.

3월 15일(신사) 동풍이 불고 추웠다.

3월 16일(임오) 위와 같다.

3월 17일(계미) 저물녘에 비가 내려 밤새도록 내렸다.

3월 18일(갑신) 빗방울이 떨어졌다.

3월 19일(을유) 맑고 온화하였다. 복을 빌었다.

3월 20일(병술) 가끔 구름이 끼었다. 어머니가 병환이 점차 차도를 보였다.

3월 21일(정해) 맑고 온화하였다.

3월 22일(무자) 위와 같다.

3월 23일(기축) 이슬비가 내렸다.

3월 24일(경인) 비가 내렸다.

3월 25일(신묘) 또 비가 내렸다.

3월 26일(임진) 아침에 비가 내렸다.

3월 27일(계사)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3월 28일(갑오)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3월 29일(을미) 위와 같다.

3월 30일(병신) 오후에 비가 내렸다.

윤3월

윤3월 1일(정유) 비가 내렸다.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액외교생(額外校生)에 관한 일을 보았다.

윤3월 2일(무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윤3월 3일(기해) 하늘이 맑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윤3월 4일(경자) 위와 같다.

윤3월 5일(신축)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윤3월 6일(임인) 구름이 끼고 흠비가 내렸다.

윤3월 7일(계묘) 맑고 온화하였다.

윤3월 8일(갑진) 위와 같다. 통영에 들어갔다. 매형 이여섭(李汝涉), 조윤채(曹允采) 형제와 동행하였다.

윤3월 9일(을사)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렀다.

윤3월 10일(병오)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날이 개기를 집으로 돌아왔다.

윤3월 11일(정미) 맑고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윤3월 12일(무신) 위와 같다.

윤3월 13일(기유) 위와 같다. 액외교생(額外校生)에 관한 일로 순찰사에게 청원서를 올리기 위해 재종 정창래, 유사 강성주(姜聖周), 유사 이재침(李再瞻)과 함께 길을 떠나 군진교노(軍陣校奴) 이재(以才)의 집에서 묵었다.

윤3월 14일(경술) 매우 더웠다. 파산(巴山)에 들어가 순상이 오기를 기다렸다.

윤3월 15일(신해) 위와 같다. 순상이 오후에 파산이 도착했기에 청원서를 올려 영집사(營執事)의 수를 더해 받았다. 이때 염병이 치성했는데 파산읍이 더욱 심했다.

윤3월 16일(임자) 위와 같다. 돌아와 군진에서 묵었다.

윤3월 17일(계축) 위와 같다. 다시 향교로 갔다.

윤3월 18일(갑인)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윤3월 19일(을묘) 바람이 서늘하고 날씨가 건조하였다.

윤3월 20일(병진)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윤3월 21일(정사) 바람이 서늘하고 날씨가 건조하였다.

윤3월 22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임아(臨阿)가 갈곡(葛谷)에 갔다.

윤3월 23일(기미) 임아가 돌아왔다. 저물녘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윤3월 24일(경신) 비가 지면을 축축하게 적셨다.

윤3월 25일(신유)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윤3월 26일(임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윤3월 27일(계해) 날씨가 건조하였다.

윤3월 28일(갑자) 빗발이 비껴 날리고 시냇물이 소리 내어 흘렀다.

윤3월 29일(을축) 가랑비가 내렸다. 이때 농가에서 비를 간절히 바랬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대월(大月).

4월 1일(병인) 비가 내렸다. 충렬사(忠烈祠)에 관한 일로 향교에서 도회(道會)를 열었다.

4월 2일(정묘) 잠깐 개었다. 도회의 반수(班首) 의령 전동일(田東一), 공원(公員) 함안 조속(趙涑), 본읍의 이봉징(李鵬徵), 조사(曹司) 함안 이항경(李恒慶), 본읍 남국전(南國銓)이 참석하였다.

4월 3일(무진) 햇벌이 나와 온화하였다. 도회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통영에 들어가서 남문루 위에 자리를 마련하였다.

4월 4일(기사) 비가 그치지 않아 흙탕물에 무릎이 빠졌다.

4월 5일(경오) 비가 내려 쾌청하지 않았다. 최경복(崔慶復)·전동일(田東一)·이원경(李元慶)·이항경(李恒慶)이 들어가 통제사 이언상(李彦祥)을 만났더니 상소한 뒤에야 변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쌀 2섬, 콩 1섬, 소주 1병 반, 소고기 1근, 담배 1되, 절인 생선 5묵음, 콩잎 5동(同)을 도회에 보냈다.

4월 6일(신미) 비록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길을 겨우 다닐 만 했다. 내가 영방(營房)의 문서를 가져다 보니 무자년(戊子年) 7월에 암행어사 이이만(李頤晩)이 고성(固城) 사람들의 청원서로 인해 조정에 계달하여 그 제도를 확장하고 유림에게 맡긴다는 교지가 있었으며 비국의 관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때 통제사가 제도를 확장한 뒤에 예조에 공문을 보내 지휘 절차를 받기를 청했다. 예조의 회답 공문에 유생에게 맡겼더니 어찌 다시 지휘할 방도가 있느냐고 하였다. 유생 4명이 그 공문을 가지고 들어가 통제사를 만났더니 무자년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인데 조정의 교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 사고 있으니, 반드시 화전(花田) 이 참판과 기타 예를 아는 집안에 예를 물어본 뒤에야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4월 7일(임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도회가 끝나고 돌아왔다. 술에 취해 부축을 받아 돌아왔다. 오는 길에 비를 만나 도선(道善)에서 묵었다.

4월 8일(계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9일(갑술) 바람이 불어 구름이 이리저리 떠다녔다.

4월 10일(을해) 동풍이 불었다.

4월 11일(병자) 청명하고 더웠다.

4월 12일(정축)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4월 13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14일(기묘)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15일(경진) 안개가 걷히고 더웠다.

4월 16일(신사)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4월 17일(임오) 처마에 낙숫물이 똑똑 떨어졌다. 지난번 도회에서 의령과 함양의 선비들이 본교의 재임이 제대로 접대하지 않았다고 하고 수복(首僕)을 매질했기 때문에 재임이 모두 사퇴하였다. 이날 저물녘에 한바탕 이슬비 내리는 소리가 숲 끝에서 들렸다.

4월 18일(계미) 해가 나와 더웠다.

4월 19일(갑신) 위와 같다.

4월 20일(을유) 종일 바람 불고 또 구름이 끼었다.

4월 21일(병술) 비가 낮이 되자 그쳤다.

4월 22일(정해) 습한 구름이 흩어지지 않았다.

4월 23일(무자) 가끔 구름이 끼었다.

4월 24일(기축) 구름이 끼었다.

4월 25일(경인)

4월 26일(신묘) 비가 물을 불어나게 했다.

4월 27일(임진)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4월 28일(계사) 위와 같다.

4월 29일(갑오) 자주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30일(을미) 위와 같다. 이때 담배가 매우 귀해 1관에 3, 4개피만 살 수 있는 정도였

다.

5월

5월 1일(병신) 구름과 햇볕이 반반이었다.

5월 2일(정유)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3일(무술) 이슬비가 먼지를 적셨다.

5월 4일(기해) 비가 내려 시냇물 소리가 들렸다.

5월 5일(경자)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5월 6일(신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7일(임인)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5월 8일(계묘) 구름이 흩어졌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9일(갑진) 밤에 비가 내렸다.

5월 10일(을사)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가리동재(加里洞齋)에 나가 묵었다.

5월 11일(병오)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12일(정미) 쾌청하였다. 우리집 장독 울타리는 바로 2월에 막은 것인데 긴 나무로 된 소나무 가지에서 지금 새 잎이 나와 생기가 파릇파릇하니 괴이하다.

5월 13일(무신) 가랑비가 내렸다.

5월 14일(기유) 가끔 비가 내렸다.

5월 15일(경술) 더웠다.

5월 16일(신해) 위와 같다.

5월 17일(임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5월 18일(계축) 더웠다.

5월 19일(갑인) 비가 내렸다.

5월 20일(을묘)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졌다.

5월 21일(병진)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시냇물이 불어났다.

5월 22일(정사) 빗방울이 떨어졌다. 읍에 들어갔다.

5월 23일(무오) 아침에 돌아왔다. 가끔 비가 내렸다.

5월 24일(기미)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5월 25일(경신) 비가 내렸다.

5월 26일(신유) 매우 더웠다.

5월 27일(임술) 위와 같다. 지난 6일에 신량 우하운(禹夏運)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질녀가 지금에서야 상에 달려갔다.

5월 28일(계해) 날씨가 매우 더웠다. 어느 곳에서 소낙비가 내리는지 비가 가끔 내렸다.

5월 29일(갑자) 매우 더웠다.

6월 대월(大月).

6월 1일(을축) 동풍이 불고 조각구름이 끼었다.

6월 2일(병인) 위와 같다.

6월 3일(정묘) 위와 같다.

6월 4일(무진) 위와 같다.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5일(기사) 매우 더웠다.

6월 6일(경오)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6월 7일(신미) 비가 먼지를 적셨지만 매우 더웠다. 김태욱(金兌郁) 군이 방문하여 함께 가섭암(迦葉庵)에 가서 중 선옥(禪玉)과 숙박했다.

6월 8일(임신) 매우 더웠다. 김태욱은 통영에 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6월 9일(계유)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6월 10일(갑술) 매우 더웠다.

6월 11일(을해) 심한 가뭄으로 땅이 갈라졌다. 시가[市直]가 곶보리[皮牟] 14말, 보리 8말이다.

6월 12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13일(정축) 위와 같다.

6월 14일(무인) 아침에 비가 이슬처럼 내리다가 그쳤다. 작동(鵲洞)의 유사 이동만(李東晩)이 어제 와서 유숙하였다. 오늘 함께 황리포(黃里浦)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저물녘에 돌아왔다.

6월 15일(기묘) 위와 같다. 유사 이동만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6월 16일(경진) 위와 같다. 근래 안개 끼지 않는 날이 없으니 이는 몹시 가물 조짐이다. 《풍우부(風雨賦)》¹²³에 “아침에 안개 끼고 저녁에 안개 끼니 차를 끓일 물조차 없다.”고 하였다. 이날 시가[市直]가 보리[牟] 12말이다. 관의 고과는 상(上)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였다. “우선은 드러난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姑無顯疵 當責來頭]”

6월 17일(신사) 구름이 많았다.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18일(임오) 용수암(龍水岩)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6월 19일(계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20일(갑신) 구름이 짙게 끼었다. 사또가 송지도(松旨島)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데 오늘 배를 타고 갈 때 나도 동행하였다. 오전에 저동포(猪洞浦)에 들어갔다 저녁을 먹은 뒤에 검단도(儉丹島)에 들어갔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가 기우뚱했다. 밤에 서북쪽 하늘을 보니 소낙비가 내렸다.

6월 21일(을유) 동틀 무렵에 배를 타고 돌아왔다. 배안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다. 사또가 아침 전에 관아에 돌아왔다. 집사 여러 사람이 선창(船倉)에서 밥을 먹고 도보로 읍에

123 풍우부(風雨賦) : 주(周) 나라의 강자아(姜子牙)가 짓고 한(漢)나라의 제갈량(諸葛亮)이 편집하고 명(明)나라의 요종도(饒宗道)가 주해한 책으로, 천문의 변화를 통해 일기(日氣)를 예상하고 짐치는 방법을 싣고 있다.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子部 天文·算法類 天文》

들어갔다. 잠시 지나자 비올 기색이 점점 커지더니 처마 낙숫물이 먼지를 씻었다. 오후에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6월 22일(병술) 비가 물을 불어나게 했다.

6월 23일(정해) 더웠다.

6월 24일(무자) 나는 또 대축(大祝)으로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벽방산(碧芳山)에 올라갔다. 동풍이 세차게 불었다.

6월 25일(기축) 좌수(座首) 이경석(李慶錫)이 사또를 대신하여 기우제를 지냈다. 이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니 도유사 노윤현(盧允賢)이 종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6월 26일(경인) 가랑비가 내렸다. 도유사 노윤현이 나에게 통영에서 빗을 내어 주도록 청하기에 내가 편지를 써서 사양하였다.

6월 27일(신묘) 가랑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6월 28일(임진) 비가 오다가 해가 나오다가 하였다.

6월 29일(계사) 비가 쏟아지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6월 30일(갑오) 해가 나와 더웠다.

7월 소월(小月).

7월 1일(을미)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다.

7월 2일(병신) 저녁에 소낙비가 내렸다.

7월 3일(정유) 밤에 소낙비가 내렸다.

7월 4일(무술) 낮에 소낙비가 내렸다.

7월 5일(기해) 서산에 비가 내렸다.

7월 6일(경자) 날이 덥더니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7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8일(임인) 소낙비가 잠깐 내렸다.

7월 9일(계묘) 매우 더웠다. 장의 최원대(崔遠大), 벗 최석유(崔錫裕)와 함께 통영에 들어갔다.

7월 10일(갑진) 매우 더웠다. 빗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7월 11일(을사) 잠깐 비가 내렸지만 매우 더웠다.

7월 12일(병오) 위와 같다.

7월 13일(정미) 비가 내렸다. 근래 비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먼지를 적시지는 않았다.

7월 14일(무신) 비가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7월 15일(기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6일(경술)

7월 17일(신해) 이상 날씨가 매우 더웠다.

18일(임자) 위와 같다.

7월 19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사또가 재결(災結)에 관한 일로 과직되었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향교에서 묵었다.

7월 20일(갑인) 향교에 머물렀다. 밤에 잠깐 비가 내렸다.

7월 21일(을묘) 저녁에 비를 맞으며 돌아왔다.

7월 22일(병진) 더위가 물러갔다.

7월 23일(정사) 밤에 서늘하였다.

7월 24일(무오) 청량하였다.

7월 25일(기미) 위와 같다.

7월 26일(경신) 따뜻하였다.

7월 27일(신유) 위와 같다.

7월 28일(임술) 위와 같다.

7월 29일(계해) 구름이 끼고 서늘하였다.

8월 대월(大月).

8월 1일(갑자) 낮에는 온화하고 밤에는 서늘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재계에 참석했다.

8월 2일(을축) 위와 같다.

8월 3일(병인) 밤에 구름이 끼었다.

8월 4일(정묘) 위와 같다. 근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밭의 곡식은 대부분 충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5일(무진) 날씨가 건조하였다.

8월 6일(기사) 위와 같다.

8월 7일(경오) 위와 같다. 밤에 구름이 끼었다.

8월 8일(신미) 따뜻하였다. 갈천서원(葛川書院)에 갔다.

8월 9일(임신) 따뜻하였다.

8월 10일(계유) 위와 같다. 돌아오는 길에 유월치(柳月峙)의 상주 강지주(姜至周)를 조문하고 왔다.

8월 11일(갑술) 위와 같다. 읍에 들어갔다.

8월 12일(을해) 위와 같다. 율천변(栗川邊)의 교회(校會)에 갔다가 향교에서 묵었다.

8월 13일(병자)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4일(정축) 청량하였다.

8월 15일(무인) 온화하였다. 밤에 어느 곳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우레가 쳐서 환했다.

8월 16일(기묘)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17일(경진) 위와 같다.

8월 18일(신사) 위와 같다. 순상 권석(權奭)이 본현에 도착하였다. 이날 벗인 창원의 생원 정옥(鄭{沃土} 백윤(伯潤)을 만나 함께 자리에 누웠는데 보민소(補民所)에서 묵었다.

8월 19일(임오) 온화하였다. 순상이 통영에 들어갔다. 갈천서원에 갔다.

8월 20일(계미) 해가 희미하게 나왔다.

8월 21일(갑신) 밤에 비가 잠깐 내렸다.

8월 22일(을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23일(병술)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8월 24일(정해)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이날 원향(院享)을 지냈다.

8월 25일(무자) 위와 같다.

8월 26일(기축)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7일(경인) 위와 같다.

8월 28일(신묘) 따뜻하였다.

8월 29일(임진) 구름이 끼었다.

8월 30일(계사) 따뜻하였다. 갈곡의 며느리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친정에 가기에 남촌진장(南村鎭將)에게 가마를 빌렸다.

9월 소월(小月).

9월 1일(갑오) 따뜻하였다. 시가[市直]가 쌀[米] 6말, 정조(正租) 16,17말이다. 황조(荒租)는 흑 전석(全石 20말)에 이르렀다.

9월 2일(乙未) 청량하였다.

9월 3일(병신) 밤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9월 4일(정유) 따뜻하였다. 당동(塘洞)의 빙숙(聘叔) 김유한(金有瀚)이 와서 집에서 머물렀다.

9월 5일(무술)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갈곡의 사돈어른과 임아(臨阿)가 함께 왔다.

9월 6일(기해) 온화하였다. 무과(武科) 시험이 열렸다. 상시(上試)는 대구 영장, 부시(副試)는 인동 부사(仁同府使), 참시(參試)는 자여 찰방(自如察訪), 녹명관(錄名官)은 칠포 만포(漆浦萬戶)이다.

9월 7일(경자) 바람이 많이 불었다.

9월 8일(신축) 따뜻하였다. 신임 사또로 충주 사람 무변 심격(沈激)이 부임하여 무과 시험장에 왔다.

9월 9일(임인) 구름이 끼었다. 시험이 끝났다. 장원은 단성(丹城) 권탁(權{羽+卓})이고, 병숙이 9등에 합격하였다. 사돈어른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9월 10일(계묘) 따뜻하였다.

9월 11일(갑진) 위와 같다.

9월 12일(을사)

9월 13일(병오)

9월 14일(정미)

9월 15일(무신) 위와 같다.

9월 16일(기유) 위와 같다.

9월 17일(경술) 밤에 바람이 불고 추웠다.

9월 18일(신해) 따뜻하였다. 마암(馬岩)¹²⁴ 감동(甘洞)에 가서 유숙하였다.

9월 19일(임자)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이날은 바로 사돈어른 강 생원(姜生員)이 돌아가신 기일이다. 저물녘에 만사를 지었다.

124 마암(馬岩)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馬岩面)이다. 고성읍에서 13km 동북쪽에 위치하여 동쪽은 회화면, 남쪽은 고성읍과 거류면, 서쪽은 대가면과 개천면, 북쪽은 구만면과 접하고 있다. ‘마암’이라는 명칭은 마암면 석마리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옆에 화강암으로 만든 2구의 말(馬) 조각상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이 말 조각상은 시도민속자료 제1호(경남)이다. 마을에서는 ‘마신’, ‘마장군’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암에는 구상덕의 형님이 살았고, 또한 마암에는 강수룡(姜守龍)의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데, 1756년 윤8월 7일 구상덕이 그 곳 묘소를 둘러보고 왔다.

풍류는 당세에 명망이 있었고	風流當世望
문헌은 고가의 명성을 이었어라	文獻舊家聲
조예는 비록 가르침에 힘입었지만	造詣雖資訓
온화 겸손한 덕 천연으로 이뤄졌지	和謙自渾成
학문 연마한 공 더욱 정밀하던 차	磨礱功轉密
홀쩍 세상 떠나니 이치 알기 어려워라	奄忽理難明
도산서원에서 연전에 우리 만났기에	陶院年前會
오늘 나의 슬픈 마음 한결 더하다오	增傷此日情

식후에 출발하여 세동치(細洞峙)를 넘어 가동(可洞)의 좌수 제하백(諸夏伯) 덕에서 묵었다.

9월 20일(계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갈천서원에 가서 묵었다.

9월 21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어떤 과객이 강당 벽에 쓴 시를 보고 차운하였다.

남주 어디에서 맑고 그윽한 곳 찾을꼬	南州何處覓清幽
곡구자진 ¹²⁵ 이 한 구역 산골을 차지했지	谷口子眞專一丘
완락이란 사가 있어 가난도 괴로워 않고	玩樂有辭貧不病
세상사 생각 쉬었으니 곤궁한들 무슨 걱정	趨營息慮困何憂
모래를 뚫고 나무 휘돌아 새로 길을 더 내고	穿沙繞樹新添徑
백로 친하고 물고기 보러 시내 가까이했네	狎鷺觀魚故近流
돌아보건대 내 채주 도사의 솜씨가 못 되니	顧我才非陶謝手
그대가 욕되게 창주 품평 부끄럽구려	愧君虛辱品滄洲

법천사(法泉寺)를 지나 향교에서 묵었다.

9월 22일(을묘) 가랑비가 먼지를 적시려 하기에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3일(병진) 북풍이 노한 듯이 세차게 불자 찬 구름이 달아났다. 올해는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않아 충청, 경기 지방에는 큰비가 여러 달 내려 산이 붕괴되었다. 영남은 여름에는 비록 해갈할 정도의 비가 내렸지만 끝내 충분히 내리지 않고 가을에는 또 가뭄이 들었지만, 수확하는 계절에는 사람들이 밭을 적시는 고통이 없었으니 이 정도면 좋은 듯하지만 못이 말라 물을 길는 곳이 조금 멀어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이 매우 괴로웠다. 그 때문에 오늘 눈에 물길을 열어 안으로 찬물을 끌어 집앞 연못으로 물을 댔다.

9월 24일(정사) 따뜻하였다. 와룡동(臥龍洞) 생원 이하종(李夏宗)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125 곡구자진(谷口子眞) : 서한(西漢) 정박(鄭璞)은 자가 자진(子眞)인데, 성제 때에 외척 대신(外戚大臣) 왕봉(王鳳)이 예의를 다해 초빙해도 응하지 않고 곡구에서 살면서 호를 ‘곡구자진’이라고 했다 한다. 《漢書 卷72 高士傳中》

9월 25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나는 통영에 들어갔다.

9월 26일(기미) 위와 같다. 계속 통영에 머물렀다.

9월 27일(경신) 도선(道善)에 이르러 가랑비를 만나 옷이 젖을 뻔했다. 밤에 비가 내려 땅을 적셨다.

9월 28일(신유) 새벽에 비가 잠깐 내렸다가 구름이 걷혔다. 갈천서원에 갈 때 북풍이 먼지를 걷어올렸다.

9월 29일(임술)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었다. 서원에 머물렀다.

10월 소월(小月).

10월 1일(계해) 조금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일(갑자) 따뜻하였다.

10월 3일(을축)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10월 4일(병인) 온화하였다. 두포(頭浦)에 가서 생질 이항룡(李恒龍)을 만나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10월 5일(정묘)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6일(무진) 위와 같다. 척질(戚侄) 호남 우객(寓客) 이종한(李宗韓)이 문후하러 왔다가 유숙하였다.

10월 7일(기사) 위와 같다. 이종한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현감(賢監)을 만나러 갔다가 서원의 눈에 타작하는 것을 감독했다.

10월 8일(경오) 따뜻하였다. 자화(資火)에 머물렀다.

10월 9일(신미)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0일(임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0월 11일(계유) 위와 같다.

10월 12일(갑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임아가 갈곡에 갔다.

10월 13일(을해) 새벽에 눈이 잠깐 내렸다. 식후에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10월 14일(병자) 눈이 흩날렸다.

10월 15일(정축) 따뜻하였다. 위와 같다.

10월 16일(무인) 조금 온화하였다. 이날 계동 조카 류상룡(柳尙龍)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머물렀다.

10월 17일(기묘) 위와 같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18일(경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갈천에 갔다. 한밤중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10월 19일(신사) 비가 땅을 적셨다.

10월 20일(임오) 바람이 불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1일(계미) 따뜻하였다.

10월 22일(갑신) 위와 같다. 조카 정시열(丁時說) 신행에 내가 후행(後行)¹²⁶이 되어 갔다.

10월 23일(을유) 황천(黃川)에 이르자 비바람이 크게 불었다. 급히 만마동(萬馬洞) 생원 정평(鄭坪)의 집으로 들어가 날이 개기를 기다려 출발하여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4일(병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10월 25일(정해) 위와 같다.

10월 26일(무자)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27일(기축)

10월 28일(경인)

10월 29일(신묘) 이상 모두 온화하였다. 계속 교당(校堂)에 머물렀다.

11월 대월(大月).

126 후행(後行) : 혼인 때에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상객(上客), 위요(圍繞), 요객(繞客), 후배(後陪)라고도 한다.

11월 1일(임진) 온화하였다.

11월 2일(계사) 위와 같다.

11월 3일(갑오) 아침에 비가 내렸다.

11월 4일(乙未) 따뜻하였다. 향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5일(병신) 구름이 끼었다.

11월 6일(정유) 추웠다.

11월 7일(무술) 따뜻하였다.

11월 8일(기해) 구름이 끼고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9일(경자)

11월 10일(신축) 이상 날씨가 따뜻하였다.

11월 11일(임인) 구름이 끼었다.

11월 12일(계묘) 따뜻하였다.

11월 13일(갑진)

11월 14일(을사) 온화하였다. 이날 집사와 유생들이 관문에서 석고대죄하는 일이 있었다.

11월 15일(병오) 위와 같다. 집사와 원납생(願納生) 수십 명이 태거(汰去)를 당했다.

11월 16일(정미) 위와 같다.

11월 17일(무신) 위와 같다.

11월 18일(기유) 구름이 끼고 추웠다. 근래 향교의 일로 계속 읍에 머무르다가 오늘에서야 곧바로 가리동(加里洞)에 가서 상주 백봉래(白鳳來)의 부친상을 보고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9일(경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1월 20일(신해)

11월 21일(임자)

11월 22일(계축)

11월 23일(갑인)

11월 24일(을묘) 이상 온화하였다. 칠원(漆原) 곽유덕(郭惟德)의 여중 명단(命丹, 丁酉生), 그 소생 여중 윤대(允代), 사내중 이삼(以三)과 이재(以才) 등 4명을 25냥에 사고 문서를 작성한 뒤에 물러나왔다.

11월 25일(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6일(정사) 밤에 비에 눈이 섞여 내렸다.

11월 27일(무오)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11월 28일(기미) 조금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29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晦(신유)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소월(小月)

12월 1일(임술)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시가[市直]는 조(租) 13말이다.

12월 2일(계해) 추웠다.

12월 3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4일(을축)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5일(병인)

12월 6일(정묘) 이상 온화하였다. 향교에 머물렀다.

12월 7일(무진)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8일(기사) 온화하였다.

12월 9일(경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10일(신미) 밤에 비가 내렸다.

12월 11일(임신) 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12월 12일(계유) 구름이 걷혔다.

12월 13일(갑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2월 14일(을해)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12월 15일(병자) 매우 추웠다.

12월 16일(정축)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아내가 8일부터 산후증이 있어 총백탕(蔥白湯)을 복용하고 오늘 또 점을 쳐서 수지채(隨之萃)를 얻었다.

12월 17일(무인) 온화하였다.

12월 18일(기묘)

12월 19일(경진)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20일(신사)

12월 21일(임오) 이상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2일(계미) 이날 낮이 되기도 전에 눈이 매우 두껍게 쌓이니 노인들이 모두들 본 적이 없는 광경이라고 하였다.

12월 23일(갑신) 눈이 녹지 않았다.

12월 24일(을유) 해가 나왔지만 눈이 녹지 않았다. 오늘은 양친의 회혼(回婚) 기념일이다. 아침 전에 향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말이 눈에 무릎이 빠져 다니기 어려워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술과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벗들을 초청했지만 쌓인 눈에 막혀 이웃 친척들하고만 함께 마셨다.

12월 25일(병술) 따뜻하지 않았다.

12월 26일(정해)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는데 말 무릎이 진흙에 빠져 빨리 갈 수가 없었다.

12월 27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2월 28일(기축)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9일(경인) 온화하였다. 소곡(所谷) 허서방이 신행을 갔다.

올해는 심하게 가뭄이 들었지만 가을 수확은 흉년을 면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징족(徵族)¹²⁷의 염려가 있어 마치 난리통 같았다. 시가[市直]가 정조(正租) 16,17말, 쌀[米] 6말 반이었는데, 세말에는 조 12말, 쌀 5말 반이었다. 목화는 귀했으며, 대구어 大口魚]는 1냥으로 20마리까지 살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15,16마리 정도 살 수 있게 되었고, 청어는 한 마리당 5,6푼이었다. 옛날에도 없었던 큰 눈이 내렸다.

정묘년 1747년(영조23)

1월 대월(大月). 1일 신묘. 11일 우수중(雨水中), 26일 경칩(驚蟄) 금절(今節).

2월 대월. 1일 신유. 11일 춘분중(春分中), 26일 청명(淸明) 탄절(蚕節).

3월 소월(小月). 1일 신묘. 11일 곡우중(穀雨中), 27일 입하(立夏) 사월절(四月節).

4월 대월. 1일 경신. 13일 소만중(小滿中), 29일 망종(芒種) 오절(五節).

5월 대월. 1일 경인. 15일 하지중(夏至中).

6월 소월. 1일 경신.소서절(小暑節), 16일 대서중(大暑中).

7월 대월. 1일 기축. 2일 입추절(立秋節), 19일 처서중(處暑中).

8월 소월. 1일 기미. 4일 백로절(白露節), 19일 추분중(秋分中).

9월 대월. 1일 무자. 6일 한로절(寒露節), 20일 상강중(霜降中).

10월 소월. 1일 무오. 6일 입추절(立冬節), 20일 소설중(小雪中).

11월 대월. 1일 정해. 6일 대설절(大雪節), 21일 동지중(冬至中).

12월 소월. 1일 정사. 6일 소한절(小寒節), 20일 대한중(大寒中).

올봄은 건조하여 청어의 값이 매우 싸 한 마리에 2푼이었다.

1월 대월(大月).

1월 1일(신묘) 닭 울음이 12, 13차례 들리기도 하고, 더러 15, 16차례 들리기도 했다. 사방에 구름도 없고 북풍이 잠깐 불었는데 간혹 남풍이 불기도 하였다. 이날은 별이 나 매우 온화하였다. 이날 밤에 남산(南山)의 초목에 꽃이 피고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오는 꿈을 꾸었다.

1월 2일(임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의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어제 새벽 관가에서 향을 피울 때 전직(殿直) 등이 미리 상직방(上直房)에 불을 준비했는데 제사를 지낸 뒤에 전직이 분향석(焚香席) 3엽(葉)을 방에 던지고 나가는 바람에 불이 방석에 붙어 종일 타다가 점차 벽의 서까래로 먼저 밤새도록 기둥과 들보를 태웠다. 오늘 새벽에 불빛이 밖으로 나와

¹²⁷ 징족(徵族) : 백성이 관아에 바칠 것을 바치지 않고 도망가거나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의 일가친척에서 대신 징수함.

비로소 불이 난 줄을 알고 함께 껴다고 하였다. 나막신을 신고 향교에 들어갔더니 전직 등이 이미 다 짓고 흠을 바르고 있는데 많이 퍼져 놀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1월 3일(계사) 위와 같다.

1월 4일(갑오) 부슬부슬 비가 잠깐 내렸다.

1월 5일(을미)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6일(병신) 위와 같다.

1월 7일(정유) 맑고 온화하였다. 능아(能兒)와 일아(日兒)를 데리고 산에 들어가 가섭암(迦葉庵)에서 묵었다. 임(林), 옥(玉) 두 종과 담소를 나누었다.

1월 8일(무술) 새벽에 하늘이 맑았다. 운자(韻字)를 부르자 능아(能兒)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읊조리게 하였다.

우연히 나왔다 장쾌한 바람에 후련한데	偶出開襟萬里風
게다가 동서의 좋은 벗들을 죄다 만났음에라	況逢佳友盡西東
송정 아래서 탁주 석 잔을 마시고 나서	三杯濁酒松亭下
눈 뜨고 서로 보매 온갖 상념이 사라지누나	瞪目相看百慮空

식후에 의상암(義湘庵)에 올라갔다. 저녁에 비가 내려 밤새도록 내렸다.

1월 9일(기해)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산단(山壇)에서 복을 빌고 돌아왔다.

1월 10일(경자) 온화하였다. 갈산 류매형 집에서 사위 박서방을 맞이하였다.

1월 11일(신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2일(임인) 밤에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1월 13일(계묘) 구름이 걷혔다.

1월 14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월 15일(을사) 저녁에 구름이 끼고 흐렸다. 달이 높이 떠올랐다고 하였다. 달빛이 또 붉고 밤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1월 16일(병오) 오후에 비가 그쳤다. 이날 마을 서쪽에 나무를 심는 데에 술 한 동이를 보냈다.

1월 17일(정미) 햇볕이 나왔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1월 18일(무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9일(기유) 향교에 들어갔다.

1월 20일(경술) 밤에 비가 잠깐 내렸다.

1월 21일(신해) 오후에 비가 그쳤다.

1월 22일(임자) 바람이 불었다.

1월 23일(계축) 종일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24일(갑인)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아내가 15일부터 산후증이 있었는데 엿그제부터 또 두통까지 있었다. 지금 밤이 깊어진 뒤에 포장(泡漿)이 비로소 흘러나왔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 통증이 심했다.

1월 25일(을묘) 바람이 불고 추웠다. 병세가 더욱 위급해졌다.

1월 26일(병진) 바람이 불고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산후증이 더욱 위급해졌다.

1월 27일(정사)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여러 가지로 복을 빌고 약을 썼지만 병세가 더욱 위급해져서 사내종과 말을 보내 의원을 맞이했다.

1월 28일(무오) 바람이 불고 추웠다. 죽은 태아가 뱃속에 있어 산모가 죽을 지경이라 계속 죽은 태아를 내리게 하는 약을 복용했다. 내가 수법(手法)을 써서 죽은 태아와 태를 꺼내니 비로소 희생하는 희망이 보였다.

1월 29일(기미) 바람이 불고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1월 30일(庚申) 바람이 불었다. 산후증이 거듭 일어나 보산지설탕(保產止瀉湯)을 썼다.

2월

2월 1일(신유) 서풍이 불었다.

2월 2일(임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병이 위독했다.

2월 3일(계해)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갠다. 종과 말을 보내 의원을 청했지만 오기

도 전인 신시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이날 밤에 청명하였지만 바람이 갑자기 추웠다.

2월 4일(갑자) 맑고 추웠다. 빙숙(聘叔) 인제(姻弟)가 와서 조문했다.

2월 5일(을축) 온화하고 잠깐 바람이 불었다. 빙숙은 돌아가고 인제는 그대로 머물렀다. 안정사 가섭암에 가서 지사 생원 이경래(李慶來)를 만나고 저녁에 내려왔다.

2월 6일(병인) 온화하였다.

2월 7일(정묘) 온화하였다. 인제 김광로(金光輅) 군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눈물을 닦으며 헤어지니 슬픔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2월 8일(무진) 바람이 불고 날씨가 고르지 않았다.

2월 9일(기사) 바람이 불고 추웠다. 늙노(耄奴)가 와서 계동(桂洞)의 생질녀인 허영(許瑛)의 처가 지난 4일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왔다. 아, 이 아이와 죽은 아내는 같은 나이인데 하루 차이로 서로 세상을 떠나니 더욱 가련하다.

2월 10일(경오) 바람이 불었다.

2월 11일(신미)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2월 12일(임신) 바람이 절기에 맞지 않았다.

2월 13일(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4일(갑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지사 이경래(李慶來)가 와서 묵었다. 지달해(池達海)와 백무점(白無玷) 등이 방문했다.

2월 15일(을해) 위와 같다. 지달해와 백무점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지사 이경래와 함께 포도산(蒲萄山)에 밧자리를 구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2월 16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17일(정축) 온화하였다. 또 밧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선(道善)을 빙 둘러보고 월치(月峙)를 넘어 돌아왔다. 점쟁이 백준채가 또 방문했다.

2월 18일(무인) 동풍이 구름을 불었다. 이날 낮에 읍 동문 밖 민가에 불이 나서 10여 채를 태웠다.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19일(기묘)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오후에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졌다.

2월 20일(경진) 바람이 불고 추웠다. 지사, 점쟁이와 함께 청룡산(靑龍山)에 올랐다.

2월 21일(신사) 온화하였다. 가동(可洞)에 가서 유좌(酉坐)의 산을 점지하고 돌아왔다.

2월 22일(임오) 구름이 끼고 흐렸다. 지사, 점쟁이와 함께 가섭암에 들어갔다.

2월 23일(계미) 바람이 불었다. 가섭암에 들어갔다가 지사, 점쟁이와 함께 내려왔다.

2월 24일(갑신)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점쟁이 백준채가 읍에 들어갔다.

2월 25일(을유)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지사와 함께 또 가동(可洞)에 가서 뒷자리를 보고 상주 허용(許{玉+庸})의 집에서 묵었다.

2월 26일(병술) 따뜻하였다. 갈천서원에 가서 사사(私舍)에 머물렀다.

2월 27일(정해)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그대로 서원에 머물렀다.

2월 28일(무자) 위와 같다. 돌아와 향교에서 묵었다.

2월 29일(기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또 남촌진에 가서 묵었다.

2월 30일(경인) 청명하였다. 아침에 진장(鎭將) 이동신(李東薰)을 만나고 식후에 돌아왔다.

3월 소월(小月).

3월 1일(신묘)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3월 2일(임진) 위와 같다. 남관(南關)에 가서 장례일을 정했다.

3월 3일(계사)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4일(갑오) 비가 먼지를 적셨다.

3월 5일(을미) 지달해(池達海)와 함께 가동(可洞)의 뒷자리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다.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3월 6일(병신) 저물녘에 갠다.

3월 7일(정유) 습한 구름이 개이지 않았다. 가동 유좌산(酉坐山)에 뒷자리를 파고 돌아오는 길에 허상인(許喪人)이 뒷자리를 파는 곳에 들렀다.

3월 8일(무술) 청명하였다.

3월 9일(기해) 청량하였다.

3월 10일(경자)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3월 11일(신축) 비가 저물녘에 잤다.

3월 12일(임인) 온화하였다. 갈곡 사돈어른이 왔다.

3월 13일(계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3월 14일(갑진) 사돈어른이 돌아갔다.

3월 15일(을사) 동풍이 불었다. 이 지사가 와서 머물렀다.

3월 16일(병오) 위와 같다. 점쟁이 백준채가 또 왔다.

3월 17일(정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거류산(巨流山)에 올랐다가 비를 만나 내려왔다. 오는 21일 수조(水操)는 좌우도가 함께 하는데 좌도수군을 호케하고 전병을 만드는 일은 좌병사가 동래의 중에게 담당하게 하였다. 그 때문에 오늘 동래의 중 8명이 비를 맞으며 안정사(安井寺) 방향으로 통영에 들어가려 한다고 하였다.

3월 18일(무신)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3월 19일(기유) 쾌청하였다. 송도(松道)에서 지사승(地師僧) 대인(大仁)을 만나 그곳에 유숙하였다. 이날 저물녘에 어사 한광조(韓光肇)가 서문 밖에 출두하였다.

3월 20일(경술) 따듯하였다. 어사가 죄인을 추문하여 다스리는데 우레처럼 쩌렁쩌렁하였다.

3월 21일(신해) 위와 같다. 나는 어제 향교에서 묵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에 어사가 통영에 들어갔다.

3월 22일(임자)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3월 23일(계축) 시원하게 개었다.

3월 24일(갑인) 가끔 비가 내렸다.

3월 25일(을묘) 쾌청하였다. 의상봉에 올라가 수조를 멀리 구경하고 내려왔다.

3월 26일(병진)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의령의 지사 김중하(金重廈)가 어제 와서 머물렀다.

3월 27일(정사)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김중하가 가동(可洞)의 밋자리를 보고 그곳을 취소했다.

3월 28일(무오) 구름이 끼고 흐렸으나 춥지 않았다. 이·김 두 지사와 함께 포도산에 가서 횡천(橫川) 위 임감룡(壬坎龍) 자좌오향(子坐午向) 신유득사과(辛酉得巳破)의 땅에 밋자리를 정하고 돌아왔다.

3월 29일(기미)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이 지사가 가동 어 상인의 집에 갔다가 어사가 각읍 진영장을 만류하여 흩어져 돌아가지 못하고 과치했으며, 본관 전임 유리(留吏) 박창서(朴昌瑞)가 도망쳐 뒤쫓기 위해 사방으로 나갔다고 하였다.

4월 대월(大月).

4월 1일(경신)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읍에 들어 장례일을 택하고 계동(契洞)에서 묵었다.

4월 2일(신유) 지사승 대인(大仁)을 따라 사천 고도곡(高道谷)에 이르러 비를 만났다. 잠깐 촌사에서 쉬면서 날이 개기를 기다려 길을 나섰다. 만마동(萬馬洞) 하도 곁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날이 아직 저녁도 되지 않았다. 이날 백여리를 돌아다녔다. 저녁에 또 비가 내렸다.

4월 3일(임술) 어제부터 비가 밤새토록 내려 시냇물이 비로소 흘렀다.

4월 4일(계해) 따뜻하였다. 또 지사와 함께 횡천(橫川)의 밋자리를 보러갔다가 도도암(閹屠庵)에서 묵었다.

4월 5일(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거류산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4월 6일(을축) 재종(再從) 정창래(丁昌來)의 집에서 개장(改葬)하기 위해 옛 무덤을 파냈다.

4월 7일(병인) 동풍이 불어 조금 서늘하였다. 병으로 곽란으로 앓아 누웠다.

4월 8일(정묘) 소낙비가 내리다가 잠깐 그쳤다. 정재종 집에서 묘를 이장하였다.

4월 9일(무진) 빗방울이 떨어졌다. 한 달 전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 지은 허 첨지(許僉知)의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사람 안 다닌 바윗길 지나 펼쳐진 골짜기
유람하는 나그네들 멀리서 짝지어 오누나
오래로다 천 일 동안 숲 속에 들어 있다가
홀연히 이 몸이 구층 누대에 뛰어올랐어라
안개 휘감은 고요한 절간을 실컷 보고
인간 세상 빠른 세월 하릴없이 아쉬워한다
봄바람 속 고개 돌리고 눈물을 흘리노니
몇 번이나 전쟁에 이끼가 피로 아롱졌던고

無媒巖徑洞天開
遊客尋眞兩兩來
久矣胎蟠千日鼎
忽然身上九層臺
剩看靜界煙霞繞
謾惜人寰歲月催
回首春風雙眼淚
幾番征戰血斑苔

이상은 강성주(姜聖周)가 지은 시이다.

또

한적한 이 절 다시 오니 벌써 석양이라
중들이 자리 깔고 맞아 방으로 오르라네
바위 사립 몇 갈래 길엔 숲 그림자 엇갈리고
눈 덮인 천 겹 골짜기에는 달빛이 비치누나
일에 생각이 쏠리면 마음이 종내 뜨겁고
일에 생각을 쉬면 가슴이 불시에 시원하니
어떻게 하면 이 관문을 뚫고 지나가서
눈앞의 어지러운 만사가 의미 유장하게 될꼬

蕭寺重來已夕陽
僧徒布席要登房
巖扉數徑交杉影
雪壑千重印月光
有慕心田終歲熱
休營襟韻不時涼
若爲透得雙關盡
萬事紛前意味長

이상은 전윤직(田允稷)이 지은 시이다.

4월 10일(기사) 따뜻하고 해가 나왔다. 탑릉(搭陵)에 올랐다.

4월 11일(경오) 위와 같다. 남촌에 가서 배를 빌려 돌아왔다.

4월 12일(신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또 포도도(葡萄島)에 갔다가 이태망(李太望)의 집에서 술을 빚고 돌아왔다.

4월 13일(임신) 비올 기미가 없다.

4월 14일(계유) 위와 같다.

4월 15일(갑술) 위와 같다. 황천산(橫川山)에 땅을 폈다. 매형 이여섭(李汝涉) 집에 머무르며 산역을 감독했다.

4월 16일(을해) 날이 더웠다.

4월 17일(병자) 위와 같다. 축시에 빈소를 파했다.

4월 18일(정축) 축시에 발인하였다. 배를 타고 산 아래 이르니 날이 벌서 묘시였다. 날이 더웠다. 장좌동(壯佐洞) 일꾼이 어제 산역에 가서 사초를 떠 계단을 쌓았다.

4월 19일(무인)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웠다. 오시에 하관하였다. 장좌동 30여 명과 가룡포동(駕龍浦洞) 일꾼이 또 산역에 가기 위해 사초를 가져다가 무덤을 만든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날이 이미 저물었다. 관의 길이는 포척 3자 4촌 5푼, 너비는 포척 1자, 좌자 8푼, 임 2푼이다.

4월 20일(기묘) 날이 덥고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손님이 돌아갔다. 밤에 새 산소에 도내의 여러 선비들이 다 모여 이름을 열서하는 꿈을 꾸었다.

4월 21일(경진) 비가 내려 물이 땅에서 솟아나왔다. 우제(虞祭)를 지냈다.

4월 22일(신사) 또 비가 내렸다.

4월 23일(임오) 비가 부슬부슬 내려 시냇물이 칼칼 흘렀다.

4월 24일(계미) 저물녘에 갔다. 처제(妻弟) 김광로(金光輅)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4월 25일(갑신) 날이 더웠다. 지사와 함께 벽방산에 올라갔다 왔다.

4월 26일(을유) 위와 같다. 또 지사와 함께 횡천(橫川) 산소에 갔다가 돌아왔다.

4월 27일(병술)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4월 28일(정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29일(무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4월 30일(己丑) 동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또 벽방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5월 대월(大月).

5월 1일(경인) 날씨가 서늘하였다.

5월 2일(신묘) 위와 같다. 또 지사와 함께 노수암(老壽岩)에 올랐다가 산성(山城) 고개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5월 3일(임진) 청명하였다. 옥천으로 가는 이지사에게 노자를 주었다.

5월 4일(계사) 동풍이 불었다. 갈곡 박생과 그 아들 치경(致慶)이 왔다.

5월 5일(갑오) 새벽에 갑작스럽게 비가 잠깐 내렸다. 박생(朴生)이 돌아갔다.

5월 6일(을미) 가랑비가 내렸다.

5월 7일(병신) 저녁에 有빛방울이 떨어졌다.

5월 8일(정유) 새벽에 처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5월 9일(무술) 가끔 비가 내려 이슬처럼 맺히고 해가 나서 찌는 듯이 더웠다. 이날 흰수염을 뽑았다. 마침내 동이를 두드리는 고통을 알게 되니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든다.

5월 10일(기해) 더웠다.

5월 11일(경자) 위와 같다.

5월 12일(신축) 가끔 구름이 끼었다.

5월 13일(임인) 위와 같다. 올해 일본 통신사(通信使)가 들어갔다. 지금은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물대는 농부들이 밤마다 들뜬에서 시끄러웠다. 오후에 소월암(笑月庵)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5월 14일(계묘) 하늘은 맑고 날은 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15일(갑진) 가끔 얇게 구름이 끼었다.

5월 16일(을사) 산머리에 비올 기색이 자욱하였다.

5월 17일(병오) 타는 듯이 더웠다. 거제산(巨濟山)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고 내려왔다.

5월 18일(정미) 저녁에 한 줄기 비가 내렸다.

5월 19일(무신) 찌는 듯이 더웠다.

5월 20일(기유)

5월 21일(경술) 매우 더웠다.

5월 21일(신해) 매우 더웠다. 동풍이 종일 불어 먼지를 걷으니 대지의 생명체가 말라 죽을 듯하였다. 능아와 황치흥(黃致興)을 진주 병영에 보냈다.

5월 23일(임자) 덥고 저녁에 구름이 끼었다.

5월 24일(계축) 비가 상류를 불어나게 했다.

5월 25일(갑인) 새벽에 비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해가 나와 구름이 흩어졌다. 능아가 아침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6일(을묘) 밤에 비가 내렸다.

5월 27일(병진) 비가 내려 연못이 차고 시냇물이 흐르려고 하였다.

5월 28일(정사) 비가 넉넉히 내렸다.

5월 29일(무오) 또 비가 내렸다.

5월 30일(기미)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경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갠다.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6월 2일(신유) 새벽에 또 비가 내렸다.

6월 3일(임술)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4일(계해) 비가 쏟아졌다.

6월 5일(갑자)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6월 6일(을축) 위와 같다. 시가[市直]는 보리 전석(全石 20말), 조(租) 11말, 쌀[米] 5말이다.

6월 7일(병인) 가끔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6월 8일(정묘) 아침에 가랑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자식들에게 집의 논을 김매게 하여 근면을 가르쳤다.

6월 9일(무진) 가끔 비가 내렸다.

6월 10일(기사) 비가 내렸다.

6월 11일(경오) 밤에 비가 내려 땅에 가득했다.

6월 12일(신미)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6월 13일(임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

6월 14일(계유) 비가 내려 시냇물이 불어났다.

6월 15일(갑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더니 비가 내렸다.

6월 16일(을해) 축축한 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6월 17일(병자) 새벽에 비가 잠깐 개었다.

6월 18일(정축) 더웠다.

6월 19일(무인) 위와 같다.

6월 20일(기묘) 위와 같다.

6월 21일(경진) 새벽에 비가 곧 그치고 더웠다.

6월 22일(신사) 구름이 희미하고 더웠다.

6월 23일(임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6월 24일(계미) 진해 창포(倉浦)에 가서 배수도(裴受度)의 집에서 묵었다.

6월 25일(갑신) 어제 저녁에 가랑비가 내렸다. 말을 재촉하여 창포에 들어갔다. 오늘 새벽에 빗소리가 들리더니 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식후에 쾌청해졌다. 돌아오는 길에 손만의(孫萬宜)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가리동 서재에서 묵었다.

6월 26일(을유) 날이 더웠다. 곧바로 읍내로 향했다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 내린 비를 보니 이곳은 충분히 내렸다.

6월 27일(병술) 매우 더웠다. 읍에 들어가 비장청(裨將廳)에 묵었다.

6월 28일(정해) 위와 같다. 계속 읍내에 머물렀다.

6월 29일(무자) 아침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더위는 여름이 온 이후로 가장 더웠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기축) 매우 더웠다.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연소(烟所)에서 묵었다. 유시에 일식이 있었다.

7월 2일(경인)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7월 3일(신묘) 위와 같다.

7월 4일(임진) 더웠다.

7월 5일(계사) 위와 같다. 올봄 종실 낙창군(樂昌君)이 비갈을 만들기 위해 도성 근처 산에서 돌을 채취했는데 돌에 피가 흥건하게 흐른 물건이 있었다. 석수 중에 즉사한 자가 많고 돌립병이 돌아 서울의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 중에 죽는 자가 수도 없었다. 여파가 팔도에 미쳐 감기를 앓아 쓰러지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니 괴이하다.

7월 6일(갑오) 하늘에 한 점 구름이 없었다.

7월 7일(을미) 벽방산 폭포에서 목욕을 하였다.

7월 8일(병신)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났다.

7월 9일(정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10일(무술) 약간 흐렸다.

7월 11일(기해) 위와 같다.

7월 12일(경자) 비가 때대로 내렸다.

7월 13일(신축)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7월 14일(임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7월 15일(계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올벼를 수확했다.

7월 16일(갑진) 가끔 비가 내렸다.

7월 17일(을사) 더웠다.

7월 18일(병오) 위와 같다.

7월 19일(정미) 가끔 구름이 끼었다.

7월 20일(무신) 아침에 비가 내려 밭을 적셨다.

7월 21일(기유) 가랑비가 내렸다.

7월 22일(경술) 위와 같다. 밭곡식을 충분하게 적셨다.

7월 23일(신해) 빗방울이 떨어졌다.

7월 24일(임자) 가랑비가 내렸다.

7월 25일(계축) 가랑비가 내렸다.

7월 26일(갑인) 동풍이 불고 맑았다.

7월 27일(을묘) 위와 같다.

7월 28일(병진) 아침에 구름이 끼고 낮에 해가 나왔다.

7월 29일(정사) 더웠다.

7월 30일(무오) 이슬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겼다.

8월 소월(小月).

8월 1일(기미)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겼다.

8월 2일(경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8월 3일(신유) 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8월 4일(임술) 비가 많이 내려 냇물이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8월 5일(계해) 청명하였다.

8월 6일(갑자) 맑고 온화하였다.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7일(을축)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다.

8월 8일(병인) 청명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9일(정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0일(무진) 비올 기미가 상당히 많았다.

8월 11일(기사) 오후에 비가 쏟아졌다.

8월 12일(경오) 비가 내려 시내와 도랑이 부는 바람에 길이 막혀 다니지 못했다.

8월 13일(신미) 쾌청하였다.

8월 14일(임신) 청명하고 온화하였다. 임아(臨阿)와 관아(觀阿)와 함께 종들을 데리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황천 새 산소를 성묘하고 제사를 지냈다. 제문을 짓고 다음과 같이 통곡하였다.

생각건대, 아우는 심지도 굳고 제주도 있어 이 세상에서 큰일을 이룰 것만 같았는데, 일찍이 조금도 시험해 보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매우 비통해하며 끝없이 한스러워하는 까닭이다.

나와 너는 나이는 아홉 살 차이인데, 어릴 적부터 장년이 되기까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늘 함께 다니지 않은 적이 드물었다. 지난 임인년(1662, 현종3)에는 말을 나란히 몰고 무더위 찌는 한여름 동해(東海) 바닷가에 가서 아버지께 드리기를 위한 해산물을 샀고,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강릉(江陵)에서 경관이 좋은 터를 모두 둘러보았다. 노둔한 말로 먼 길을 다니며 힘든 노고를 함께하였고 꼬불꼬불 위태한 길을 조심조심 함께 다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아버지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다.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 형제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며 온갖 고초를 겪었으니 뒷날 형제들이 차례대로 죽게 되면 필시 나를 생각하는 눈물을 내가 먼저 흘릴 것이라 여겼었다. 세상 이치가 뒤바뀌어 젊은 내가 먼저 죽고 늙은 내가 살아남아 도리어 나로 하여금 이 끝없는 슬픔을 당하게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슬프고 슬프다.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조정의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서울에 붙어살며 세상 풍진을 겪다 보니, 오래도록 집안의 모임에도 참여치 못하고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만 부질없이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광망한 천성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화란을 당하여 북쪽으로 남쪽으로 귀양살이를 한 지가 어언 다섯 해가 지났다. 땅끝 변방에서 멀리 고향쪽을 바라보며, 언덕에 올라 너를 생각하고 구름을 바라보며 너를 생각할 뿐이었다. 실로 내 잘못으로 그리워 것이니 또 누구를 탓하랴.

너는 어릴 적에 사방 유람을 해 보려는 생각이 있었다. 남쪽으로는 방장산(方丈山)을 두루 구경하고 북쪽으로는 숙신(肅愼)의 유허(遺墟)를 밟아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통쾌하게 풀어 보려고 했었다. 그러다가 곧 나는 남북으로 귀양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너는 병상에 눕게 되었으므로 멀리 유람하고자 하던 생각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매양 편지에다가, 평소 품었던 뜻을 펴 볼 기회를 놓친 아쉬움과 형인 나를 그리워하는 답답한 심정을 수없이 말하였고, 나는 장난삼아, 천리마는 늙어 마구간에 매여 있어도 마음은 항상 천리를 달리고자 한다는

말을 했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죽기 전에 임금의 은택으로 사면을 받아 고향에 돌아가서 손을 맞잡고 서로 즐거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랐었다. 그 뜻을 펴 보기도 전에 이런 끝없는 한을 남기고 네가 세상을 떠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나의 행실이 신명을 저버려서 이런 슬픈 일을 불러온 것이다.

네가 병들었을 때에는 장철(張徹)처럼 부지런히 몸소 약을 달여 너를 돌보지도 못하였고, 네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유곤(庾袞)처럼 널을 어루만지며 슬픔을 다하지도 못하였다.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몸이라 너의 장례에 가서 애통함을 펴 길도 없고, 나이는 너무 늙었기에 너의 남은 아이들을 잘 돌볼 수도 없을 것 같다. 북쪽을 바라보며 크게 부르짖으니 눈물이 샘솟듯이 흐른다.

우리 아우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정신은 날로 더욱 혼매해지고 기혈은 날로 더욱 쇠잔해지니, 인간 세상에 살아 있을 날이 오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헤아리고, 한유(韓愈)가 말한 ‘죽어서도 앓이 있다면 떨어져 있을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말을 늘 읊조리며 자신을 위로할 뿐이다.

아아, 죽었을 때에는 그 날짜를 제때에 듣지 못하였고, 장례 날짜도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끝내 나의 이 슬픈 심정을 다 펴지 못하는구나. 끝없는 이 한스러움이 어찌 다함이 있으랴. 글을 봉하고 멀리서 술을 부어 이 지극한 심정을 부친다. 말을 하자니 목이 메어 슬픔에 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네가 앓이 있거든 이 슬픈 정성을 돌아보도록 하거라.

8월 15일(계유) 저녁에 有빛방울이 떨어졌다.

8월 16일(갑술) 비가 그치지 않았다.

8월 17일(을해) 흐리고 비가 내렸다.

8월 18일(병자) 비가 내려 쾌청하지 않았다.

8월 19일(정축) 맑고 온화하였다.

8월 20일(무인) 위와 같다.

8월 21일(기묘) 따뜻하였다.

8월 22일(경진) 비가 내렸다.

8월 23일(신사)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8월 24일(임오) 위와 같다.

8월 25일(계미) 바람이 불고 날씨가 고르지 않았다.

8월 26일(갑신) 조금 서늘하였다.

8월 27일(을유)

8월 28일(병술) 이상 바람이 불고 날씨가 고르지 않았다.

8월 29일(정해) 온화하였다.

9월 대월(大月).

9월 1일(무자)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2일(기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벗 김백삼과 함께 선달 박형(朴燭) 집에서 묵었다.

9월 3일(경인) 아침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가 식후에 두포에 가서 이지사를 병문안하고 두포(頭浦), 좌수(座首) 이경석(李慶錫)의 상에 가서 조문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밤에 비가 내렸다.

9월 4일(신묘)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볕이 나오기도 하였다.

9월 5일(임진) 새벽에 비가 내리려 소리를 들었는데 밤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내가 1일 밤에 전전공공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두견새 소리를 듣고 감흥이 있어 이어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지금 기억해서 기록해둔다.

관동에 낙엽 지고 길손은 막 돌아갈 제	關東木落客初歸
옛 나루에 추위가 일어 나그네가 드물어라	古渡寒生商旅稀
바다가 하늘 끝 잇닿아 생각 함께 멀어지니	滄海極天思共遠
뿌리는 빗방울이 옷깃 적시는 줄도 잊었노라	却忘飛雨入征衣

9월 6일(계사)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강창언(姜昌彦) 군이 어제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9월 7일(갑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 지사가 병에 걸려 말에 실려왔다.

9월 8일(을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저녁에 흩어졌다. 내가 작년에 남쪽 울타리 아래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올해9개가 열렸다. 2개는 방삭(方朔)에게 돌리고 7개를 오늘 땀다.

9월 9일(병신)

9월 10일(정유) 따뜻하였다.

9월 11일(무술)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졌다.

9월 12일(기해) 온화하였다.

9월 13일(경자) 온화하고 간혹 흐렸다.

9월 14일(신축) 서풍이 불고 추웠다.

9월 15일(임인) 추웠다.

9월 16일(계묘) 바람이 불어 춥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송전(松田)에서 묘를 쓴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 민가를 철거하는 일로 관문(關文)이 내려왔다고 하였다. 통우후(統虞候)가 각색을 적간하기 위해 지금 마을 앞을 지나 진해로 향했다. 내가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시월이라 명주에 눈발이 날릴 듯하니	十月溟州雪欲飛
추운 날씨에 먼 길손 상념이 하염없어라	天寒遠客思依依
왕사가 근자에 연계 땅을 수복했다니	王師近報收燕薊
어찌하면 관문을 열고 갑옷 점검할꼬	安得開關點鐵衣

뒤에 실천하는 일이 없을 것이어서 이 또한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9월 17일(갑진) 추웠다.

9월 18일(을사) 구름이 끼고 추웠다. 도유사(都有司) 이봉징(李鵬徵)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고인과는 다르게 쓸쓸하게 살다 간 분	蕭條不與古人同
당대의 문장으로 손꼽을 자 몇이런가	當代文章數幾公
귀양살이 관직생활 금정역에서 하였지만	謫宦偶游金井驛
주위 사람 모두가 다 석문옹을 들먹인다네	鄉閭皆誦石門翁
오산의 절간에 가을 소리 들렸을 때나	烏山寺刹秋聲裏
창해에 달 밝을 때 누선 타고 놀았건만	滄海樓船月影中
어수선한 지난 일들 물으려야 곳이 없는데	錯莫前塵無處問
수유는 금년에도 거년처럼 붉었구나	茱萸應似去年紅

가서 조문하고 저녁에 계동(契洞)에서 묵었다.

9월 19일(병오) 구름이 끼었다. 저녁에 돌아왔다.

9월 20일(정미) 햇벌이 적었다.

9월 21일(무신)

9월 22일(기유)

9월 23일(경술) 이상 구름 사이로 해가 났다.

9월 24일(신해) 위와 같다. 시달촌(時達村)의 원회(院會)에 참여하고 저녁에 향교에서 묵었다.

9월 25일(임자)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26일(계축) 위와 같다.

9월 27일(갑인)

9월 28일(을묘)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9월 29일(병진) 온화하였다. 순상이 관문을 보냈다. “임금님이 말하기를, ‘근래 부정한 풍속이 자행된다는 말이 경외에서 보고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소학의 가르침이 행하지 않는 소치이다. 옛날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바로 정암선생(靜菴先生)이다.】 이 도헌(都憲)으로 있을 때 남녀가 길을 달리 하였는데, 민속의 미악은 오직 위에서 교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조로 하여금 각별하게 권과하도록 하라.’ 하였다. 지금 예조의 관문으로 인해 이렇게 관문을 보내니 각읍의 유생들에게 통지하여 사계절 초하루 강지(講紙)는 서도가 수정하여 올려보내라.” 그 때문에 본관이 오늘 강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나도 응시하기 위해 향교에 들어가니, 다만 강지만 받고 고과하지 않았다. 아, 임금님이 학교를 일으키고 풍속을 교화하는 뜻이 이처럼 간절하였는데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받들어 행하지 않고 오로지 형식에만 힘쓰니, 아, 국풍이 장차 어떻게 다시 진작되겠는가?

9월 30일(정사) 위와 같다. 향교에 머물렀다.

10월 소월(小月).

10월 1일(무오)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2일(기미)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3일(경신) 가을구름이 하늘을 가릴 듯하였다. 내일은 바로 동(栢洞)에 사는 허복(許復)의 부친 장례이다. 내가 가서 조문하였다. 또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원로 대신 다 떠나고 없으니 耆宿凋零盡
이제 누굴 믿고 산다는 말가 於今竟賴誰

순후한 풍속 멀리 다 가버리고	淳風收緬邈
다된 세상 이끌 사람 없네	衰俗失維持
수각에 별빛도 보이지 않고	壽閣星光隱
산정의 달그림자도 슬퍼라	山庭月影悲
푸른 산에 늦은 봄눈 뿌리는 날	蒼崖暮春雪
석인 장례를 그때 치렀다네	是葬碩人時

유사(有司) 강성주(姜聖周)를 대신해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하정이 돌아가고 먼지 낀 문빗장 잠겼는데	荷亭寥落鎖塵扃
또 일감정이 돌아옴을 다시 보겠네	又見春歸一鑑亭
흐르는 물과 같은 인간의 일 가련도 해라	人事可憐同逝水
드물어지는 옛 친구들 찾을 곳이 없구려	故交無處覓晨星
폭건을 깨끗하게 빨라는 유명이 슬프고	幅巾澣濯悲遺令
빈궁한 접자 생활은 옛날에 겪었으리	牒子貧窮想舊經
오직 후손이 있어 우리 세의를 이어서	惟有後曹承世好
집 뒤의 작은 고개를 신정이라 부르도다	屋頭小嶺號申丁

10월 4일(신유)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그대로 시동(柿洞)에 머물렀다.

10월 5일(임술)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6일(계해) 온화하였다.

10월 7일(갑자) 위와 같다. 마의(馬醫)에게 가서 말발굽을 치료하고 돌아왔다.

10월 8일(을축)

10월 9일(병인) 온화하였다.

10월 10일(정묘) 위와 같다.

10월 11일(무진)

10월 12일(기사) 춥고 구름이 끼어 갑자기 흐렸다. 무이산(武夷山) 당장(堂丈) 최수전(崔壽全) 씨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소년 때부터 문장에 출입한 지 오래	少年趨走門墻久
늦도록 오가면서 출처를 같이하였네	遲暮徘徊出處同
전고는 늘 무고를 연 듯 놀라웠고	典故每驚開武庫
응접은 참으로 봄바람처럼 따스하였네	接應渾似着春風

정을 담아낸 시율은 모두 숙련되었고	寫情詩律看皆熟
일을 처리하는 시구는 궁하지 않았네	料事著龜自不窮
다시 축수하는 술잔 잡을 길 이제 없으니	重把壽觴今已矣
아 만사가 하루아침에 부질없이 되었구나	却嗟萬事一朝空

10월 13일(경오) 청명하였다.

10월 14일(신미) 새벽에 이슬비가 내렸다.

10월 15일(임신) 새벽에 달이 하늘에 가득하고 서릿발이 비 오는 듯하였다. 신임 통제사 장고 태소(張公泰紹)가 오늘 부임했다. 오후에 비와 눈이 해를 모옥하며 흩뿌렸다. 갈곡 작은 사형이 방문했다.

10월 16일(계유) 박생이 돌아왔다.

10월 17일(갑술) 온화하였다. 이때 수상한 무리들이 두환(斗還)을 주장하며 백성을 선동하여 서로 모여 의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10월 18일(을해) 눈보라가 쳤다. 환곡을 많이 받아먹은 향원 10여인이 백성들을 끌고 관아에 가서 두환을 수봉하는 뜻을 충분히 하소연하였으나 사또가 거절하니 머리에 열이 났다.

10월 19일(병자) 온화하였다.

10월 20일(정축) 남풍이 세차게 불었다. 무염(無鹽)의 소식을 듣기 위해 진해로 가서 김진선(金進善) 집에서 묵었다.

10월 21일(무인)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정동(鼎洞) 인제(姻弟) 집에서 묵었다.

10월 22일(기묘)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3일(경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지사와 함께 벽방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10월 24일(신사) 온화하였다. 통영에 들어가 동교(東橋)에 묵었다.

10월 25일(임오) 계속 머물렀다.

10월 26일(계미) 우동(牛洞) 유장(鑪匠) 추금산(秋今山) 집에서 묵었다.

10월 27일(갑신)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번 악창군(樂昌君) 비석에 관한 일이 낭설로 밝혀졌다고 하였다.

10월 28일(을유) 맑고 온화하였다.

10월 29일(병술) 매우 따뜻하였다. 벗 김백삼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11월 대월(大月).

11월 1일(정해) 비가 내려 시내 도랑이 불었다. 김백삼이 계속 머물렀다.

11월 2일(무자) 저물녘에 갓다. 김백삼이 계속 머물렀다.

11월 3일(기축) 맑고 온화하였다. 김백삼의 정사운(精舍韻)에 차운하였다.

생각나네 개천사의 서쪽 우물의 동쪽	開天之西憶井東
높이 솟은 산 위에 있는 범왕의 궁전	峯嶢有此梵王宮
산이 에워싼 평야에는 흰 새벽 구름이요	山圍平野曉雲白
강이 휘도는 성근 숲엔 붉은 단풍잎이라	江遶疏林霜葉紅
상인이 오늘 노 저어 돌아가는 곳은	上人今日動歸楫
유자가 왕년에 종소리 익히 들었던 곳	遊子昔年聞鳴鍾
급제 동기생 비서는 응당 잘 계시겠지	同榜秘書應好在
조만간 서신 띄우겠다고 말 전해 주오	爲言早晚達書筒

김백삼과 함께 읍에 들어가 연소(烟所)에 묵었다. 이날 저녁을 먹다가 이를 다쳤다.

11월 4일(경인) 돌아왔다.

11월 5일(신묘) 비가 지나갔다.

11월 6일(임진)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1월 7일(계사) 조금 서늘하였다.

11월 8일(갑오) 온화하였다.

11월 9일(을미) 위와 같다. 9말의 조(租)로 시동(柿洞)에서 꿀 1통을 사서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10일(병신) 위와 같다. 생도 강창언(姜昌彦)과 함께 향교의 일로 통영에 갔다가 원문(轅門)에서 묵었다.

11월 11일(정유) 위와 같다. 통영에 청원서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생도 박사문(朴思文)의 집에서 묵었다.

11월 12일(무술) 다시 향교로 갔다.

11월 13일(기해)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4일(경자) 추웠다.

11월 15일(신축) 해가 나왔다.

11월 16일(임인) 위와 같다.

11월 17일(계묘)

11월 18일(갑진) 이상 날씨가 온화하였다.

11월 19일(을사) 매우 덥고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곧바로 그쳤다. 무지개가 동쪽에 나타났다.

11월 20일(병오) 청명하였다.

11월 21일(정미) 온화하였다. 계동(契洞)의 첨지(僉知) 유완석(柳完錫)에게 가서 조문하였다.

11월 22일(무신)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3일(기유) 위와 같다. 사천 서명익(徐命益) 군이 방문했다가 돌아갔다.

11월 24일(경술) 위와 같다.

11월 25일(신해) 구름이 끼다가 걷히다가 했다.

11월 26일(임자) 온화하였다.

11월 27일(계축)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1월 28일(갑인) 소곡(所谷) 질녀가 친정에 왔다.

11월 29일(을묘) 춥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11월 30일(병진)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내렸다.

12월 소월(小月).

12월 1일(정사) 북풍이 갑자기 불었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2일(무오) 추웠다.

12월 3일(기미) 위와 같다.

12월 4일(경신) 잠깐 비가 내렸다.

12월 5일(신유) 쾌청하고 온화하였다.

12월 6일(임술) 온화하였다. 죽은 아내의 연제(練祭)를 위해 갈곡 사형이 왔다.

12월 7일(계해) 닭이 운 뒤에 제사를 지냈다. 어제 저물녘에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오늘은 식후에 잠깐 그쳤다.

12월 8일(갑자) 이날 새벽에 천둥이 두 번 울리니 비올 기미가 상당히 많았다. 손님이 출발하지 못했다.

12월 9일(을축) 아침에 비가 자욱하게 내리다가 그치고 구름이 흩어졌다. 갈곡 사형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첨지(僉知) 박상채(朴尙采)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운명의 길 그걸 어찌 달인 향해 말하리오	命途寧向達人言
곤궁 처해 형통해야 덕 비로소 높은 거네	處困能亨德始尊
이십 년의 귀양살이 자신 잘못 아니었고	廿載荒陲非己擊
칠 년 동안 군마 탄 건 임금 은혜 위해서네	七年戎馬爲君恩
천석으로 되돌아와 잔나비 학 함께 놀고	歸來泉石從猿鶴
깊이 경전 연구하며 호헌과 짝하였네	翫繹墳經尙昊軒
지초 동산 홀연히 구름 속에 잠겼으니	一夕芝園雲永鎖
늙은 이 몸 다시는 더 깊은 의론 못 들겠네	老生無復聽深論

밤에 이슬비가 내렸다. 이번 겨울은 날씨가 춥지 않았다. 노약자일지라도 갓옷을 겹겹이 입고자 하지 않았으니 이는 필시 앞으로의 징험이다.

12월 10일(병인) 추웠다.

12월 11일(정묘) 아침에 구름이 곧바로 흩어졌다.

12월 12일(무진) 가랑비가 내려 진흙탕을 만들었다.

12월 13일(기사) 갈산에서 묵었다.

12월 14일(경오) 구름이 끼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5일(신미) 눈이 날렸다.

12월 16일(임신) 바람이 불고 추웠다.

12월 17일(계유) 위와 같다.

12월 18일(갑술) 온화하였다.

12월 19일(을해) 위와 같다. 내가 진주에 일이 있어 작동(鵲洞) 유사 이동만(李東晩) 집에서 묵었다.

12월 20일(병자) 눈이 어지럽게 내렸다. 계속 작동에 머물렀다.

12월 21일(정축) 식후에 출발하였는데 진흙길이라 말발굽이 빠져 가수(嘉樹)에서 말에 꼴을 먹이고 저녁에 갈곡 사돈택에서 묵었다.

12월 22일(무인) 온화하였다. 가리(佳里)로 돌아와서 묵었다.

12월 23일(기묘) 춥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4일(경진) 조금 추웠다.

12월 25일(신사) 춥고 눈이 어지럽게 날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26일(임오) 날씨가 매우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7일(계미) 매우 따뜻하였다.

12월 28일(갑신)

12월 29일(을유) 매우 따뜻하였다. 태(泰)·조(朝) 두 조카의 관례를 치루었다. 40여년 전에 지리를 담론한 자가 소소(召所)의 해수 때문에 읍터가 길방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약재방촌(藥材防村) 뒤에 나무를 심어 막았다. 울겨울에 중 대인(大仁)이 나무를 심은 것은 도리어 해가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믿고 백성들에게 그 나무들을 베게 하고 약간만 남겨 두었다. 전후 풍수론이 이처럼 상반되는 것은 어찌서인가? 참으로 알 수 없다. 올해 농사는 득실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지금은 시가[市直]가 정조(精租) 11말, 황조(荒租) 12말, 쌀[米] 5말이다. 청어(靑魚)는 매우 귀해서 한 마리당 2푼이었다. 대구어(大口魚)는 전(錢) 1관(貫)으로 17마리를 살 수 있었다. 지금은 말린 대구 한 마리 값이 1전(錢)이다. 일본 통신사가 지금 부산진(釜山鎭)에 있는데 각 읍에서 지공하는 자들이 세가를 사는 값이

너무 비싸고 더러는 매입하지 못하여 담벽 아래에 임시 처소를 지어놓고 살다가 얼어 죽는 자도 간혹 나온다고 하였다. 이번 세전에는 날씨가 춥지 않았다.

무진년 1748년(영조24)

1월 소월. 1일 병술. 6일 입춘절(立春節). 21일우수중(雨水中).
2월 대월. 1일 을묘. 7일 경칩절(驚蟄節). 22일춘분중(春分中).
3월 소월. 1일 을유. 7일 청명절(清明節), 8일 한식(寒食), 23일 곡우중(穀雨中).
4월 대월. 1일 갑인. 9일 입하절(立夏節), 25일 소만중(小滿中).
5월 대월. 1일 갑신. 10일 망종절(芒種節), 17일 초복(初伏), 26일 하지절(夏至節).
6월 소월. 1일 갑인. 12일 소서절(小暑節), 17일 초복(初伏), 27일 中伏. 大暑節.
7월 대월. 1일 계미. 14일 입추절(立秋節), 18일 말복(末{伏}), 30일 처서중(處暑中).
윤7월 대월. 1일 계축. 15일 백로절(白{露}節) 팔월절(八月節).
8월 소월. 1일 계미. 추분중(秋分中), 16일 한로(寒露) 구절(九節).
9월 대월. 1일 임자. 2일 상강중(霜降中), 17일 입동(立冬) 십절(十節).
10월 소월. 1일 임오. 2일 소설중(小雪中), 17일 대설(大雪) 지절(至節).
11월 대월. 1일 신해. 2일 동지절(冬至節), 17일 소한(小寒) 납절(臘節).
12월 소월. 1일 신사. 2일 대한절(大寒節), 3일 납(臘), 16일 입춘(立春) 정월절(正月節).

1월 소월(小月).

1월 1일(병술) 온화하면서 간혹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고 점점이 눈이 내리기도 했다. 갈산에서 묵었다.

1월 2일(정해)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식후에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종과 말이 내려왔기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1월 3일(무자) 매우 따뜻하였다.

1월 4일(기축) 약간 흐렸다. 계동(契洞)에 가서 묵었다.

1월 5일(경인) 집으로 돌아왔다.

1월 6일(신묘)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다.

1월 7일(임진)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1월 8일(계사) 맑았다.

1월 9일(갑오) 추웠다.

1월 10일(을미) 간혹 춥고 눈이 내렸다.

1월 11일(병신)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세전에는 추운 날이 없더니 세후에는 따뜻한 날이 없었다.

1월 12일(정유)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3일(무술) 위와 같다. 읍에 들어갔다.

1월 14일(기해)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5일(경자) 위와 같다. 달이 뜬 것이 도수에 맞는다고 하였다. 마을 앞길을 수리했다.

1월 16일(신축) 잠깐 비가 내렸다. 저물녘에 갔다. 저물녘에 월식(月食)이 있었다.

1월 17일(임인) 바람이 불고 추웠다. 내일이 바로 강창언(姜昌彦) 군 부친의 장례일이다. 내가 정내서(丁來瑞)와 함께 가서 조문하고 다음과 같이 만사를 지었다.

관서 지방 천 리라서 오가는 길 멀고 멀어	關西千里道路脩
형제들을 그리느라 새로 시름 더하였네	思兄憶弟添新愁
타향 땅서 지는 해에 돌아갈 맘 끊기었고	殊方落日歸心絕
피차간에 이쪽 저쪽 소식 통할 길 없었네	彼此消息通無由
얼마 뒤에 임진년의 크나큰 난리 나매	無何壬辰遭大亂
왜적들 몰아쳐 와 바다 고을 유린했네	劇賊長驅攔海陬
장수들 도망쳐서 성이 모두 무너지니	主將竄走列城崩
누가 투지 불태우며 복채 손에 잡으리오	何人厲氣能援枹

1월 18일(계묘)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돌아오는 길에 수다리(水多里)에 들어가 표잔우탕(豹殘牛湯)을 얻어 구웠다. 감치(甘峙)에 이르렀는데 내가 뒤쳐져 채진호(蔡震湖)의 집에 유숙하였다.

1월 19일(갑진) 조금 따뜻하였다. 저녁에 향교에서 묵었다.

1월 20일(을사)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통신상사(通信上使) 홍공 계희(洪公啓禧), 부사 조공(曹公)■, 종사관 남공 태기(南公泰耆)가 이달 8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12일에 배를 출발시킬 예정인데 일본 사신이 예단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길을 나서지 않고 문을 닫고 나오기 않았다. 그 때문에 통신사가 그대로 부산에 머물러 있으니 각읍의 지공을 두 번이나 정하여 오늘 본읍의 하인이 출발했다.

1월 21일(병오) 온화하였다. 저녁에 크게 우레가 치니 빗줄기가 여름 같았다.

1월 22일(정미) 쾌청하였다.

1월 23일(무신)

1월 24일(기유) 온화하였다. 진주(晋州) 승산(勝山)¹²⁸의 생도 이익(李翊)이 방문했다가 유숙하였다.

1월 25일(경술) 구름이 끼었다. 내가 이생의 강요로 동행하여 통영에 들어갔다. 속임수로 성에 들어가 현사에서 묵었다. 밤에 크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손녀딸이 세전부터 감기를 앓았는데 오늘 자시에 요절하였다. 고작 2살이었다. 곧바로 대동(垓洞) 선영 옆에 묻어 주었다.

1월 26일(신해) 식후에 비가 그쳐 길을 다닐 수 있었다. 이생을 데리고 백화당(百和堂)에 가서 통제사를 만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사문의 수졸들이 몰려와 내쫓으므로 영내에 받을 불일 수 없었다. 저물녘에 우동(牛洞) 촌가에 나가 묵었다.

1월 27일(임자) 온화하였다. 이생이 발병으로 함께 가기 힘들어 안정사에서 함께 묵었다.

1월 28일(계축) 구름이 끼었다. 이생은 절에 계속 머물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1월 29일(갑인) 서풍이 불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가 유숙하였다.

2월 대월(大月).

2월 1일(을묘)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2월 2일(병진) 추웠다.

2월 3일(정사) 죽은 아내 김씨의 첫 기일이다.

2월 4일(무오) 약간 흐렸다.

2월 5일(기미)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2월 6일(경신)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7일(신유) 비가 냇물을 불어나게 했다.

2월 8일(임술) 비가 저물녘에 갓다.

128 승산(勝山): (지명)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승산동에 있는 산.

2월 9일(계해) 따뜻하였다. 재종 정창래, 지사 이경래와 함께 포도산을 구경하고 송태순(宋太純) 집에서 묵었다.

2월 10일(갑자) 약간 흐렸다. 망일봉(望日峯)에 올랐다가 빙 둘러 봉대산(烽臺山)에 이르렀다. 바람이 불고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김노성(金老成)의 집에서 묵었다.

2월 11일(을축) 비가 그쳤다. 당동서재와 장의암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2일(병인) 구름이 끼었다. 이지사는 사천으로 가고, 나는 읍에 들어갔다가 비에 막혀 유숙하였다.

2월 13일(정묘) 오후에 잠깐 개었다. 갈산(葛山)에 나가 묵었다.

2월 14일(무진) 집으로 돌아왔다.

2월 15일(기사) 또 비가 내렸다.

2월 16일(경오) 쾌청하였다. 지사인 선산 사람 김성건(金成健, 21세)이 북면에서 왔는데 함께 산에 올라가서 두루 감상하고 내려왔다. 계속 머물렀다.

2월 17일(신미) 따뜻하였다. 또 김성건과 함께 팔천산(八泉山)을 가상하고 돌아왔다.

2월 18일(임신)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려 하였다. 전날 이익견(李翊見)이 준 절구시에 화답한 것을 기록해둔다.

고루에 올라 조망하니 하늘 위에 오른 듯	高樓登眺若登天
경물이 현란하게 뒤에 있다가 홀연히 앞에	景物紛然後忽前
바람과 달이 맑은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風月雙清是今古
산과 내는 십 리에 걸쳐 한복판과 변두리에	山川十里自中邊
가을 깊은 관도엔 단풍나무 어른어른	秋深官道映紅樹
날 저무는 어촌엔 흰 연기 모락모락	日暮漁村生白煙
객자 길게 읊조리며 시를 짓지 못했는데	客子長吟詩未就
원님이 마침 연회를 열고 불러주셨도다	使君尊俎秩初筵

대개 이생이 중매를 한다는 약속을 하기에 내가 이것을 주어 장난을 쳤다. 가랑비가 내렸다.

2월 19일(계유) 이날 밤에 달이 밝고 바람이 시원하니 슬픔을 이길 길이 없다.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사방에 호시를 쏘았던 당년의 그 뜻이여	弧矢當年志四方
지금 사명 받들고 요행히 중국을 관광하네	如今奉使幸觀光
제비 꼬리처럼 나뉜 강은 천참을 이루고	江分燕尾成天塹
용처럼 서린 산은 궁궐 담장을 에워쌌네	山似龍蟠遶苑牆
오색구름 열리며 황궁이 우뚝 서 있고	金碧雲開尊象魏
기라는 바람에 펄럭이며 도로를 비추네	綺羅風動照康莊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신경의 뛰어난 제도	神京制度超前古
향인에게 설명하려면 말을 길게 해야 하리	說與鄉人語合長

2월 20일(갑술) 온화하였다. 남촌진 김세주(金世周)의 집에 가서 김성건(金成健)을 만나고 그대로 군관청(軍官廳)에 유숙하였다.

2월 21일(을해) 위와 같다. 김성건과 면화잠(綿花岑)에 올랐다가 내려왔다. 나는 취해서 허만장(許萬章) 집에서 묵었다.

2월 22일(병자) 위와 같다. 김성건, 별감 배순명(裴舜明)과 함께 당동서재에서 함께 숙박했다.

2월 23일(정축) 위와 같다. 김성건 등과 횡천의 신산(新山)을 감상하고 별감 배순명(裴舜明)의 집에 머물렀다.

24일(무인) 위와 같다. 또 김성건 등과 당고개(堂古介)를 감상하였다. 마을 뒤편에 기둥을 세웠다. 안정사에서 묵었다.

2월 25일(기묘) 바람이 불고 맑았다. 뽕뽕히 돌아갔다. 갈곡 사돈어른이 왔다.

2월 26일(경진) 위와 같다. 읍에 들어갔다가 취해서 돌아오지 못했다.

2월 27일(신사)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밤에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황궁의 붉은 담 휘황하게 비추는 밀랍 촛불	煌煌蠟炬照彤牆
재촉하는 물시계 소리 속에 새벽이 밝아오네	宮漏聲催動曙光
의장대(儀仗隊)는 궁정의 상하에 도열하고	彩仗分開庭上下
자포는 궁전 중앙에 드높이 팔짱을 끼셨도다	赭袍高拱殿中央
사방의 나라가 제항하며 바치는 옥과 폐백	梯航玉帛通蠻貊
예악과 의관이 한당보다도 훨씬 뛰어나도다	禮樂衣冠邁漢唐
조회가 끝나고 잔치를 다시 내려 받았나니	朝罷更叨霑錫宴
동풍이 따스히 부는 속에 새해 술을 마셨노라	東風吹暖泛椒觴

밤에 비가 내렸다.

2월 28일(임오) 날이 개기도 하다가 비가 내리기도 했다.

2월 29일(계미)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2월 30일(갑신) 가끔 해가 나오기도 하더니 비가 오히려 부슬부슬 내렸다.

3월 소월(小月).

3월 1일(을유) 비가 내렸다. 김성건(金成健)이 배 별감 집에서 와서 그대로 유숙하였다. 올 봄 해삼과 달합이 너무 싸니 근래에 없던 일이다.

3월 2일(병술) 비가 내려 내에서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3월 3일(정해) 비가 그치지 않았다.

3월 4일(무자) 잠깐씩 비가 내리다가 개다가 하였다. 크게 지진이 일어났다. 김성건과 함께 벽방산에 올라 사망 1자 쌓인 눈을 구경하였다.

3월 5일(기축) 청명하였다. 김성건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종을 보내 두포(頭浦)까지 호송하니, 김성건은 나이가 어려 아꼈 만한 사람으로 풍수가의 우면마시(牛眠馬嘶)의 주장을 일찍부터 담론했지만 학업을 버리고 멀리 놀러갔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혹 마음을 바꾸어 화정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는 봄비가 많이 내려 시내와 도랑이 어지럽게 흘렀다. 황어(黃魚)가 신리(新里)¹²⁹ 앞 시내까지 이르니 아이들이 다투어 잡느라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3월 6일(경인) 위와 같다. 송정(松亭)에 갔다가 취해서 돌아왔다.

3월 7일(신묘) 가랑비가 내렸다.

3월 8일(임진)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3월 9일(계사) 어제부터 내린 비가 계속 그치지 않아 시내 도랑이 넘쳐 흘러 들로 범람했다. 봄비가 이와 같으니 실로 이상하다.

3월 10일(갑오) 새벽에 처마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종일 구름 끼어 축축하더니 석양이 잠깐 나타났다.

3월 11일(을미) 구름이 흩어졌다.

129 신리(新里)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신리이다.

3월 12일(병신) 가랑비가 내렸다.

3월 13일(정유) 비가 시원하게 그치지 않았다.

3월 14일(무술) 닭이 울기 전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아 담파(痰破)¹³⁰를 피웠다. 이때 동풍이 불고 찬비가 흠뻑렸다. 개구리 울음소리에 감흥이 더욱 일었다.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서생이 먼 길 내내 말을 몰아 왔으니	書生驅馬儘悠悠
우정에서 하루쯤 머물러도 좋으렸다	好向郵亭一日留
산세를 멀리 공평히 나누는 푸른 이내요	嵐翠平分山勢遠
버들가지에 막 올라와 떠도는 봄빛이라	春光初上柳梢浮
긴 하천 방초에는 날 개었다 비 내리고	長川芳草晴還雨
기름진 들판의 곡식은 풍년을 예고하네	沃野嘉禾歲有秋
그야말로 주민들이 성덕을 그리워하는데	正是居民懷盛德
문황은 무슨 일로 이 구석까지 행차했나	文皇何事到荒陬

3월 15일(기해) 새벽에 달이 밝으니 여러 생명체들이 다투어 울었다.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또 절구 1수를 읊었다.

동쪽은 말갈 북쪽은 유연과 접하는 곳	東連靺鞨北幽燕
기름진 땅 질펀하게 해변까지 펼쳐졌네	沃壤漫漫跨海堧
훈구의 세신(世臣)이 그동안 막부를 열고	勳舊向來開幕府
회유했을 뿐 원래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懷綏元不用戈鋌
뿔피리에 바람 부니 매화가 처음 지고	風吹畫角梅初落
붉은 기에 해 비치니 불이 타오를 듯	日映朱旗火欲燃
중국의 명성과 위용을 멀리까지 떨쳤으니	漢代聲容無遠近
천교가 변방을 감히 넘볼 수 있었으랴	天驕那得敢窺邊

아침에 돌아가는 제비를 보고 또 절구 한 수를 읊조렸다. 이날 밤에 북풍이 불고 한기가 겨울과 같았다.

3월 16일(경자) 초목 가운데 여린 것은 추위에 마르고 시들었다. 근래 두창이 크게 번져 두 딸이 지금 또 앓아 누웠다.

3월 17일(신축) 새벽에 서리가 내려 흔적을 남겼다. 얇게 얼음이 또 얼었다. 한 딸아이의 두창이 심했다.

130 담배 : 세속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痰)을 제거할 수 있다 하고, 따라서 담배를 담파고(痰破姑)라 부른다. ‘담파고’는 포르투갈어의 tabacco[담배]에서 온 것인 듯하다.

3월 18일(임인) 서리가 내렸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통신사의 선박이 대마도에 이를 즈음에 화재를 당하여 세 사람이 죽고 배에 실은 예물인 인삼 80여 근과 도졸의 복장 40여 사도 다 불에 탔다. 그 때문에 본도에 관문을 보내 속히 소실된 물자를 준비해 보내라고 하였다. 셋째 딸의 두창이 심했다.

3월 19일(계묘) 밤에 비가 내렸다.

3월 20일(갑진) 이슬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3월 21일(을사) 저녁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사내중 사읍진(沙邑進)이 지나가는 여자를 얻어 처로 삼았다.

3월 22일(병오) 비가 질펀하게 내렸다.

3월 23일(정미) 구름이 짙게 끼었다.

3월 24일(무신) 위와 같다. 저물녘에 갓다.

3월 25일(기유) 맑았다.

3월 26일(경술) 서리가 내려 흔적을 남겼다.

3월 27일(신해)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서신을 보냈다.

3월 28일(임자)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3월 29일(계축) 비가 그치지 않았다.

4월 대월(大月).

4월 1일(갑인) 구름이 흩어졌다.

4월 2일(을묘) 매우 따뜻하였다.

4월 3일(병진) 위와 같다. 내가 어선(漁善)에 가서 심동선(沈東先)의 집에 머물렀다.

4월 4일(정사) 우룡치(牛龍峙)를 넘으니 빗방울이 갑자기 떨어져 우서방 집에 목었다. 이날 밤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작은 집에 병으로 누워 있는데 괴로움이 천만이었다.

4월 5일(무오) 비가 또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 출발하지 못했다.

밤에 또 크게 우레와 천둥이 쳤다.

4월 6일(기미) 비가 또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오후에 창포(倉浦)에 가서 창고지기 고유성(高有成) 집에서 묵었다. 이때 비가 또 부슬부슬 내렸다.

4월 7일(경신) 쾌청하였다. 아침에 창포 도청(都廳) 정여설(鄭汝高)을 만나 딸아이에 관한 점을 쳤더니 기구한 팔자가 되는 것이었다. 좌화진(佐火津)에 도착하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 배를 타고 가기에는 위태로웠다. 산을 빙 돌아 성송포(城松浦)를 지나 자화촌(資火村)에 이르자 서풍이 불어 한바탕 이슬비를 보냈다. 저녁에 시동 강서방 집에서 묵었다.

4월 8일(신유) 하늘이 맑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사내중 천삼(千三) 등 2명이 마마에 걸려 잇달아 요절하니 너무도 놀랍다.

4월 9일(임술) 날씨가 따뜻했지만 약간 흐렸다.

4월 10일(계해) 오후에 비가 내렸다.

4월 11일(갑자) 어제부터 비가 밤새토록 내리고 하루 종일 내리더니 또 밤까지 계속 내렸다.

4월 12일(을축) 비가 그치지 않아 들판에 물이 넘쳐흘렀다.

4월 13일(병인) 저녁에 안개처럼 산에 비가 내렸다.

4월 14일(정묘) 낮에 가랑비가 내렸으나 밤에는 하늘이 맑았다.

4월 15일(무진) 비가 때때로 가늘게 내렸다.

4월 16일(기사) 동풍이 불고 희미하게 해가 나왔다.

4월 17일(경오) 구름이 끼었다.

4월 18일(신미)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4월 19일(임신) 온화하였다. 상번군(上番軍)이 쥐와 족제비가 서로 싸운 것에 대해 말해주었다.

4월 20일(계유) 온화하였다. 계집종 소옥(小玉)이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이때 오랫동안 비가 내린 뒤라 보리이삭 중에 마른 것도 많고 또 이면충(二眠蟲)만큼 큰 청황색 해충이 나와 이삭과 줄기, 잎을 먹어치웠다. 그리고 올해 이양한 벼가 대부분 절로 사라져 한섬의 판에 거의 없는 것도 있고 반 정도 남아 있는 것도 있었다. 그 때문에 즉시

다시 이양한 자들이 매우 많았다. 다만 이 골짜기 안은 유독 심한 피해를 편했다. 그러나 집집마다 더러는 2,3말을 다시 심었는데, 우리집도 찰조 1말을 다시 심었다. 시임 좌수 조희룡(趙希龍)이 영창(營倉)의 환곡을 그대로 나누는 일로 상사(上使)에게 곤장 10대를 맞았다.

4월 21일(갑술) 따뜻하였다.

4월 22일(을해) 청량하였다. 이지사, 매형 이여섭, 정재종 등과 함께 포도산에 갔다가 좌화진(佐火津)을 건너 우룡산(牛龍山)에 오른 다음 어선촌(漁善村)의 민가에서 묵었다.

4월 23일(병자) 약간 흐렸다. 노완도(盧完道)의 집에서 아침을 먹고 돌아왔다. 통신사가 배를 출발시킬 때 상사를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고 한다.

얼굴 맞댄 우리 형제 즐거움이 진진하다	弟兄相對樂怡怡
발 내리고 등불 아래 밤 깊도록 앉아서	簾閣懸燈坐夜遲
강평하는 작품들이 하나같이 특별한데	一席講評皆格外
창 밖의 매화향기 백사의 시 그대롤세	梅花香韻白沙詩

부사는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한음 농부 기심(機心)이 오래전에 사라졌고	灌園久息漢陰機
증점의 기수(沂水) 목욕 사모하여 마지않네	捨瑟長懷曾點沂
푸른 옷에 꿰옥 찬 유생에게 고하거니	寄語青青衿珮子
한평생 마음가짐 나와 함께 하였으면	百年心事要同歸

시의 의미가 아름다운 것에 차운하여 억지로 지었다.

4월 24일(정축) 종 김순(金順)이 माम에 걸렸다. 형님이 백성의 폐해에 관한 일로 어제 순영에 갔다.

4월 25일(무인) 근래 해가 밝지 않았다.

4월 26일(기묘)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27일(경진) 비가 내렸다.

4월 28일(신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4월 29일(임오) 바람이 불고 맑았다. 오늘은 바로 죽은 아내 박씨의 기일인데 계실 김씨의 답사(禫事)를 함께 지냈다. 낮에 가랑비가 내렸다. 쌀과 보리를 수확했다.

4월 30일(계미) 갈산에 가서 호남 사람 지사 오익우(吳益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대로 유숙하였다. 밤에 비가 내렸다.

5월 대월(大月).

5월 1일(갑신) 저물녘에 갔다. 시내 도랑이 어지럽게 흘렀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은 뒤에 또 갈산에 가서 유숙하였다.

5월 2일(을유) 해가 나왔다. 오지사, 최우선(崔善餘), 백명흡(白命翁)과 동행하여 이치(梨峙), 화리치촌(禾里峙村)에서 점심을 먹었다. 취령(鷲嶺)에 올라가 임감룡(壬坎龍) 자좌오향(子坐午向)에 나무를 꽂아두고 밤에 돌아와 갈산에서 묵었다.

5월 3일(병술) 위와 같다. 또 지사 및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산세를 두루 감상하고 오지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5월 4일(정해) 맑았다. 오지사와 함께 통영에 들어갔다.

5월 5일(무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5월 6일(기축) 가리재(加里齋)에 가서 묵었다.

5월 7일(경인) 비가 몇 방울 떨어졌다. 이지사와 우산(牛山)¹³¹에 올라갔다가 돌아왔다.

5월 8일(신묘) 동풍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9일(임진) 구름이 흩어졌다.

5월 10일(계사) 비가 잠깐 떨어졌다.

5월 11일(갑오) 잠깐씩 비가 내리다가 개다가 하였다.

5월 12일(을미) 해가 나왔다.

5월 13일(병신) 구름이 끼고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5월 14일(정유) 위와 같다.

5월 15일(무술) 위와 같다.

131 우산(牛山)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에 있다.

5월 16일(기해) 한쪽에서는 해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비가 내렸다.

5월 17일(경자) 가랑비가 오락가락했다.

5월 18일(신축)

5월 19일(임인)

5월 20일(계묘) 이상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읍에 들어갔다.

5월 21일(갑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2일(을사) 더웠다. 큰 딸이 한 달 전부터 병이 나서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5월 23일(병오) 동풍이 불었다.

5월 24일(정미) 새벽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내가 성조축문(成造祝文)과 토지축문(土地祝文), 제사 없는 귀신에게 주는 축문을 지어 격양편(擊壤篇) 끝에 써놓았다.

5월 25일(무신) 청량하였다.

5월 26일(기유)

5월 27일(경술) 아버님에게 노직 교지가 내려왔다.

5월 28일(신해) 접고 흐린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올해 보리농사가 좋지 못했다.

5월 29일(임자)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5월 30일(계축) 남풍이 불고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6월 소월(小月).

6월 1일(갑인)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다.

6월 2일(을묘) 구름이 많았다.

6월 3일(병진) 더웠다. 내가 병을 앓았다.

6월 4일(정사) 잠깐씩 해가 났다가 비가 내리다가 하였다.

6월 5일(무오) 이날 밤에 송정(松亭)에 사는 상주 허중(許琮)에게 가 상(喪)을 마치는 것을 보았다.

6월 6일(기미) 남풍이 불어 안개를 걷었다. 나는 감기로 점차 괴로웠다.

6월 7일(경신) 잠깐 비가 내렸다.

6월 8일(신유) 구름이 끼었다.

6월 9일(임술) 한밤중에 비가 뿌렸다.

6월 10일(계해)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6월 11일(갑자) 서풍이 불고 쾌청하였다.

6월 12일(을축) 바람이 불고 맑았다. 오늘은 우리 마을이 집집마다 불안하여 복을 빌려고 하였다.

6월 13일(병인)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6월 14일(정묘)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아관(阿觀)이 9일부터 병으로 신음했다.

6월 15일(무진) 가끔 햇볕이 나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밤에 점쟁이를 불러 고목 아래에서 독경(讀經)하게 하였다.

6월 16일(기사) 비가 내리다가 해가 나왔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6월 17일(경오) 위와 같다. 사내종 정필광(丁必光)이 죽었다.

6월 18일(신미) 아버님이 임시거처로 갔다.

6월 19일(임신) 바람과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갈산 사람의 가마가 와서 어머니가 임시거처로 갔다.

6월 20일(계유) 아버님도 갈산의 임시거처로 갔다. 밤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6월 21일(갑술) 오전에 비가 쏟아졌다.

6월 22일(을해) 날이 더웠다.

6월 23일(병자) 위와 같다.

6월 24일(정사) 위와 같다.

6월 25일(무인) 위와 같다.

6월 26일(기묘) 흐리고 더웠다. 오후에 비가 쏟아져 시내가 불어났다.

6월 27일(경진) 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나는 겨우 차도를 보였다. 서읍 포구에 옛 날에는 우모태(牛毛苔)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포구에 길게 퍼져 근처 사람들이 뜯어다 쌓아놓고 가난한 자들은 이것이면 점심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니 괴이하다. 무슨 징조인가?

6월 28일(신사) 가랑비가 간혹 지나갔다. 찌는 듯이 더울 때 나왔다.

6월 29일(임오) 구름이 끼어 가끔 흐렸으나 날이 더웠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계미) 더웠다.

7월 2일(갑신) 밤에 나뭇잎 사이로 빗소리가 지나는 것을 들었는데 날이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3일(을유) 소낙비가 내렸다.

7월 4일(병술) 새벽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더니 낮이 되자 그쳤다.

7월 5일(정해) 저녁에 소낙비가 내렸다.

7월 6일(무자) 비가 잠깐 개었다.

7월 7일(기축) 동풍이 불고 더웠다.

7월 8일(경인) 위와 같다.

7월 9일(신묘) 위와 같다. 처음으로 머리를 빗었다.

7월 10일(임진) 위와 같다.

7월 11일(계사) 구름이 봉우리를 만들었다.

7월 12일(갑오)

7월 13일(을미) 비가 잠깐 내렸다.

7월 14일(병신) 구름이 끼었다.

7월 15일(정유) 북쪽 하늘에 천둥이 쳤다.

7월 16일(무술) 더웠다.

7월 17일(기해)

7월 18일(경자) 이상 모두 위와 같다.

7월 19일(신축) 동풍이 불고 매우 더웠다. 큰 콩은 약간 손실이 났다.

7월 20일(임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7월 21일(계묘) 위와 같다. 어머니가 임시 처소에서 짐을 챙겨 돌아오셨다.

7월 22일(갑진) 위와 같다. 아버님이 임시 처소에서 짐을 챙겨 돌아오셨다. 이날 저녁 서쪽 하늘에 빗줄기가 풀어헤친 수염 같았는데, 이산은 석양이 있어 여전히 탈 듯하다.

7월 23일(을사) 날씨가 매우 더워 사람들이 모두 쓰러졌다.

7월 24일(병오) 오후에 가랑비가 내렸다.

7월 25일(정미) 밤기운이 청량하였다.

7월 26일(무신) 위와 같다.

7월 27일(기유) 근래 바람이 서늘하고 날씨가 건조하여 비 올 기미가 전혀 없다. 밭벼가 많이 손상되고 논은 말라 갈라졌다.

7월 28일(경술) 바람이 먼지를 일으켜 수판(水板)을 만들었다.

7월 29일(신해)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 풀잎에 이슬이 없었다.

7월 30일(임자) 벽방산에 기우제를 지내고, 처음으로 벼를 수확했다. 형제, 아들, 조카와 함께 해탕(海湯)에서 목욕하고 돌아왔다.

윤7월 대월(大月).

윤7월 1일(계축) 바람과 날씨가 전과 같았다. 오늘 기우제를 정문(政門) 밖에서 크게 치를 것이기 때문에 울천(栗川)에 시장을 열었다. 나는 병이 난 뒤로 이번에 처음 외출하여 시장에 이르렀다가 바로 읍에 들어갔다 돌아왔다.

윤7월 2일(갑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7월 3일(을묘) 바람 소리가 우레처럼 크고 먼지 색깔이 연기처럼 희미했다. 뜬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말렸다가 퍼졌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나는 읍에 들어갔다. 중이 낫으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구경했는데 한편으로는 우습고 한편으로는 불쌍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윤7월 4일(병진) 바람과 날씨가 위와 같다.

윤7월 5일(정사) 위와 같다.

윤7월 6일(무오) 바람이 잠깐 그쳤다.

윤7월 7일(기미) 오후에 천둥이 치더니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물길이 있는 곳은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거북등처럼 갈라진 땅에는 겨우 뿌리만 적실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

윤7월 8일(경신) 동북풍이 불어 뜬구름이 말렸다가 퍼졌다가 하였다. 이날 저물녘에 초가지붕을 말아 올리듯 세게 불었다.

윤7월 9일(신유) 가끔 빗방울이 떨어져 먼지를 적셨다. 통신사가 동래에 정박했다고 하였다. 올해 남북국이 모두 왕후를 잃었다.

윤7월 10일(임술) 아침기운이 청량하였다. 베로 만든 갓옷이 매우 가벼웠다.

윤7월 11일(계해) 오전에 한쪽은 산에 비가 내리고 한쪽은 찌는 듯이 더웠다. 오후에 구름이 걷혔다.

윤7월 12일(갑자) 하늘은 맑고 날은 더웠다.

윤7월 13일(을축) 구름이 비로소 북쪽을 향하고 낮에 비가 내려 땅을 적시다가 밤에 비로소 흥건하게 내렸다. 큰아이가 갈곡으로 갔다.

윤7월 14일(병인) 오후에 비가 그쳤다. 들판에 촉촉하게 젖었다.

윤7월 15일(정묘) 서남풍이 불었다. 큰아이가 돌아왔다.

윤7월 16일(무진) 날이 화창하고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윤7월 17일(기사)

윤7월 18일(경오) 동풍이 불고 가끔 구름이 끼었으며 날씨가 청량하였다.

윤7월 19일(신미) 위와 같다. 도선(道善)의 동촌서재(洞村書齋)에서 지사 오익우(吳益祐)를 만나고 저녁에 돌아왔다.

윤7월 20일(임신) 동풍이 불었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7월 21일(계유) 동북풍이 서늘하게 불고 구름 색도 좋지 않았다. 늦벼가 대부분 이삭이 패지 않았다. 호남 의객(醫客) 이인화(李寅和)와 나이삼(羅以參)을 읍내에서 만나 그대로 읍내에 묵었다.

윤7월 22일(갑술) 구름이 끼었다.

윤7월 23일(을해) 구름이 짙게 끼어 말렸다가 퍼졌다가 하였다. 빗방울이 간혹 떨어졌다. 저녁이 되자 쾌청하게 개었다. 이날 교지가 내렸는데 연경에서 온 소식이다. 첫 구절은 “길이 곤재를 생각하니 봉휘의 슬픔이 깊고, 멀리 성초(星軹)를 끄니 참으로 시호를 주는 은전을 본다.”는 내용이다. 나는 그대로 향교에 머물렀다.

윤7월 24일(병자)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윤7월 25일(정축)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윤7월 26일(무인) 가랑비가 때때로 내렸다. 시가는 쌀 5말, 조 14말이다.

윤7월 27일(기묘) 새벽에 비바람이 숲에 가득한 소리를 들었다. 아침에 산골짜기를 보니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 내가 들어 나갔다가 다룡동(多龍洞) 논에 이르니 멀리 한 부인이 보였다. 시냇길을 따라 논 언덕을 지나 이삭을 주워 치마에 싸다가 나를 돌아보고는 급히 달아났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여인은 본래 거지가 아닌 줄 알았으니 슬프다. 만약 그 집 가장이 살아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과부로 곤궁하게 살다보니 수치도 예의도 없어졌으니 가련하다. 이날 저물녘에 큰 호랑이가 실성하여 마을과 들에서 포효하는 바람에 원근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잠깐 인정(人定)에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마을에 암소와 수소가 사립문을 뚫고 마을을 나가 사람들이 또다시 놀라 물건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소를 찾아 온 뒤에 한 바탕 웃고 흠어졌다.

윤7월 28일(경진)

윤7월 29일(신사) 동풍이 불고 날씨가 온화하였다.

윤7월 30일(임오) 날씨가 청량하였다. 동풍이 먼지를 일으켰다.

8월 소월(小月).

8월 1일(계미) 비가 내리고 동풍이 불었다.

8월 2일(갑신) 바람이 불고 비가 그치지 않더니 밤이 되자 더욱 세차게 불었다. 밤중에 비가 그치고 바람도 멎었다.

8월 3일(을유) 축축하게 구름이 끼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식후에 쾌청하였다.

8월 4일(병술) 서풍이 불고 맑았다.

8월 5일(정해) 잠깐 비가 내렸다.

8월 6일(무자) 바람이 불고 맑았다.

8월 7일(기축) 위와 같다.

8월 8일(경인) 바람이 없었다.

8월 9일(신묘)

8월 10일(임진) 서풍이 불었다.

8월 11일(계사) 가끔 비가 내렸다.

8월 12일(갑오) 동풍이 불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8월 13일(을미) 바람이 불고 비가 또 내렸다.

8월 14일(병신) 가랑비가 그치다가 내리다가 하였다. 횡천(橫川)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8월 15일(정유)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따뜻하였다. 아버님이 머리에 옥색 두건을 두르고 허리에 붉은 띠를 차고 직접 대동(垓洞)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친인척이 모여 잔치를 열었다. 저물녘에 돌아와 밤에 또 잔치를 열고 술을 마셨다.

8월 16일(무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갈산에 가서 묵었다.

8월 17일(기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오지사(吳地師), 벗 최석권(崔錫權), 이국삼(李國森)과 함께 포도산에 갔다가 승철(承哲)의 집에서 숙박하였다. 이날 밤에 바람 소리가 크게 났다.

8월 18일(경자) 구름이 걷히고 바람이 청량하였다. 횡천(橫川)을 지나 좌화천(佐火川)으로 가서 김노적(金老迪) 집에서 묵었다. 이날 저녁에 구만(九萬)에 사는 생원 최석몽(崔錫夢)이 와서 함께 잤다. 벗 최권(崔權)이 전도(錢島)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8월 19일(신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새벽에 나루를 건너 어선(漁善)에서 아침을 먹고 산에 올라가 뿔터를 찾고 내려왔다. 웅곡(熊谷)의 최·오 두 사람과 구만(九萬)에 갔다가 이우(李友)와 함께 두포(頭浦)로 돌아와 묵었다.

8월 20일(임인) 잠깐 비가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1일(계묘) 구름이 끼었다.

8월 22일(갑진) 위와 같다. 내가 80세 노모를 두고 죽은 이만엽(李萬葉)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한 치 풀은 아침 이슬을 노래키고 늙은 노모는 석양에 슬피 운다는 구절이었다.

8월 23일(을사) 서풍이 불고 비가 내려 잠깐 먼지를 적셨다.

8월 24일(병오) 따뜻하지 않았다.

8월 25일(정미) 서리가 내릴 기색이 다분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26일(무신) 서리가 내려 흔적을 남겼다.

8월 27일(기유) 위와 같다.

8월 28일(경술) 위와 같다.

8월 29일(신해) 위와 같다. 계속 향교에 머물렀다.

9월 대월(大月).

9월 1일(임자) 청량하였다. 향교에 머물렀다.

9월 2일(계축) 위와 같다. 순찰사 남태량(南泰良)이 남해 금산(錦山)을 유람하다가 장독(瘴毒)에 걸려 병을 얻었다. 가볍게 달릴 수가 없어 가마를 타고 사천을 통해 본현에 들어왔다.

9월 3일(갑인) 위와 같다. 순상이 가마를 타고 진해로 갔다.

9월 4일(을묘)

9월 5일(병진)

9월 6일(정사)

9월 7일(무오) 위와 같다.

9월 8일(기미) 춥지 않았다. 가리동 서재에 가서 숙박하였다.

9월 9일(경신) 따뜻하였다. 계속 머무르며 백일장을 열어 생도들을 시험보게 했다.

9월 10일(신유)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식후에 잠깐 그쳤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11일(임술) 따뜻하였다. 이지사와 함께 무기정에서 묵었다.

9월 12일(계해) 매우 따뜻하였다. 이지사와 함께 박선달(朴先達)의 며느리 산소를 새로 정하는 데 갔다가 류월치(柳月峙)의 강유사(姜有司) 집에서 묵었다.

9월 13일(갑자)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계속 유촌(柳村)에 머물렀다.

9월 14일(을축) 하늘이 맑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또 비가 내렸다.

9월 15일(병인) 동풍이 불고 비가 을씨년스럽게 내렸다. 들판에 쓰러진 벼를 수확하였는데 시내에 잠긴 것이 많았다.

9월 16일(정묘) 추웠다. 하일(下一)에 갔다.

9월 17일(무진) 구름이 끼고 추웠다. 고연리(古延里)에 계속 머물렀다.

9월 18일(기사)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19일(경오) 위와 같다.

9월 20일(신미) 가끔 얇게 구름이 끼었다. 형제와 큰 아이, 이지사와 함께 도선(道善)의 산소를 보고 돌아왔다.

9월 21일(임신) 따뜻하였다.

9월 22일(계유)

9월 23일(갑술) 並위와 같다.

9월 24일(을해) 위와 같다.

9월 25일(병자) 매우 따뜻했다. 한편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한편에는 햇볕이 내리쬐었다. 나는 밤이 깊도록 잠이 들지 못했다. 이웃의 다듬이 소리를 듣고 감흥이 있어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온갖 욕심 백방으로 한 마음 공격하니	衆慾交攻一箇心
누라서 선한 본심 보존할 수 있으랴	誰人不喪本來心
도끼질에 시달려도 나무에선 움이 트니	斧斤山木猶萌蘖
이른 아침 살펴보라 이 마음 선한 것을	試向平朝看此心

9월 26일(정축) 엷은 구름이 잠깐 걷혔다.

9월 27일(무인) 위와 같다.

9월 28일(기묘) 위와 같다. 갈산의 벗 최석유(崔錫裕)의 봄제사에 갔다가 유숙하였다.

9월 29일(경진) 따뜻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30일(신사) 구름이 끼고 촉고 북풍이 불었다.

10월 소월(小月).

10월 1일(임오) 동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추웠다.

10월 2일(계미) 북풍이 불어 조금 서늘했다.

10월 3일(갑신) 위와 같다.

10월 4일(을유) 따뜻하였다.

10월 5일(병술) 구름이 뽀뽀하게 끼더니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잠깐 햇볕이 나왔다가 흐렸다가 하였다.

10월 6일(정해) 약간 눈이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7일(무자) 약간 흐렸다. 돌아왔다.

10월 8일(기축) 따뜻하였다.

10월 9일(경인)

10월 10일(신묘) 이상 위와 같다.

10월 11일(임진) 비가 먼지를 적셨다.

10월 12일(계사) 청량하였다. 큰아이를 사천에 보내 혼처를 알아보게 하였다.

10월 13일(갑오) 강창언(姜昌彦) 군이 지나던 길에 방문하였다.

10월 14일(을미) 새벽에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10월 15일(병신) 서북풍이 불어 추웠다. 큰아이가 사천에서 돌아왔다.

10월 16일(정유) 북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파산에 갔다가 진해에서 묵었다.

10월 17일(무술) 매우 추웠다. 파산 윤상신(尹商臣)의 집에서 묵었다.

10월 18일(기해) 바람과 날씨가 어제에 비해 조금 풀렸다. 백사(白沙)에 사는 송여욱(宋汝旭)의 집에서 묵었다. 이날 밤에 객사에서 잠깐 잤는데 찬바람이 불어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달빛이 깜박거리고 눈이 흘날렸다.

10월 19일(경자) 북풍이 불어 춥고 조각구름이 떠다녔다. 남산 이진채(李震采)에게 들러 말에 꼴을 먹이고 출발하여 저녁에 작동(鵲洞)에서 묵었다. 이날 북풍이 노한 듯이 세차게 불어 산의 나무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날씨가 매우 추워 길 가는 이들이 빠르게 걸었다.

10월 20일(신축) 구름이 끼고 추웠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첨지(僉知) 최진종(崔震宗) 씨의 궤연(几筵)에 조문하고 돌아왔다.

10월 21일(임인) 갑자기 따뜻해졌다. 통영에 들어갔다.

10월 22일(계묘)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23일(갑진) 갈곡의 사돈어른이 왔다.

10월 24일(을사) 따뜻하였다.

10월 25일(병오) 사돈어른이 돌아갔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26일(정미) 해가 나왔다.

10월 27일(무신) 흐렸으나 따뜻하였다.

10월 28일(기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정재종이 초전(草田)에서 머느리를 맞이하였다.

10월 29일(경술) 약간 흐렸으나 온화하고 밤에 자주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곧바로 사라졌다. 서풍이 잠깐 불었다.

11월 대월(大月).

11월 1일(신해) 서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상인 박이문(朴以文)을 조문하고 돌아왔다.

11월 2일(임자) 새벽에 바람이 세차게 불자 구름이 사라지고 별빛이 서로 비추었다. 동지의 밤기운이 이와 같으니 길조는 아닌 듯하다.

11월 3일(계축) 구름이 끼었다. 큰아이가 갈곡으로 가기 위해 계동(契洞)에서 숙박하였다.

11월 4일(갑인) 조각구름이 끼었다.

11월 5일(을묘) 빗방울이 떨어졌다.

11월 6일(병진) 추웠다.

11월 7일(정사) 조금 따뜻하였다.

11월 8일(무오)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9일(기미) 북풍이 불고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왔다.

11월 10일(경신)

11월 11일(신유)

11월 12일(임술) 이상 날씨가 조금 풀렸다.

11월 13일(계해) 조금 추웠다.

11월 14일(갑자) 북풍이 불더니 갑자기 하늘이 맑고 추웠다.

11월 15일(을축) 더욱 추웠다.

11월 16일(병인) 조금 추위가 풀렸다.

11월 17일(정묘)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당회(堂會)에 참석했다. 계속 머물렀다.

11월 18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향교에 머물렀다.

11월 19일(기사) 온화하고 동풍이 잠깐 불었다. 김태욱(金兌郁) 집의 장례를 조문하고 돌아왔다.

11월 20일(경오) 조금 서늘하였다.

11월 21일(신미) 춥지도 않고 온화하지도 않았다. 지난 17일에 큰 아이와 조카 류상경(柳尙敬)을 진해에 보냈는데 오늘 오후에 돌아왔다.

11월 22일(임신)

11월 23일(계유)

11월 24일(갑술)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사내종을 보내 군포(君浦)에 편지를 전하게 하였다.

11월 25일(을해) 위와 같다.

11월 26일(병자)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27일(정축) 날씨가 어제처럼 춥지 않았다.

11월 28일(무인)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11월 29일(기묘) 위와 같다. 아관(阿觀)이 가리동(佳里洞)에서 독서하였다.

11월 30일(경진) 서풍이 불었지만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2월 소월(小月).

12월 1일(신사) 서풍이 불고 구름이 짙게 끼었다. 흠비가 안개처럼 내렸다.

12월 2일(임오) 서풍이 불었다.

12월 3일(계미) 구름이 끼고 흠비가 내렸다.

12월 4일(갑신) 위와 같다.

12월 5일(을유) 새벽이 되자 구름이 흩어지고 흠비가 연기처럼 자욱하여 먼 곳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날씨는 2월처럼 따뜻했다.

12월 6일(병술) 온화하고 얼음이 녹았다.

12월 7일(정해) 동풍이 불었다.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그쳤다.

12월 8일(무자) 동풍이 불고 밤에 비가 내렸다.

12월 9일(기축)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작은 연못이 갑자기 불어났다.

12월 10일(경인) 북풍이 불어 날씨가 추웠다.

12월 11일(신묘) 북풍이 불어 날씨가 추웠다. 장녀 사위 이유춘(李囿春) 희백(熙伯)을 맞았다.

12월 12일(임진) 매우 추웠다. 아버님이 장수하여 받은 교지를 축하하기 위한 잔치를 열고 악기를 번갈아 연주하고 여러 손님들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내가 시를 지었다.

산림에서 늙어가며 마음대로 드나드니	投老山林自往回
사슴들이 놀라고 의심할 리 있으랴	何曾麋鹿妄驚猜
나귀 내려 새 못의 주변 따라 거닐고	下驢便繞新池水
지팡이 찾아들고 옛 낚시터 찾아가네	覓杖先尋舊釣臺
창포 잎이 돋으려니 농사일 시작되고	菖葉欲生農已起
버들가지 꽂고 나니 보슬비 뿌리누나	柳枝纔插雨隨來
늦봄이 되었어도 꽃구경 괜찮으니	不妨花事今春晚
내 발걸음 기다린 듯 연달아 꽃이 피네	正待吾行續續開

좌중에서 지은 화답시를 중뢰연(重牢宴) 시집 책에 적었다.

12월 13일(계사) 갑자기 따뜻해졌다. 손님들이 돌아갔다.

12월 14일(갑오) 추웠다. 매를 가져왔다.

12월 15일(을미) 서풍이 불었다.

12월 16일(병신) 매를 풀어 꿩을 잡았다.

12월 17일(정유) 매를 풀어 꿩을 잡았다.

12월 18일(무술) 서풍이 불었다. 사또의 요구가 있어 매를 관에 보냈다.

12월 19일(기해) 파산 사람 술사 이만근(李萬根)이 왔다.

12월 20일(경자) 술사 이만근이 돌아갔다.

12월 21일(신축) 이지사와 김지사가 함께 와서 유숙하였다.

12월 22일(임인)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김지사가 작별하고 떠났다.

12월 23일(계묘) 추웠다. 관에서 아버님께 쌀과 고기를 보냈다.

12월 24일(갑진) 이지사와 함께 도선(道善)에 갔다가 가배량촌(加背梁村)의 황진적(黃進赤) 집에서 묵었다. 이 행차에 아승(阿升)이 따라갔다. 두포 이매형과 이재종, 벗 이국삼(李國森)이 동행하였다.

12월 25일(을사) 구름이 끼고 추웠다. 제동포(諸洞浦)에 이르러 구경하고 돌아왔다.

12월 26일(병오) 북풍이 불었다. 두포(頭浦)에 사는 상주 이정룡(李挺龍) 모부인의 첫 번째 기일에 가서 조문하였다.

12월 27일(정미) 매우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8일(무신) 북풍이 불었다.

12월 29일(기유) 동풍이 불다가 간혹 북풍이 불었지만 추위는 맹렬하지 않았다.

올여름 가뭄은 근래 없던 것인데 논곡식은 그다지 마르지 않고 소출도 충실하였으니 중간 정도의 풍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밭 곡물은 크게 손상되어 목화는 처음에 매우 무성하다가 가을비로 인해 많이 손상되어 수확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1관에 13,14근을 살 수 있었고, 세말에도 10근을 내려가지 않았다. 필목이 가는 것은 1관 8전에 불과했고, 농포는 1관 2,3전에 불과했다. 겨울에도 매우 심하게 가뭄이 들었지만 논에는 습한 땅이 없었다. 대구어는 1관에 11,12마리를 살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10마리 이내로 줄었다. 청어는 처음에는 매우 비쌌는데 지금은 한 마리 값이 6,7푼이다. 시가[市直]가 초가을에는 정조(正租) 15,16말, 쌀[米] 6말이었는데, 지금은 정조 13,14말, 쌀 5말 반이다.

기사년 1749년(영조25)

1월 소월(小月). 1일 경술. 2일 우수중(雨水中). 17일 경칩(驚蟄). 二節.

2월 대월(大月). 1일 기묘. 3일 춘분중(春分中). 19일 한식(寒食), 청명(淸明) 삼절(三節).

3월 대월. 1일 기유. 4일 곡우중(穀雨中), 19일 입하(立夏) 사절(四節).
 4월 대월. 1일 무인. 6일 소만중(小滿中), 22일 망종(芒種). 오절(五節).
 5월 소월. 1일 무신. 7일 하지중(夏至中), 23일소서(小暑). 육절(六節).
 6월 대월. 1일 정축. 4일 초복(初伏), 10일 대서중(大暑中), 25일 입추(立秋) 칠절(七節).
 7월 대월. 1일 정미. 4일 말복(末伏), 11일 처서중(處暑中), 26일 백로(白露) 팔절(八節).
 8월 소월. 1일 정축. 12일 社秋分中, 27일 한로(寒露) 구절(九節).
 9월 대월. 1일 병오. 13일 상강중(霜降中), 28일 입동(立冬) 십절(十節).
 10월 대월. 1일 병자. 13일 소설중(小雪中), 28일 대설(大雪) 지절(至節).
 11월 소월. 1일 병오. 13일 동지중(冬至中), 27일 소한(小寒). 12일節.
 12월 대월. 1일 을해. 9일 臘, 13일 대한중(大寒中), 28일 입춘(立春) 정월절(正月節).

을해 겉보리가 조금 풍년이 들어 시가[市直]가 25말이다. 소맥(小麥 밀)은 매우 귀해서 시가가 6말이다.

1월 소월(小月).

1월 1일(경술) 새벽에 하늘이 청명하였다. 북풍이 불다가 서풍이 불다가 하고 가벼운 안개가 끼었다. 서북쪽에 조금 흐린 기운이 있었다. 닭 울음이 6, 7차례 넘지 않았다. 해가 막 떠오를 적에 구름을 띠고 서북쪽에서 흰 안개와 같이 올랐다. 잠깐 그들이 지려다가 검은 조각구름을 만들기도 하면서 일어나는 듯 멈추는 듯했다. 날씨가 온화하였다.

1월 2일(신해) 맑고 온화하였다.

1월 3일(임자) 서풍이 잠깐 불었다. 얇게 구름이 끼고 날이 흐려지려 하였다. 이오징(李五徵) 군의 편지를 받았다. 저녁이 되어 여러 손님을 대동하고 돌아왔다.

1월 4일(계축) 맑고 온화하였다. 손님들이 돌아갔다.

1월 5일(갑인) 온화하였다.

1월 6일(을묘) 서풍이 불었다.

1월 7일(병진) 서북풍이 불었다. 이날 밤 자시와 축시에 맑은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렸다.

1월 8일(정사) 서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1월 9일(무오)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1월 10일(기미) 서북풍이 불었다.

1월 11일(경신) 서풍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향교에 들어가서 일을 보았다.

1월 12일(신유) 저물녘에 동운(同雲)이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3일(임술) 구름이 뻑뻑하게 끼더니 가랑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밤에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밝았다.

1월 14일(계해) 새벽부터 다시 흐려지더니 밤에 처마에서 낙숫물이 떨어졌다.

1월 15일(갑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가 다 사라졌다. 북풍이 노한 듯이 세차게 불었다. 사내종과 말을 군포에 보냈다.

1월 16일(을축) 북풍이 불어 춥고 구름이 끼었다. 이서방이 왔다.

1월 17일(병인) 북풍이 불어 추웠다.

1월 18일(정묘) 추위가 잠깐 누그러졌다. 두포(頭浦) 이매형 집에서 고읍(古邑)에서 박서방을 맞이했다.

1월 19일(무진)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성산(省山)에 가서 송씨의 딸을 얻을 것을 점쳤다.

1월 20일(기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성산에 머물렀다.

1월 21일(경오) 새벽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출발하여 영현(永縣) 시냇가를 지나는데 빗방울이 떨어져 갈천서원에서 말에게 꼴을 먹이고 저녁에 향교에 들어갔다. 사내종과 말을 보내 집으로 돌아왔다.

1월 22일(신미) 청명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태질(泰侄)이 신행을 갔다. 이날 밤에 빗발이 치고 천둥소리가 자주 들렸다.

1월 23일(임신) 새벽에 또 천둥번개가 치더니 이어 동풍이 불고 이슬비가 내렸다. 가끔 햇볕이 나기도 했다.

1월 24일(계유) 습한 구름이 이슬처럼 맺혔다. 갈곡의 사돈어른이 왔다.

1월 25일(갑술)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1월 26일(을해) 빗방울이 떨어졌다. 사돈어른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나는 향교에 들어갔다.

1월 27일(병자) 동풍이 불었다. 이서방이 돌아왔다.

1월 28일(정축) 하늘이 맑았다.

1월 29일(무인) 동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추웠다. 장의 최중약(崔重若)이 공무를 보았다.

2월 소월(小月).

2월 1일(기묘) 비가 자욱하게 내렸다.

2월 2일(경진) 청량하였다. 눈 쌓인 광산(匡山)¹³²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사내종과 말이 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2월 3일(신사) 위와 같다. 이날은 죽은 아내 김씨의 두 번째 기일이다. 저녁에 향교에 갔다. 순찰사 민백상(閔百祥)이 경주부윤에서 승진하여 이 달 초 길일에 순영에 가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2월 4일(임오) 구름이 짙게 끼었다.

2월 5일(계해) 새벽에 구름이 활짝 열리니 아침해가 밝게 떠올랐다. 현임 도유사 최숙(崔壽)이 전해 준 학동(鶴洞) 양진현(養眞軒)의 시를 읊기에, 내가 차운하였다.

산으로 돌아와 날마다 거니노니	還山無日不閒行
흰 바위 맑은 샘이 도처에 빛나누나	白石清泉到處明
시골 벗의 시통엔 세속의 일 전혀 없고	野友詩筒非俗事
이웃 승의 채소 한 줌 인정이 느껴지네	鄰僧菜把見人情

2월 6일(갑신) 맑고 온화하였다. 석채례(釋菜禮)를 행하기 위해 재실에 모였다. 이날 저물녘에 삼성(參星)이 달 앞에서 조금 빛났다.

2월 7일(을유)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2월 8일(병술)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2월 9일(정해) 북풍이 불었다.

2월 10일(무자) 밤에 따뜻하였다.

2월 11일(기축) 흠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흐렸다.

2월 12일(경인) 위와 같다.

132 광산(匡山) : 이백(李白)이 일찍이 은거(隱居)하여 글을 읽었던 대광산(大匡山)을 가리키는데, 두보(杜甫)의 <불견(不見)> 시에, “광산의 글 읽던 곳으로, 머리 희었으니 좋이 돌아올지어다.[匡山讀書處 頭白好歸來]”라고 하였다.

2월 13일(신묘) 동풍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2월 14일(임진) 빗방울이 떨어졌다.

2월 15일(계사) 매우 따듯하고 해가 나왔다.

2월 16일(갑오) 위와 같다.

2월 17일(을미) 위와 같다.

2월 18일(병신) 위와 같다.

2월 19일(정유) 비가 잠깐 내렸다.

2월 20일(무술) 매우 청명했다. 교서가 반사되었다. “1월 27일에 동궁으로 하여금 정사를 듣게 할 것이니, 병조와 형조 외에는 모두 전결을 듣도록 하라.”는 내용이였다.

2월 21일(기해)

2월 22일(경자) 집으로 돌아왔다. 성산(省山) 사람이 왔다.

2월 23일(신축) 구름이 짙게 끼었다. 수로왕릉(首露王陵)이 이유 없이 구멍이 뚫렸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전묘를 계문하여 오늘 수축을 위한 향축이 내려왔다고 하였다.

2월 24일(임인) 비가 내려 샘물이 갑자기 통하였다.

2월 25일(계묘) 구름이 뽁뽁하게 끼었다가 저녁에 흩어졌다. 향교에 들어갔다.

2월 26일(갑진) 온화하였다.

2월 27일(을사) 밤에 잠깐 비가 내렸다.

2월 28일(병오) 운무(雲霧)가 온 산을 휘감았다. 가랑비가 자욱하게 내렸다.

2월 29일(정미) 찬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2월 30일(무신) 북풍이 불고 구름이 끼고 추웠다.

3월 소월(小月).

3월 1일(기유) 북풍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3월 2일(경술) 북풍이 불었다. 읍저에 가서 상주의 생원 이한진(李漢鎭)을 만났다.

3월 3일(신해) 청량하였다.

3월 4일(임자) 흐렸다.

3월 5일(계축) 동풍이 불고 큰비가 내렸다. 순찰사 민백상(閔百祥)이 사천에서 비를 맞으며 본현에 들어왔다.

3월 6일(갑인) 비가 오지 않았다. 순상이 거제(巨濟)로 향했다.

3월 7일(을묘) 날씨가 화창하였다.

3월 8일(병진) 따뜻하였다.

3월 9일(정사) 위와 같다. 순찰사가 통영에서 와서 관리와 각색(各色)의 죄를 다스렸는데 형벌을 받지 않는 자가 드물었고 더러는 옥에 갇히기도 했다. 오후에 순찰사가 진해현으로 향했다. 밤이 되자 구름이 많이 일어났다.

3월 10일(무오) 비가 내렸다.

3월 11일(기미) 바람이 약해져 구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3월 12일(경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았다.

3월 13일(신유) 따뜻하였다.

3월 14일(임술) 잠깐 비가 내렸다.

3월 15일(계해) 약간 흐렸다. 큰아이가 갈곡에 갔다.

3월 16일(갑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자 비가 많이 내렸다.

3월 17일(을축) 저물녘에 구름이 사라졌다.

3월 18일(병인)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렸다.

3월 19일(정묘) 식후에 서풍이 구름을 불어 한 차례 소낙비를 뿌렸다. 잠깐 햇볕이 나왔다

가 흐렸다가 하였다. 오후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떨어져 구슬이 구르는 듯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치고 녹아서 물이 되어 흘렀다. 저녁에 또 해가 나고 맑아졌다가 북풍이 불고 검은 구름이 끼더니 날씨가 조금 서늘하였다.

3월 20일(무진) 햇볕은 적고 구름은 많았다. 잠깐 비가 내렸다.

3월 21일(기사) 구름이 끼었다.

3월 22일(경오)

3월 23일(신미) 우박이 떨어졌다.

3월 24일(임신) 따뜻하였다. 재종 정래서(丁來瑞)와 함께 상리(上里) 세교(細橋)의 동지 최섬(崔暹)의 장례에 가서 유숙하였다.

3월 25일(계유) 따뜻하였다. 동지 최섬의 만사를 지었다.

관서 있을 때부터 명성 울연 높았거니	自在關西苑有聲
무슨 덕교 시행하여 화평 시절 오게 했나	行何德教致和平
한 구역의 꽃과 대는 그 모두가 운곡이고	一區花竹皆雲谷
백 리에 울린 현가 무성과 흡사했네	百里絃歌幾武城
효자는 본디부터 싸움 임해 용감했고	孝子元來臨戰勇
현인들은 대부분 곤경 처해 형통했네	賢人大抵處屯亨
가끔 북쪽 바라보며 내 경하를 올렸거니	有時北望方遐祝
오늘 아침 전영하는 꿈꿀 줄은 몰랐다고	豈意今朝夢奠楹

이날 저녁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마지막 구에서 언급한 것이다. 끝난 뒤에 향교로 돌아왔다.

3월 26일(갑술) 어제부터 비가 밤새도록 내려 도랑에서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3월 27일(을해) 먼 산의 푸른색이 차츰 아지랑이를 들렀다.

3월 28일(병자) 숲의 나무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3월 29일(정축) 가랑비가 내렸다.

4월 대월(大月).

4월 1일(무인) 가랑비가 잠깐씩 내렸다.

4월 2일(기묘)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3일(경진) 잠깐 비가 내리더니 그쳤다.

4월 4일(신사) 서늘하였다.

4월 5일(임오) 온화하였다. 아산(牙山) 사람 지사 김상적(金尙績)이 어제 왔다가 오늘 갔다.

4월 6일(계미) 흐리고 흠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7일(갑신) 서풍이 불고 흐리고 흠비가 내렸다. 어제에 비해 더해 사람들이 안개속을 다니는 듯했고, 꽃은 노안으로 보는 것과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8일(을유) 위와 같다. 밤에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4월 9일(병술) 비가 그치지 않았다.

4월 10일(정해) 비가 저물녘에 맑았다. 이때 향교 유생 중에 봉수(烽隊) 직역을 받게 된 사람이 있어 관에 논보(論報)하는 글을 지었다.

4월 11일(무자) 저물녘에 구름이 사라졌다.

4월 12일(기축) 집으로 돌아왔다. 이지사가 또 옥천(沃川)에서 와서 머물렀다.

4월 13일(경인) 안개가 사라졌다. 향교에 들어갔다.

4월 14일(신묘)

4월 15일(임진) 서늘하였다.

4월 16일(계사) 가랑비가 먼지를 적시려 하기에 집으로 돌아왔다.

4월 17일(갑오) 청명하였다.

4월 18일(을미) 향교에 들어갔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19일(병신) 조금 흐리다가 밤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4월 20일(정유)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4월 21일(무술) 이슬비가 진흙탕을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4월 22일(기해) 오후에 구름이 사라지고 해가 나왔다. 조운(漕運)하는 사람에게 주는 시를 지었다.

영남의 광객이 맑은 유람 좋아하니	嶺南狂客喜清遊
호해에 구름장 두터워 때는 가을일레	湖海層陰接素秋
아스라이 맑은 빛은 죽서로 이어지고	迢遞晴光連竹嶼
영롱하게 차가운 해는 송루에 어리누나	玲瓏寒日映松樓

4월 23일(경자) 구름이 끼고 해가 나왔다.

4월 24일(신축) 위와 같다.

4월 25일(임인) 동풍이 불다가 남풍이 불다가 서풍이 불더니 가랑비가 내렸다. 이슬비가 내리다가 간혹 소낙비가 내렸다. 비록 근원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물대기에는 그 정도로 충분했다. 저녁이 되자 비가 그치고 바람도 그쳤다.

4월 26일(계묘) 날씨가 조금 서늘하였다.

4월 27일(갑진) 구름이 많았다.

4월 28일(을사) 흐렸다가 해가 나왔다가 했다.

4월 29일(병오) 밤이 되자 가랑비가 내렸다.

4월 30일(정미) 짙은 안개가 흩어지지 않더니 빗방울이 가끔 떨어졌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소월(小月).

5월 1일(무신) 구름이 사라졌다.

5월 2일(기유) 약간 흐렸다.

5월 3일(경술)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4일(신해)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5일(임자) 비가 내려 논을 적셨다.

5월 6일(계축)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갓다. 관에서 실시한 백일장에 태(泰)·관(觀) 두 아이가 응시하였다.

5월 7일(갑인) 가끔 구름이 끼었다.

5월 8일(을묘) 비가 내려 축축하였다.

5월 9일(병진) 구름이 걷혔다.

5월 10일(정사) 빗발이 날렸다.

5월 11일(무오)

5월 12일(기미) 비가 내렸다.

5월 13일(경신) 비가 쏟아졌다. 시내가 시끄럽게 소리 내며 흘렀다.

5월 14일(신유) 오후에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났다.

5월 15일(임술) 비가 더욱 쏟아졌다.

5월 16일(계해) 오후에 비가 그쳤다.

5월 17일(갑자) 쾌청하였다. 신임 사또로 무변 이천(利川) 사람 이정순(李徵淳)이 부임하였다. 유리 박상일(朴尙逸), 좌수 배순명(裴舜明), 별선(別宣) 이명진(李命震)과 성구봉(成九鳳)이다.

5월 18일(을축) 아침 전에 신임 사또가 성인을 참배하였다. 또 비가 내렸다.

5월 19일(병인) 가랑비가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0일(정묘) 찬비가 내렸다.

5월 21일(무진) 아침에 여전히 가랑비가 내렸다.

5월 22일(기사)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5월 23일(경자) 비가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5월 24일(신미) 맑고 온화하였다.

5월 25일(임신) 비가 내렸다.

5월 26일(계유) 새벽에 동이로 붓듯 비가 내려 시내 도랑이 넘쳤다.

5월 27일(갑술) 비가 쏟아졌다.

5월 28일(을해) 아침 해가 구름을 뚫고 나왔다. 가랑비가 가끔 날렸다.

5월 29일(병자) 저녁에 가랑비가 가끔씩 내렸다.

6월 대월(大月).

6월 1일(정축) 남풍이 불고 햇볕이 나와 더웠다. 저녁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2일(무인) 밤에 비가 또 쏟아지듯 내렸다.

6월 3일(기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해가 나왔다.

6월 4일(경진) 가랑비가 이따금 내렸다.

6월 5일(신사) 구름이 짙게 끼었다. 가랑비가 이따금 내렸다. 아관(阿觀)이 옥천의 거접하는 장소에서 돌아왔다.

6월 6일(임오) 짙은 안개가 걷히지 않더니 가랑비가 자욱하게 내렸다.

6월 7일(계미) 찌는 듯이 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8일(갑신) 위와 같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9일(을유) 위와 같다.

6월 10일(병술) 소낙비가 잠깐 내렸다.

6월 11일(정해) 저물녘에 번개가 쳐서 번쩍번쩍 했다.

6월 12일(무자) 남풍이 불고 맑았다.

6월 13일(기축) 근래 바람이 많이 불었다.

6월 14일(경인) 風日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새로 임명된 도유사 노옥(魯玉)이 공무를 보았다.

6월 15일(신묘) 찌는 듯이 더웠다.

6월 16일(임진) 매우 더웠다.

6월 17일(계사) 하늘은 맑고 날은 더웠다. 아관이 다시 거접하는 장소로 가게 되어 접중(接中)에 편지를 썼다.

6월 18일(갑오) 서산에 비가 지나갔다.

6월 19일(을미)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더웠다.

6월 20일(병신) 낮에 소낙비가 내려 빗물이 가득했다.

6월 21일(정유) 날이 더웠다. 가끔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22일(무술) 비가 내렸다.

6월 23일(기해) 구름이 짙게 끼었다.

6월 24일(경자) 구름이 짙게 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25일(신축)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다. 향교에 들어갔다.

6월 26일(임인) 소낙비가 내렸다.

6월 27일(계묘) 얇게 구름이 끼었다.

6월 28일(갑진)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 29일(을사)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에 구름이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6월 30일(병오) 동풍이 불고 구름이 많았다.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잠깐 떨어졌다.

7월 대월(大月).

7월 1일(정미) 동풍이 불고 구름이 많았다. 날씨가 덥지 않았다. 향교에 들어갔다.

7월 2일(무신) 저녁에 이슬비가 내렸다.

7월 3일(기유) 동풍이 불었다.

7월 4일(경술) 저녁에 잠깐 비가 내렸다.

7월 5일(신해) 비가 쏟아졌다.

7월 6일(임자) 아침에 비가 쏟아졌다.

7월 7일(계축) 뜬구름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였다.

7월 8일(갑인) 새벽에 비가 내렸다.

7월 9일(을묘)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다.

7월 10일(병진) 더웠다.

7월 11일(정사) 남풍이 불고 뜬구름이 떠다녔다.

7월 12일(무오) 어제 삼봉포(三峯浦)에 도착했다. 오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다. 소낙비가 잠깐 내렸다. 저녁에 향교에서 돌아왔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7월 13일(기미) 소낙비가 내렸다. 밤에 또 비가 내렸다.

7월 14일(경신) 오후에 겹우(劫雨)가 그쳤다.

7월 15일(신유) 가끔 가랑비가 내렸다.

7월 16일(임술) 청명하고 찌는 듯이 더웠다. 손님에 경치에 감흥하여 지은 시가 있기에 다 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일찍이 주진의 친분을 맺었고	蚤托朱陳好
우리의 우정 만년에 가장 좋았지	交情最晚年
선비 집안의 전형을 잘 지녔고	儒家存典則
인사를 주선하는 데 익숙하였어라	人事慣周旋
옥당에서 오래 윤음(綸音)을 받들었고	玉署承綸久
상대에서 간책을 도맡아 잡았었지	霜臺執簡專
홀연히 창해의 부음이 전해 오니	忽傳滄海訃
소매로 눈물 닦으며 처연히 우노라	反袂泣淒然

7월 17일(계해) 찌는 듯이 더웠다.

7월 18일(갑자)

7월 19일(을축)

7월 20일(병인)

7월 21일(정묘)

7월 22일(무진) 모두 위와 같다.

7월 23일(기사) 저녁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7월 24일(경오) 올해는 모기가 많은데 근래 없던 일이다. 교당(校堂)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심했다. 지금은 비가 내릴 듯한 밤 시간이라 습기와 열기가 조금 심하여 꿈을 꾸다가 자주 깬다. 아침이 되니 구름이 없고 더웠다. 지금은 금주령이 매우 엄하여 재회(齋會) 시에 술을 빚지 못하게 하였다. 저녁에 한바탕 비가 내렸다.

7월 24일(경오) 저녁에 비가 잠깐 내렸다.

7월 25일(신미) 구름이 걷히고 날이 더웠다.

7월 26일(임신) 위와 같다.

7월 27일(계유) 더위가 잠깐 물러갔다.

7월 28일(갑술) 구름이 끼었다.

7월 29일(을해) 저물녘에 비가 쏟아졌다.

7월 30일(병자)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자 비가 그치고 구름이 흩어졌다.

8월 소월(小月).

8월 1일(정축) 구름과 햇볕이 서로 반반 정도였다.

8월 2일(무인) 온화하였다.

8월 3일(기묘)

8월 4일(경진)

8월 5일(신사) 이상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6일(임오) 맑고 온화하였다. 이지사와 함께 곡산봉(曲山峯)에 올랐다가 저물녘에 돌아왔다.

8월 7일(계미) 위와 같다.

8월 8일(갑신) 위와 같다.

8월 9일(을유) 위와 같다. 성산(省山) 사람을 보내 친정을 방문하게 하였는데 아관을 시켜 수행하게 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10일(병술) 맑았다.

8월 11일(정해) 해가 나와 따뜻하였다.

8월 12일(무자) 위와 같다. 고령(高靈)으로 과거 응시 생도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3일(기축) 위와 같다. 횡천(橫川)의 산소에 성묘하였다. 제문에 “인간세상에서 한 번 이별하니 지하세계 천고로다. 구천에서 일어나기 어려우니 한 마디 말도 나오지 않네. 유명이 비록 다르지만 정의는 달지 않으니, 해마다 오늘 저녁이 계속해서 지나가니 마음이 절로 슬프다오. 이 밖에 무슨 말을 하리. 소리 없는 곡을 하니 영령을 곧 들을 것이다.” 하였다.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4일(경인) 약간 흐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15일(신묘) 아침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卽收雲掃.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6일(임진) 찌는 듯이 더웠다. 내가 팔천산(八泉山)에 이사할 계획이 있어 진해 황우집(黃遇鑣)에게 길일을 잡기 위해 배둔 시냇가에 이르렀다. 벗 이국삼(李國森)과 최석유(崔錫裕)를 만나 동행하였다. 생원 황준사(黃竣事)를 만나 돌아오는 길에 산북의 민가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8월 17일(계사)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18일(갑오) 빗방울이 떨어졌다. 밤에 비가 내렸다.

8월 19일(을미) 오후에 비가 그쳤다.

8월 20일(병신) 차가운 비가 잠깐 내렸다.

8월 21일(정유) 빗방울이 떨어졌다. 올해 목화가 처음에는 조금 풍년이더니 결국에는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았다. 1관의 값이 12,13근에 불과하니, 한 필 정도 사는 데 충분했다. 그러

나 지금은 시가[市直]가 폭등하여 쌀[米] 6말 반 혹은 7말, 조(租) 22,23말 혹은 25말이다. 12근의 값이 조 25말이니 값이 매우 높다고 할 만하다. 돈가치가 이와 같아서 온갖 물건이 다 폭등하니 농가의 불행이 심하다. 돈이란 것이 쓸모없는 그릇이고 도둑을 유인하는 물건이지만 본업에 종사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밭의 가을벼를 수확해도 몇 달 동안 진 봄빛을 갚지 못하게 하니, 해마다 이와 같아서 점차 파산하는 데 이르고 만다. 혹자는 세상의 휴척이 다 돈의 용사에 달려 있음을 두려워한다. 잔재주가 있는 무리들이 도로에서 태평가를 부르는데, 본업으로 먹고 사는 백성들은 여항에서 배고픔과 추위로 울부짖는다. 아, 시사를 위로 누가 보고할 수 있겠는가?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하늘을 우러르며 한숨만 쉴 뿐이다. 또 곡산봉(曲山峯)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8월 22일(무술) 온화했다. 향교에 들어갔다. 저물녘에 동북풍이 불고 구름이 짝 찼다.

8월 23일(기해) 구름이 날렸다. 지난번 대구 사림이 감사(監司) 황선(黃璿)¹³³의 비석을 세우고, 진주 사림들이 병사(兵使) 최경회(崔慶會)¹³⁴의 인각(印閣)을 세웠다. 황 감사는 바로 무신난 때 본도의 감사가 되어 폭도들을 막아 충민공(忠愍公)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호는 노정(驚汀)이다. 최 병사는 바로 임진란 때 우병사가 되어 관인을 품고 강에 빠져 죽었는데 두 고을 사림들이 통문을 보내 구조하였다. 황노정의 이름은 선이고, 최 참찬의 이름은 경회이다. 내가 답통(答通)을 지어 진주에 보냈다. “참찬 최공은 옛날 병사의 관인을 던지고 죽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문으로 듣고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 보낸 글을 보니 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물며 임금님께서 슬퍼한 나머지 갑상(匣床)을 꾸미고 명자(銘序)를 지어줬으니 우리 백성들이 누군들 뭘 듯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석으로 봉하여 썩지 않도록 그림으로 그린 일은 실로 변하지 않는 주장에 부합합니다.” 하였다. 대구에도 답통을 보냈다. “때를 걱정하여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신하로서 큰 일이고, 표적 같이 보는 것은 사람의 공통된 의론입니다. 지금 이곳에 보낸 통문을 보니 성대한 일임을 알겠습니다. 동산의 백행을 바라보며 현수의 눈물을 떨굽니다.”

8월 24일(경자) 구름이 뭉치더니 빗방울이 떨어졌다. 집사의 입번(立番)에 관한 규정을 세웠다.

8월 25일(신축)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8월 26일(임인) 가랑비가 내렸다. 저물녘에 갔다.

8월 27일(계묘) 아침에 구름이 끼고 저물녘에 걸렸다. 닭이 두 번 울 때 임(臨)·관(觀)·조(朝)

133 황 감사(黃監司) : (인물) 황선(黃璿, 1682~1728)을 말한다.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성재(聖在), 호는 노정(驚汀)이다. 1721년(경종 1) 승지가 되었다가 노론 4대신과 함께 박필몽(朴弼夢)에게 탄핵을 받아 무장(茂長)으로 유배되었다가 1723년 양덕(陽德)으로 이배되었다. 1725년(영조1)에 복직되었고, 이듬해에 승지·형조참판 등을 거쳐, 1727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어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백지징세(白地徵稅)의 부당함을 상소하였다.

134 최 병사(崔兵使) : 최경회(崔慶會)로 호는 송와(松窩)이고 문장으로 이름이 났다.

세 아이가 종들을 데리고 포도산에 가서 오미과협(午未過峽) 삼봉(三峯) 아래 진손좌(辰巽坐) 신득간과(申得良破)의 언덕에 표를 묻고 술과 포를 가지고 일을 대략 아뢰었다. 낮이 되자 형님이 지사 및 승아(承阿)와 물러나왔다. 일을 마친 뒤에 다시 두루 밋자리를 보고 돌아왔다.

8월 28일(갑진) 서풍이 불고 약한 구름이 걷혔다. 향교에 들어갔다.

8월 29일(을사) 서풍이 불어 구름을 없앴다.

9월 대월(大月).

9월 1일(병오) 새벽에 조금 추웠다. 꿈을 꾸다가 자주 놀라 일어나 생각을 하다가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복된 땅에 머물러 지내매 누대 있어	淹留福土有樓臺
회포를 때때로 좋이 펼칠 수가 있느니	懷抱時時得好開
동쪽 성곽 밥 짓는 연기 아침이요 저녁	東郭炊煙朝復暮
남쪽 교외엔 초동 목동 가고 또 오누나	南郊樵牧去還來
풍류는 가는 곳마다 시흥을 제공하고	風流隨處供詩興
은둔하여 일 쉬매 재앙의 씨 끊었어라	斂退休營絕禍媒
지척 거리 맑은 모습 잠시 못 보였으니	咫尺清光遠暫觀
황량한 산에서 시름겨워 괴로이 배회한다	荒山愁疾苦低徊

날씨가 따뜻하였다. 저녁에 돌아왔다.

9월 2일(정미) 서북풍이 불었다.

9월 3일(무신) 새벽에 하늘에 구름이 모여 있었다. 아버님 연세가 82세인데 감기로 음식을 전혀 못 드시고 계셨다. 밤에 일어나 방황하다가 상태를 살피고 홀로 빈창에 앉아 닭이 울기만을 기다렸다. 오랜 시간이 흘러 새벽에 닭이 처음 울 때 집안일을 추억하니 온갖 상념이 다 떠올랐다. 베개를 베고 자기 어려워 회포를 읊조리다가 절구 한 수를 갑자기 완성했다.

영가 땅 남호 호숫가의 누대는	永嘉南湖湖上臺
올라가면 휘장을 펼칠 필요가 없지	登臨不用供帳開
시 읊어서 가는 세월에 실컷 답하고	哦詩剩答年華去
일 없어 오직 오는 상쾌한 기운 보리	無事唯看爽氣來
외람되이 못난 몸으로 비방 불렀으니	猥以疎慵招謗議
나를 칭찬해 기룡의 빌미 보태지 마오	莫相推借重譏媒
그대에게 가 회포를 꼭 풀고 싶노니	幽懷極欲就君寫
모쪼록 봄바람 불 때면 배회하지 않으리	要及春風不徘徊

갈곡 며느리가 친정에 갔다.

9월 4일(기유) 맑고 온화하였다.

9월 5일(경술) 온화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6일(신해) 위와 같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7일(임자) 약간 흐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8일(계축) 하늘이 맑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9일(갑인) 따뜻하였다.

9월 10일(을묘) 새벽에 꿈에서 깨고 일어나 온갖 감회가 다 일어났다.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입으로 읊조렸다.

낙천 북쪽에 한 가지 매화 망울 터뜨리니
놀라 보고 처음엔 눈이 담장 덮었나 했었지
화창한 언덕에서 햇살 받으며 맑음 사무치고
그윽한 창에서 그윽한 향기 풍겨 오누나
참으로 부처 나라 유마힐의 방 이루었으니
강비의 만 개 옥 단장은 아랑곳하지 않노라
산협으로 옮겨 와서는 그대 오길 생각노니
초췌한 이 몰골로 봄빛을 바래게 하지 마라

一枝梅綻洛川陽
驚見初疑雪覆牆
晴塢承暉清到骨
幽牕映月暗傳香
眞成佛國維摩室
不數江妃萬玉粧
峽裏移來思健步
莫教憔悴損年芳

9월 11일(병진) 온화하였다.

9월 12일(정사)

9월 13일(무오) 향교에 들어갔다.

9월 14일(기미)

9월 15일(경신) 모두 위와 같다.

9월 16일(신유) 가랑비가 내렸다. 성산(省山) 사람이 왔다.

9월 17일(임술) 빗방울이 떨어졌다.

9월 18일(계해) 밤에 비가 잠깐 내렸다.

9월 19일(갑자) 춥고 구름이 끼었다.

9월 20일(을축) 바람이 불고 서늘하였다.

9월 21일(병인) 잠에서 잠깐 깨니 온갖 생각이 다 났다. 문득 앞마을 새벽을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 마침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회포를 기술했다.

중이 왕관을 향해서 골짜기에서 달려가	好向王官谷裏奔
초객으로 속절없이 초흔하지 않게 하오	休教楚客謾招魂
일찍이 회갈했던 것을 지금에 웃노니	如今自笑曾希葛
옛날에 학손했다는 것을 그 뒤라서 알리오	疇昔誰知暗學孫
절벽에서 쏟아지는 찬 물줄기 밤중에 울리고	瀉壁寒泉當夜響
숲 가득 맑은 달빛은 산 위서 뒤집히네	滿林華月聳岑翻
멋집 처마 아래 묵묵히 앉았으며 온갖 상념들	茅簷默坐紛千慮
어찌하면 자네와 함께 한 동이 술을 기울일꼬	安得同君倒一樽

9월 22일(정묘) 칠원의 생원 강주남(姜柱南)을 보내 아상(亞相) 여선옹(呂善膺)의 금산(錦山)의 약속에 전하게 했다.

어릴 적엔 기이한 공 세우리 기약했나니	幼少奇功取次期
천산에서 활 거는 게 더디다 늘 한탄했지	天山常恨掛弓遲
가는 세월 하염없어 덧없는 인생 빠르니	流光荏苒浮生駛
칼 두드리며 비장히 노래하니 눈물 흥진해라	擊鋏悲歌淚滿頤

저녁에 바람이 어지럽게 불었다.

9월 23일(무진) 서늘하였다. 신임 통제사 정찬술(鄭纘述)이 사천에서 본현으로 왔다.

9월 24일(기사) 고인 물에 얼음이 얼었다. 전임 통제사 장태소(張泰紹)가 읍에 가서 숙박하였다.

9월 25일(경오) 따뜻하였다.

9월 26일(신미)

9월 27일(임신)

9월 28일(계유)

9월 29일(갑술) 맑고 온화하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9월 30일(을해) 향교에 들어갔다. 밤에 비가 쏟아졌다.

10월 소월(小月).

10월 1일(병자) 가랑비가 때때로 내렸다.

10월 2일(정축) 산비가 마치 흙비처럼 내렸다.

10월 3일(무인) 맑고 온화하였다. 한중채(韓重采) 군의 만사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그 당시 계대에서 맑은 놀이 벌일 적	溪臺當日辦清遊
아우와 형 시 주고받으며 쉴 줄 몰랐지	弟唱兄酬不自休
유무를 이야기하며 단사 계사 궁구하고	說有說無窮象繫
동이를 조롱하며 《춘추》를 정정하였었지	嘲同嘲異訂春秋

10월 4일(기묘) 따뜻하였다.

10월 5일(경진) 흐렸다.

10월 6일(신사) 위와 같다.

10월 7일(임오) 북풍이 불었다.

10월 8일(계미)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쪽 하늘을 보니 비올 기색이 많았다.

10월 9일(갑신)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10월 10일(을유) 오후에 비가 또 부슬부슬 내렸다. 큰아이가 진해 생원 황우집(黃遇鍊)을 만나 천장(遷葬)하는 날을 정하였다.

10월 11일(병술) 흐렸다. 횡천에서 타작을 감독하였다.

10월 12일(정해) 맑았다. 집으로 돌아왔다가 향교에 들어갔다. 큰아이가 날을 택일하고 돌아왔다.

10월 13일(무자) 바람이 불고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0월 14일(기축) 곡산촌(曲山村) 술 빛는 데 가서 우리 고을 보정(保正)인 김씨 성을 가진

민가에서 술을 마셨다.

10월 15일(경인) 동풍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다.

10월 16일(신묘) 북풍이 불어 구름을 말아 올렸다. 보룡사(寶籠山)에 뒯자리를 폈다.

10월 17일(임진)

10월 18일(계사) 온화하였다. 곡산리(曲山里)¹³⁵에서 균정을 얻어 흙을 제거하여 무덤을 파고 돌아왔다.

10월 19일(갑오) 동풍이 불어 온화하였다. 사시(巳時)에 팔천산(八泉山)에서 파토(破土)하였는데 습한 기운만 있고 다른 문제는 없는데 관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 때문에 씨를 제거한 5근 목화와 장백지(壯白紙) 묶음을 사용했다. 저녁이 되어 출발해서 신산 아래에 머물러 밤을 지냈다.

10월 20일(을미) 온화하였다. 묘시에 하관하였다. 손좌간향(巽坐艮向)에 신득간파(申得艮破)인데 진(辰)으로 3,4푼 들어가닌 곳이니, 당항(堂項) 아래 작은 산이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10월 21일(병신) 저물녘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잠깐 그쳤다. 향교에 들어갔다.

10월 22일(정유) 빗방울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웠다.

10월 23일(무술) 북풍이 불어 추웠다.

10월 24일(기해)

10월 25일(경자)

10월 26일(신축)

10월 27일(임인) 맑고 추웠다.

10월 28일(계묘) 날이 잠깐 풀렸다. 소학(小學)을 권장하는 정사는 실로 임금님이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 고을의 지방관들 중에 준행하는 도가 한 군데도 없다. 국왕을 기망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으니 매우 탄식스럽다.

135 곡산리(曲山里) : (지명)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에 위치한다. 이곳에 봉수대 터가 있다. 곡산에는 구상덕의 재종형(再從兄) 재원(再元)이 살았고, 생원 이여기(李汝杞), 정태방(鄭台方) 등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최운회(崔運會) 모친의 산소가 곡산에 있었다.

10월 29일(갑진) 약간 흐렸다.

10월 30일(을사) 온화하였다.

11월

11월 1일(병오)

11월 2일(정미) 이상 온화하였다.

11월 3일(무신) 몇 점 눈발이 잠깐 날렸다.

11월 4일(기유) 구름이 짙게 끼었다.

11월 5일(경술) 새벽에 비가 내렸다.

11월 6일(신해) 눈이 어지럽게 떨어졌다.

11월 7일(임자)

11월 8일(계축)

11월 9일(갑인) 이상 서풍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0일(을묘) 따뜻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큰아이가 갈곡에 갔다.

11월 11일(병진) 청명하였다.

11월 12일(정사)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춥지 않았다.

11월 13일(무오) 위와 같다.

11월 14일(기미) 약간 흐렸다.

11월 15일(경신) 새벽에 월식(月食)이 있었다. 계속 동남풍이 불고 약간 흐렸다.

11월 16일(신유)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11월 17일(임술) 비가 흥건하게 내렸다.

11월 18일(계해) 청명하였다.

11월 19일(갑자) 북풍이 불고 저녁에 눈이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0일(을축)

11월 21일(병인)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22일(정묘)

11월 23일(무진) 북풍이 불어 추웠다. 집종이 와서 어제 갈곡의 며느리가 왔고, 여종 대옥(大玉)과 그 남편 늦산(麓山)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하기에 향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24일(기사) 구름이 많았다. 큰아이와 석노(石奴)를 진해로 보내 도망친 여종을 추적하였다. 향교에 들어갔다.

11월 25일(경오)

11월 26일(신미)

11월 27일(임신) 이상 추웠다. 큰아이가 옥비를 추적하였으나 종적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오늘 와서 보고하고 돌아갔다.

11월 28일(계유)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

11월 29일(갑술) 북풍이 불었지만 온화하였다.

12월 대월(大月).

12월 1일(을해) 온화하였다.

12월 2일(병자) 날씨가 어제와 같았다. 이때 영읍에서 역질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12월 3일(정축) 구름이 끼었다.

12월 4일(무인) 따뜻하였다.

12월 5일(기묘) 따뜻하고 밤에 비가 내렸다.

12월 6일(경진) 아침에 개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7일(신사) 새벽에 淸저물녘에 흐렸다.

12월 8일(임오) 북풍이 잠깐 불었다.

12월 9일(계미) 약간 흐렸다.

12월 10일(갑신) 구름이 끼었다.

12월 11일(을유) 위와 같다.

12월 12일(병술)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다. 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3일(정해) 위와 같다.

12월 14일(무자) 위와 같다.

12월 15일(기축)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16일(경인) 위와 같다.

12월 17일(신묘) 추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18일(임진) 두포(頭浦) 이 매형(李妹兄)이 개장(改葬)하기 위해 옛 무덤을 파냈다.

12월 19일(계사) 약간 흐렸다. 사또가 고과(考課)에서 상(上)을 받았는데, “재주는 뛰어나며 정사는 치밀하여 혜택이 푸성귀에게까지 미쳤다.”는 내용이라고 하니, 실제보다 칭찬이 지나친 듯하였다.

12월 20일(갑오) 새벽하늘에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떴다. 종일 서북풍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큰딸이 시댁에 가는데 내가 데려갔다. 감치(甘峙)에 이르니 몇 점 눈이 날리다가 그치고 날씨는 그다지 춥지는 않았다. 이날 저물녘에 북풍이 소리를 내며 불었다.

12월 21일(을미) 북풍이 불었지만 춥지는 않았다. 향교에 돌아와 묵었다.

12월 22일(병신) 서풍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12월 23일(정유) 향교에 들어갔다. 밤에 잠깐 비가 내렸다.

12월 24일(무술) 약간 흐리더니 저물녘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향교에 들어갔다.

12월 25일(기해) 비가 지면을 적셨으나 식후에 그치고 구름이 흩어지려 하였다.

12월 26일(경자) 바람도 없이 온화하였다. 아관의(阿觀)의 신행을 꾸러 보내는데 큰아이를 딸려 보냈다.

12월 27일(신축) 새벽에 비가 먼지를 적셨다.

12월 28일(임인) 아침에 날씨가 청명하였다. 서북풍이 잠깐 불고 저물녘에 구름이 많았다.

12월 29일(계묘) 북풍이 불고 구름이 많았다.

12월 30일(갑진) 닭이 아직 울기 전에 눈이 쌓였다가 식후에 북풍이 불고 비가 부슬부슬 내려 눈이 녹아 진흙탕을 만들었다. 올해 농사는 원래 대풍년은 아닌데 시가가 매우 높아 농민들은 손해를 보았다. 지금 쌀은 6말 반, 정조(正租)는 15,16말, 청어는 한 마리에 1전 3,4푼, 대구어는 처음 나왔을 때 1뭉음에 3,4마리이다. 목화 1냥 값이면 1필 남짓 만들 수 있다.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계문을 올려 “국가 비용이 부족하니 영남에 남겨둔 배약간을 운송하여 의금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하였다. 우리 고을은 4동(同) 반을 1월 초에 서울로 수송하기로 하였다. 본교는 유달리 가난한데도 옮겨올에 향교 앞 논 4두락을 매입하였으니 거의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겠다.